

국립국어원 2013-01-29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477-01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연구 책임자

김 중 철

2013. 12. 20.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 기간: 2013년 4월 ~ 2013년 12월(8개월)

2013년 12월 20일

연구 책임자 : 김종철(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책임자 김종철

공동 연구원 민병곤, 박현정, 정희창, 김봉순, 박재현, 주재우

보조 연구원 이관희, 이지수, 박은진, 정재미

조사 수행 기관 TNS Korea



## <국문 초록>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본 연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에 따라 2013년 현재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향후 5년 주기로 이러한 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국어 정책을 입안하고 일반 국민 대상 국어교육의 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조사 도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 기반하여 조사 도구를 설계하되, 조사 실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사 도구를 ‘가’ 형과 ‘나’ 형의 두 종류로 이원화하였다. 또한, 400명을 통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조사 도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기 위하여 실제 인구 분포 비율을 반영하는 2단계 층화 추출(stratified sampling) 방식과 집락 추출(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표집하였다. 이때, 성,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을 설정하여 각 변인별로 실제 인구 분포 비율에 비례하게 조사 대상이 표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다음 주기 조사 결과 사이의 종단적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측정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문항 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 모형 중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여 원 점수가 아닌 척도 점수(scale score)로 각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객관식 영역(듣기, 읽기, 문법)은 이분 반응 모형을, 주관식 영역(말하기, 쓰기)은 등급 반응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통 문항 16개를 기준으로 능력 모수를 추정하여 전체 국어능력 점수도 척도 점수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더해, 조사 결과를 절대적인 지표로 해석하기 위해,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로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등급화하고, 각 영역별로 해당 등급을 구획하기 위한 분할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때에는 24명의 대규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앵고프(Angoff) 방식으로 분할 점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다음 주기 조사와 연계되어 검사 동등화(test equating)를 통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본 조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20% 이상의 가교 문항(anchor item)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조사는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3주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59세의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 대상은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군에 따라 층화 표본 추출(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선정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별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여 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를 수정하였고, 예비 조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 선정 방식, 조사 방식, 주관식 문항의 채점 과정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10주에 걸쳐 20세~59세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도구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가’ 형과 ‘나’ 형으로 구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에 걸쳐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분석하였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대상 집단 3,000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말하기 영역에서 결측치(missing data)를 보인 84명을 제외하고, ‘가’ 형에 응답한 1,416명과 ‘나’ 형에 응답한 1,500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영역별로는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은 1,416명, 쓰기 영역은 1,500명, 읽기와 문법 영역은 2,916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조사 대상 국민의 전체 국어능력 평균 점수는 579.62점(1000점 만점)으로 분석되어 우리 국민의 전체 국어능력은 평균적으로 ‘보통 등급과 기초 등급의 경계선’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등급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우수 등급이 347명(11.9%), 보통 등급이 975명(33.4%), 기초 등급이 1,338명(45.9%), 기초 미달 등급이 256명(8.8%)으로 산출되어, 보통 수준 이상의 국어능력을 지닌 국민이 전체의 45.3%(11.9% + 33.4%)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듣기 영역이 108.88점(150점 만점), 말하기 영역이 69.79점(150점 만점), 읽기 영역이 190.66점(300점 만점), 쓰기 영역이 122.07점(250점 만점), 문법 영역이 88.14점(150점 만점)을 보였다.

또한 각 영역별로 등급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듣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478명(33.7%), 보통 등급이 514명(36.3%), 기초 등급이 288명(20.35%), 기초 미달 등급이 137명(9.7%)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듣기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40명(2.8%), 보통 등급이 470명(33.2%), 기초 등급이 702명(49.5%), 기초 미달 등급이 205명(14.5%)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말하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읽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662명(22.7%), 보통 등급이 1110명(38.1%), 기초 등급이 882명(30.2%), 기초 미달 등급이 262명(9%)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읽기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쓰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55명(3.6%), 보통 등급이 341명(22.7%), 기초 등급이 829명(55.3%), 기초 미달 등급이 275명(18.4%)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쓰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끝으로, 문법 영역은 우수 등급이 522명(17.9%), 보통 등급이 1095명(37.5%), 기초 등급이 949명(32.5%), 기초 미달 등급이 350명(12%)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문법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국어능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 집단,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직업군별로는 육체노동과 기타, 학력군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의 기초와 기초 미달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많아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교육적 대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수립’, ‘후속 연구 진행’, ‘다음 주기 조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한 논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각 조사 대상 집단별로 정책적·교육적 처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역 및 집단을 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의 정책화 방향을 입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되는 심층 연구 과제로 ‘각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각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쓰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 ‘변인별 격차 해소 방안 탐색’, ‘맥락 변인에 대한 심층적 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5년 뒤에 이루어지

는 다음 주기 조사를 위해 20%의 가교 문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전 영역에 걸쳐 공통 문항을 설정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2배수로 개발하는 방향의 조사 도구 수정 방향, 보다 타당한 조사를 위한 조사 방식의 개선 방향을 개진하였다. 이에 더해,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배경 변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결과를 보다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국어능력, 국어능력 평가, 국민의 국어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문법 능력, 척도 점수, 앵고프.

# 차례

## I. 서 론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기대 효과 .....	5

## II. 조사 설계를 위한 사례 검토

1. 국내외 국어능력 조사 사례 검토 .....	7
1.1. 국내의 국어능력 조사 사례 .....	7
1.2.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	14
2. 본 연구의 조사 설계 방향 .....	34

## III.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

1. 조사 도구의 보정 .....	37
1.1. 조사 도구의 축소 설계 .....	37
1.2. 조사 영역별 세부 요소 설정 .....	38
1.3. 조사 도구의 이원적 설계 .....	40
1.4. 조사 영역별 텍스트(담화) 제시 방식 .....	42
1.5. 내용 차원의 조사 도구 수정 .....	45
2. 조사 방식 .....	51
3. 표본 추출 방식 .....	58
3.1. 변인의 설정 .....	58
3.2. 표본 추출 방식 .....	60



# 차 례

## IV. 예비 조사

1. 예비 조사 개관 .....	64
2. 예비 조사의 표본 추출 .....	65
2.1. 지역 변인 .....	65
2.2. 성별 변인 .....	67
2.3. 연령 변인 .....	67
2.4. 직업 변인 .....	67
2.5. 학력 변인 .....	68
2.6. 종합 .....	69
3. 예비 조사 결과의 채점 .....	70
3.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	70
3.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	71
3.3.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 채점의 채점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	77
4. 예비 조사 결과 분석 .....	82
4.1. 영역별 원 점수 분석 .....	82
4.2. 공통 문항 분석 .....	83
4.3. 영역별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	83
4.4. 개별 문항별 세부 분석(문항 카드) .....	88
4.5. 변인별 분석 .....	167

## V. 본 조사 시행

1. 조사 도구 수정 .....	176
1.1. 조사 영역 및 문항의 재배치 .....	176
1.2. 개별 문항별 수정 내용 .....	179
1.3.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조사 도구 확정 .....	182

# 차 례

2. 조사 방식 .....	184
3. 표본 집단 추출 .....	185
3.1. 표본 추출 방식 및 표본 대상 .....	185
3.2. 분석 대상 .....	189
4. 조사 시행 .....	199
5. 문항 채점 .....	199
5.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	199
5.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	199

## VI. 본 조사 결과 분석

1. 본 조사 결과 개관 .....	207
2. 척도 점수 산출 방식 .....	208
2.1. 영역별 원 점수 산출 .....	209
2.2. 영역별 척도 변환 점수 산출 .....	210
3. 문항별 분석 .....	212
3.1.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	212
3.2. 개별 문항별 분석(문항 카드) .....	216
4. 성취 수준 등급화 .....	281
4.1. 성취 수준 등급화의 목적 .....	281
4.2. 성취 수준 등급의 설정 .....	281
4.3. 성취 수준 등급화 방식의 결정 .....	281
4.4. 앵고프를 통한 분할 점수 산출 과정 .....	283

# 차 례

<b>5.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b>	<b>290</b>
5.1. 전체 국어능력의 추정	290
5.2. 영역별 결과 분석	300
① 말하기 영역	301
② 쓰기 영역	312
③ 듣기 영역	324
④ 읽기 영역	330
⑤ 문법 영역	339

## VII. 제언

<b>1.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b>	<b>346</b>
1.1. 영역별 우선순위 결정	346
1.2. 집단별 우선순위 결정	346
1.3. 일반 국민 대상 국어교육의 정책화	347
<b>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b>	<b>348</b>
2.1. 각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348
2.2. 각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349
2.3. 쓰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	349
2.4. 변인별 격차 해소 방안 탐색	349
2.5. 맥락 변인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	349
2.6.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350
<b>3. 다음 주기 조사를 위한 제언</b>	<b>350</b>
3.1. 가교 문항의 선정	351
3.2. 전 영역에 걸친 공통 문항 설정	353
3.3. 다양한 배경 변인 설정	354
3.4. 조사 도구의 개선	355
3.5. 조사 방식의 개선	356

# 차 례

참고 문헌 .....	357
〈Abstract〉 .....	358
[부록 1: 본 조사용 조사 도구 ‘가’ 형] .....	360
[부록 2: 본 조사용 조사 도구 ‘나’ 형] .....	380
[부록 3: 16개 시도별 분석 결과] .....	397

# 표 차례

<표 1> 장소원 외(2012)의 조사 도구 설계 .....	2
<표 2> 본 연구의 연구 범위 .....	3
<표 3> 본 연구의 연구 절차 .....	4
<표 4> 조사 도구 규모의 축소 .....	37
<표 5> 세부 조사 요소별 문항 수 .....	38
<표 6> 영역별 조사 방식 .....	40
<표 7> 조사 도구의 이원적 설계 .....	41
<표 8> 말하기 영역의 담화 유형 .....	42
<표 9> 듣기 영역의 담화 유형 .....	42
<표 10> 읽기 영역(‘가’ 형)의 텍스트 유형 .....	43
<표 11> 읽기 영역(‘나’ 형)의 텍스트 유형 .....	43
<표 12> 읽기 영역의 평가 능력별 텍스트 배분 .....	44
<표 13> 쓰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 .....	44
<표 14> 문법 영역의 언어 자료 단위 .....	44
<표 15> 표준화된 조사 수행 절차 .....	52
<표 16> 직업군별 세부 직업 .....	59
<표 17> 예비 조사의 확인 사항 .....	64
<표 18> 예비 조사의 지역, 성별, 연령대에 따른 표본 추출 .....	65
<표 19> 예비 조사의 지역 규모별 표본 추출 .....	66
<표 20> 예비 조사의 직업군별 표본 추출 .....	67
<표 21> 예비 조사의 직업별 표본 추출 결과 .....	68
<표 22> 예비 조사의 학력군별 표본 추출 목표 .....	69
<표 23> 예비 조사의 학력별 표본 추출 결과 .....	69
<표 24> 예비 조사의 표본 추출 결과 .....	70
<표 25> 말하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	71
<표 26> 말하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	71
<표 27> 말하기 2번 문항 채점 기준 .....	72
<표 28>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	72
<표 29> 말하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	73
<표 30> 말하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	73
<표 31> 쓰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	74
<표 32> 쓰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	74
<표 33> 쓰기 2번 문항 채점 기준 .....	75
<표 34> 쓰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	75
<표 35> 쓰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	76
<표 36> 쓰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	76
<표 37> 주관식 문항 채점자 집단 구성 방식 .....	77
<표 38>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78

<표 39>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78
<표 40>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78
<표 41>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79
<표 42> 말하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분석 .....	79
<표 43>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80
<표 44>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80
<표 45>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80
<표 46>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81
<표 47> 쓰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분석 .....	81
<표 48> 영역별 원 점수 결과(예비 조사) .....	82
<표 49> 공통 문항의 집단별 결과(예비 조사) .....	83
<표 50> 난이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	84
<표 51> 변별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	84
<표 52> 듣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4
<표 53> 듣기 문항의 변별도 분류(예비 조사) .....	85
<표 54> 말하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5
<표 55> 말하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6
<표 56> 읽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6
<표 57> 쓰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7
<표 58> 쓰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7
<표 59> 문법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	88
<표 60> 문법 문항의 변별도 분류(예비 조사) .....	88
<표 61> 듣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	167
<표 62> 듣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	167
<표 63> 듣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	168
<표 64> 듣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	168
<표 65> 듣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	168
<표 66> 말하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	169
<표 67> 말하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	169
<표 68> 말하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	169
<표 69> 말하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0
<표 70> 말하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0
<표 71> 읽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	170
<표 72> 읽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	171
<표 73> 읽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	171
<표 74> 읽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1
<표 75> 읽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1
<표 76> 쓰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	172
<표 77> 쓰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	172
<표 78> 쓰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	172
<표 79> 쓰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3
<표 80> 쓰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3

<표 81> 문법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	173
<표 82> 문법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	174
<표 83> 문법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	174
<표 84> 문법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4
<표 85> 문법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	175
<표 86> 조사 영역 재배치 .....	177
<표 87> 읽기 영역 문항 순서 재배치 .....	177
<표 88> 읽기 영역(‘가’ 형)의 텍스트 유형(본 조사) .....	178
<표 89> 읽기 영역(‘나’ 형)의 텍스트 유형(본 조사) .....	178
<표 90>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182
<표 91>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문항 수정 방향 .....	183
<표 92>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수 .....	184
<표 93> 조사원 교육 일정 .....	185
<표 94> 지역별 할당 집락 수 .....	186
<표 95> 지역별 조사 표본 수 .....	186
<표 96> 학력군별 조사 표본 수 .....	187
<표 97> 직업군별 조사 표본 수 .....	188
<표 98> 조사 대상의 지역별, 지역 규모별 분포 .....	189
<표 99>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	192
<표 100> 조사 대상의 지역 규모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	193
<표 101> ‘가’ 형의 지역별 가중치 .....	194
<표 102> ‘나’ 형의 지역별 가중치 .....	194
<표 103> 조사 대상의 지역 규모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	195
<표 104>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	195
<표 105> 조사 대상의 성별 분포(가중치 부여 전) .....	196
<표 106> 조사 대상의 성별 분포(가중치 부여 후) .....	196
<표 107> 조사 대상의 연령대별 분포(가중치 부여 전) .....	197
<표 108> 조사 대상의 연령대별 분포(가중치 부여 후) .....	197
<표 109> 조사 대상의 직업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	197
<표 110> 조사 대상의 직업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	198
<표 111> 조사 대상의 학력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	198
<표 112> 조사 대상의 학력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	198
<표 113> 주관식 답안 채점단 구성 .....	200
<표 114>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201
<표 115>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201
<표 116> 말하기 1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	202
<표 117>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202
<표 118>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203
<표 119> 말하기 2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	203
<표 120>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204
<표 121>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204
<표 122> 쓰기 1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	205

<표 123>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	205
<표 124>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	205
<표 125> 쓰기 2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	206
<표 126> 본 조사의 영역별 원 점수 .....	210
<표 127> 로지스틱 모형 간의 통계적 검증 .....	210
<표 128> 난이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	212
<표 129> 변별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	212
<표 130> 말하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213
<표 131> 말하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본 조사) .....	213
<표 132> 쓰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214
<표 133> 쓰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본 조사) .....	214
<표 134> 듣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215
<표 135> 읽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215
<표 136> 문법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216
<표 137> 분할 점수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일정 .....	283
<표 138> 참여 전문가 구성 .....	284
<표 139> 본 연구에서 상정한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 .....	285
<표 140> 라운드별 제공 정보 .....	287
<표 141> 본 연구의 분할 점수 산출 .....	288
<표 142> 영역별 분할 점수 범위의 변화 과정 .....	289
<표 143> 각 영역별 및 전체 국어능력의 척도 변환 점수 .....	291
<표 144> 각 영역별 및 전체 국어능력의 척도 변환 점수 상관관계 .....	291
<표 145> 전체 국어능력의 수준 등급별 분포 .....	292
<표 146> 전체 국어능력의 성별 차이 .....	293
<표 147>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293
<표 148> 전체 국어능력의 연령대별 차이 .....	295
<표 149>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295
<표 150> 전체 국어능력의 지역 규모별 차이 .....	296
<표 151>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296
<표 152> 전체 국어능력의 직업군별 차이 .....	297
<표 153>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298
<표 154> 전체 국어능력의 학력군별 차이 .....	298
<표 155>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299
<표 156> 말하기 영역의 기술 통계 .....	301
<표 157> 말하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01
<표 158> 말하기 영역의 성별 차이 .....	306
<표 159>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07
<표 160> 말하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	307
<표 161>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08
<표 162> 말하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	308
<표 163>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09
<표 164> 말하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	310



<표 165>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10
<표 166> 말하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	311
<표 167>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11
<표 168> 쓰기 영역의 기술 통계 .....	312
<표 169> 쓰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13
<표 170> 쓰기 영역의 성별 차이 .....	318
<표 171>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18
<표 172> 쓰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	319
<표 173>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19
<표 174> 쓰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	320
<표 175>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20
<표 176> 쓰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	321
<표 177>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21
<표 178> 쓰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	322
<표 179>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22
<표 180> 듣기 영역의 기술 통계 .....	324
<표 181> 듣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24
<표 182> 듣기 영역의 성별 차이 .....	325
<표 183>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25
<표 184> 듣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	326
<표 185>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26
<표 186> 듣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	327
<표 187>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27
<표 188> 듣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	328
<표 189>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28
<표 190> 듣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	329
<표 191>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29
<표 192> 읽기 영역의 기술 통계 .....	331
<표 193>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31
<표 194> 읽기 영역의 성별 차이 .....	332
<표 195>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32
<표 196> 읽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	333
<표 197>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33
<표 198> 읽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	335
<표 199>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35
<표 200> 읽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	336
<표 201>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36
<표 202> 읽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	337
<표 203>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37
<표 204> 문법 영역의 기술 통계 .....	339
<표 205> 문법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39
<표 206> 문법 영역의 성별 차이 .....	340

<표 207>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40
<표 208> 문법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	341
<표 209>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41
<표 210> 문법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	342
<표 211>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42
<표 212> 문법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	343
<표 213>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43
<표 214> 문법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	344
<표 215>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44
<표 216> 영역별 수준 등급 비율 .....	346
<표 217> 영역별 기초+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 .....	347
<표 218> 영역별 사고 문항 선정 .....	352
<표 219> 사고 문항의 변별도 .....	352
<표 220> 각 영역별 원 점수 상관관계 .....	353
<표 221> 맥락 변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 예시 .....	355
<표 222> 시도별 기술 통계 결과 .....	397
<표 223>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의 유의도 .....	398
<표 224> 16개 시도의 국어능력 순위 .....	398
<표 225> 16개 시도의 전체 국어능력 등급 분포 .....	402
<표 226> 16개 시도의 듣기 영역 등급 분포 .....	403
<표 227> 16개 시도의 말하기 영역 등급 분포 .....	404
<표 228> 16개 시도의 읽기 영역 등급 분포 .....	405
<표 229> 16개 시도의 쓰기 영역 등급 분포 .....	406
<표 230> 16개 시도의 문법 영역 등급 분포 .....	407

# 그림 차례

<그림 1> 쓰기 영역에서 제공되는 원고지 .....	40
<그림 2> 조사원 교육 내용 ① .....	53
<그림 3> 조사원 교육 내용 ② .....	54
<그림 4> 조사원 교육 내용 ③ .....	55
<그림 5> 조사원 교육 내용 ④ .....	55
<그림 6> 조사원 명찰 .....	56
<그림 7> 조사 안내 리플렛 .....	57
<그림 8> 피조사자의 변인 기입 방식 .....	60
<그림 9> 2단계 집락 추출 방식 .....	61
<그림 10> 확률 비례 집락 추출 방식 .....	62
<그림 11> 2단계 집락 추출 방식 .....	62
<그림 12> 성취 수준 등급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285
<그림 13> 각 영역별 및 총점의 수준 등급별 분포 .....	292
<그림 14> 고등학생의 국어능력 수준 변화 추이(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	293
<그림 15>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294
<그림 16> 고등학생의 국어능력 수준의 성별 차이(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	294
<그림 17>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295
<그림 18>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296
<그림 19> 고등학생의 국어능력 수준의 지역 규모별 차이(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	297
<그림 20>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298
<그림 21>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299
<그림 22> 국어능력의 변인별 평균 차이 .....	300
<그림 23> 말하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01
<그림 24> 말하기 영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 .....	302
<그림 25>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07
<그림 26>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08
<그림 27>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09
<그림 28>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10
<그림 29>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11
<그림 30> 말하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312
<그림 31> 쓰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13
<그림 32> 말하기 영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 .....	313
<그림 33> 쓰기 문항 1 上 예시 답안 .....	314
<그림 34> 쓰기 문항 1 中 예시 답안 .....	314
<그림 35> 쓰기 문항 1 下 예시 답안 .....	315
<그림 36> 쓰기 문항 2 上 예시 답안 .....	315
<그림 37> 쓰기 문항 2 中 예시 답안 .....	316
<그림 38> 쓰기 문항 2 下 예시 답안 .....	316

<그림 39> 쓰기 문항 3 上 예시 답안 .....	317
<그림 40> 쓰기 문항 3 中 예시 답안 .....	317
<그림 41> 쓰기 문항 3 下 예시 답안 .....	318
<그림 42>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19
<그림 43>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20
<그림 44>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21
<그림 45>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22
<그림 46>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23
<그림 47> 쓰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323
<그림 48> 듣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24
<그림 49>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25
<그림 50>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26
<그림 51>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27
<그림 52>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28
<그림 53>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29
<그림 54> 듣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330
<그림 55>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31
<그림 56>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32
<그림 57> 2008 문해력 검사의 성별 차이 .....	333
<그림 58>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34
<그림 59> 2008 문해력 검사의 연령대별 차이 .....	334
<그림 60>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35
<그림 61>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36
<그림 62>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37
<그림 63> 2008 문해력 검사의 학력별 차이 .....	338
<그림 64> 읽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338
<그림 65> 문법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	339
<그림 66>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340
<그림 67>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	341
<그림 68>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	342
<그림 69>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343
<그림 70>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	344
<그림 71> 문법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345
<그림 72> 2013년도 국제성인역량조사 홈페이지 .....	350
<그림 73> 전체 국어능력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	399
<그림 74> 듣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	400
<그림 75> 말하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	400
<그림 76> 읽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	401
<그림 77> 쓰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	401
<그림 78> 문법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	402
<그림 79> 국어능력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	403
<그림 80> 듣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	404

<그림 81> 말하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	404
<그림 82> 읽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	405
<그림 83> 쓰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	406
<그림 84> 문법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	407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생활 각 분야에서 국민의 국어능력이 2013년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조사<sup>1)</sup>하여,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산출함으로써 관련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2013년의 조사를 ‘원년 연구’로 삼아 향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정례화하고 변화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조사 시행의 근거는 국어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 기본법 제9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1. 4. 14.).”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어 기본법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기본 계획의 각 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한 조사가 최소 5년을 기점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실시해 온 바, 김문오 외(2005), 김성규 외(2006), 김동환 외(2008), 장경희 외(2009) 등이 그 성과이다. 또한, 박재현 외(2008), 윤여탁 외(2009)에서는 국군 장병과 교사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국어능력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조사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업군이라는 점, 조사 도구의 개발 및 조사 방식의 수립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실제 대 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조사의 정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국어 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어 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수행하고, 그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국어능력’의 개념에 대해 살피고 그 하위 요소를 추출하여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영역에 기반하여 어떠한 도구로

1) 이 사업의 정확한 과제 명칭은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이다. 그러나 ‘평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교육적 의도의 범위 내에서 성취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평가’라는 용어 대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조사 시행 과정을 고려할 때에도 ‘평가’라는 용어보다는 ‘조사’라는 용어가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물론, 국어 기본법 제1장 제3조에서는 ‘국어능력’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어 기본법 제2조에서는 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으로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국어능력의 검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밖에 국어 사용에 관한 사항의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대략적인 국어능력 조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그렇지만, 국민의 국어능력을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어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해당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구안 등 보다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교육 및 국어 교육, 교육 평가 등의 다양한 이론과 국내외의 다양한 언어 조사 및 평가 방식과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2013년에 시행되는 이번 연구는 실상 장소원 외(2012)에서 이미 이루어진 ‘기초 연구’를 실행하는 차원의 연구이다. 장소원 외(2012)에서는 이미 국어능력 조사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국내외의 다양한 국어능력 조사 방식을 검토하여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도구(조사 문항)를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원 외(2012)에서 제안한 조사 도구를 전제로 하여 실행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역	문항 수	시간	배점
읽기	20문항	40분	250점
문법	15문항	15분	150점
쓰기	3문항	40분	400점
듣기	12문항	15분	250점
말하기	4문항	20분	250점
누계	54문항	130분	1,300점

<표 1> 장소원 외(2012)의 조사 도구 설계

## 2. 연구의 범위

그런데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 제안한 조사 도구 및 방식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를 시행하고 정례화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따른다.

2) 한편, 민현식(2002)에서는 국어능력이 담화(화법) 능력, 독해 능력, 작문 능력, 규범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명완(2002)에서는 국어능력을 ‘고등 수준의 창조적 사고 능력’으로 파악하고, 이에 추가하여 국어 교육에서 지도의 첫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능력임을 진술하고 있다. 국어능력은 사고 능력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어 교육 영역을 초월하는 관점에서 규정하면서도, 학교 국어 영역과의 상관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자발적 의지가 없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30분에 걸쳐 54개 문항(주관식 문항 포함)을 풀이하게 하는 일은, 실제 조사 시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장소원 외(2012)의 조사 도구는 비체계적으로 표집된 9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개별 조사 문항들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다. 셋째, 조사 시행을 염두에 두고 조사 도구를 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이 보완되지 않았다. 넷째,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례적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조사 도구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섯째, 해당 도구를 통해 조사된 결과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결과 해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원 외(2012)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열거한 제한점들을 해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상정하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 범위	구체적 시행 방안
내용 차원의 조사 도구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교육 전공자들의 참여로 타당도 높은 조사 도구의 재설계</li> <li>■ 체계적으로 표집된 40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시행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보정</li> </ul>
시행 차원의 조사 도구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도구의 재설계</li> <li>■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common item non-equivalent design) 방식의 조사 도구 설계</li> </ul>
대표성을 갖춘 조사 대상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평가 전문가(서울대 교육학과 박현정 교수)의 공동 연구원 참여, 전문 조사 기관(TNS Korea)과의 공조 체제 유지</li> <li>■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모두에서 2단계 층화 표본 추출로 조사 대상 집단의 대표성 확보</li> </ul>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조사 기관(TNS Korea)의 조사원 집단을 활용한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 시행</li> <li>■ 예비 조사를 통해 조사 시행상의 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수립</li> </ul>
조사 정례화를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주기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간 가교 문항의 선정</li> <li>■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가교 문항의 선정</li> <li>■ 5년 주기 조사 결과의 추이 분석을 위한 방안 마련</li> </ul>
국어능력 수준의 등급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li>■ 대규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국어능력 수준의 등급화(Angoff 평정 방식)</li> <li>■ 5년 주기 조사 결과의 추이 분석을 위한 지표 제시</li> </ul>

조사 결과의 분석 및 관련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조사 영역별로 지표화하여 제시</li> <li>■ 조사 대상의 변인별(성별, 연령대별, 지역 규모별, 학력군별, 직업군별)로 조사 결과의 해석</li> <li>■ 관련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및 제언</li> </ul>
-------------------------	---

<표 2> 본 연구의 연구 범위

이러한 연구 범위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8개월에 걸친 연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다.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조사 도구의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조사에서 제안한 조사 도구의 문항 내용 차원의 보정</li> <li>■ 기초 조사에서 제안한 조사 도구의 조사 시행 차원의 보정</li> <li>■ 조사 도구 재설계</li> </ul>
▽	▽
조사 도구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조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도구의 재설계</li> <li>■ 총량 평가를 지향하기 위해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 방식으로 조사 도구의 이원적 설계</li> </ul>
▽	▽
조사 시행 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달된 조사원을 통한 가구 방문 1:1 개별 조사 방식</li> </ul>
▽	▽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 설정</li> <li>■ 인구 분포 통계를 활용한 2단계 층화 표본 추출(stratified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보</li> </ul>
▽	▽
예비 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 × 2개 집단(4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 실시</li> <li>■ 수도권을 대상으로, 층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조사 대상 선정</li> </ul>
▽	▽
예비 조사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도구의 적합성 분석</li> <li>■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성 분석</li> <li>■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식의 타당성 분석</li> </ul>
▽	▽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보완</li> <li>■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도 확인</li> <li>■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인</li> </ul>

▽	▽
본 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명 × 2개 집단(3,00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 실시</li> <li>■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2단계 층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조사 대상 선정</li> </ul>
▽	▽
본 조사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국어능력의 결과 분석</li> <li>■ 영역별 결과 분석</li> <li>■ 변인별 결과 분석</li> </ul>
▽	▽
국어능력 수준의 등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전문가 협의회(Angoff)를 통해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절대 지표 도출</li> <li>■ 전체 국어능력, 영역별, 변인별의 수준 등급 분석</li> </ul>
▽	▽
가교 문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주기 국어능력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영역별 가교 문항 선정</li> </ul>
▽	▽
최종 결과 해석 및 관련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조사 영역별 세부 결과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li> </ul>

<표 3> 본 연구의 연구 절차

### 3.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가 연구 의의와 목적에 부합되게 실현되면, 장기적·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타당도 높은 조사 도구와 신뢰도 높은 조사 방식을 통해 2013년 현재를 기점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음은 물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세부 조사 영역별로도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조사할 수 있어 관련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절대적인 지표로 등급화·모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국어능력 진단 및 검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5년 주기의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국어능력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한 조사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내에서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험(KBS 한국어능력 시험, 국어능력 인증 시험 등)과 그 외 각종 국어 시험(초·중등학교 국어 시험, 공무원 시험, 공직 적성 평가의 언어 논리 영역, 의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언어 추론 영역 등)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국어능력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척박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 및 평가 실행 방식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국어능력 및 국어능력 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관련 학계에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조사 설계를 위한 사례 검토

### 1. 국내외 국어능력 조사 사례 검토

일반 국민의 국어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이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본 연구와 같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한 국내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 설계를 위해서는 김문오 외(2005), 김성규 외(2006), 김동환 외(2008) 등의 기존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피면서도 조사의 조건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도구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조사 설계에 앞서 국내외의 국어능력 조사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사 설계의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국어능력을 조사하고자 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방법론의 경향을 파악한 후, 각각의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의 조사 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sup>3)</sup>.

본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장소원 외(2001)의 기초 연구에서도 이미 국어능력 조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한 바 있다<sup>4)</sup>. 그러나 장소원 외(2001)의 경우는 각각의 사례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만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실제 방법론 설계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국내외의 보다 다양한 국어능력 조사 사례들을 방법론의 측면에 주목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 설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sup>5)</sup>.

#### 1.1. 국내외 국어능력 조사 사례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외 국어능력 조사 사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박재현 외(2008), 윤여탁 외(2009)와 같이 군인이나 교사와 같은 특정 집단의 특화된 국어능력을 조사한 사례들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국민의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3) 이론 논의들에서 언급된 다양한 조사 방법론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가능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조사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론 연구에서 제안된 모든 방법론의 타당성과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국어능력 측정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조사 도구, 조사 방법, 평가 시간, 점수 체제, 결과 처리, 등급 설정 등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4) 장소원(2011)에서는 이론 연구와 평가 사례들을 구분하지 않고 국어능력 측정과 관련한 연구들을 연구사로서 검토하였다. 국내 기존 연구와 관련하여 검토한 것은 앞서 언급한 김성규(2006), 김동환(2008), 장경희(2009)의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국외의 일곱 가지 평가 사례들(CCSS, DeSeCo, 유럽 공통 참조 기준, 프랑스의 자국어 평가, 중국어능력 평가, 일본어 능력 평가, Cill)을 검토했는데, 조사 방법론의 측면에서 구체화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내외의 국어능력 측정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실제 조사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5) 국어능력 측정 사례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능력 측정이나 검사의 성격을 띠는 것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의 성격을 띠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예비적 고찰 부분에서는 각각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조사 도구와 조사 방법 설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므로, 전자의 사례들만을 검토하지 않고 국어능력을 조사, 평가하고자 한 사례들을 두루 검토하였음을 밝혀둔다.

다. 본 연구는 후자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례들을 (1) 조사(평가) 제도 개요, (2) 조사 체제(조사 대상, 조사 시기, 표본 크기,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자료 수집 도구, 조사 결과 처리) 및 평가 체제(평가 방식, 영역 설정, 문항 수, 평가 시간, 평가 주기, 점수 체제, 채점 방식, 등급 설정), (3)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2008년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조사 개요		국민의 기초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실에 기초한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문해 교육 정책 개발의 기반 자료로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체제	▪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 조사 시기	2008년 9월 9일 - 10월 28일(7주)										
	▪ 표본 크기	총 5,212가구 12,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7,033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음.										
	▪ 표본 추출 방법	4단 층화 확률 비례 추출법										
	▪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도구	<p>-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p> <p>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현대 사회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용적이고 교양적인 글, 서식 등의 다양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읽고 쓰는 능력(기초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질문지 문항 설계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p> <table><tr><td></td><td>내용</td><td>과정(인지)</td><td>상황</td></tr><tr><td>하위 요소</td><td>·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td><td>·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td><td>·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td></tr></table>					내용	과정(인지)	상황	하위 요소	·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	·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
	내용	과정(인지)	상황									
하위 요소	·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	·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	·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 조사 결과 처리	문해력 점수는 크게 ‘문해력 부진’과 ‘기초 문해력 보유’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0수준’, ‘1수준’, 후자를 2, 3, 4수준으로 나누어 모두 5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p>- 문해력에 국한된 평가로, 전체적인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표본 추출이나 통계 처리와 같은 조사 방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p> <p>-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이어지는 조사 진행 과정과 절차를 참고할</p>										

	<p>수 있다.</p> <p>- 문항 개발의 기본 틀은 읽기 문항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p>
--	--

##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평가 제도 개요		재단 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주관하며,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총체적인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 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																	
	■ 영역 설정	‘기초 영역’과 ‘이해·표현 영역’을 나누고, 기초 영역은 다시 어휘력과 어문 규정으로, 이해·표현 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진다. <table border="1"><tr><td colspan="6">기초 영역: 어휘력, 어문 규정</td></tr><tr><td colspan="6">이해·표현 영역: 듣기, 읽기, 쓰기</td></tr></table>						기초 영역: 어휘력, 어문 규정						이해·표현 영역: 듣기, 읽기, 쓰기					
	기초 영역: 어휘력, 어문 규정																		
	이해·표현 영역: 듣기, 읽기, 쓰기																		
	■ 문항 수 (영역별)	전체 90문항으로 구성. 객관식 80문항(5지 선다), 주관식 10문항. <table border="1"><tr><td colspan="6">영역별 문항 수: 객관식(주관식)</td></tr><tr><td colspan="6">어휘: 15(2), 어법: 5, 어문 규정: 5, 듣기:15(2), 읽기: 40(1), 쓰기: 10(5)</td></tr></table>						영역별 문항 수: 객관식(주관식)						어휘: 15(2), 어법: 5, 어문 규정: 5, 듣기:15(2), 읽기: 40(1), 쓰기: 10(5)					
	영역별 문항 수: 객관식(주관식)																		
	어휘: 15(2), 어법: 5, 어문 규정: 5, 듣기:15(2), 읽기: 40(1), 쓰기: 10(5)																		
	■ 평가 시간	1교시 60분(어휘, 어문 규정, 읽기: 객관식 57문항), 2교시 70분(듣기, 어법, 쓰기, 객관식 23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총 130분 동안 진행되며 이중 30분은 듣기 평가가 이루어진다.																	
■ 평가 주기	연 6회 실시																		
■ 점수 체제	총 200점으로 객관식은 2점씩 동일 배점이며, 주관식은 4점이되 차등 배점(A 4점, B 3점, C 2점, D 1점)한다.																		
■ 채점 방식	각 답안지의 채점은 객관식은 OMR 리더기로 채점 후 150점 이상의 고득점자와 100점 이하의 저득점자에 한해서는 역채점 방식을 취한다. 주관식은 동일 답안에 대해 3차에 걸친 채점 실시 후 오차율 30%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한다.																		
■ 등급 설정	수준 판정 방식은 절대 평가 방식이다. 등급제이며,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등급을 구획한다. <table border="1"><tr><td>급수</td><td>1급</td><td>2급</td><td>3급</td><td>4급</td><td>5급</td></tr><tr><td>총점</td><td>200~185</td><td>184~169</td><td>168~153</td><td>152~137</td><td>137미만~121</td></tr></table> *121점 미만은 급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총점	200~185	184~169	168~153	152~137	137미만~121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총점	200~185	184~169	168~153	152~137	137미만~121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총체적인 국어능력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면서도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다.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방식을 보완한 평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등급 산정 방식, 문항 구성 방식, 실제 평가에 있어 평가 영역의 배																	

	<p>치 등을 참고할 수 있다.</p> <p>- 쓰기 채점에 있어 최상위 수준의 채점과 최하위 결과를 얻은 채점자의 답안을 상호 교환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p>
--	--

## □ KBS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제도 개요		KBS 한국어연구회와 자문위원들이 출제, 감수, 관리를 맡고 KBS 미디어가 주관하는 시험이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언어생활에 요구되는 국어 사용 능력과 국어 관련 교양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 선다 객관식.					
	■ 영역 설정	평가 영역은 문법, 이해, 표현, 창안, 국어문화 영역으로 나뉜다.					
		영역 구분		주요 내용			
		문법 영역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이해 영역 (듣기·읽기)		어휘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리·상상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논리적 이해 능력 등			
		표현 영역 (쓰기·말하기)		보고서 작성 및 발표·토론 능력, 협상 및 대인 설득 능력, 논증 능력, 표준 화법 등			
		창안 영역 (창의적 언어 능력)		창의적 표어 제작, 제목 추출, 아이디어 창안, 수사법, 고사성어, 속담 활용 능력 등			
	국어문화 영역 (국어교과의 교양 지식)		국어 상식 및 국어문화에 대한 교양적 이해 능력				
	■ 문항 수 (영역별)	전체 100문항. 전체 문항 수와 각 영역 문항 수의 대비를 기준으로 보면, 문법 영역에서 30%, 이해 영역에서 40%, 표현 영역에서 10%, 창안 영역에서 10%, 국어 문화 영역에서 10%가 출제된다.					
	■ 평가 시간	2시간					
■ 평가 주기	2004년 8월 8일에 전국 9개 도시에서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연 2회 실시되었는데, 2006년부터는 연 4회 시행되고 있다.						
■ 점수 체제	990점 만점. 영역별 성취도와 백분위 점수, 환산 점수를 부여.						
■ 채점 방식	각 답안지의 채점은 객관식은 OMR 리더기로 채점하여 처리한다.						
■ 등급 설정	등급 구분은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성적이 2년 간 유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환산 점수는 일종의 총체적 국어능력 지수로서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해 부여한다. 등급표는 10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고, 예언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발표하였다.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이 다섯 등급으로 구획된다.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총점	900점 이상	800~899	700~799	600~699	500~599	
본 연구제 주는		- 말하기와 듣기의 통합 문항을 구성하고자 한 부분이 특징적이다. 그					



시사점	<p>그러나 실질적인 말하기와 쓰기 행위를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p> <p>- 보다 폭넓은 의미의 문화 능력을 포함하는 수준에서의 국어능력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국어문화 영역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국어능력에 대한 개념 정의나 조사 도구의 영역 설정에도 시사점을 준다.</p> <p>- 영역 구분, 환산 점수 체제, 등급 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p>
-----	--

#### □ 공직적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언어 논리’ 영역

평가 제도 개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PSAT의 3대 평가 영역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인데, 이 중 ‘언어 논리’영역이 국어능력 평가와 관련된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 선다형 객관식.		
	■ 영역 설정	평가 영역은 ‘이해력, 추론력, 분석/종합력, 평가력’으로 나뉜다.		
		이해력 영역	제시된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추론력 영역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	
		분석/종합력 영역	정보를 분석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평가력 영역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 논증의 타당성, 논거의 적절성 등의 기준에 의해 글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	
	■ 문항 수 (영역별)	전체 40문항		
	■ 평가 시간	90분		
	■ 평가 주기	연 1회		
■ 점수 체제	100점 만점			
■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 등급 설정	이 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피험자들 간의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나머지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영역의 점수를 합해 1차 시험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특정 직업군에 요구되는 고도의 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국어능력의 수준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 - 총체적인 국어능력이 아니라 이해 영역에 한정된 평가이다. 이해 영역의 평가에 있어 추론력, 분석 종합력, 판단력과 같은 평가 요소와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 □ 의치학교육 입문검사(MEET/DEET) ‘언어 추론’ 영역

평가 제도 개요		의·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공동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행한다. 의학/치의학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세부 배경지식 없이도 주어진 지문에서 제공된 정보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 선다형 객관식.
	■ 영역 설정	의치학교육 입문검사의 언어 추론 영역에서는 크게 ‘어휘 파악’,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되며, 내용 영역은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 문항 수 (영역별)	MEET: 객관식 40문항, DEET: 객관식 30문항
	■ 평가 시간	MEET: 90분, DEET: 80분
	■ 평가 주기	연 1회
	■ 점수 체제	100점 만점. 정답 문항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 점수(T-점수)를 사용한다.
	■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을 OMR 리더기로 채점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직업군에 요구되는 고도의 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총체적인 국어능력이 아니라 이해 영역에 한정된 평가이다. 이해 영역과 관련한 평가 범위 및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li> <li>- 여러 검사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점수(T-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만하다. T-점수는 표준편차를 단위로 하므로 동간성이 확보되어 표준점수상의 차이가 원 점수상의 차이에 비례하므로, 성취의 상대적 수준을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i> </ul>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 제도 개요		국립국제교육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주관하는 평가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 혼용

평가체제

문제 유형

선택형 문항(4지 선다 객관식) /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 문장/문단 완성하기, 문장/문단 쓰기: 3~5문항

· 작문(초급 150자~300자, 중급 400~600자, 고급 700~800자): 1문항

영역 설정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

문항 수  
(영역별)

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구성

교시	제1교시			제2교시		계
영역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4영역
유형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 서답형
문항수	30	4~6	10	30	30	104~106
배점	100	60	40	100	100	400

평가 시간

총 3시간 (1교시 어휘·문법, 쓰기 : 90분 / 2교시 듣기, 읽기: 90분)

평가 주기

연 4회 (1, 4, 7, 10월)

점수 체제

각 영역별 100점 씩 총 400점 만점

채점 방식

한국어 전공 교수, 교육 평가 전문가, 전산 전문가 등으로 채점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공란이나 복수 표기 등 재확인이 필요한 답안지는 채점 위원회에서 정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채점 위원에 의한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채점 완료 후 OMR 판독기를 사용하여 채점한다.

– 채점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2회의 확인 채점을 통하여 채점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등급 설정

시험의 수준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수준 : 초급, 중급, 고급

– 시험 등급 : 6개 등급 (1급~6급)

시험 수준	초급		중급		고급	
시험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 등급 결정					

\* 전 영역(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평균 점수가 급별 합격 점수에 도달하고, 평가 영역별 과락 점수가 없어야 합격 판정을 내린다.

급수	시험 등급	합격 점수	과락 점수
초급	1급	50점 이상	40점 미만
	2급	70점 초과	50점 미만
중급	3급	50점 이상	40점 미만
	4급	70점 초과	50점 미만
고급	5급	50점 이상	40점 미만
	6급	70점 초과	50점 미만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능력 시험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시험 사례들과는 구분된다.</li> <li>- 채점 위원의 구성 방식이나 반복 채점을 통해 채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쓰기 영역의 채점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li> <li>- 말하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한계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전 영역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li> </ul>
--------------	--

국내의 국어능력 조사와 관련하여 살펴본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국민의 문해력 조사는 검토한 사례들 중 유일하게 피조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측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조사는 이희수 외(2001)의 선행 조사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이다. 이는 총체적인 국어능력에 대한 조사와는 거리가 있지만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둘째, 그 외 나머지 례들은 피조사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다. 이중 국어능력인증시험(ToKL)과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민의 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공인 인증 시험이다. 특히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는 박재현(200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듣기, 말하기 등의 활동이 통합된 문항을 설계하고자 했다는 점, 기능적 차원을 넘어선 문화 능력까지 평가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지필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말하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이다.

셋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경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앞의 두 사례들과 구분된다. 지필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쓰기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쓰기 평가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이 시험도 말하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끝으로, 공직 적성 평가 언어 논리 영역과 의치학 입문 검사의 언어 추론 영역은 특정 직업군에 요구되는 고도의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총체적인 국어능력이 아니라 이해 영역에 한정된 평가이므로 본 연구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해 영역에 있어 평가 내용 요소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1.2.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들은 주로 김왕규 외(2001), 윤희원 외(2010) 등과 같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 평가 개발 연구들의 참고 자료로 검토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자국어능력 평가 사례들을 다루면서, 말하기 시험 도입의 필요성이나 의사소통의 하위 범주들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자국민의 국어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한 것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비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 사례

들의 조사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sup>6)</sup>.

## ① 미국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 □ 성인 문해력 조사 NAAL(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조사 제도 개요		미국 국립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가 주관한 조사로, 전국적 차원에서 16세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문해력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체계	■ 조사 대상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성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 조사 시기	1992년, 2003년 실시
	■ 표본 크기	약 19,000명. 미국 거주 인구 중 3만 5천 개 이상 가구를 선택해 이 가구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성인 1만 8천 명 이상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시행하고 전국 107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중 1,200명을 추출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 표본 추출 방법	4단 층화 확률 비례 추출법
	■ 조사 방법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조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세 가지 종류의 문해력을 평가했는데, 문장 이해력(prose literacy), 문서 작성 능력(document literacy), 수리력(quantitative literacy)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처리	점수를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등급인 우수(Proficient), 보통(Intermediate), 기초(Basic), 기초 미달(Below Basic))으로 나누었다. 또한 1992년과 2003년의 결과 비교를 통해 국가 수준의 문해력의 변화를 비교하여 조사 대상의 문해력과 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 수준의 관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들의 문해력 정도 평가, 주별 성인 문해력 평가, 성인이 건강 관련 정보나 서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정도, 성인의 기초 독해력 평가, 문자와 숫자를 구별하고 단순한 산문체나 서류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의 최소 문해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문해력을 측정한 대규모 조사로서 조사 대상 선정 방법이나 조사 절차, 통계 처리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li> <li>- 조사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변인설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다.</li> <li>-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설계와 통계적 기법들을 참고할 수 있다.</li> </ul>

6) 중국의 사례로 ‘중국어능력 평가(PSC, 普通話水平測試)’와 일본의 ‘국어력 검정’도 함께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장소원 외(2001)에서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국외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평가 제도 개요		미국 국립 교육 통계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주관하는 미국 내 주(州)별로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한 시험이다.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므로 개인이나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다. 성(性), 계층, 인종에 따른 비교를 통해 교육 격차를 파악한다. 수학과 읽기는 자주 시험을 치르고, 쓰기·과학·미국사·사회·지리·예술 등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며 그 시기는 2~3년으로 균일하지 않다. 행렬 표집(matrix sampling)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구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국어능력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역은 읽기와 쓰기 영역이다.				
평가방법	■ 평가 방식	표본이 되는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4, 8, 12학년 학생들이고, 대상자들은 표집을 통해 선발된다. 표집 방법은 학생 수, 성비, 인종적 비율 등을 고려해 무선 추출법을 따른다. 조사는 하루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역 설정	<table><tr><td>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td></tr><tr><td>문항의 성격: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질문의 유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td></tr><tr><td>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td></tr><tr><td>문항의 성격: 설득/설명/문학적인 글쓰기 질문의 구성: 서술형(각 쓰기 목적별 3문항 출제, 각각 1문항씩 선택) 평가 기준: 내용의 깊이와 다양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td></tr></table>	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	문항의 성격: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질문의 유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	문항의 성격: 설득/설명/문학적인 글쓰기 질문의 구성: 서술형(각 쓰기 목적별 3문항 출제, 각각 1문항씩 선택) 평가 기준: 내용의 깊이와 다양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
	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					
	문항의 성격: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질문의 유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					
	문항의 성격: 설득/설명/문학적인 글쓰기 질문의 구성: 서술형(각 쓰기 목적별 3문항 출제, 각각 1문항씩 선택) 평가 기준: 내용의 깊이와 다양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					
■ 평가 시간	총 90분 소요					
■ 평가 주기	세 유형의 NEAP 중 주 단위의 NEAP는 2년을 주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의해 Title I 펀드를 받기 원하는 주는 4, 8학년 수학과 읽기 과목 평가에 2년에 한 번씩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받는다.					
■ 점수 체제 ■ 채점 방식	0~300점 척도, 혹은 0~500점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 등급 설정 ■ 방법	채점 결과 도출한 점수를 기초(Basic), 숙달(Proficient), 우수(Advanced)로 나누어 판정한다. 쓰기 부문 평가 결과도 역시 ‘기초, 숙달, 우수’의 3 등급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읽기와 쓰기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참고할 수 있다.</li><li>- 표본 추출 방식이나 조사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li><li>- 국어능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성별이나 지역, 학력에 따른 국어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육 정책 마련을 제안할 수 있다.</li></ul>				

□ 미국 대학 입학 능력 자격 시험(SAT, Scholastic Aptitude Test)

평가 제도 개요		미국의 대학 입학 능력 시험으로, 미국 대학 위원회(College Board)가 감독 및 실시하며,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편찬·채점한다. 크게 SAT Reasoning test(논리력 평가)와 SAT Subject test(세부 과목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논리력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와 쓰기 능력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다지선다형 문항과 하나의 에세이 문항으로 구성.																															
	■ 영역 설정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쓰기(Writing), 수학(Math), 영역별 문항수와 평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문항 수, 평가 시간	<table><tr><td>시험</td><td>내용</td><td>문항 수/시간</td><td>문항유형/척도점수</td></tr><tr><td rowspan="5">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td><td>Extended Reasoning</td><td>36-40</td><td rowspan="5">5지선다형 200-800점</td></tr><tr><td>Literal Comprehension</td><td>4-6</td></tr><tr><td>Vocabulary in Context</td><td>4-6</td></tr><tr><td>Sentence Completions</td><td>19</td></tr><tr><td>Total</td><td>67/70분</td></tr><tr><td rowspan="5">쓰기 (Writing)</td><td>Essay</td><td>1</td><td rowspan="5">에세이 작문 5지선다형 200-800점(작문) 20-80점(5지선다형) 2-12점(에세이)</td></tr><tr><td>Improving Sentences</td><td>25</td></tr><tr><td>Identifying Sentence Errors</td><td>18</td></tr><tr><td>Improving Paragraphs</td><td>6</td></tr><tr><td>Total</td><td>50/60분</td></tr></table>				시험	내용	문항 수/시간	문항유형/척도점수	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	Extended Reasoning	36-40	5지선다형 200-800점	Literal Comprehension	4-6	Vocabulary in Context	4-6	Sentence Completions	19	Total	67/70분	쓰기 (Writing)	Essay	1	에세이 작문 5지선다형 200-800점(작문) 20-80점(5지선다형) 2-12점(에세이)	Improving Sentences	25	Identifying Sentence Errors	18	Improving Paragraphs	6	Total	50/60분
		시험	내용	문항 수/시간	문항유형/척도점수																												
		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	Extended Reasoning	36-40	5지선다형 200-800점																												
			Literal Comprehension	4-6																													
			Vocabulary in Context	4-6																													
Sentence Completions			19																														
Total			67/70분																														
쓰기 (Writing)		Essay	1	에세이 작문 5지선다형 200-800점(작문) 20-80점(5지선다형) 2-12점(에세이)																													
		Improving Sentences	25																														
		Identifying Sentence Errors	18																														
	Improving Paragraphs	6																															
	Total	50/60분																															
■ 평가 주기	연 7회																																
■ 점수 체제 ■ 채점 방식	SAT는 원 점수를 200~800점 범위의 척도 점수로 변환하여 보고한다. 각 학생의 척도 점수는 우선 원 점수로부터 산출되며 원 점수는 공식 채점(formula scoring) 방식에 의해 계산된다. 공식 채점은 일반적 채점 방식과 달리 정답을 맞힌 문항에 1점을 부여하고, 오답을 기입한 문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고, 답을 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한다. 오답 문항에 대하여 감점을 할 때 5지 선다의 경우에는 1/4점, 4지선다 문항에서는 1/3점을 감점한다.																																
	공식 채점 방식에 의해 구해진 원 점수는 0.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 후 200~800 척도 점수(scaled score)로 전환되며 이때 척도 점수는 다시 10점 단위로 계산된다. 점수 동등화에 있어서는 3모수 문항 반응 모형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험 유형이 출제될 때마다 3,000명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회 시험의 점수가 일관된 의미를 갖도록 조정한다.																																
		에세이 채점은 최소 두 명의 채점자들이 총체적 채점(holistic																															

		scoring)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채점자의 최고점은 6점이다. 채점자들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되며, 채점 기준은 사고의 복잡성, 실질성, 그리고 언어의 유창성 등이다.
	■ 등급 설정	SAT는 등급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척도 점수와 더불어 점수 범위(score range), 백분위(percentiles)가 보고된다. 점수 범위는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의 상하 30~40점으로 표현된 점수 구간으로, 동일 응시자가 다시 시험을 치를 때 예상되는 점수 구간을 의미하며, 이 범위의 점수는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수 체계 산출 방법과 오답과 무응답 문항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공식 채점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li> <li>- 비관적 읽기와 쓰기의 하위 내용 영역을 문항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li> <li>- 주관식 채점의 채점 기준과 점수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새로운 시험 유형이 출제되어도 매회의 점수가 일관된 의미를 갖도록 하는 동등화 방식은 본 연구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li> </ul>

#### □ IBT TOEFL(Internet-Based Testing TOEFL)

평가 제도 개요		외국인을 위한 대학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ETS가 주관한다. 학술적 주제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듣기, 읽기, 말하기 및 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IBT형은 토플 중에서도 말하기 테스트와 통합형 에세이가 추가된 유형이다.	
평가방법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듣기, 읽기의 4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과 쓰기, 말하기의 서답형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 영역 설정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	
	■ 문항 수 (영역별)	듣기: 34-51개 문항, 읽기: 36-56개 문항 쓰기: 2개 과제 , 말하기: 6개 과제	
	■ 평가 시간	총 4시간 30분 정도 소요	
		문항	소요 시간
		읽기 3-5개의 지문, 지문당 12-14개 문제	60-100분
		듣기 6-9개의 지문, 지문당 5-6개 문제	60-90분
		말하기 6개 과제, 6문제	20분
쓰기 2개 과제, 2문제	55분		
■ 평가 주기	연 50회 이상		
■ 점수 체제	120점 만점 (읽기 영역:30점, 듣기 영역:30점, 말하기 영역:30점, 쓰기 영역:30점)		
■ 채점 방식	실제 채점자 채점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채점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높인다. 다양한 그룹의 채점자를 이용하며		



		채점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 채점자의 평가가 각 응시자의 말하기 및 쓰기 점수에 반영되도록 한다.
	■ 등급 설정 방법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난이도에 따른 환산표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시간당 문항 배분 방식, 쓰기 영역에서 채점 방식과 채점 기준, 채점자 간의 신뢰도 확보 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6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통합형 에세이를 통한 쓰기 평가는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 문항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 ② 영국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 □ A-level(Advanced-level) 언어 시험

평가 제도 개요		A-level(Advanced-level) 언어 시험은 AEB(Associated Examining Board), 케임브리지 대학,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 NEAB(Northern Examinations and Assessment Board) 등 대학과 지역 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치러지는 평가이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평가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모두 주관식으로서 보통 10문제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한다. 우리나라 대학 1학년 정도 수준의 논술형이며, 평가 문항은 ‘평가하라, 논하라, 비교·대조하라, 비평적으로 고찰하라, 어느 범위까지 동의하겠는가’ 등으로 제시된다.						
	■ 영역 설정	주로 어학적 능력과 문학적 능력을 측정한다. 이 중 어학적 능력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반응, 기술, 설명, 논평 능력, 언어 연구에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알고 사용하는 능력, 맥락에 따라 언어 형식과 의미가 편차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언어 사용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목적과 청자에 따르는 다양성에 대해 기술하는 능력, 언어 연구에 적합한 지식, 이해, 통찰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 문항 수	3문항						
	■ 평가 시간	과목당 3시간						
	■ 평가 주기	연 2회(1월, 6월)						
	■ 점수 체제	<div>서로 다른 평가 위원회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 UMS(Uniform Mark Scale)을 사용한다.</div> <table><tr><td>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 90% of available UMS in A2 Modules</td></tr><tr><td>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td></tr><tr><td>B at A level requires 70% of available UMS</td></tr><tr><td>C at A level requires 60% of available UMS</td></tr><tr><td>D at A level requires 50% of available UMS</td></tr><tr><td>E at A level requires 40% of available UMS</td></tr><tr><td>U at A level if less than 40% of available UMS</td></tr></table>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 90% of available UMS in A2 Modules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B at A level requires 70% of available UMS	C at A level requires 60% of available UMS	D at A level requires 50% of available UMS	E at A level requires 40% of available UMS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 90% of available UMS in A2 Modules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B at A level requires 70% of available UMS								
C at A level requires 60% of available UMS								
D at A level requires 50% of available UMS								
E at A level requires 40% of available UMS								
U at A level if less than 40% of available UMS								

	■ 채점 방식	성적 평가는 국가 시험 기관에 의해 치러지는 시험과 코스 과정 내의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평가로 이루어진다. 채점에 있어서는 '지식', '비판력', '구성력', '자료의 연관성', 등에 대한 비중치가 명시되어 있고, 외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채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비율을 명시한다.													
	■ 등급 설정	<p>각 과목의 성적은 A*, A, B, C, D, E로 평가되며 점수로 환산하기도 한다. (A*는 2010년 신설)</p> <table><tr><td>등급</td><td>A*</td><td>A</td><td>B</td><td>C</td><td>D</td><td>E</td></tr><tr><td>점수</td><td>140</td><td>120</td><td>100</td><td>90</td><td>60</td><td>40</td></tr></table> <p>* 대학에서는 BBC라는 입학 조건 대신 280점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양한 등급 및 과목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p>	등급	A*	A	B	C	D	E	점수	140	120	100	90	60
등급	A*	A	B	C	D	E									
점수	140	120	100	90	60	40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p>– 넓은 범위의 언어 능력 안에 문학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국어능력의 개념과 범위를 상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p> <p>– 채점에 있어 내부 채점과 외부 채점을 모두 거치는 방식과 서술형 채점에서 제시한 기준은 말하기, 쓰기 평가와 같은 서답식 문항에 활용할 수 있다.</p>													

## □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어 인증 시험(ESOL)

평가 제도 개요		ESOL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육 평가원(UCLE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4지 선다형 객관식. 말하기는 평가자와 수험자 1~3인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며, 15~30분 정도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 영역 설정	읽기, 쓰기, 영어 활용, 듣기, 말하기의 5가지 영역.
	■ 문항 수 (영역별)	영역별 문항 수와 평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가 시간	읽기: 40문항. 60분
		영어 활용: 약 60문항. 문장 완성하기, 변형하기, 독해 및 요약하기 등 언어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듣기: 25~30문항. 40분
		4지 선다형으로 요점 적기, 단답형, 진위 선택형, 이름 붙이기, 나열하기, 짝 맞추기 등의 문항이 제시된다.
		쓰기: 350단어 내외의 글을 2편 쓰게 한다. 40분
		말하기: 면담 형식. 15~30분
	■ 평가 주기	일반 평가 8회, 컴퓨터 기반 평가 4회로 연간 총 12회 정도 실시
	■ 점수 체제	총 200점 만점. 읽기는 40문항 40점, 쓰기 2문항 40점, 영어 활용 40점, 말하기 40점.
	■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 설정</li> </ul>	<p>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증 점수를 갱신해야 하는 기존 영어 시험과 달리 합격·불합격(Pass/Fail) 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 시 영구적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다.</p>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 주는 시사점		<p>- 말하기·듣기·쓰기·읽기 4대 영역의 통합 평가를 통해 실제 영어 구사 능력 등의 실용 영어를 측정한다.</p> <p>- 이 평가는 영국 및 그 밖의 다른 영어권 나라의 대학,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전문 기관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을 만큼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에 평가 영역, 방식, 등급화 등을 참고할 만하다.</p>

### ③ 일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 □ 일본어 문장 이해 · 작성 능력 검정 시험(文章読解 · 作成能力検定)

평가 제도 개요		일본 한자 능력 검정 협회(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에서 주관하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 검정 시험이다. 201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 영역 설정	기초력, 이해력, 작성력의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기초력은 어휘와 문법, 독해력은 의미 내용, 자료 분석, 문장 구성을, 작성력은 구성, 표현, 종합 능력을 다루고 있다.								
	▪ 문항 수 (영역별)	(공개되지 않음)								
	▪ 평가 시간	<table><tr><td>등급</td><td>평가 시간</td></tr><tr><td>준2급, 3급, 4급</td><td>90분</td></tr><tr><td>2급</td><td>60분</td></tr></table>	등급	평가 시간	준2급, 3급, 4급	90분	2급	60분		
	등급	평가 시간								
	준2급, 3급, 4급	90분								
	2급	60분								
	▪ 평가 주기	연 2회								
	▪ 점수 체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며, 70%가 합격한다.								
▪ 채점 방식	수험자가 작성하는 의견문, 논설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반드시 2인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한다. 채점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른 채점자가 판단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 등급 설정	<p>평가 등급은 2~4급으로 나뉘며, 2급은 2급과 준2급으로 나뉘어져 총 4개 등급으로 구성된다.</p> <table><tr><td>등급</td><td>난이도</td></tr><tr><td>4급</td><td>읽기, 쓰기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지적언어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td></tr><tr><td>3급</td><td>고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이해, 표현 활동, 지적 언어 활동을 위해,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td></tr><tr><td>준2급</td><td>더 높은 학습을 목표로, 사회에서의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을</td></tr></table>		등급	난이도	4급	읽기, 쓰기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지적언어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3급	고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이해, 표현 활동, 지적 언어 활동을 위해,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준2급	더 높은 학습을 목표로, 사회에서의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을
등급	난이도									
4급	읽기, 쓰기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지적언어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3급	고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이해, 표현 활동, 지적 언어 활동을 위해,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준2급	더 높은 학습을 목표로, 사회에서의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을									

		<div> <div></div> <div>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div> </div> <div> <div>2급</div> <div>고등교육에서 높은 교양을 주체적으로 체화하기 위해, 사회인으로 요구되는 문장 작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종합적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div> </div>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div> <div>- 읽거나 듣기 활동을 쓰기와 같은 표현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div> <div>- 의사소통의 최종 단계에 있는 표현 활동으로서 쓰기 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div> <div>- 등급 구분의 방식과 등급별 성취수준 기술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div> </div>	

## □ 일본 한자 능력 검정 시험(日本漢字能力検定)

평가 제도 개요		일본 한자 능력 검정 협회(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가 시행하는 한자 능력에 관한 검정 시험이다. 단순히 한자를 읽고 쓰는 지식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도 측정하고 있다. 1975년부터 시작됐으며, 1992년부터 문부 과학성이 인정하는 자격 제도가 되어 학점 인정이나 입학 우대에 사용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 늘어나 널리 활용된다.								
평가체제	■ 영역 설정	한자 읽기, 쓰기 문제와 관용구의 구성, 의미, 오자 정정, 한자의 부수와 필순 등 넓은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다.								
	■ 문항 수 (영역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험에서의 문항 수는 80~120개 정도로 다양하며, 출제되는 문항 수의 제한이 없다.								
	■ 평가 시간	수험등급별 평가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등급</th><th>평가시간</th></tr><tr><td>8급~10급</td><td>40분</td></tr><tr><td>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4급, 5급, 6급, 7급</td><td>60분</td></tr></table>		등급	평가시간	8급~10급	40분	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60분	
		등급	평가시간							
		8급~10급	40분							
	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60분								
	■ 평가 주기	연 3회(1월 또는 2월, 6월, 10월)								
■ 평가 방식	일상생활의 어떤 상황에서도 통용되는 종합적인 한자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식 중심으로 되어 있다.									
■ 점수 체제	<table><tr><th>등급</th><th>총점</th></tr><tr><td>1급~2급</td><td>200점</td></tr><tr><td>준2급~7급</td><td>200점</td></tr><tr><td>8급~10급</td><td>150점</td></tr></table>		등급	총점	1급~2급	200점	준2급~7급	200점	8급~10급	150점
	등급	총점								
	1급~2급	200점								
	준2급~7급	200점								
8급~10급	150점									
■ 채점 방식	필획을 바르고 정확하게 쓴 글자만을 채점 대상으로 하며, 흘려 쓰거나 난잡하게 쓴 글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자의 종류와 글자의 체는 2~10급의 경우 상용 한자 표(2010년)를 기준으로 하며, 1급과 준1급은 한자 능력 검정 요람1/준1급대상(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발행)이 가리키는 표준자체, 허용자체, 구자체 일람표에 의해 채점된다. 읽기의 경우 2~10급은 상용 한자표(2010년)에 의해 채점된다. 가나(仮名, 가타가나와 히라가나) 사용의 경우 현대판 가나 사용에 의해 채점									

		되며, 오쿠리가나(送り仮名, 한문을 혼독하기 위해 한자의 오른쪽 아래에 다는 가나)의 경우 국가에서 공시한 오쿠리가나 사용법에 의해 채점한다. 부수는 한자능력검정요람 2~10급 대응(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발행)에 수록된 부수일람표와 부수별 사용한자에 의해 채점되며, 필순은 문부성이 만든 필순지도안내(1958년)에 의해, 상용한자의 필순은 한자능력검정요람 2~10급 대응에 수록된 상용한자필순일람에 의한다.																																						
	<div> <div>■ 등급 설정</div> </div>	<p>1급에서부터 10급까지로 되어 있고, 1급은 다시 1급과 준1급, 2급은 2급과 준2급으로 나누어져 모두 12단계로 되어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난이도</th><th>대상 한자 수</th></tr> </thead> <tbody> <tr> <td>10급</td><td>초등학교 1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td><td>80자</td></tr> <tr> <td>9급</td><td>초등학교 2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td><td>240자</td></tr> <tr> <td>8급</td><td>초등학교 3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td><td>440자</td></tr> <tr> <td>7급</td><td>초등학교 4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td><td>640자</td></tr> <tr> <td>6급</td><td>초등학교 5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td><td>825자</td></tr> <tr> <td>5급</td><td>초등학교 6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td><td>1,006자</td></tr> <tr> <td>4급</td><td>중학교 재학자 정도</td><td>1,322자</td></tr> <tr> <td>3급</td><td>중학교 졸업자 정도</td><td>1,607자</td></tr> <tr> <td>준2급</td><td>고등학교 재학자 정도</td><td>1,940자</td></tr> <tr> <td>2급</td><td>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생, 일반인 정도 (상용한자를 모두 읽고 쓰고 활용하는 수준)</td><td>2,136자</td></tr> <tr> <td>준1급</td><td>대학생, 일반인 정도</td><td>약 3,000자</td></tr> <tr> <td>1급</td><td>대학생, 일반인 정도</td><td>약 6,000자</td></tr> </tbody> </table>	등급	난이도	대상 한자 수	10급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80자	9급	초등학교 2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240자	8급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440자	7급	초등학교 4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640자	6급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825자	5급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1,006자	4급	중학교 재학자 정도	1,322자	3급	중학교 졸업자 정도	1,607자	준2급	고등학교 재학자 정도	1,940자	2급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생, 일반인 정도 (상용한자를 모두 읽고 쓰고 활용하는 수준)	2,136자	준1급	대학생, 일반인 정도	약 3,000자	1급	대학생, 일반인 정도
등급	난이도	대상 한자 수																																						
10급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80자																																						
9급	초등학교 2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240자																																						
8급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440자																																						
7급	초등학교 4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640자																																						
6급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825자																																						
5급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1,006자																																						
4급	중학교 재학자 정도	1,322자																																						
3급	중학교 졸업자 정도	1,607자																																						
준2급	고등학교 재학자 정도	1,940자																																						
2급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생, 일반인 정도 (상용한자를 모두 읽고 쓰고 활용하는 수준)	2,136자																																						
준1급	대학생, 일반인 정도	약 3,000자																																						
1급	대학생, 일반인 정도	약 6,000자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p>- 어휘력 확보의 측면에서 한자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어능력 평가에서 어휘력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p> <p>- 서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피험자의 서술에 대한 세분화된 채점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필순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p>																																						

## □ 일본어 검정 시험(日本語検定)

평가 제도 개요		일본어 검정 위원회(日本語検定委員会)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본어 지식과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 검정 시험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험자 수는 연간 10만 명에 이른다. 2011년 7월에 문부과학성의 후원을 받았다. 이 자격 제도를 입시에서 우대하는 학교나 각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 영역 설정	일본어 운용에 필요한 6개 영역인 어휘, 표기, 높임말, 한자, 단어의 의미,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항 수 (영역별)	90~120문항						
	■ 평가 시간	<table><tr><td>등급</td><td>평가 시간</td></tr><tr><td>4~7급</td><td>50분</td></tr><tr><td>1~3급</td><td>60분</td></tr></table>	등급	평가 시간	4~7급	50분	1~3급	60분
	등급	평가 시간						
4~7급	50분							
1~3급	60분							
■ 평가 주기	연 2회							

	▪ 점수 체제	총합 득점은 '정답인 점수의 합계/총 점수'로 산출하며, 영역별 득점은 '정답인 영역별 점수의 합계/영역별 총 점수'로 산출한다. 영역별 점수와 문제별 점수로 구분된다.															
	▪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 등급 설정	<p>다음과 같은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p> <table><tr><th>등급</th><th>수준</th></tr><tr><td>7급</td><td>초등학교 저~중학년 수준</td></tr><tr><td>6급</td><td>초등학교 중~고학년 수준</td></tr><tr><td>5급</td><td>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td></tr><tr><td>4급</td><td>고등학생, 중학생 수준</td></tr><tr><td>3급</td><td>사회인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td></tr><tr><td>2급</td><td>사회인, 대학생 수준</td></tr><tr><td>1급</td><td>사회인 수준</td></tr></table> <p>*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며, 인정, 준인정으로 표시되면 합격이다. 3~7등급의 경우는 총합득점률이 70% 이상이면 인정, 60~70%면 준인정이 되며, 1~2등급의 경우 총합득점률이 80% 이상이면 인정, 70~80%이면 준인정이 된다. 그러나 6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점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7급을 제외하고 득점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경우 합격되지 못한다.</p>	등급	수준	7급	초등학교 저~중학년 수준	6급	초등학교 중~고학년 수준	5급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4급	고등학생, 중학생 수준	3급	사회인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	2급	사회인, 대학생 수준	1급
등급	수준																
7급	초등학교 저~중학년 수준																
6급	초등학교 중~고학년 수준																
5급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4급	고등학생, 중학생 수준																
3급	사회인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																
2급	사회인, 대학생 수준																
1급	사회인 수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언어 운용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제 언어 사용 양상 보다는 어휘, 표기, 높임말, 한자, 단어의 의미, 문법 등 자국어 사용에 있어 기반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어능력 평가의 대상 영역 범주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li><li>- 학령기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사회인 수준까지 1~7급에 이르는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수, 보통, 보통 미달 등과 구분되는 등급 설정의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다.</li><li>-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비율 기준을 참고해 볼 수 있다.</li></ul>
-----------------	---

#### ④ 유럽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 □ 독일어 능력 시험(Zertifikat Deutsch)

평가 제도 개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되는 자격 시험이다. 대표적 독일어권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세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시험이다. 독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데 있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필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만 구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영역 설정	필기 시험(Schriftliche Prüfung) : 총 150분
	■ 문항 수 (영역별)	읽기(Leseverstehen) - 70분, 75점 문법(Sprachbausteine) - 20분, 30점
	■ 평가 시간	듣기(Hörverstehen) - 30분, 75점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 30분, 45점 구술시험(Mündliche Prüfung) : 15분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Kontaktaufnahme) - 3분 주제에 대한 대화(Gespräch über ein Thema) - 6분 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Lösen einer Aufgabe)- 6분							
■ 평가 주기	연 5회(3월, 6월, 9월, 12월)							
■ 점수 체제	총 300점 만점							
■ 채점 방식	<p>채점은 모두 독일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객관식 문항은 문항에 따라 5점, 2.5점, 1.5점의 배점이며, 쓰기 시험의 경우에는 채점 항목에 따라 부분 채점이 이루어진다.</p> <p>- 쓰기의 채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p> <table> <tr> <td>1. 지시 사항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최고 5점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한 문장이 있을 경우 1~2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td> </tr> <tr> <td>2. 내용 전개 및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논리적인 순서, 그리고 적절한 호칭, 끝맺음, 날짜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최고 5점이 주어진다.</td> </tr> <tr> <td>3. 문법, 맞춤법 등이 평가 대상이며 최고 5점이 주어진다</td> </tr> </table> <p>- 말하기 평가에서는 시험 직후 시험관이 구두로 평가 결과를 전달해 준다.말하기의 채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p> <table> <tr> <td>1. 어휘력, 주제에 맞는 표현능력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td> </tr> <tr> <td>2. 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참여하는가, 자기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명하는가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td> </tr> <tr> <td>3. 문법에 얼마나 맞게 말하는가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td> </tr> <tr> <td>4. 발음과 억양에 따라 최고 3점이 주어진다</td> </tr> </table>	1. 지시 사항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최고 5점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한 문장이 있을 경우 1~2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2. 내용 전개 및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논리적인 순서, 그리고 적절한 호칭, 끝맺음, 날짜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최고 5점이 주어진다.	3. 문법, 맞춤법 등이 평가 대상이며 최고 5점이 주어진다	1. 어휘력, 주제에 맞는 표현능력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2. 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참여하는가, 자기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명하는가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3. 문법에 얼마나 맞게 말하는가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4. 발음과 억양에 따라 최고 3점이 주어진다
1. 지시 사항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최고 5점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한 문장이 있을 경우 1~2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2. 내용 전개 및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논리적인 순서, 그리고 적절한 호칭, 끝맺음, 날짜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최고 5점이 주어진다.								
3. 문법, 맞춤법 등이 평가 대상이며 최고 5점이 주어진다								
1. 어휘력, 주제에 맞는 표현능력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2. 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참여하는가, 자기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명하는가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3. 문법에 얼마나 맞게 말하는가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4. 발음과 억양에 따라 최고 3점이 주어진다								
■ 등급 설정	<p>등급은 아래와 같이 네 등급으로 나누며, 179.5점부터는 불합격이다.</p> <table> <tr> <td>300~270: 매우 우수(sehr gut)</td> </tr> <tr> <td>269.5~240:우수(gut)</td> </tr> <tr> <td>239.5~210:만족할만한(befriedigend)</td> </tr> <tr> <td>209.5~180:충족한(ausreichend)</td> </tr> <tr> <td>179.5~0: 불합격(nicht bestanden)</td> </tr> </table> <p>*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다. 즉, 필기시험에서 135점 이상, 구두시험에서 4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p>	300~270: 매우 우수(sehr gut)	269.5~240:우수(gut)	239.5~210:만족할만한(befriedigend)	209.5~180:충족한(ausreichend)	179.5~0: 불합격(nicht bestanden)		
300~270: 매우 우수(sehr gut)								
269.5~240:우수(gut)								
239.5~210:만족할만한(befriedigend)								
209.5~180:충족한(ausreichend)								
179.5~0: 불합격(nicht bestanden)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p>-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자국어능력의 소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국민 전반의 국어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문항 설계의 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p> <p>- 쓰기와 말하기 시험 구성과 수행 방식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서 제시되는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 주제에 대한 대화, 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 상황과 편지글이나 이메일과 같은 텍스트 양식의 사례들은 문항 설계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p>							

□ 대입 독일어 능력 시험(DSH, Deutsche Sprachprüfung für den Hochschulzugang)

평가 제도 개요		독일의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며, 독일의 각 대학에서만 칠 수 있다. 중급의 독일어 수업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시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응시자의 신청에 의해 시험이 이루어진다. 필기 시험과 말하기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필기시험에서 57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만 말하기 시험을 칠 수 있다. 말하기 시험은 주어진 3~4개의 지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문을 선택하여 15분 동안 읽고 메모한 후, 2명의 시험관에게 자기소개와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영역 설정	필기시험은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Leseverstehen und Wissenschaftssprachliche Strukturen), 듣고 이해하기(Hörverstehen), 작문(Textproduktion)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 영역은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 듣고 이해하기와 작문, 말하기의 다섯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문항 수 (영역별)	문항 수는 주관하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 평가 시간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 90분			
		듣고 이해하기: 40분 (두 번의 듣기 대본 낭독 후 40분의 시간이 주어짐)			
		작문: 70분			
		말하기: 20분(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말하기)			
	■ 평가 주기	연 2회			
	■ 점수 체제	- 지필평가의 총점은 100점이고,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함께 제시한다. 영역별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고, 문법 영역의 점수 비중이 다른 영역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table><tr><td>지필 평가</td><td>문법: 14.28%, 읽고 이해하기: 28.57%</td></tr><tr><td></td><td>듣고 이해하기: 28.57%, 작문: 28.57%</td></tr></table>	지필 평가	문법: 14.28%, 읽고 이해하기: 28.57%	
지필 평가		문법: 14.28%, 읽고 이해하기: 28.57%			
	듣고 이해하기: 28.57%, 작문: 28.57%				
- 말하기 평가의 총점도 100점이다.					
■ 채점 방식	DSH 는 다수의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제 수행형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컴퓨터 전산 처리 방식이 아닌 채점자의 직접 채점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각 대학에서는 문제 출제와 동시에 과제별로, 그리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별로 상세한 채점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등급 설정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된다. (DSH 1: 57%, DSH 2: 67%, DSH 3: 82%) * 대개 필기시험과 말하기, 쓰기 시험에서 67% 이상, 즉 67점 이상을 획득해야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대학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시험으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조사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말하기 시험과 쓰기 시험에서 도표, 통계, 성명서 인용문 등이 포함된 텍스트를 읽고 쓰			



	<p>도록 하는 등 과제 수행형 주관식 문항 제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평가들에 비해 텍스트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항 설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li> <li>- 문법 영역의 점수 비중이 다른 영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특징적이며, 영역별 점수 비중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li> <li>- 채점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채점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li> </ul>
--	--

## □ 독일어 능력 시험(TestDaF, Test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평가 제도 개요		TestDaF는 독일에서 학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독일어 능력 인정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능력 시험이다. 독일의 TestDaF-연구소가 주관하며 대략 600~800시간 정도의 독일어 수업을 들으면 응시할 수 있다.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입학 자격 취득을 위한 언어 능력 증명으로 인정된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식, 서답식 평가로 이루어진다. 읽기, 듣기의 경우는 객관식 문항이며, 쓰기의 경우에는 주제와 함께 제시된 핵심 내용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연계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말하기의 경우에는 컴퓨터 지원을 받는 개인별 시험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는 독일 대학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7개의 과제가 주어지고, 이 설정된 각 상황에 적합한 말하기를 수행하여 녹음하여 제출한다.									
	■ 영역 설정	평가 영역은 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 듣고 이해하기(Hörverstehen),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말하기(Mündlicher Ausdruck)의 네 영역으로 나뉜다.									
	■ 문항 수 (영역별)	총 30문항									
	■ 평가 시간	총 3시간 15분 <table><tr><td>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td><td>60분</td></tr><tr><td>듣고 이해하기(Hörverstehen)</td><td>약 40분</td></tr><tr><td>쓰기(Schriftlicher Ausdruck)</td><td>60분</td></tr><tr><td>말하기 (Mündlicher Ausdruck)</td><td>약 35분</td></tr></table>		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	60분	듣고 이해하기(Hörverstehen)	약 40분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60분	말하기 (Mündlicher Ausdruck)	약 35분
	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	60분									
	듣고 이해하기(Hörverstehen)	약 40분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60분									
말하기 (Mündlicher Ausdruck)	약 35분										
■ 평가 주기	연 6회										
■ 점수 체제	시험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표준화된 시험이다. 읽고 이해하기와 듣고 이해하기 시험 영역에서는 시험 과제(예: 선택형 혹은 진위형 과제)마다 1점이 배점된다. 이 두 시험의 시험 영역별 등급 판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각각의 정답 개수이다										
■ 채점 방식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모두 훈련받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채점과 등급 판정은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다.										

	<p>결과는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3등급으로 평가된다.</p> <table> <tr> <td>TestDaF-등급5 (TDN-5)</td> </tr> <tr> <td>TestDaF-등급4 (TDN-4)</td> </tr> <tr> <td>TestDaF-등급3 (TDN-3)</td> </tr> </table> <p>■ 등급 설정</p> <p>* 이중 TDN-5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TDN-3 이하는 등급이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으며, 아직 TestDaF 응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려 준다.</p>	TestDaF-등급5 (TDN-5)	TestDaF-등급4 (TDN-4)	TestDaF-등급3 (TDN-3)
TestDaF-등급5 (TDN-5)				
TestDaF-등급4 (TDN-4)				
TestDaF-등급3 (TDN-3)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p>- 언어 수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평가 방법이다.</p> <p>- 말하기 평가의 진행과 내용 구성, 채점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내용 구성에 있어 과제 중심의 문항 설계를 하고 있는 점은 문항 설계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p> <p>- 쓰기 평가에 있어서는 실생활에서의 실용문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도표나 자료의 이해 결과를 쓰기로 연결시키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 언어 행위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문항 설계에 있어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 말하기, 쓰기 영역에 있어서의 채점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p>			

#### □ 프랑스어 능력 시험(TCF, Test de Connaissance du Français)

평가 제도 개요		비프랑스어권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준 시험이며, 프랑스의 국제 교육 연구 센터(Centre International d'études Pédagogiques, CIEP)가 주최한다. 영어의 토익, 토플과 비슷한 프랑스어 레벨 측정 시험이다. 직업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프랑스어 능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만 16세 이상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공용 외국어능력 등급표에 따른 여섯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응시자의 레벨을 나누어 성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된 성적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평가체제	■ 평가 방식	<p>필수 과목인 청취, 문장 구성, 독해 영역은 객관식 평가로 이뤄지며, 선택 과목인 구술과 작문 시험은 각각 구술 및 서술 평가로 이뤄진다.</p> <p>구술시험은 구술 표현력을 평가하며 사전 준비 시간 없이 응시자와 면접관 간에 일대일 개별 인터뷰로 진행된다. MP3로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CIEP(국제 교육 연구 센터)에서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이중 평가를 하며, 면접관의 견해를 평가에 반영한다.</p> <p>서술 시험은 총 여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는 빠뜨리는 것 없이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한다. 작성된 답안지는 CIEP(국제 교육 연구 센터)의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채점하며 역시 이중 평가를 실시한다.</p>							
	■ 영역 설정	필수 영역 총 80문항.							
	■ 문항 수 (영역별)	<table><tr><td>필수 영역</td><td>청취(Compréhension orale)</td><td>30문항</td></tr><tr><td></td><td>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td><td>20문항</td></tr></table>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30문항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문항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30문항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문항							

		<table><tr><td></td><td>독해(Compréhension écrite)</td><td>30문항</td></tr><tr><td>선택</td><td>말하기(Expression orale)</td><td>—</td></tr><tr><td>영역</td><td>쓰기(Expression écrite)</td><td>6문항</td></tr></table> <p>이 중 청취, 문장 구성, 독해 영역은 필수 과목이며 말하기와 쓰기는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30문항	선택	말하기(Expression orale)	—	영역	쓰기(Expression écrite)	6문항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30문항										
	선택	말하기(Expression orale)	—										
	영역	쓰기(Expression écrite)	6문항										
	■ 평가 시간	필수 과목 총 1시간 30분, 선택과목 총 2시간											
	<table><tr><td rowspan="3">필수 영역</td><td>청취(Compréhension orale)</td><td>25분</td></tr><tr><td>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td><td>20분</td></tr><tr><td>독해(Compréhension écrite)</td><td>45분</td></tr><tr><td rowspan="2">선택 영역</td><td>말하기(Expression orale)</td><td>15분</td></tr><tr><td>쓰기(Expression écrite)</td><td>1시간 45분</td></tr></table>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25분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분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45분	선택 영역	말하기(Expression orale)	15분	쓰기(Expression écrite)	1시간 45분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25분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분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45분											
선택 영역	말하기(Expression orale)	15분											
	쓰기(Expression écrite)	1시간 45분											
■ 평가 주기	매달 1회(한 번 시험에 응시하면 그 다음 시험은 60일 이후 응시 가능)												
■ 점수 체제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며 총점은 699점이다.												
■ 채점 방식	객관식 답안은 답안지 스캔을 통해 컴퓨터로 채점되며, 구술 및 서술 답안지는 모두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채점된다.												
■ 등급 설정	등급은 유럽공용 외국어능력 등급표에 따른 여섯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응시자의 레벨을 나누어 제시한다.												
	유럽공용 외국어등급	기본레벨	능력별 레벨	학습시간 (단위:시간)	TCF점수 (만점:699점)								
	A1	초급	입문단계	80	100-199								
	A2		초보단계	150-200	100-299								
	B1	중급	실용구사단계	400	300-399								
	B2		독립구사단계	600-650	400-499								
	C1	고급	자율활용단계	800-850	500-599								
	C2		완성단계	900 이상	600-699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일반 응시자를 위한 TCF 외에 쓰임에 따라 대학 1~2학년 과정과 건축 학교에 사전 입학 허가 신청을 위한 TCF-DAP, 국제기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기 위한 TCF RI, 퀘벡주 이민 서류 제출을 위한 TCF Québec 등의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며,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는 전자 시험 형식도 운영되고 있다.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 및 문법 사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수준에 있어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 표현부터 복잡하고 추상적인 텍스트를 다루는 수준까지 평가가 가능하므로 언어 능력 표준화 및 등급 테스트로서의 의의가 있다.

## ⑤ 기타 언어 능력 측정 사례

###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 개요		OECD 회원국들의 교육 체제의 질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이다.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체제	■ 조사 대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학생의 대부분(약 98%)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함
	■ 조사 시기	3년마다
	■ 표본 크기	PISA 2012의 경우, 총 65개국(OECD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에서 약 5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
	■ 표본 추출 방법	비례 층화 표집 방법
	■ 조사 방법	2시간의 지필 검사로 시행된다.
	■ 조사 도구	각 영역의 문항이 서로 다르게 배합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주 영역과 보조 영역의 문항 수 비중이 다르다. 시험은 선택형, 단답형, 폐쇄형 서술형, 개방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다.
	■ 조사 결과 처리	조사 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한다.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 점수를 활용하며, 등급 구분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와 더불어 PISA 2006부터는 95%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순위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각 요인별로 하위 요인을 설정하면 그 항목이 해당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li> <li>- 등급 설정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li> </ul>

### □ OECD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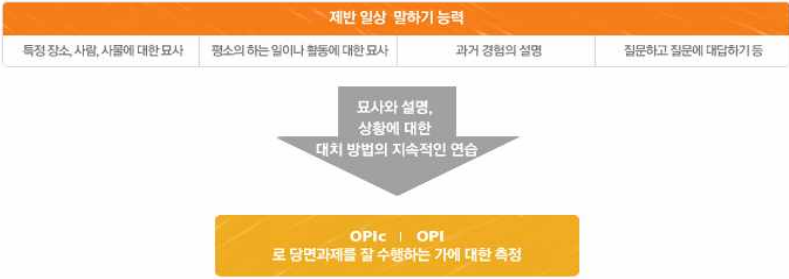

#### OECD 국제 성인 문해 및 생활능력조사 (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조사 제도 개요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는 OECD에서 주관한 국제 규모의 성인 문해 조사 프로그램이며,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은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조사체제	■ 조사 대상	-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1994년, 1996년, 1998년 3단계에 걸쳐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p>20여 개 국가들의 16~6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여, 국제 비교하였다.</p> <p>-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2003년 버뮤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6개 국가의 16~6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및 생활 기술 문해력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이루어졌다</p>
	<p>■ 조사 시기</p> <p>■ 조사 기간</p>	<p>-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1994년, 1996년, 1998년</p> <p>-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2003년</p> <p>자료 수집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나 대략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었다.</p>
	■ 표본 크기	<p>-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국가별로 대략 3000여 표본을 수집</p> <p>-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약 1275개</p>
	■ 표본 추출 방법	<p>각 가정에서 16세~65세의 연령대에 있는 성인 1명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연령, 교육 정도 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표본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영역 안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조직적으로 선정되도록 함.</p>
	■ 조사 방법	<p>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배경 변인에 대한 설문과 문해 능력에 대한 인터뷰 조사)</p>
	■ 조사 도구	<p>IALS는 예비 조사 6문항, 본 조사 3개 영역 10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 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기초 단계 수준의 조사이다. 예비 조사는 조사에 응하는 모든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며, 예비 조사 2문항 이상을 수월하게 응답한 응답자는 이어서 본 조사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 조사 단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본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문해 조사는 종료된다. 본 조사는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7권 중 한 권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각각의 조사지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사지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영역은 총 7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는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를 모두 포함하는 11~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p> <p>ALL은 평가 문항이 다양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트는 세분화된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포함한 각각의 문해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이다. 응답자들은 전체 세트에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16종류의 평가지에서 무선적으로 선정된 하나의 평가지에 응답한다.</p>
	■ 조사 결과 처리	<p>문해 능력은 점수화되어 처리되며, IALS, ALL 모두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단계별(level 1-level 5단계), 영역별(산문, 문서, 수량 문해)로 비교 분석하였다.</p>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규모의 문해력 조사로서 방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li> <li>-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한 결과 처리 방식은 본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li> </ul>
--------------	--

## □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평가 제도 개요		ACTKL Oral Proficiency Interview(OPI)에서 주최하는 시험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말하기 능숙도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언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언어 수행 능력 평가를 지향한다.					
평가체제	평가 방식	지원자의 신청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 반(半) 직접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응시자 개개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녹음하고 그 자료를 미국의 평가 서버에 전송하면 채점이 이루어져 결과가 통보된다.					
	영역 설정	<p>● 시험 문제 유형</p> 					
	문항 수 (영역별)	약 7문항(개인별 맞춤 문항)					
	평가 시간	총 40분					
	평가 주기	지정된 접수 기간에 신청(상시 가능)					
	점수 체제 채점 방식	<p>점수체제는 절대평가 체제이며, ACTFL 공인 평가자가 평가한다. 평가 방식은 총체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p> <p>● 총체적 평가 방식(Holistic Approach)</p> 					
	등급 설정	<p>ATCFL Proficiency Guidelines-Speaking이라는 말하기 능숙도(Oral Proficiency)에 대한 언어능력 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로 다음과 같은 9개의 등급을 구분한다.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523 1953 1436 2027"> <tr> <th colspan="2">Level</th><th>등급별 특성</th></tr> <tr> <td>Advanced</td><td>Advanced</td><td>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td></tr> </table>	Level		등급별 특성	Advanced	Advanced
Level		등급별 특성					
Advanced	Advanced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					

			Low	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적절한 위치에서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속력도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능숙도이다.
		Intermediate	Intermediate HIGH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곤 한다. 발화량이 많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Intermediate MID	일상적인 소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나열하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상대방이 조금만 배려해주면 오랜 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Intermediate LOW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소재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Novice	Novice HIGH	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에 대해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라면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다.
			Novice MID	이미 암기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Novice LOW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영어 단어를 나열하며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OPIc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li><li>- 말하기를 수행한 결과를 녹음하여 전송하면 채점이 이루어져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은 말하기 평가 방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li><li>- 이 시험에서 제시한 말하기 수준의 등급별 특성은 말하기 평가에 있어서의 준거로 활용 가능하다.</li></ul>		

이상에서 살핀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중 특히 살펴볼 만한 것은 OECD를 비롯한 국제 기구들에서 실시된 국제적인 문해력 조사들이다. 이 조사들에서는 각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누어 결과를 처리하는 일련의 조사 과정을 보여 준다. 국외 문해력 조사 사례들은 앞서 살펴본 국내 문해력 조사에 비해 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 분석 방법도 다양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sup>7)</sup>.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정의하는 문해력의 개념이나 문항 설계 방식

7) 우리나라의 문해력 조사는 OECD에서 외국의 문해력 조사를 번역, 보완해서 활용한 경우가 많아 방법론 자체에 큰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다양한 변인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등을 읽기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둘째, 문해력 조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대부분 평가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경우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어능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도 나뉘는데, 이러한 평가의 두 수준에 있어 측정의 하위 요소들이나 내용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어학적 능력과 함께 문학적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셋째,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의 일부로서 한자 능력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휘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자어라는 점을 주목했을 때, 어휘력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또한 일본의 일본어 문장 이해·작성 능력 검정 시험과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최종 단계에 있는 표현 활동으로서 쓰기 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장소원 외(2011)에서 검토한 중국 중국어능력 평가(PSC, 普通話水平測試)의 경우도 말하기, 즉, 표현 영역에 강조점을 둔 평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KBS 한국어능력시험이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같이 총체적인 국어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넷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과 관련된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이 발달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말하기와 쓰기 평가에 있어서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나 하위 내용 요소들에 대한 구분은 이 두 영역의 문항 설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 2. 본 연구의 조사 설계 방향

지금까지 살핀 국내외의 자국어 능력 조사 사례들은 각각 조사 방법론 설계와 조사 도구 설계 두 가지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조사의 성격을 띠는 것은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을 설정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평가의 성격을 띠는 사례들은 조사 도구인 문항을 설계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언어 능력에 대한 조사로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지점일 것이다.

국어능력을 비롯한 언어 능력에 대한 조사는 적절한 대상의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가장 실상에 가까운 언어 수행의 양상이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조사나 평가와 같은 인위적인 조건 속에서 실제 언어 수행의 양상과 수준을 포착하여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지원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과 달리 피조사자의 비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사의 경우에 이 같은 어려움은 배가된다.

기존의 조사 사례들에서 주로 활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원의 방문 조사이다. 즉,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일대일의 면접 상황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때의 조사는 주로 객관식 문항 중심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된다. OECD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나 성인 문해력 조사(NAAL)와 같은 대표적인 문해력 조사들에서는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 주가 되므로, 피조사자가 질문지를 읽고 문항들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텍스트나 담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으로서 읽기와 듣기의 양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조사 방식은 큰 무리가 없다. 문법 문항의 경우도 보다 상위의 언어 지식이나 인식을 묻는 다는 점에서 본다면 문항 풀이 중심의 조사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즉, 듣기, 읽기, 문법, 이 세 영역의 경우에는 질문지의 텍스트나 문항 자체에 집중한 반응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면접원의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경우이다. 본 연구는 읽기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다섯 영역에 대해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해력 조사와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세 영역들과는 달리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의 경우는 피조사자들에게 인위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상상하게 한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언어 수행 양상을 포착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행한 말하기 양상을 평가하는 것과 그러한 상황을 가정한 후 수행한 말하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 실상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경우는 조사 설계의 측면에서 얼마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조사 환경과 상황이 구축되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말하기나 글쓰기에 있어 사전에 주어지는 시간이나,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 일상생활과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는 상황 맥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쓰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한 뒤, 그중 한 가지를 피험자가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의 말하기나 쓰기 평가 사례들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말하기와 쓰기 영역 평가에 있어 조사원의 역할과 안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조사 영역과 방식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개별적인 언어 수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항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합적인 언어 수행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Sheida White(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드러나는 다양한 국어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과제 수행형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독일의 DSH 시험의 사례에서도 수 있듯이 과제 수행형 방식은 채점이나 조사 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의 전체 과제 수행을 자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 언어생활의 실제 양상을 파악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sup>8)</sup>.

8) 본 연구의 조사 도구 설계 과정 중에 개최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도 이러한 국어능력 조사 방식의 실상을 반영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의사소통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 조사를 시도하는 방법, 예를 들면 도서관 근처에 가서 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조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사원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실제 조사 가능성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 영역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응답자가 이 모든 문항에 응답하기에는 검사 시간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토한 OECD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비 조사 6문항에 약 40~50개 정도의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균형 불완비 블록 설계 조사가 사용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장소원 외(2011)에서 제안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사 도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사 도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한 사람의 피조사자가 다섯 영역을 모두 응시하지 않고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가) 형과 (나) 형으로 나누어 (가) 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문법 영역의 문항을, (나) 형에서는 쓰기, 읽기, 문법 영역의 문항을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도구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두 조사 도구에 공통 문항을 배치하여 향후 국어능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영역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예비 조사의 결과와 말하기와 쓰기 문항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조사지의 맨 앞부분에 배치하였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례들에서 본 조사와 같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본 추출과 대표성이 특히 문제가 된다.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 문해력 조사의 사례들에서는 표본 추출에 있어 인종, 비례, 직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경우들을 참고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결과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례들에서와 같이 확률 비례 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한편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을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례들에서와 같이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문항 반응 이론을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각기 다른 문항에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비교 가능한 능력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한 것이다. 결과 처리 과정 중 채점과 관련해서는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조사 도구에 직접 입력한 결과를 조사 기관에서 컴퓨터에 입력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주관식 채점에 있어서는 각 문항별로 영역 전문가 9명씩을 채점자로 선정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결과의 등급화에 있어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앵고프 방식을 통해 학업 성취도 평가, PISA 등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등급 구분 방식인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네 단계의 등급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

교육과 비용 요건 등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 Ⅲ.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

#### 1. 조사 도구의 보정

일반적으로 특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도구는 ‘예비 조사 도구 개발 → 예비 조사 시행 →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본 조사 도구 개발 → 본 조사 도구 확정 → 본 조사 시행’의 단계를 밟아 가며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단계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기본적으로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 구안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설계되었다. 따라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5개 조사 영역의 설정 및 각 영역별 평가 요소 구획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 연구에서 구안한 조사 도구를 유지하였다. 다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예비 조사 이전에 다음과 같이 조사 도구를 보정하여 재설계하였다.

##### 1.1. 조사 도구의 축소 설계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는 54개 문항, 130분, 1,300점 만점의 조사 도구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이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 조사 시행 방식이 가구 방문을 통한 1:1 개별 조사라는 점, 한정된 예산 속에서 피조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피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 도구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였다. 이때 장소원 외(2012)에서 실시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양호도가 좋지 않은 문항들을 조사 도구에서 배제하여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46개 문항, 110분, 1,000점 만점의 조사 도구를 재설계하였다.

기초 연구(2012년)에서 제안한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			
영역	문항 수	시간	배점	영역	문항 수	시간	배점
읽기	20문항	40분	250점	읽기	20문항	40분	300점
문법	15문항	15분	150점	문법	10문항	10분	150점
쓰기	3문항	40분	400점	쓰기	3문항	30분	250점
듣기	12문항	15분	250점	듣기	10문항	15분	150점
말하기	4문항	20분	250점	말하기	3문항	15분	150점
누계	54문항	130분	1,300점	누계	46문항	110분	1,000점

<표 4> 조사 도구 규모의 축소

이러한 조사 도구의 축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 시행상의 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첫째, 조사 시행 차원의 문제로 피조사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조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지역, 직업, 학력 등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무작위 추출된 일반 국민들임을 고려할 때, 기초 연구에서 상정한 문항 수와 시간으로는 실제 조사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sup>9)</sup>로 피조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둘째, 각 영역별 비중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즉, 국민의 언어생활에서의 중요도와 사용 정도를 고려하여 각 영역별 요소를 세분화한 뒤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 수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읽기 영역은 세부 능력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나뉘지만 구어인 말하기·듣기에 비해 다양한 텍스트로 양식화·형식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문항 수가 많게 하였으며 배점 역시 국어생활에서 읽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구획하였다. 또한, 문법 영역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기초 영역으로서 그러한 능력에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배점을 낮게 설정하였다. 더하여, 쓰기 영역 역시 채점 요소의 일부가 문법 영역과 중복되는 면을 고려하여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 1.2. 조사 영역별 세부 요소 설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영역별로 조사하고자 하는 평가 능력(평가 유형)과 세부 평가 요소는 기본적으로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 구안한 것을 유지하되, 조사 도구의 축소에 따라 일부 평가 요소를 통합하고 문항 수를 조정하였다. 이 과정은 각 영역별 전문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영역	평가 능력 (또는 유형)	평가 요소	문항 수	
말하기 (S)	가. 설득하는 말하기	1. 설득(주장하는 말하기)	1	3
		2. 설득(요청하는 말하기)	1	
	나. 설명하는 말하기	1. 설명(설명하는 말하기)	1	
듣기 (L)	가. 사실적 듣기	1. 세부 정보의 확인	2	10
		2. 핵심 정보의 파악	1	
		3. 지시의 이행	1	
	나. 추론적 듣기	1. 내용의 추리	2	
		2.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	1	
		3. 적용	1	
	다. 비판적 듣기	1. 내용 또는 형식의 평가	2	

9) 일반적으로, 평가 문항의 형식에 응답하는 조사의 경우, 한두 시간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5만 원~7만 원을 피조사자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책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3,000명의 대규모 피조사자들에게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읽기 (R)	가. 사실적/축자적 읽기	1. 세부 내용 파악 능력	4	20
		2. 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3. 글의 구조 파악 능력	1	
		4. 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2	
	나. 추론적 읽기	1. 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3	
		2. 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2	
		3. 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1	
		4. 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1	
		5.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 파악 능력	1	
	다. 비판적 읽기	1. 구성의 적절성 파악 능력	0	
		2. 표현의 적절성 파악 능력	1	
		3. 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1	
		4. 내용의 효용성 파악 능력	1	
쓰기 (W)	가. 친교적 쓰기	1. 3문장 정도의 글	1	3
	나. 설명적 쓰기	1. 300자 내외의 글	1	
	다. 논증적 쓰기	1. 400자 내외의 글	1	
문법 (G)	가. 규범	1. 맞춤법	1	10
		2. 띄어쓰기	1	
		3. 표준어	1	
	나. 어휘	1. 의미와 용법	2	
		2. 의미 관계	1	
		3. 관용 표현의 의미	1	
	다. 문장	1. 경어법	1	
		2. 호응 관계	1	
		3. 접속 관계	1	

<표 5> 세부 조사 요소별 문항 수

또한,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평가 능력 및 요소를 정합적으로 조사해 내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선택형, 서답형, 수행형 조사 방식을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식 역시 장소원 외(2012)에서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읽기, 문법, 듣기 영역은 4개 답지의 선택형 문항으로, 말하기 영역은 피조사자가 실제 말한 내용을 조사원이 녹음하는 수행형 문항<sup>10)</sup>으로, 쓰기 영역은 <그림 1>과 같이 제공되는 원고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는 서답형 문항<sup>11)</sup>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말하기 및 쓰기와 같은 표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간접 조사가 아닌 직접 조사의 방식이 유용하다는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10) 임철성(2011:56)에서는 “말하기 평가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은 곧 평가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폴이 컴퓨터 기반 토폴이 되면서 말하기 평가가 도입이 된 것처럼 우리의 평가도 곧 컴퓨터 기반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말하기 평가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 환경의 한계를 고려하여 컴퓨터 기반 조사는 수행하지 못하고 조사원이 직접 녹음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영역을 조사하였다.

11) 박영민(2011)에서도 쓰기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이나 그 지식의 활용을 쓰기 평가의 중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쓰기 영역 문항을 모두 맞아도 글을 못 쓰는 대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간접 평가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가’ 형〉				〈‘나’ 형〉			
영역	문항 수	시간	배점	영역	문항 수	시간	배점
듣기	10	15	150	쓰기	3	30	250
말하기	3	15	150	읽기	13(6)	26	195
읽기	13(6)	26	195	문법	10	10	150
문법	10	10	150	누계	26문항	66분	595
누계	36문항	66분	645				

<표 7> 조사 도구의 이원적 설계

이때, ‘가’ 형과 ‘나’ 형을 조사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와 말하기는 구어로서의 속성을 고려하여 같은 유형에 포함하였다. 둘째,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응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서로 다른 영역에 배분하였다. 셋째, 읽기 영역은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문항 수가 많음을 고려하여 두 유형에 모두 포함되게 하되, 6개의 공통 문항을 설정하여 향후 두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 검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넷째, 문법 영역의 10문항 역시 ‘가’ 형과 ‘나’ 형에 모두 포함하여 동등화 검사의 기준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설계 방식을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common item non-equivalent design)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 수준의 대단위 성취도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즉, 문항의 수가 많아 모든 피조사자가 동일한 문항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든 문항을 풀지 않아도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문항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TIMSS나 PISA에서는 행렬 표집(matrix sampling) 방식으로 평가 도구를 10종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사 도구의 이원화는 간단한 수준의 행렬 표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두 조사 도구 간의 연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항들이 각 유형의 조사 도구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두 조사 도구 간의 상호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 도구의 동등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항의 20% 정도를 공통 문항으로 설정하는데, 공통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동등화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6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설정하였고, 문법 영역은 모든 문항(10문항)을 동일하게 실시함으로써 두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통 문항의 설정은 향후 검사 동등화(test equating)를 통해 두 조사 도구 간 점수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읽기 영역의 문항 중 어떤 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 시행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변별도는 높고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 문항을 설정하였다.

## 1.4. 조사 영역별 텍스트(답화) 제시 방식

각 조사 영역에서 문항별로 제시되는 텍스트(답화)에 대한 배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말하기 영역은 설명 답화와 설득 답화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듣기는 이러한 답화를 듣고 답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읽기와 쓰기는 설명 텍스트와 설득 텍스트 외에 친교 텍스트도 사용되었으며, 문법은 텍스트의 장르를 고려하기보다는 텍스트의 단위를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5개 영역의 문항에서 사용된 텍스트의 유형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sup>12)</sup>.

### ① 말하기 영역

문항 번호	평가 유형 답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배점
		경험을 설명하는 말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	주장하는 말	요청하는 말	
1	가-2			○	50
2	나-1	○			50
3	가-1		○		50
	계	1	1	1	150

<표 8> 말하기 영역의 답화 유형

### ② 듣기 영역

문항 번호	담화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배점	
		지시	뉴스	면담	대화		강연	회의		토론
1	가-3	○								15
2	가-1			○						15
3	나-2			○						15
4	가-2		○							15
5	다-1								○	15
6	다-2					○				15
7	가-1							○		15
8	나-1				○					15
9	나-1					○				15
10	나-3						○			15
	계	1	1	2	3		1	1	1	150

<표 9> 듣기 영역의 답화 유형

12) 각 영역에서 쓰인, ‘가, 나, 다’의 기호 구분은 <표 5>에서 제시한 ‘평가 능력(평가 유형)’을 표시한 것이다.



### ③ 읽기 ‘가’ 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배점
		도로명 안내	가정 통신문	사용 설명서	기사문	민원 공문	전세 계약서	논설 /사설	취업 추천서	만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1	나-1									○					15
2	다-2									●					15
3	가-3				●										15
4	다-3				●										15
5	가-2							○							15
6	나-5							○							15
7	가-1	●													15
8	가-1		○												15
9	나-3		○												15
10	가-1					○									15
11	나-2					○									15
12	나-1											●			15
13	나-4												●		15
	계	1	2		2	2		2		2		1	1		195

\* 공통 문항은 ●로 표시

<표 10> 읽기 영역(‘가’ 형)의 텍스트 유형

### ④ 읽기 ‘나’ 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배점
		도로명 안내	가정 통신문	사용 설명서	기사문	민원 공문	전세 계약서	논설 /사설	취업 추천서	만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1	나-1									○					15
2	가-4									○					15
3	다-2									●					15
4	가-3				●										15
5	다-3				●										15
6	가-1	●													15
7	가-1						○								15
8	가-2						○								15
9	가-4			○											15
10	다-4			○											15
11	나-1											●			15
12	나-2													○	15
13	나-4												●		15
	계	1		2	2		2			1	2	1	1	1	195

\* 공통 문항은 ●로 표시

<표 11> 읽기 영역(‘나’ 형)의 텍스트 유형

읽기 영역은 ‘가’ 형과 ‘나’ 형의 조사 도구에 모두 포함하되, 6개 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이때 평가 능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즉, 읽기 영역은 ‘사실적/축자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의 3개 평가 능력이 ‘가’ 형과 ‘나’ 형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하여 ‘가’ 형에는 평가 능력별로 ‘5개-6개-2개(총 13개)’의 문항이, ‘나’ 형에는 ‘5개-4개-4개(총 13개)’의 문항이 배분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통 능력으로는 ‘2개-2개-2개(총 6개)’의 문항을 배치하였다.

비고	가. 사실적/축자적 읽기	나. 추론적 읽기	다. 비판적 읽기
‘가’ 형	5개	6개	2개
공통 문항	2개	2개	2개
‘나’ 형	5개	4개	4개

<표 12> 읽기 영역의 평가 능력별 텍스트 배분

## ⑤ 쓰기 영역

문항 번호	<div> <div>답화 유형</div> <div>문항 유형</div> </div>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배점
		소개서, <b>안내문</b> , <b>설명문</b> , 기사 문, 보고서, 공문서, 계약서 등	<b>논설문</b> , 제안서/요청서, 추천서, <b>건의문</b> /탄원서, 의견서, 비평문, 자기소개서 등	편지, 사과와 글, 감사의 글, 축하 의 글, 격려·위로의 글, 문자 메 시지, 전자우편 등	
1	가-1			○	40
2	나-1	○			80
3	다-1		○		130
	계	1	1	1	250

<표 13> 쓰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

## ⑥ 문법 영역

문항 번호	<div> <div>언어 자료</div> <div>평가 능력</div> </div>	어휘	문장	답화/글	배점
1	가-1	○			15
2	가-2	○			15
3	다-1	○			15
4	나-1	○			15
5	나-2	○			15
6	나-1	○			15
7	나-3		○		15
8	다-2		○		15
9	다-3			○	15
10	가-3	○			15
	계	7	2	1	150

<표 14> 문법 영역의 언어 자료 단위

## 1.5. 내용 차원의 조사 도구 수정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는 90여 명의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간단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문항 양호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예비 조사에서 활용할 예비 조사 문항들을 선정하고 이후 각 영역별 교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각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문항을 수정<sup>13)</sup>하였다.

○ 예비 조사를 통해 정답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문항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정한다.

- ➡ [방안 1] 오답 매력도를 점검하여 매력도가 낮은 오답을 매력도가 높은 오답으로 교체한다.
- ➡ [방안 2] 문항 제시 방식을 점검하여 단순하고 직접적인 문항 제시를 피하고 문제 상황을 다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발문을 구성한다.
- ➡ [방안 3] 제시문이나 담화의 수준을 조정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보정한다.

○ 예비 조사를 통해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문항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정한다.

- ➡ [방안 1] 제시문이나 담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인지 점검하여 보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교체한다.
- ➡ [방안 2] 접근성과 격식성 측면을 고려하여 피험자에게 친숙한 제시문이나 담화 내용으로 문항을 보정한다.
- ➡ [방안 3] 제시문이나 담화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을 조정하여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보정한다.

○ 국민의 전반적인 국어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정한다.

- ➡ [방안 1] 조사 문항이 특정 직업군이나 성별, 특정 세대나 지역, 학력군에만 유리하지 않은지 살펴 내용을 보정한다.
- ➡ [방안 2] 실생활의 다양한 국어사용 국면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역 특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편파적인 삶의 양식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방안 3] 조사 문항에서 측정하는 요소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국어능력 요인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

### ① 말하기 영역의 문항 수정

○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 ➡ 듣기 영역과의 연계는 언어의 통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듣기 능력의 간접을 배제한 말하기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말하기 영역 단독 문항으로 출제한다.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여 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

13) 개별 문항별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예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문항 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발문의 내용이나 제시 방법 및 사용 어휘의 난이도를 보정하여 말하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 말하기 능력 조사는 표현 영역의 조사이므로 이해 능력의 문제로 인해 표현 능력이 잘못 측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정 학력군이나 직업군에만 유리한 어휘 사용을 피하고 설명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 수정 문항 예시: 말하기 영역 1번 문항(예비조사 3번)

- ➡ 기존 문항에서 토론 자료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문항 복잡도를 완화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지침을 명시해 주어 최대한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3	문항 정보		S-가-1
평가 문항	3.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과 청년층 일 자리를 걱정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견해를 정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div>[ 상황 ] 자신이 토론 모임에 청중으로 참여하였는데, 사회자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조건 ]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div>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득(주장하는 말하기)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S-1번				
수정/보완 의견	<div>-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찬반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수정.</div> <div>-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이어지도록 문항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냄. (추후 채점할 때 주장과 근거를 통한 설득 능력 측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자신의 견해를 둘 중 하나로 분명하게 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두 주장을 모두 이야기하며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응답 패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함.)</div>				

## ② 듣기 영역의 문항 수정

○ 문항의 난이도를 보정한다.

- ➡ 기초 조사 결과, 듣기 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높아 전체적으로 문항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 보정을 위해서는 담화의 길이나 복잡도 차원을 점검하고 내용 차원에서도 추리나 종합적 이해의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이에 더해, 오답 매력도를 높여 난이도를 보정한다.

○ ‘실제성’과 ‘특수성’을 변별하고 실제적이되 보편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문항을 수정한다.

- ➡ 기초 조사에서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는 듣기 제시문 담화를 선정한 후 어휘, 문장, 담화 구조를 다듬고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담화의 속도, 어조, 발음 등을 듣기 쉽게 개선하였다. 이에 대해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언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성’을 높이는 것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발음이나 어휘 등은 지역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담화 구조 역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수정한다.

○ 수정 문항 예시: 듣기 영역 4번 문항(예비조사 4번)

- ➡ 기존 문항은 뉴스의 내용을 듣고 제목의 핵심어를 찾는 문항이었다. 동일하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지만 상황을 함께 파악해야 하는 문항으로 보완하고 오답 매력도를 높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4	문항 정보	L-가-2
평가 문항	※ 이번에는 들려 드리는 뉴스의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p>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18일 새벽 4시를 넘기며 사용자 쪽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을 3.5%, 무사고 수당을 4만 원 올리는, 총액 기준 4.6% 임금 인상안에 사용자 쪽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새벽 3시께 협상장인 용산구 동자동 버스 노조 회관을 찾아 “노동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시의 대중교통 적자를 고려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p>		
	<p>4. (물음) 이 뉴스에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        )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p>		
	<p>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        )</p>		
자료 출처	<p>한겨레신문 2012.5.12.일자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a></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핵심 정보의 파악)_설명적 담화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L-4번		
수정/보완 의견	기초 연구의 제언을 반영하여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답지 ①을 수정		

### ③ 읽기 영역의 문항 수정

-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문항의 구성과 배치를 수정한다.
  - ➡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 읽기의 세부 능력이 고루 조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각 세부 능력이 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문항을 읽기 능력의 하위 요소가 순환적으로 반영되게 배치한다.
-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항 수와 문항 난이도를 보정한다.
  - ➡ 기초 조사 결과, 시간이 부족하여 읽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문항 수를 줄이고 서브 문항의 수를 조정한다. 또한 읽기 제시문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제시문에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 텍스트의 세부 유형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예비 문항을 구성한다.
  - ➡ 읽기 문항의 텍스트는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텍스트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각 범주에 속하는 텍스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텍스트 유형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비 문항을 마련한다.
- 수정 문항 예시: 읽기 영역 9번 문항(예비조사 3번)
  - ➡ 제시문에서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 및 도표를 삭제하고 답지를 부분 수정하여 오답 매력도를 높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3	문항 정보	R-가-3
평가 문항 (공통)	※ 다음 기사를 보고 3번과 4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3~4]		
	<p style="text-align: center;"><b>“늘 줄 몰라” 한국 중장년, 퇴직 후 하는 일이 ...</b>  <b>한국 중·장년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 ... 64%가</b>  <b>“취미 없다”</b>  <b>복지부·연금공단 1035명 조사</b></p> <p>직장을 은퇴하면 경제 형편과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즐길 게 있어야 하고 같이 즐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35~64세)에게 적용해 보니 여가 활동 준비 점수가 48.1점(만점은 100점)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이 40.5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적 관계가 63.9점, 건강한 생활 습관이 68.2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p>		

	<p>네 가지 분야, 42개 지표를 따졌는데 평균 55.2점으로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득이나 건강 분야 준비 실태가 부실하다는 조사는 많았지만 여가나 사회적 관계를 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여가 생활 분야는 일곱 가지 세부 항목을 조사해 점수화했다. 응답자의 39.7%는 노후 취미나 여가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 53.1%는 노후를 고려해 취미·여가 생활을 시작한 적이 전혀 없었고, 46.8%는 지금도 별다른 취미·여가 생활이 없다고 답했다. 일곱 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하면 응답자의 64.1%가 노후 여가 생활 인식과 준비에 관심이 적고 현재 여가 생활에도 소극적인 유형에 속했다.</p> <p>보건복지부 이재용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직장에 다닐 때 일만 하다 보니 노후 여가 활동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여가를 보낼지를 모른다. 봉사 활동도 안 해 본 것이어서 쉽게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라고 지적한다. 이 과장은 “시간을 쪼개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p>3. 이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p> <p>① 글의 첫머리에서 이 기사의 관점을 제시하였다.</p> <p>②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실태를 서로 비교하였다.</p> <p>③ 실태 조사 결과를 기사의 제목으로 활용하였다.</p> <p>④ 글의 끝에서는 관계자의 말로 결론을 대신하였다.</p>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12년 7월 16일자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div>사실적 읽기 능력_기사문</div> <div>예상 난이도</div> <div>중</div>
기초연구 문항	2012-R-9번
수정/보완 의견	피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문을 줄이고 도표 삭제. 본문 수정에 따라 답지 수정

#### ④ 쓰기 영역의 평가 문항 수정

- 한 편의 글을 쓰게 함으로써 문장, 문단, 글 전체 수준의 쓰기 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 쓰기 영역은 피조사자들에게 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므로 문항 수를 줄이되 하나의 문항 만으로도 다양한 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다. 문장이나 단락 단위의 짧은 글 쓰기는 긴 글 쓰기 속에서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 특정한 배경 지식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쓰기 문항을 수정한다.
  - ➡ 글쓰기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배경 지식의 문제로 글의 논리적 구성이나 전개 방식, 문장의 표현 등과 관련된 쓰기 능력이 온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과 표현 중 어느 한쪽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문항을 점검하고 수정한다.

○ 수정 문항 예시: 쓰기 영역 3번 문항(예비조사 3번)

- ➡ 쓰기 영역의 문항을 3개로 구성할 때, 문항 3번을 다른 문항에 비해 길게 쓰도록 함으로써 단어, 문장, 문단, 글 전체 수준의 다양한 쓰기 요소들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수정한다. 아울러 문항의 내용은 모든 연령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루되, 자연스럽게 활발한 논증(주장과 근거 제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3	문항 정보	W-다-1
평가 문항 (지문 및 대본 포함)	3. 군 복무를 마쳐 병역 의무를 다한 남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견해를 정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세요. (400자 내외)  [조건] -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둘 중 하나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힐 것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			
자료 출처	(기초 연구 보고서 참조)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논설문 쓰기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W-7번			
수정/보완 의견	발문을 명확하게 하고 찬성과 반대의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도록 조건으로 제시			

## ⑤ 문법 영역의 평가 문항 수정

○ 타 영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한다.

- ➡ 문법은 수행 영역의 기저 지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영역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한다. 특히 규범 인식이나 표현 오류 인식 능력과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과의 관련성을 높여 이를 통해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문법 요소에 주목하여 이해 능력을 높이는 상황, 문법 요소에 주목하여 표현 능력을 높이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존의 평가 문항을 수정한다.

○ 문법 용어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다.

- ➡ 문법 용어의 사용은 최대한 피하면서 문법 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정한다. 실제의 국어사용에서 적용되고 화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을 조사하도록 문항을 수정한다.

○ 수정 문항 예시: 문법 영역 1번 문항(예비조사 1번)



➔ 실제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문법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문항으로 수정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1	문항 정보	G-가-1
평가 문항	1.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오늘은 나 먼저 집에 <u>갈게</u> . ② 더 <u>낱은</u>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③ 그렇게 말하다니 참 <u>어의가</u> 없구나. ④ 그 옷에는 이 신발이 <u>문안하</u> 게 어울려.			
자료 출처	어문규정집,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맞춤법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G-1번			
수정/보완 의견	답지 ①을 좀 더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예로 수정하여 문항의 완성도를 높임.			

## 2. 조사 방식

본 연구에서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 모두 숙달된 조사원들이 표집된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로 만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국 17곳의 국어 문화원과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조사 장소를 확보하고, 표집된 피조사자들을 해당 장소로 오게 하는 ‘소수 집단 조사’를 1차로 시행하고 여기에서 배제된 변인들을 산출하여 해당 표본에 대해서만 개별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조사 시행 방식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소수 집단 조사’의 경우 변인을 통제하기 어렵고 조사 시행상의 비용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조건에 맞는 응답자를 선정하는 일정도 감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별 가구 방문 조사’를 조사 수행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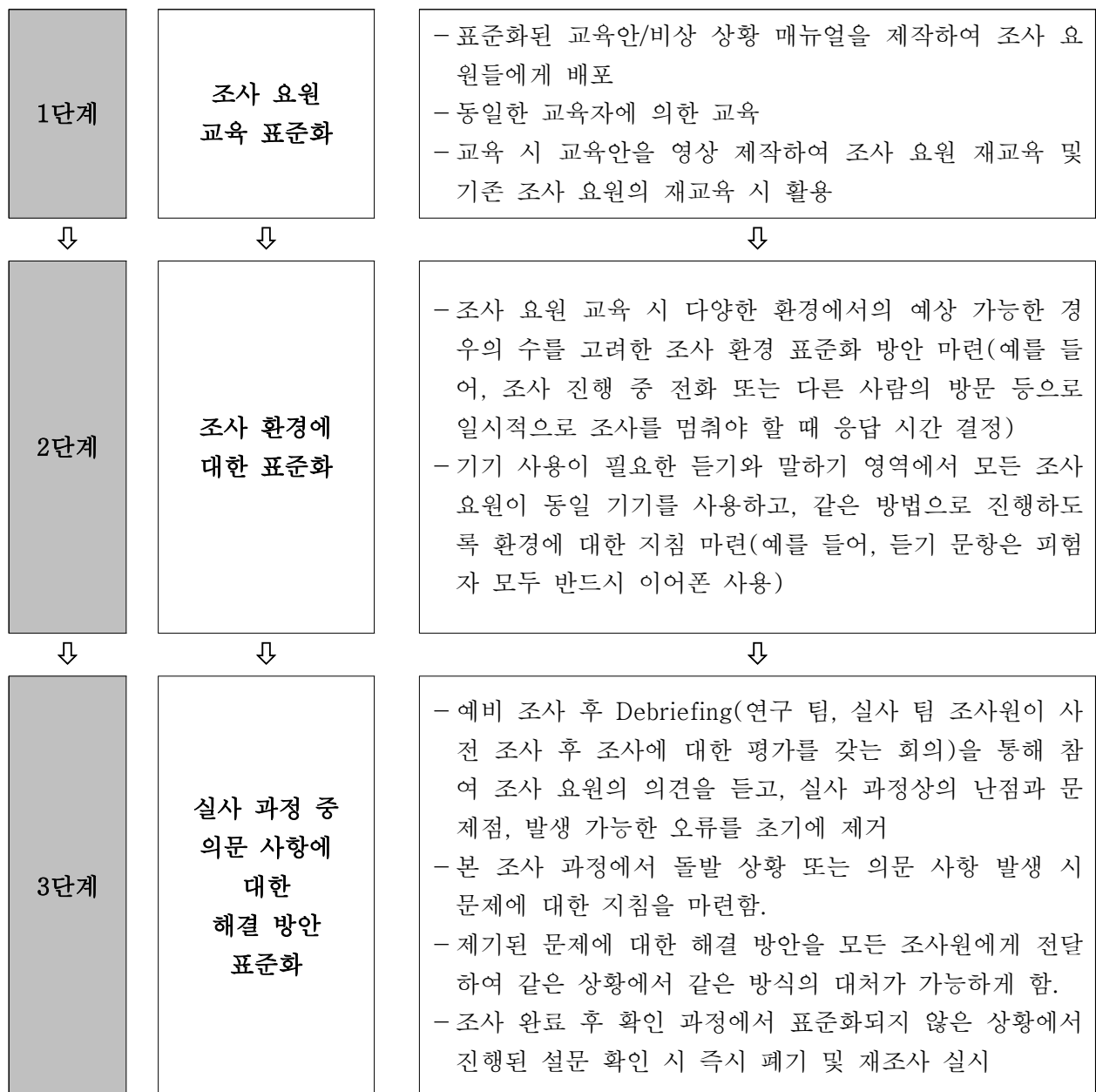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조사 방식의 경우, 무엇보다 조사원의 숙달도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조사는 피조사자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 어느 정도의 평가의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 피조사자 1인당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피조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이고 조사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인 설문 조사에 비해 피조사자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숙련된 조사원들이 조사를 담당해야 했다. 이를 고려하여, 많은 설문 조사 경험을 보유한 30-50대 여성을 위주로 조사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들은 1단계 이론 중심 교육과 2단계 실습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사원이 피조사자가 되어 본 연구의 조사

도구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사원의 질 관리 방안으로 조사원 한 명당 조사 부수에 제한을 두어 조사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며, 조사원 관리자에 의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즉, 조사원의 실질적인 질 관리를 위해 TNS Korea의 검증(Quality Control) 팀에서 조사원별로 조사 결과의 30%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원의 조사 수행 과정에 대해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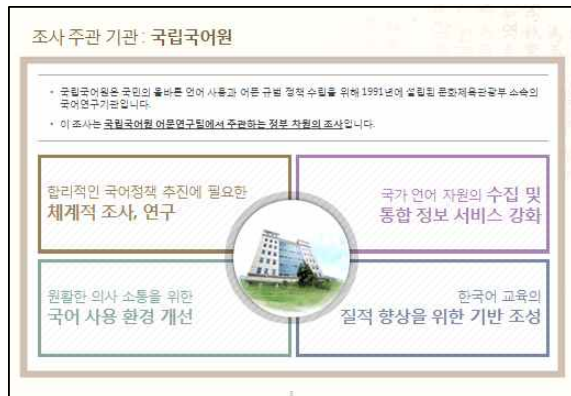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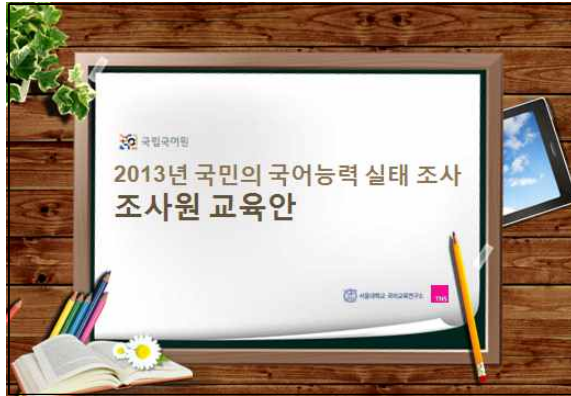
또한, 조사원들에게는 표준화된 수행 절차와 상황 발생별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여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표준화된 조사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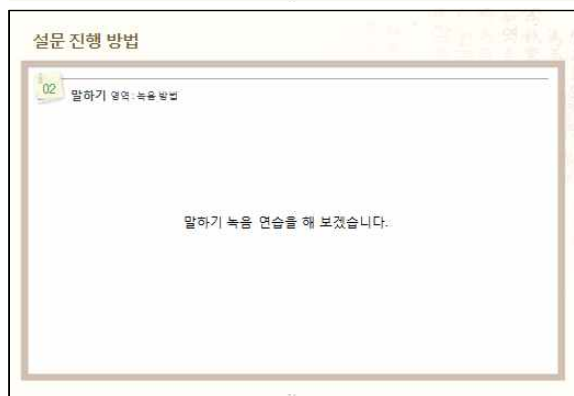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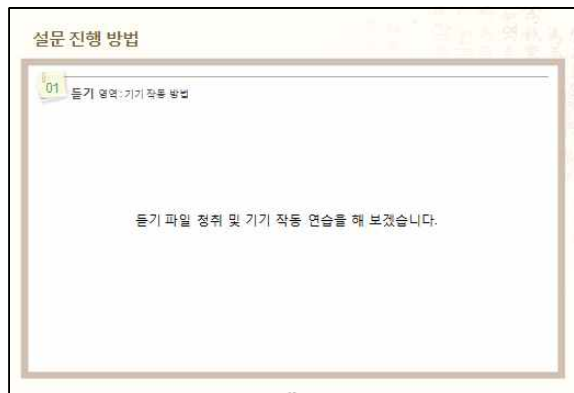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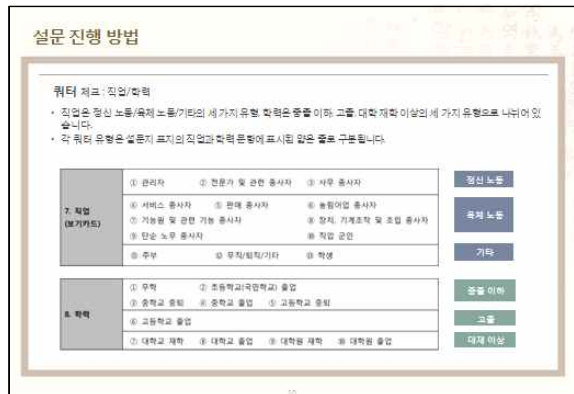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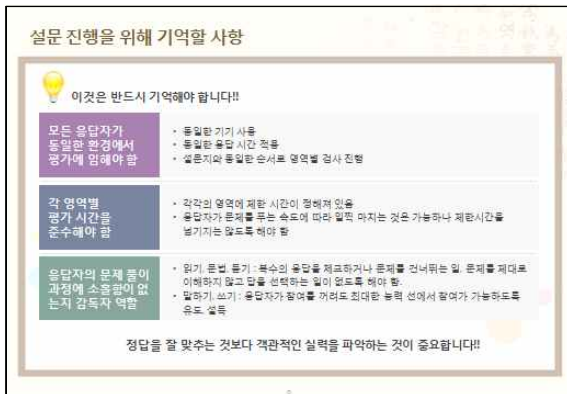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 및 실제 조사 도구에 응답

해 보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교육 자료에는 먼저 이번 조사의 전반적인 개요를 담아 조사원들이 이번 조사의 실시 목적 및 조사 도구 구성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조사원 교육 내용 ①

다음으로, 조사 도구에 대한 안내와 조사 진행 방법을 설명하고, 이후에는 각 영역별로 조사 도구를 조사원들이 실제로 풀이해 보는 시간을 가져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을 조사원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예상되는 문제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조사원 교육 내용 ②

**설문 진행 방법**

03 문법 및 읽기 영역: 가형과 나형 모두 수험생이 15분형 26문/ 문법 10분형 10문

- 평가지를 원호면서 문제를 풀고, 해당되는 보기에 직접 ○표하여 진행합니다.
- 모든 문항을 하나의 답만 있습니다. 두 개의 보기에 표시하거나, 문항을 건너뛰는 일, 제대로 표시 않고 특정 번호에만 응답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1단계 **설문지 전달 및 시간 고지**

2단계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통제**

3단계 **응답이 충실히 되었는지 확인**

**설문 진행 방법**

04 쓰기 영역

- 문항 당 한 장씩의 원고지가 주어집니다.
- 정해진 글자 수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원고지에 응답하고 조사원 ID와 작성일시를 기록하여 어떤 사람의 것인지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합니다.
- 반드시 설문지와 원고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문항별로 원고지 배부**

2단계 **문항별 글자수 준수 여부 확인**

3단계 **작성된 원고지 수거 후 응답자 ID와 조사원의 ID, 작성일시 기입**

**설문 진행 방법**

04 쓰기 영역: 원고지 구조 및 작성 방법

- 원고지는 한 줄이 20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칸마다 정제 글자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 한 칸에 한 글자씩 적어 응답자 스스로 확인이 가능 글자수가 몇 글자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문항에서 주어진 글자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글자로 간주합니다.
- 각 문항마다 지정된 글자수의 10% 정도의 글자수로 작성하면 됩니다.
- 만약 응답자가 정해진 문항보다 더 많은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면 원고지 아래 부분 또는 뒷부분의 여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지 구조**

10글자 지정 마다 현재 글자 수 표시

문1	글자 수에 관계 없이 세 문장으로 작성
문2	300자 내외로 작성 (270~330자)
문3	400자 내외로 작성 (360~440자)

<그림 4> 조사원 교육 내용 ③

끝으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조사원들이 피조사자들의 신뢰도 높은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황별 대응 (1)**

01 조사의 취지에 대해 물어볼 때

- 이 조사는 단행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정의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제작하는 조사원 한 사람에 대해 실시합니다.
- 조사기관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항과 관련된 질문과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원은 이를 알려줍니다.
-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목적으로 통계 처리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학교 졸업한지가 몇 년인데 또 시험을 봐야 하죠? 저 국어 못하는데 제 점수로 망신주려고요?**

시험이 아니라 조사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정부 자료의 실태 조사이며, 개인의 점수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대응 (2)**

02 응답자가 평가 도중에 그만두려 하거나 어려운 문항을 건너뛰려고 할 때

- 평가시간이 끝나고 쓰기 영역 및 평가가 끝나고 응답자가 긴 시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경우 평가를 재개해 줄 것을 권유합니다.
- 문항을 건너뛰고 싶고 답을 선택하거나 일부 문항을 건너뛰는 일, 평가나 쓰기를 건너뛰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 평가를 끝내고 그만두면 이제까지의 응답으로 마무리하므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 알려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길게 쓰라고요? 너무 귀찮은데, 이만 안 할게요. 이 문항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요**

중간에 평가가 중단되면 이제까지 응답하신 내용이 무의미합니다.  
조금만 힘을 내셔서 평가를 마쳐주세요.

**상황별 대응 (3)**

03 응답자가 외부 상황에 의해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때

- 평가 도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손님이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조사가 중단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중단 시간의 시간을 확인하여 조사를 재개할 때 시간 배분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잠시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요, 밖에 조인종 소리가 나는데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할게요.  
(다시 돌아오면 조금 전에 5분까지 마쳐셨고요, 남은 시간은 20분입니다.)

**상황별 대응 (4)**

04 기기 작동이 되지 않을 때

- 기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담당 수리반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려주고 조치를 받으십시오.
- 기기 문항 진행이 어려울 경우 말하기와 쓰기 영역이 없는 낙필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차후 약속을 잡아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의 대응**

1. 기기 상태 재확인
2. 담당 수리반에게 보고 후 대응지침 전달 받음
3. 취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기와 말하기 영역이 없는 '낙' 설문으로 대체
4. 정중히 사과 후 방문 약속을 다시 잡아 재방문

<그림 5> 조사원 교육 내용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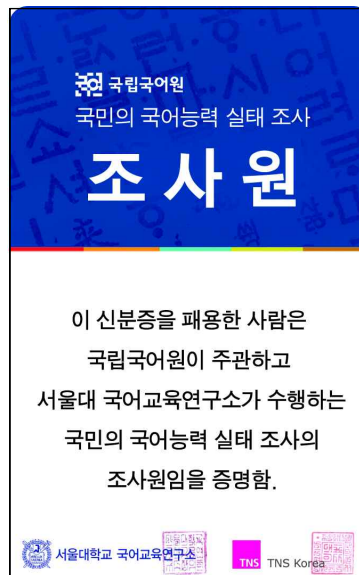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원에 대한 질 관리에 더해, 피조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해당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시행하였다.

첫째,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요원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TNS Korea의 직인이 포함된 조사원 명찰(<그림 6>)을 패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립국어원장의 인사말, 해당 조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 조사 기관 소개 등이 포함된 안내 리플릿(<그림 7>)을 제공하여 피조사자들이 해당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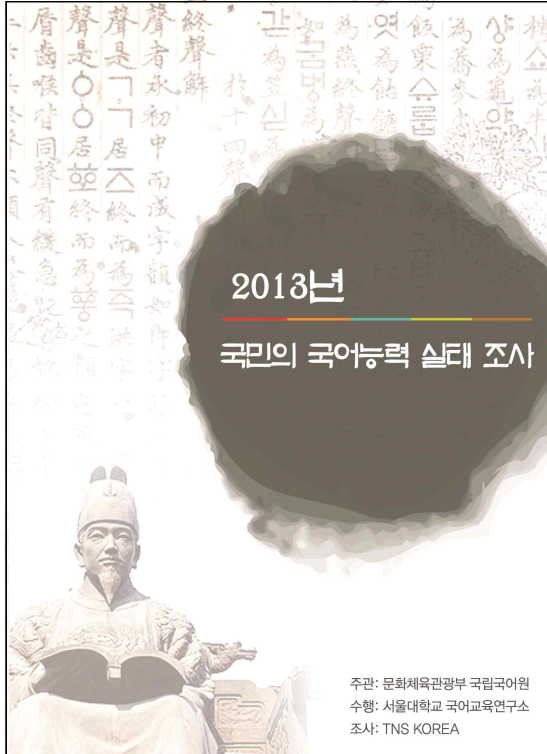
셋째, 조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보상품(문화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넷째, 조사 영역에 따라 조사 요원이 세밀한 안내를 하게 하고, 특히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였다.




<그림 6> 조사원 명찰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행: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조사: TNS KOREA

인사말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꽃이 자연의 절정이요 결실이라면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은 인간이 피워 내는 꽃과도 같습니다. 꽃이 자연의 사계절을 알리게 하듯이 말과 글은 그 사람의 됬됨이를 보여 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말과 글이 향기를 잃고 시들어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으로, 우리 국민의 국어 교양 증진, 국어능력의 향상, 국어 소통의 강화를 위한 어문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역시 이러한 취지 속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집중하여, 제시된 문항들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조사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2013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국어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대표로 선정된 분입니다. 즉,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의 국어능력을 증진하고 우리 사회의 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어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국어원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들여 응답해 주신 결과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하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어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수행하며 전문 조사 기관 TNS에서 실제 조사를 담당합니다. 조사 결과는 올바른 어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3,4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에 걸쳐 국민의 국어능력을 진단합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위해 조사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셋

**효율적인 국어능력 조사 도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개인별로 30개 내외의 문항을 한 시간 정도에 걸쳐 응답하게 됩니다. 영역별 응답 순서와 시간은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되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나라의 올바른 어문 정책을 연구하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입니다. 1991년에 설립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는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3년에 서울대학교 산하 연구소로 설립되어 초·중·고 국어교육은 물론 국민 전체의 국어생활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TNS

1984년에 설립되어 방송 3사 선거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사회 조사 및 마케팅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사 회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TNS**

[www.tnsglobal.co.kr](http://www.tnsglobal.co.kr)  
[TEL] 02.3779.4412 [FAX] 02.761.4590

<그림 7> 조사 안내 리플릿

### 3. 표본 추출 방식

이번 조사는 특정 집단의 국민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조사의 대상이라는 점, 특정 의도에 따라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국민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성을 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야지만,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라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이 객관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다.

#### 3.1. 변인의 설정

모집단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띤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하나의 변인 내에서의 추출 요소도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의 5개 변인을 설정하고, 각 변인별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변인별 요소를 부여하였다.

##### ① 성별 변인

먼저, 성별 변인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2개의 요소로 설정하였다.

##### ② 연령 변인

연령 변인은 최소점은 20세로 설정하고 최대점은 59세로 설정하였다. 이는 20세 미만은 제도 교육을 받고 있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 국어능력을 조사할 수 있고, 59세 초과는 실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런데 20세~59세의 개별적인 모든 연령을 변인으로 설정하기는 어렵고, 이들을 일정한 연령대로 구획하여 집단화할 필요가 있어 연령대를 20대(만 20-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만 50-59세)의 4개 요소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의 연령 변인은 정확히 말해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 변인으로 설정된다.

##### ③ 지역 변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방안으로 지역 변인을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시도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둘째, 지역 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의 세 요소로 설정하되, 각각 ‘서울특별시 및 5대 광역시의 동 지역, 이를 제외한 동 지역, 이를 제외한 읍면 단위’로 정의하여 지역 규모 변인을 상정하였다.



#### ④ 학력 변인

학력 변인 역시 국어능력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무학, ②초등(국민)학교 졸업, ③중학교 중퇴, ④중학교 졸업, ⑤고등학교 중퇴, ⑥고등학교 졸업, ⑦대학교 재학, ⑧대학교 졸업, ⑨대학원 재학, ⑩대학원 졸업’의 다양한 세부 구획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 가지 요소를 모두 통제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한정된 조사 단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졸 이하(①~⑤), 고등학교 졸업(⑥), 대재 이상(⑦~⑩)’의 세 요소로 구획하여 학력 변인을 통제하였다.

#### ⑤ 직업 변인

학력 변인과 더불어 직업 변인 역시 국민의 국어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인데, 표준 직업 분류상 학력 변인은 10개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이들 변인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표준 직업 분류(KSCO)를 기준으로 직업군을 ‘정신노동(white collar)’, ‘육체노동(blue collar)’, 학생, 주부, 무직자를 포함한 ‘기타’의 세 직업군으로 나누어 직업 변인을 통제하였다. 이때, 각 직업군에 속하는 세부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직업군	세부 직업
정신노동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
육체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등
기타	주부, 학생, 무직 등

<표 16> 직업군별 세부 직업

이러한 변인들은 조사 도구의 가장 앞면에 기입하게 하였는데, 피조사자들이 각 변인별로 어느 항목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조사원이 구두로 물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사원이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표본 집단의 추출 및 상관관계의 분석 과정에서는 각 변인별로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 성별(남성/여성), 연령대(20대/30대/40대/50대), 지역 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 단위), 학력군(중졸 이하/고졸/대재 이상), 직업군(정신노동/육체노동/기타)의 변인만을 고려하였다.

국립국어원 주관

ID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가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수행하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현재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조사지에 기입되는 모든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 TNS Korea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기관 : TNS Korea (<http://www.tnsgloba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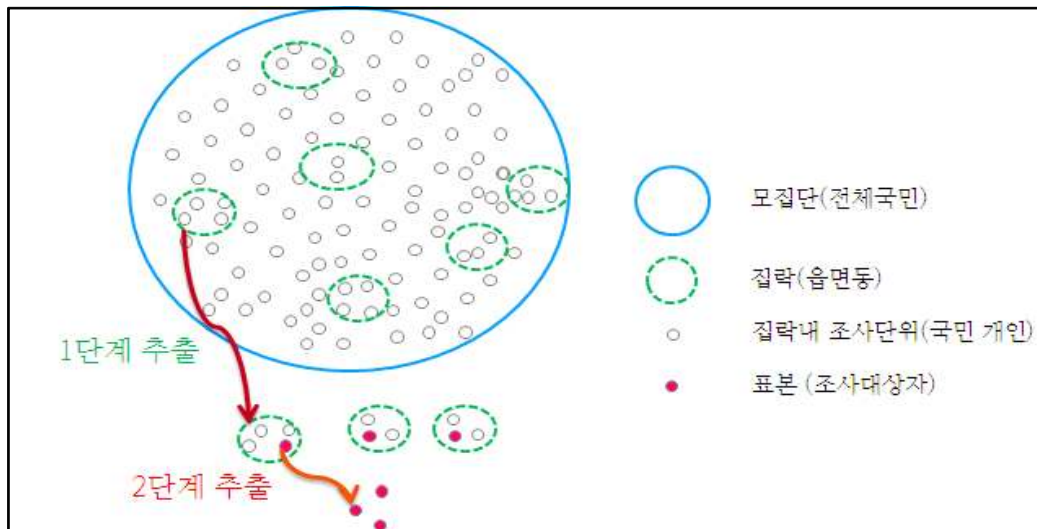
1.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2. 읍면동 코드 (보기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지역 구분	① 동 지역 ② 읍면 지역				
4.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5. 나이	만 _____세				
6.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7. 직업 (보기카드)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직업 군인									
	⑪ 주부 ⑫ 무직/퇴직/기타 ⑬ 학생									
	① 무학 ②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재학 ⑧ 대학교 졸업 ⑨ 대학원 재학 ⑩ 대학원 졸업									
작성일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에디팅 확인					검증원 확인					

&lt;그림 8&gt; 피조사자의 변인 기입 방식

## 3.2. 표본 추출 방식

모집단인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떨 수 있는 표본 집단의 추출은 앞서 설정한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군의 5개 변인들을 정합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단계 층화 표본 추출 방식과 집락 추출 방식을 혼용하였는데, 1차 층화 기준은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변인이었으며, 2차 층화 기준인 직업군과 학력군 변인은 소프트 할당(soft quota)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집락 추출 방식(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 집단을 추출하였는데, 이때 통계적 개념에서의 집락(cluster)은 서로 인접해 있는 개별 조사 단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집락 추출은 먼저 조사를 진행할 집락을 선정한 후 그 집락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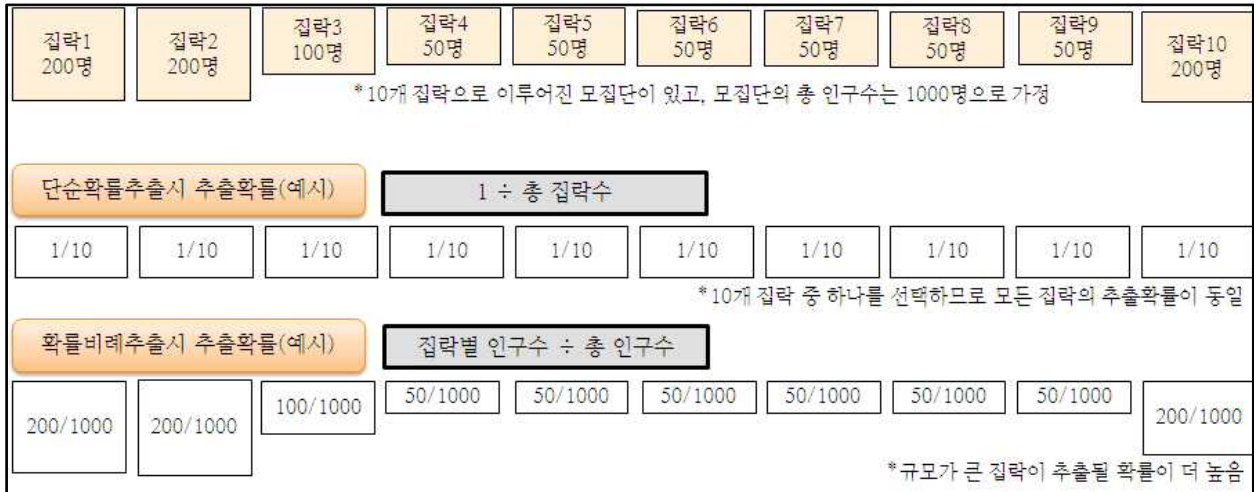


<그림 9> 2단계 집락 추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행정 구역상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간주하여 조사 대상 읍·면·동을 먼저 추출한 후(1단계), 해당 읍·면·동에서 조사에 참여할 개인을 추출(2단계)하였다. 그런데 같은 시도 내에서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국어능력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동(洞) 부와 읍면(邑面) 부를 구분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예비 조사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동 부와 읍면 부를 추출하고, 본 조사 시에는 확률 비례 추출(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통해 대상 읍·면·동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규모가 큰 집락일수록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비례해서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락들의 규모 차이가 크거나 대규모 집락이 전체 모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각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출하는 방법인 확률 비례 추출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확률 비례 추출을 통해 집락을 추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집락에서 동일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각 표본별로 추출 확률이 같아지는 자체 가중 표본(self-weighting sample)을 얻을 수 있다. 자체 가중 표본을 활용하면 결과 분석 과정에서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각 층별로는 추가적인 가중 값의 보정 없는 단순 평균값으로도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14) <그림 10>에서 상단의 방식이 단순 비례 추출법, 하단의 방식이 확률 비례 추출법을 예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단의 확률 비례 추출법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집락의 표본 추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림 10> 확률 비례 집락 추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여건 및 조사 대상의 범위를 감안하여 하나의 집락(읍·면·동)에서 표집되는 표본 수를 10명으로 설계하였다. 이때,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추출되는 집락 수를 결정하고, 집락 수 결정 과정에서 역시 인구 통계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 변인별 집락 수도 결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1단계로 표본 집락을 추출한 후, 추출된 집락(읍·면·동) 내에서 개별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에는 먼저 성별, 연령대의 분포를 고려하여 균등한 비율로 할당되도록 개별 표본(피조사자)을 추출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20~59세 남녀
추출 고려변인	지역/성별/연령/직업/학력
표본크기	Set별 1,500명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 후 2단계 집락추출
	집락은 읍면동이며, 행정구역상 읍면동 리스트가 추출틀이 됨
	추출틀에서 집락추출은 확률비례추출법(PPS)으로 설계
	추출된 집락 내에서 응답자 선정은 할당추출로 진행

<그림 11> 2단계 집락 추출 방식

다음으로, 학력군과 직업군 변인은 소프트 할당 방식으로 변인을 통제하는데, 이때 읍·면·동을 기준으로 학력군과 직업군을 할당하게 되면, 추출된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특정 학력군이나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력군과 직업군은 읍·

면·동 단위가 아닌 시도별로 표본 수를 할당하고 그 비율에 맞춰 추출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다면, 같은 시도 내 다른 읍·면·동에서는 저학력 응답자가 더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도 전체의 학력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시 통계청의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비율을 유지한다<sup>15)</sup>.

---

15) 구체적인 표본 집단의 수치 및 비율은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논의하는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IV. 예비 조사

### 1. 예비 조사 개관

예비 조사의 조사 시기는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약 3주이었으며, 조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59세의 성인 남녀 400명이었다. 이들 표본 집단은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군에 따라 층화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되었다.

실제 조사는 장소원 외(2012)에 기반하여 보정한 조사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 도구는 ‘가’ 형과 ‘나’ 형의 두 세트로 분리되어, ‘가’ 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문법 영역을, ‘나’ 형에서는 읽기, 문법, 쓰기 영역을 조사하였다. 이때, 읽기 영역 6문항과 문법 영역 10문항은 공통 문항으로 배치하여 향후 조사 도구 및 조사 집단의 동등화 검사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채점은,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듣기, 읽기, 문법의 객관식 문항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채점하였고, 말하기, 쓰기의 주관식 문항은 각 문항별로 3인의 전문가가 교차 채점하여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원 점수를 기준으로 듣기 영역의 평균은 119.4점(150점 만점), 표준편차는 21.04였으며, 말하기 영역은 평균이 76.57점(150점 만점), 표준편차는 21.69였다. 또한 읽기 영역은 평균이 143.33점(195점 만점), 표준편차는 36.13이었고, 쓰기 영역은 평균이 124.3점(250점 만점), 표준편차가 40.33이었다. 문법 영역은 평균이 99.64점(150점 만점), 표준편차가 23.43이었다.

각 문항별로 고전 검사 이론에 따라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여 난이도가 극단에 있는 문항, 변별도가 낮은 문항, 기대 정답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해 문항 및 답지를 수정하였다.

예비 조사의 결과를 성별, 지역 규모, 연령대, 직업군, 학력군의 변인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여 예비 조사의 조사 도구, 주관식 문항의 채점 방식, 조사 수행 방식, 표본 집단 산출 방식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 및 본 조사를 위해 반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 조사의 확인 사항	→	본 조사 반영 사항
문항별 난이도 분석	→	■ 조사 도구 수정·보완
문항별 변별도 분석		
문항별 답지 반응을 분석		
주관식 문항의 채점	→	■ 조사 도구 수정·보완 ■ 채점자 훈련
표본 집단 사이의 동질성 확인	→	■ 조사 방식 및 표본 추출 방식 점검
영역별 ×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	■ 표본 추출 방식 점검

<표 17> 예비 조사의 확인 사항

## 2. 예비 조사의 표본 추출

예비 조사의 표본 집단은 이원화된 조사 도구에 따라 ‘가’ 형과 ‘나’ 형 각각 200명씩을 추출하였다. 예비 조사의 표본 추출은 2단계 집락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가장 먼저 지역 변인을 고려하여 집락 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집락을 선정한 후 해당 집락에서 나머지 변인들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성별, 연령 변인은 균등하게 할당하는 하드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며, 직업과 학력 변인은 소프트 할당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예비 조사는 조사의 목적이 전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집락 추출 방식이나 직업, 학력 변인의 소프트 할당 방식을 인구 분포 비율에 맞추어 진행할 것이지만, 예비 조사에서는 가급적 각각의 변인들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게 표본 집단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할당 기준은 지역,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대도시), 인천(대도시), 경기(중소 도시), 경기(읍면 단위)의 4개 지역을, 20대 남/여, 30대 남/여, 40대 남/여, 50대 남/여의 총 32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각 구간별로 6명~7명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실제 조사는 ‘가’ 형과 ‘나’ 형의 두 가지 조사 도구로 시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인원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추출하였다.

구 분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b>합계</b>	<b>200</b>	<b>25</b>	<b>25</b>	<b>25</b>	<b>25</b>	<b>25</b>	<b>25</b>	<b>25</b>	<b>25</b>
서울(대도시)	50	7	7	6	6	6	6	6	6
인천(대도시)	50	6	6	6	6	7	7	6	6
경기(중소 도시)	50	6	6	7	7	6	6	6	6
경기(읍면 단위)	50	6	6	6	6	6	6	7	7

<표 18> 예비 조사의 지역, 성별, 연령대에 따른 표본 추출

### 2.1. 지역 변인

본 연구에서의 지역 단위의 설정은 행정 구역상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간주하여 추출한다. 즉, 조사 대상 읍·면·동을 먼저 추출한 후(1단계), 해당 읍·면·동에서 이 조사에 참여할 개인을 추출(2단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시행 규모와 한정된 시간을 고려하여 예비 조사의 집락 추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만 한정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지역 변인은 각 시도별이 아닌 ‘지역 규모’이다. 즉, 표본 추출은 각 시도별로 표본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진행하지만 실제 분석은 시도별 국어능력 차이가 아닌 지역



규모별 국어능력의 차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즉, 같은 시도 내에서도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국어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동(洞)부와 읍면(邑面) 부를 구분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 시에는 확률 비례 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집락을 추출할 것이지만, 예비 조사에서는 같은 비율의 집락을 추출하였다. 서울 동 지역에서 5개의 집락을, 인천 동 지역에서 5개의 집락을, 경기 동 지역에서 5개의 집락을, 경기 읍면 지역에서 5개의 집락을 추출하고, 성별, 학력, 직업, 연령 등의 다른 변인을 고려하여 각 집락별로 20명씩을 추출하였다. 이때, 실제 분석에 쓰이는 지역 변인은 지역 규모 변인으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단위’가 기준이 된다.

지역 규모	지역	세부 지역	‘가’ 형	‘나’ 형
대도시 (100명+100명)	서울 동 지역 (50명+50명)	성동구 마장동	10명	10명
		강북구 삼각산동	10명	10명
		마포구 염리동	10명	10명
		영등포구 영등포동	10명	10명
		강남구 역삼1동	10명	10명
	인천 동 지역 (50명+50명)	남구 용현 1, 4동	10명	10명
		연수구 송도 1동	10명	10명
		부평구 부평2동	10명	10명
		계양구 계산 1동	10명	10명
		서구 가좌3동	10명	10명
중소도시 (50명+50명)	경기 동 지역 (50명+50명)	성남시 정자1동	10명	10명
		부천시 소사본3동	10명	10명
		고양시 화정2동	10명	10명
		군포시 오금동	10명	10명
		광주시 경안동	10명	10명
읍면 단위 (50명+50명)	경기 읍면 지역 (50명+50명)	남양주시 화도읍	10명	10명
		파주시 법원읍	10명	10명
		김포시 양촌읍	10명	10명
		양주시 백석읍	10명	10명
		양평군 양평읍	10명	10명
계			200명	200명

<표 19> 예비 조사의 지역 규모별 표본 추출

예비 조사와 본 조사에서 모두 특정 지역의 국어능력 차이를 밝히기보다는 지역 규모에 따른 국어능력의 차이를 밝히는 데 지역 변인 설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예비 조사는 ‘가’ 형과 ‘나’ 형 각각 ‘100:50:50’의 지역 규모에 따른 표본 집단을 추출한 셈이다.



## 2.2. 성별 변인

추출된 집락 속에서 남녀 각각 절반이 되게 표집하여 성별 변인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 조사에서는 조사 도구에 따라, ‘가’ 형은 남성이 100명, 여성이 100명이고, ‘나’ 형 역시 남성이 100명, 여성이 100명이다.

## 2.3. 연령 변인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이를 직접 표기하게 한 결과, 예비 조사 대상 400명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은 만 20세였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 59세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9.04세였다. 그런데 연령 변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정한 연령대로 구획하여 집단화할 필요가 있어 연령대를 20대(만 20-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만 50-59세)의 4개 섹터로 나누어 표집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 그 결과, 예비 조사에서는 ‘가’ 형과 ‘나’ 형 각각 50명씩 동일한 비율의 연령대가 표집되었다.

## 2.4. 직업 변인

전술하였듯이, 예비 조사와 본 조사 모두의 표본 추출 과정에서 세부 직업들을 모두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세 직업군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본 조사 시에는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이들 직업군의 비율을 파악하여 표본 추출의 근거로 삼을 것이지만, 예비 조사에서는 각 직업군 사이의 효율적인 조사 결과 분석이 목적이므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내에서 직업군 간 분포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어<sup>16)</sup> 각 직업군을 동등하게 ‘1:1:1’의 비율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지역별, 직업군별로 할당 목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구분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b>합 계</b>	<b>200</b>	<b>67</b>	<b>67</b>	<b>66</b>
서울	50	17	17	16
인천	50	17	17	16
경기	100	33	33	34

<표 20> 예비 조사의 직업군별 표본 추출

16)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2010)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의 각 직업군별 비율은 다음과 같아, 직업군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때 제시된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내에서의 비율이다.

비고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서울특별시	7.5%	6.9%	7.0%
인천광역시	1.5%	2.3%	1.9%
경기도	7.3%	8.9%	7.6%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예비 조사의 직업에 따른 표본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군	세부 직업	‘가’ 형	‘나’ 형
정신노동	①관리자	3명	8명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명	5명
	③사무종사자	55명	51명
	누계	65명	64명
육체노동	④서비스 종사자	23명	18명
	⑤판매종사자	29명	40명
	⑥농림어업종사자	0명	1명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명	8명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명	3명
	⑨단순 노무 종사자	5명	1명
	⑩직업 군인	2명	0명
	누계	73명	71명
기타	⑪전업주부	24명	25명
	⑫무직(퇴직)	9명	14명
	⑬학생	29명	26명
	누계	62명	65명

<표 21> 예비 조사의 직업별 표본 추출 결과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①-⑬의 세부 직업이 직업 변인이 아니라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이 직업 변인이라는 점에서 ①-⑬의 비율은 고려할 수 없으며, 최초에 상정한 할당 목표와 비교하여 10% 내의 차이는 허용하였다.

## 2.5. 학력 변인

학력 변인은 직업 변인과 마찬가지로, 소프트 할당 방식으로 통제되는 변인이다. 앞서 직업 변인은 예비 조사의 속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도별 분포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학력 변인은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경우 현실적으로 ‘중졸 이하’나 ‘고졸’의 비율이 많지 않아 표본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예비 조사의 학력 변인은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2010)의 학력 분포 비율<sup>17)</sup>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할당 목표를 상정하였다.

17) 실제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시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서울특별시	2.0%	6.4%	13.1%
인천광역시	0.7%	2.4%	2.5%
경기도	2.5%	8.9%	12.4%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b>합 계</b>	<b>200</b>	<b>20</b>	<b>75</b>	<b>105</b>
서울	50	4	15	31
인천	50	6	22	22
경기	100	10	38	52

<표 22> 예비 조사의 학력군별 표본 추출 목표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예비 조사의 학력에 따른 표본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군	세부 학력	‘가’ 형	‘나’ 형
중졸 이하	①무학	0명	1명
	②초등(국민)학교 졸업	0명	0명
	③중학교 중퇴	1명	2명
	④중학교 졸업	12명	13명
	⑤고등학교 중퇴	1명	5명
	<b>계</b>	<b>14명</b>	<b>21명</b>
고졸	⑥고등학교 졸업	73명	68명
	<b>계</b>	<b>73명</b>	<b>68명</b>
대재 이상	⑦대학교 재학	26명	22명
	⑧대학교 졸업	82명	84명
	⑨대학원 재학	1명	1명
	⑩대학원 졸업	4명	4명
	<b>계</b>	<b>113명</b>	<b>111명</b>
총계		200명	200명

<표 23> 예비 조사의 학력별 표본 추출 결과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①-⑩의 세부 학력이 학력 변인이 아니라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학력군이 학력 변인이라는 점에서 ①-⑩의 비율은 고려할 수 없으며, 최초로 상정한 할당 목표와 비교하여 10% 내의 차이는 허용하였다. 이러한 학력 변인에 따른 표본 추출 결과를 도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6. 종합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상정한 지역 규모, 성별, 연령대, 직업군, 학력군

의 5개 변인에 따라 예비 조사에서 추출한 표본 집단을 ‘가’ 형과 ‘나’ 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	구간	‘가’ 형	‘나’ 형	계
지역 규모	대도시	100	100	200
	중소도시	50	50	100
	읍면 단위	50	50	100
	계	200	200	400
성별	남성	100	100	200
	여성	100	100	200
	계	200	200	400
연령대	20대	50	50	100
	30대	50	50	100
	40대	50	50	100
	50대	50	50	100
	계	200	200	400
직업군	정신노동	65	64	129
	육체노동	73	71	144
	기타	62	65	127
	계	200	200	400
학력군	중졸 이하	14	21	35
	고졸	73	68	141
	대재 이상	113	111	224
	계	200	200	400

<표 24> 예비 조사의 표본 추출 결과

### 3. 예비 조사 결과의 채점

#### 3.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예비 조사와 본 조사 모두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항 조사에 사용하는 OMR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사 특성상 피조사자의 집단이 다양하여 자칫 OMR 카드의 미숙한 사용으로 인해 조사 결과에 오류가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피조사자들이 조사 도구에 직접 기입한 답안을 조사원들이 효율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조사지에 직접 답을 기입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여 검증 과정을 거친 뒤 TN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입력 시스템인 surveycraft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력 과정을 통해 통계 산출이 용이한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객관식 문항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 3.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예비 조사에는 말하기 영역 3문항, 쓰기 영역 3문항의 주관식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각각 600개의 답안에 대한 채점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말하기와 쓰기 각각 4,500개에 대한 채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규모 주관식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서는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주관식 문항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첫째, 말하기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직접 녹음하여 문항별·피조사자별 파일로 구축하고, 쓰기 문항에 대한 응답은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구안된 원고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각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먼저, 말하기 영역은 3개의 문항 모두 ‘내용 선정, 조직, 표현, 전달’의 하위 채점 요소를 설정하고 5점 척도를 중심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먼저, 말하기 영역의 3개 문항은 각각 50점 만점으로 채점하되 4개의 채점 요소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표 25> 말하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p>● <b>내용 선정</b></p> <p>: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요청’하는 말하기</p> <p>-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설문 요원에게 문제에 대한 질문만 계속 던진 경우 등</p> <p>-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p> <p>-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된 경우</p> <p>● <b>조직</b></p> <p>: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p> <p>-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p> <p>-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p> <p>-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p>
--

어지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b>*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b>	
<b>● 표현</b>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전문적 용어-구청담당자, 격식적 표현 등),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구청담당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b>● 전달</b> :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 ①시간이 30초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b>* 추가 감점 기준: 감정적인 어조(예: 흥분, 분노 등)인 경우 추가로 감점.</b> <b>*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b>	

<표 26> 말하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표 27> 말하기 2번 문항 채점 기준

<b>● 내용 선정</b>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설명’하는 말하기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이 스스로 유괴 시 대처하는 방법,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경우(즉, 내가 해 줄게.. 등의 말인 경우) 질문에 요구하는 대답이 아님.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이 있는 경우	
<b>● 조직</b>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 표현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초등학생에게 맞는 쉽고 구체적인 어휘의 사용),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매우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에게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여 어법에 맞게 말한 경우

● 전달

: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①시간이 30초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28>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3	6	9	12	15	30 %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표 29> 말하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 내용 선정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문제에 대한 이해’, ‘②찬반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찬반입장 표현이 없거나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찬반입장 즉 주장이 드러난 있는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조직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주장과 근거의 관계’와 ‘②내용의 흐름(논리성)’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가 제시된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 **표현**

: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토론의 상황, 공식적 자리), 어휘의 의미(법안, 전문적 용어 등)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상황에 맞지 않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③ 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고 쓰는 경우

● **전달**

: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 ①시간이 30초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감정적인 어조(예: 흥분, 분노 등)인 경우 추가로 감점.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30> 말하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다음으로, 쓰기 영역의 3개 문항은 각각 40점, 80점, 130점으로 차등하여 배점하고, 각 문항마다 ‘내용, 조직, 표현’의 채점 요소를 두어 채점을 진행하였다. 또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되 각 채점 요소별 배점을 기준으로 척도 점수에 해당하는 원 점수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해, 쓰기 영역은 보다 세밀한 채점 기준을 제공하여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초청)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계절 인사, 초청의 목적, 끝 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2	3	5	6	8

<표 31> 쓰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목적이 명시되어 없음.	명시되었지만 부족함.	‘만나자’ 정도만 언급되어 있음.	‘송년회’라는 말만 있음.	• ‘저문다’, ‘연말 맞이’, ‘한 해 마감’ 등 송년회의 의미가 있음.



					• 송년회라는 말이 없어도 이유가 언급되어 있음.
	양적인 조건을 충족 하였는가	3문장 미만이거나 4문장 이상이면 한 단계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내용은 아래에 적힌 일시, 장소, 회비에 한정함. 이 경우 한 단계 감점.</li> <li>- 타당한 정보를 상상력을 발휘하여 추가한 경우는 인정.</li> </ul>				
조직	담화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가. ('첫인사+목적+끝인사'의 구성 이어야 함)	‘첫인사+목적+끝인사’ 구성 중 두 가지 이상을 누락한 경우		‘첫인사+목적+끝인사’ 중 한 가지를 누락한 경우	‘첫인사+목적+끝인사’ 구성을 갖추고 있음.
표현	적법한 문장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띄어쓰기의 경우 관대하게 보고, 어휘, 구어, 맞춤법만 체크함)	7개 이상	5~6개	3~4개	1~2개 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과 ‘조직’ 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표현’ 항목도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줄 것.</li> <li>- ‘내용’과 ‘조직’ 항목이 모두 우수나 매우 우수면 표현은 틀린 개수대로 채점.</li> <li>-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등의 심각한 비문이 아니라면 어색한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 몰라서가 아니라 급해서 틀린 글자는 허용.</li> </ul> <p>* 문제의 정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오답 처리. 오답은 세 항목 모두 매우 미흡으로 처리.</p>					

<표 32> 쓰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li> <li>-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li> <li>-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li> </ul>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li> <li>-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li> </ul>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li> <li>-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li> </ul>	3	6	10	13	16

<표 33> 쓰기 2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는가.	100 미만		100이상~200미	200 이상	

				만		
	내용 요소를 충실히 갖추고 있는가. (①연지곤지, ②눈, ③코, ④입(미소), ⑤얼굴형 등)	1개	2개	3개	4개	5개
조직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는가. (위아래, 인상적인 것, 전체에서 부분 등)	방향성이 없다	미흡하다	방향성이 있다	체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문장이나 문단을 구성하였는가.	의미 중심의 문장을 구성하지 못했다.	문장을 구성하였으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장을 구성하였다.	문장을 구성하고 연결이 자연스럽다.	문장 및 문단을 구성하였다.
표현	적절한 문장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7개 이상	5~6	3~4	2	0~1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0~1	2	3	4	5

<표 34> 쓰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li> <li>-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li> <li>-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li> </ul>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락 의식을 가지고 서론-본론-결론을 구성하였다.</li> <li>- 답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li> </ul>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li> <li>-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li> </ul>	5	10	16	21	26

<표 35> 쓰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는가.	120자 이하	주장 +근거0	주장 +근거1	주장 +근거2	주장 +근거3
조직	일정한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문장이나 문단을 구성하였는가.	한 문장만	본론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했으나 양적 비율이 어색함</li> <li>• 서론만 없음</li> </ul>	단락 구분無 +서론, 본론, 결론	단락 구분有 +서론, 본론, 결론
표현	적절한 문장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	철자 오류	철자 오류 2~3개	철자 오류 4개~	철자 오류 2~3개	철자 오류 0~1개

	고 있는가.	4개~/한 문장만				
* ‘표현’ 항목은 내용이 보통 이상이면 보통 이상으로 채점, 내용이 미흡 이하이면 미흡 이하로 채점하며 위의 철자 오류 기준을 따름. * 2회 이상 띄어쓰기 오류는 철자 오류 1개로 계산함.						

<표 36> 쓰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셋째,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하나의 문항에 대해 해당 영역의 전문가 3인이 교차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예비 조사의 채점자들이 본 조사 문항도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일 문항에 대해 3인의 교차 채점 결과를 상관계수 및 일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 한 후에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은 채점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채점 전문가 집단이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이 맡은 문항을 채점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채점자는 교체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하기 영역 전공자 9명, 쓰기 영역 전공자 9명의 총 18명이 예비 조사의 주관식 문항 채점에 참여하였다.

말하기 영역			쓰기 영역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채점자 3인 (집단 A)	채점자 3인 (집단 B)	채점자 3인 (집단 C)	채점자 3인 (집단 가)	채점자 3인 (집단 나)	채점자 3인 (집단 다)
말하기 영역 채점자: 9명			쓰기 영역 채점자: 9명		

<표 37> 주관식 문항 채점자 집단 구성 방식

넷째, 개별 문항에 대한 채점자들의 채점 요소별 채점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여 일정 비율의 답안을 함께 채점하도록 하였다.

### 3.3.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 채점의 채점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각 문항별로 3인의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여 그 결과에 대한 평균이 해당 피조사자의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로 산출되기 때문에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개별 문항 차원과 개별 문항의 채점 요소 차원에서 이중으로 확인하였으며, 전자를 위해서는 상관 분석 및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반복 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보고, 후자를 위해서는 채점자 간 일치도 및 Cohen의 Kappa 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일치도는 전체 피조사자 중에서 두 명의 채점자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된다. 이에 비해 Kappa 계수는 일치도 계수에서 우연에 의해 두 채점자로부터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확률을 보정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일치도 계수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우연에 의해 두

채점자로부터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기대 피조사자 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①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의 3개 문항, 피조사자 200명에 대한 1차 채점 결과, 채점자에 따라서 피조사자의 점수 분포가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채점자 간 상관계수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문항 2에 비해 문항 1과 문항 3의 상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688	.661	.724
문항 2	.810	.797	.786
문항 3	.616	.607	.694

<표 38>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에 따라서 각 문항의 평균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문항 2의 채점자 1과 2 사이에서만 ‘차이 없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채점자별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해 채점자 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	평균 점수			F	유의도	사후 비교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19.88	22.16	31.57	381.687	0.000	채점자 1, 2, 3 모두 유의한 차이
문항 2	29.14	28.36	21.98	94.134	0.000	채점자 1과 2는 차이 없음
문항 3	22.54	25.73	30.28	154.447	0.000	채점자 1, 2, 3 모두 유의한 차이

<표 39>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이러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채점자 집단의 논의를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채점자와 채점 요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2차 채점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문항 1, 2, 3 모두에서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매우 양호해졌다.

비교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911	.887	.919
문항 2	.917	.961	.964
문항 3	.881	.929	.927

<표 40>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차 채점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지만 세 문항 모두에서 채점자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 1에서 채점자 3의 평균 점수가 다른 채점자들보다 3-4점 정도 높게 나타나 본 조사 채점에는 이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비고	평균 점수			F	유의도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21.645	22.315	25.105	103.773	.000
문항 2	28.615	28.045	27.300	11.356	.000
문항 3	24.805	25.690	26.180	20.624	.000

<표 41>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끝으로, 3개 문항의 하위 요소(평가 요소=채점 요소)별로 일치도를 분석하였는데, 쓰기 영역에 비해 말하기 영역의 채점자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appa 계수가 0.4 이하인 경우<sup>18)</sup>도 일부 존재했으며, 하위 요소 중 ‘표현’과 ‘전달’에 대한 채점에 있어서 일치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본 조사 채점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하위요소	일치도			Kappa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문항 1	내용선정	0.770	0.500	0.585	0.674	0.310	0.433
	조직	0.670	0.575	0.720	0.537	0.408	0.611
	표현	0.575	0.575	0.600	0.325	0.334	0.377
	전달	0.680	0.340	0.400	0.527	0.097	0.184
문항 2	내용선정	0.560	0.755	0.735	0.450	0.690	0.669
	조직	0.600	0.740	0.740	0.480	0.664	0.656
	표현	0.400	0.655	0.645	0.209	0.552	0.493
	전달	0.465	0.675	0.705	0.318	0.589	0.607
문항 3	내용선정	0.665	0.830	0.785	0.527	0.748	0.697
	조직	0.675	0.805	0.775	0.537	0.705	0.677
	표현	0.575	0.655	0.870	0.308	0.443	0.772
	전달	0.585	0.695	0.775	0.337	0.499	0.638

<표 42> 말하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분석

18) 일반적으로, Kappa 계수에 대한 해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kappa 계수	의 미
0 미만	no agreement
0 - 0.20	slightly agreement
0.21 - 0.40	fair
0.41 - 0.60	moderate agreement
0.61 - 0.80	substantial agreement
0.81 - 1	almost perfect agreement

## ② 쓰기 영역

쓰기 영역 역시 말하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3개 문항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각 문항에 대한 채점자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1과 문항 2는 상관계수가 모두 0.95 이상으로 대단히 높은 상관도를 보이니, 문항 3에서는 상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968	1.000	.968
문항 2	.991	.964	.959
문항 3	.790	.793	.809

<표 43>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에 따라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문항 1과 2에서는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문항3에서는 채점자 1이 다른 채점자에 비해서 점수를 높게 부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	평균 점수			F	유의도	사후 비교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30.450	30.470	30.450	0.012	0.915	
문항 2	31.295	30.835	30.900	1.355	0.259	
문항 3	67.565	62.000	62.720	15.092	0.000	채점자 2와 3은 차이 없음

<표 44>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이 결과를 토대로, 쓰기 영역은 문항 3에 대해서만 채점자 3인의 2차 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채점자 간 점수 분포에 대한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문항 3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을 확보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비고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968	1.000	.968
문항 2	.991	.964	.959
문항 3	.885	.883	.811

<표 45>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에 따라서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문항 1, 2, 3 모두에서 채점자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	평균 점수			F	유의도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30.450	30.470	30.450	0.012	0.915
문항 2	31.295	30.835	30.900	1.355	0.254
문항 3	63.665	62.000	62.830	1.607	0.205

<표 46>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끝으로, 3개 문항의 하위 요소(평가 요소=채점 요소)별로 일치도를 분석하였는데, 쓰기 영역에서는 채점자 간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1과 2는 채점자 간 일치도가 대단히 양호하며, 다만, 문항 3은 다른 문항들보다 일치도나 Kappa 계수가 작지만 일치도는 대부분 0.6 이상, Kappa 계수도 모두 0.4 이상이어서 채점자 간 일치도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하위요소	일치도			Kappa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문항 1	내용	0.945	1.000	0.945	0.924	1.000	0.924
	조직	0.970	0.990	0.970	0.948	0.983	0.948
	표현	0.850	1.000	0.850	0.743	1.000	0.743
문항 2	내용	0.945	0.875	0.840	0.922	0.822	0.770
	조직	0.975	0.815	0.800	0.958	0.690	0.663
	표현	0.940	0.790	0.755	0.908	0.684	0.629
문항 3	내용	0.835	0.790	0.755	0.734	0.662	0.616
	조직	0.730	0.675	0.585	0.534	0.515	0.410
	표현	0.700	0.735	0.650	0.607	0.650	0.540

<표 47> 쓰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분석

이상과 같이, 예비 조사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주관식 채점을 진행하였으며, 문항 분석 과정에서는 채점자 간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 2차 채점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 4. 예비 조사 결과 분석

주지하듯이, 예비 조사의 시행 목적은 해당 결과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본 조사 시행을 위해 조사 도구, 조사 시행 방식, 표본 추출 방식, 주관식 문항 채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조사를 보다 정합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예비 조사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common item non-equivalent design)’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등화 검사를 바탕으로 척도 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예비 조사에서는 문항의 수준과 조사 방식의 타당성만을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원 점수 기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문항의 양호도를 보여 주는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분석은 고전 검사 이론(CT)을 통해 도출하였다.

### 4.1. 영역별 원 점수 분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5개 영역별로 원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	만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듣기	150	<b>119.40</b>	21.04	60.00	150.00
말하기	150	<b>76.57</b>	21.69	37.33	141.33
읽기	195 <sup>19)</sup>	<b>143.33</b>	36.13	0.00	195.00
쓰기	250	<b>124.30</b>	40.33	50.00	239.33
문법	150	<b>99.64</b>	23.43	15.00	150.00

<표 48> 영역별 원 점수 결과(예비 조사)

이때, 평균은 각 영역별로 전체 피조사자의 점수 총계를 피조사자의 수로 나누어 준 값이며,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표본 분산은 평균에서 각 사례의 값을 빼고 제곱하여 합한 것을 ‘사례 수-1’로 나누어 계산한다. 표준편차의 값이 클수록 각 사례의 값이 평균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명의 듣기 영역(총점 150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60점, 가장 높은 점수는 150점이었고, 평균은 119.40점, 표준편차는 21.04로 분석되었다.

19) 전체 조사 도구에서 읽기 영역의 원 점수 만점은 300점이지만, 예비 조사의 분석에서는 척도 점수로 변환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조사 도구의 만점인 195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200명의 말하기 영역(총점 150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37.33점, 가장 높은 점수는 141.33점이었고, 평균은 76.57점, 표준편차는 21.69로 분석되었다.

400명의 읽기 영역(총점 195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0점, 가장 높은 점수는 195점이었고, 평균은 143.33점, 표준편차는 36.13으로 분석되었다.

200명의 쓰기 영역(총점 250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50점, 가장 높은 점수는 239.33점이었고, 평균은 124.3점, 표준편차는 40.33으로 분석되었다.

400명의 문법 영역(총점 150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15점, 가장 높은 점수는 150점이었고, 평균은 99.64점, 표준편차는 23.43으로 분석되었다.

## 4.2. 공통 문항 분석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의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구성하여 읽기 영역의 6문항, 문법 영역의 10문항을 두 조사 도구 간의 공통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공통 문항들은 향후 본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이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 검사를 통해 척도 점수로 변환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이들 공통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가’ 형과 ‘나’ 형으로 조사 도구를 이원화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서로 다른 사람들로 두 개의 표본 집단을 추출하였을 경우, 이들 집단을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통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유의도가 0.05보다 크면 두 집단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조사에서 추출된 두 집단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역시, 조사 도구를 두 유형으로 이원화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본 조사에서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공통 문항	평균 점수		T	유의도
	‘가’ 형 집단	‘나’ 형 집단		
읽기 영역 6개 문항	66.83	69.00	-1.040	0.299
문법 영역 10개 문항	98.18	101.10	-1.249	0.212

<표 49> 공통 문항의 집단별 결과(예비 조사)

## 4.3. 영역별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예비 조사 도구의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모두 고전 검사 이론에 터하여 분석하였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난이도는 정답률로, 변별도는 객관식 문항 점수와 객관식 문항들의 총점 간의 양류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주관식 문항의 난이도는 주관식 각 문항의 만점에 대한 문항 점수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하고, 주관식 문항의 변별도는 주관식 문항 점수와 주관식 문항들의 총점

간의 적률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이때, 고전 검사 이론에서의 일반적인 난이도 및 변별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항 난이도	문항 평가
.25 이하	어려운 문항
.25 ~ .75	적절한 문항
.75 이상	쉬운 문항

<표 50> 난이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문항 변별도 지수	문항 평가
.40 이상	변별력이 높은 문항
.30 ~ .39	변별력이 있는 문항
.20 ~ .29	변별력이 낮은 문항
.10 ~ .19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10 미만	변별력이 없는 문항

<표 51> 변별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또한, 피조사자들의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지별 반응 분포도 산출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4개의 답지들에 대한 피조사자의 반응 빈도와 백분율을, 주관식 문항은 각 문항의 채점 범주에 피조사자가 반응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문항 변별도를 통해 부적 변별도의 문항은 제거하고 변별력이 없거나 낮은 문항은 수정하였다.

둘째, 문항 난이도를 통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수정하였다.

셋째, 답지 반응 분포에서 정답지의 정답률이 오답지의 백분율보다 낮은 문항은, 정답지와 오답지를 모두 수정하였다.

넷째, 예상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문항 등은 수정·보완하였다.

## ① 듣기 영역

객관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듣기 영역의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응답자수	정답률	난이도	변별도
듣기 1번	200	82.50%	0.825	0.194
듣기 2번	200	76.50%	0.765	0.389
듣기 3번	200	76.00%	0.760	0.402

듣기 4번	200	67.50%	0.675	0.438
듣기 5번	200	81.00%	0.810	0.387
듣기 6번	200	96.50%	0.965	0.092
듣기 7번	200	94.00%	0.940	0.279
듣기 8번	200	89.00%	0.890	0.321
듣기 9번	200	76.00%	0.760	0.486
듣기 10번	200	57.00%	0.570	0.488

<표 52> 듣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먼저,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10번과 4번 문항이 난이도가 적절한 문항이며, 나머지 8개 문항은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어 본 조사 시에는 듣기 영역의 문항 난이도를 다소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변별도를 살펴보면 6번, 1번, 7번 문항이 변별도가 낮은 문항으로 분석되어 본 조사 시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	변별력이 높은 문항	변별력이 있는 문항	변별력이 낮은 문항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변별력이 없는 문항
듣기 문항	10, 9, 4, 3	2, 5, 8	7	1	6

<표 53> 듣기 문항의 변별도 분류(예비 조사)

## ②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은 주관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고전 검사 이론에 터해 각 문항별·하위 요소별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은데, 난이도는 3개 문항 모두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변별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역	문항	사례 수	난이도	변별도
말하기	문항 1	200	0.460	0.864
	문항 2	200	0.560	0.894
	문항 3	200	0.511	0.753

<표 54> 말하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다음으로, 각 문항의 하위 요소별로도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시 하위 요소별로도 난이도는 0.425에서 0.613까지로 형성되어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변별도 역시 모든 하위 요소에서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번호	하위 요소	사례 수	난이도	변별도
문항 1	내용 선정	200	0.459	0.828
	조직	200	0.432	0.808
	표현	200	0.541	0.738
	전달	200	0.425	0.834
문항 2	내용 선정	200	0.561	0.822
	조직	200	0.531	0.872
	표현	200	0.613	0.730
	전달	200	0.547	0.857
문항 3	내용 선정	200	0.500	0.726
	조직	200	0.494	0.683
	표현	200	0.534	0.641
	전달	200	0.531	0.567

<표 55> 말하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예비 조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에서도 문항 수정 없이 예비 조사 문항을 조사 도구에 포함할 것이다.

### ③ 읽기 영역

‘가’ 형과 ‘나’ 형 각각 13개 문항(공통 문항 6개)으로 구성된 읽기 영역의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응답자 수	정답률	난이도	변별도
읽기 '가' 형 1번	200	81.50%	0.815	0.268
읽기 '가' 형 2번	400(공통)	62.50%	0.625	0.505
읽기 '가' 형 3번	400(공통)	71.00%	0.710	0.521
읽기 '가' 형 4번	400(공통)	67.00%	0.670	0.615
읽기 '가' 형 5번	200	89.00%	0.890	0.347
읽기 '가' 형 6번	200	69.00%	0.690	0.574
읽기 '가' 형 7번	400(공통)	83.25%	0.833	0.460
읽기 '가' 형 8번	200	78.00%	0.780	0.449
읽기 '가' 형 9번	200	66.00%	0.660	0.500
읽기 '가' 형 10번	200	54.00%	0.540	0.363
읽기 '가' 형 11번	200	89.00%	0.890	0.361
읽기 '가' 형 12번	400(공통)	83.75%	0.838	0.304
읽기 '가' 형 13번	400(공통)	85.25%	0.852	0.424
읽기 '나' 형 1번	200	87.00%	0.870	0.327
읽기 '나' 형 2번	200	68.50%	0.685	0.386
읽기 '나' 형 7번	200	81.50%	0.815	0.482
읽기 '나' 형 8번	200	27.00%	0.270	0.322
읽기 '나' 형 9번	200	83.50%	0.835	0.328
읽기 '나' 형 10번	200	67.00%	0.670	0.514
읽기 '나' 형 12번	200	64.50%	0.645	0.414

<표 56> 읽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먼저,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적절한 문항과 쉬운 문항이 1:1로 배치되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한두 문항 정도의 난이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변별도를 기준으로 보면, ‘가’ 형의 1번 문항만 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 시에는 난이도 ‘상’으로 예상한 문항을 중심으로 난이도를 다소 조정하고 변별도가 ‘낮음’으로 나온 문항만 재검토를 하여 일부 수정할 것이다.

#### ④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은 주관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세 문장의 짧은 글쓰기와 300자 내외, 400자 내외의 글쓰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고전 검사 이론에 터해 각 문항별·하위 요소별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은데, 난이도는 문항 1은 쉬운 수준으로, 문항 2와 3은 적절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별도는 세 개 문항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문항 2와 3은 0.8 이상의 대단히 높은 변별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쓰기 문항의 채점 과정에서 답지를 분석한 결과 2번 문항의 경우 출제 의도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으며, 답지 길이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3번 문항의 경우는 완성된 한 편의 글을 쓰도록 문항에 조건을 제시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회와 연구진의 숙의를 통해 본 조사에서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영역	문항	사례 수	난이도	변별도
쓰기	문항 1	200	0.761	0.440
	문항 2	200	0.388	0.847
	문항 3	200	0.483	0.893

<표 57> 쓰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다음으로, 각 문항의 하위 요소별로도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시 하위 요소별로도 난이도는 0.383에서 0.820까지 형성되어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변별도 역시 모든 하위 요소에서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하위요소	사례 수	난이도	변별도
문항 1	내용	200	0.706	0.427
	조직	200	0.820	0.410
	표현	200	0.813	0.395
문항 2	내용	200	0.406	0.848
	조직	200	0.360	0.785
	표현	200	0.383	0.829
문항 3	내용	200	0.467	0.860
	조직	200	0.465	0.767
	표현	200	0.553	0.830

<표 58> 쓰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예비 조사)

## ⑤ 문법 영역

끝으로, ‘가’ 형과 ‘나’ 형 모두에서 동일한 10개 객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문법 영역의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응답자 수	정답률	난이도	변별도
문법 1번	400(공통)	65.00%	0.650	0.447
문법 2번	400(공통)	42.25%	0.423	0.566
문법 3번	400(공통)	55.50%	0.555	0.462
문법 4번	400(공통)	55.25%	0.553	0.509
문법 5번	400(공통)	93.00%	0.930	0.308
문법 6번	400(공통)	93.50%	0.935	0.265
문법 7번	400(공통)	94.25%	0.942	0.329
문법 8번	400(공통)	56.00%	0.560	0.520
문법 9번	400(공통)	98.50%	0.985	0.183
문법 10번	400(공통)	11.00%	0.110	0.270

<표 59> 문법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예비 조사)

먼저,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10번 문항의 난이도가 0.11로 분석되어 어려운 수준을 보였으며, 2, 4, 3, 8, 1번 문항이 적절한 수준, 5, 6, 7, 9번 문항이 쉬운 수준의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난이도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문항 구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난이도가 쉬운 문항 4개가 모두 정답률이 90% 이상이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변별도를 기준으로 보면 10번, 6번 문항이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9번 문항이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으로 분석되어 본 조사의 조사 도구를 구성할 때에는 이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	변별력이 높은 문항	변별력이 있는 문항	변별력이 낮은 문항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변별력이 없는 문항
문법 문항	2, 8, 4, 3, 1	7, 5	10, 6	9	—

<표 60> 문법 문항의 변별도 분류(예비 조사)

### 4.4. 개별 문항별 세부 분석(문항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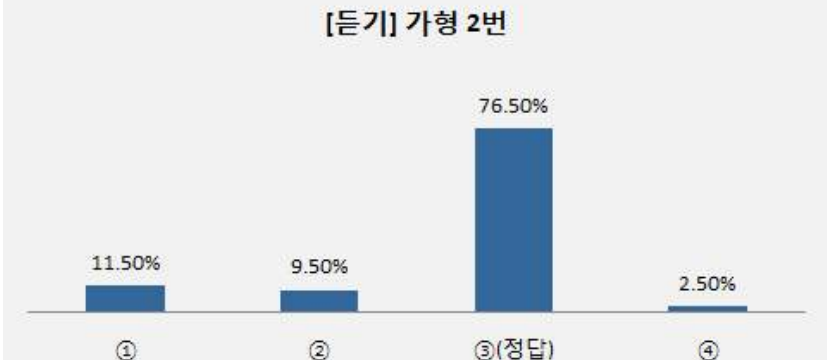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개별 문항별로 문항 카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문항별 분석을 대체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문항 카드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예비 조사 문항으로의 수정 과정, 예상 난이도, 예비 조사 결과의 난이도 및 변별도, 선택지별 반응률, 그에 대한 결과 분석, 본 조사를 위한 문항 수정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❶ 듣기 영역: 객관식 10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1		문항 정보		L-가-3	
평가 문항	※ 은행의 전화 자동 응답 안내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물음)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눌러야 하는 서비스 버튼은 어느 것인가요? <div>행복을 채우는 농협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금융 사기 신고는 331번, 이체 및 납부는 1번, 조회는 2번, 사고 신고는 3번, 기타 서비스는 별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div> <div>① ①                      ② ②                      ③ ③                      ④ *</div>						
	자료 출처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2		문항 정보		L-가-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세부 정보의 파악 능력)_설명적 담화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L-3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76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8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2번</p><table><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11.50%</td></tr><tr><td>②</td><td>9.50%</td></tr><tr><td>③(정답)</td><td>76.50%</td></tr><tr><td>④</td><td>2.50%</td></tr></tbody></table></div>	항목	비율	①	11.50%	②	9.50%	③(정답)	76.50%	④	2.50%
항목	비율											
①	11.50%											
②	9.50%											
③(정답)	76.50%											
④	2.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765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89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문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정답률(난이도)이 예상과 유사하게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3		문항 정보		L-나-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_설명적 담화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L-2번							
수정/보완 의견		기초 연구의 제안을 반영하여 선택지 ③의 매력도를 높임. 하나의 듣기 지문에서 두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기억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실적 듣기(세부 정보 파악) 능력]을 묻는 문제와 [추론적 듣기(의도의 파악) 능력]을 묻는 문제의 순서를 바꿈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7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0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0.19)			이상)										
	문항 반응	<div><div>[듣기] 가형 3번</div><table><thead><tr><th>답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12.50%</td></tr><tr><td>②</td><td>2.50%</td></tr><tr><td>③</td><td>9.00%</td></tr><tr><td>④(정답)</td><td>76.00%</td></tr></tbody></table></div>						답지	반응률	①	12.50%	②	2.50%	③	9.00%	④(정답)	76.00%
	답지	반응률															
	①	12.50%															
②	2.50%																
③	9.00%																
④(정답)	76.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76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02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답지 ①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12.50%였는데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 보험이 생긴다고 하는군요’라고 말한 부분을 듣고 이러한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아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4	문항 정보	L-가-2
평가 문항	<p>※ 이번에는 들려 드리는 뉴스의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p> <div> <p>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18일 새벽 4시를 넘기며 사용자 쪽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을 3.5%, 무사고 수당을 4만 원 올리는, 총액 기준 4.6% 임금 인상안에 사용자 쪽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새벽 3시까지 협상장인 용산구 동자동 버스 노조 회관을 찾아 “노동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시의 대중교통 적자를 고려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p> </div> <p>4. (물음) 이 뉴스에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        )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p> <div> <p>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        )</p> </div> <p>① 난항                      ② 결렬                      ③ 협조                      ④ 타결</p>			
	자료 출처	<p>한겨레신문 2012.5.12.일자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a></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핵심 정보의 파악)_설명적 담화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L-4번			
수정/보완 의견	기초 연구의 제언을 반영하여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답지 ①을 수정			
정답 및 해설	<div> <div>정답</div> <div>④</div> </div> <p>① 난항(難航)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p> <p>② 결렬(決裂)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됨’의 뜻이다.</p> <p>③ 협조(協調)는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의 뜻으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p> <p>④ 뉴스에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를 뜻하는 ‘타결(妥結)’이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7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3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4번</p><table><thead><tr><th>답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5.00%</td></tr><tr><td>②</td><td>4.00%</td></tr><tr><td>③</td><td>23.50%</td></tr><tr><td>④(정답)</td><td>67.50%</td></tr></tbody></table></div>							답지	반응률	①	5.00%	②	4.00%	③	23.50%	④(정답)	67.50%
	답지	반응률																
	①	5.00%																
②	4.00%																	
③	23.50%																	
④(정답)	67.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675로, 난이도는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별도는 0.438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답지 ③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3.50%였는데 협상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정답률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으나 다른 문항을 고려하였을 때 문항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변별도가 높게 나왔으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5		문항 정보		L-다-1		
평가 문항	※ 다음은 방송 시사 토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div>남: 저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 금지된 후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의를 주는 것뿐인데 학교 폭력은 점점 더 일상화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여: 저는 학교에 경찰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div> <div>.....</div>							
	5. (물음) 여자가 토론을 계속할 때 남자의 말을 반박하기에 적절한 질문은 어느 것인가요?							
자료 출처		MBC 100분토론 지금, 학교에서는...(2012. 2. 21)(본문 대폭 수정) <a href="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amp;progCode=1000842100000100000&amp;pagenum=4&amp;pagesize=5&amp;cornerFlag=0&amp;ContentTypeID=1&amp;ProgramGroupID=0&amp;search=&amp;SubprogCode=&amp;sdate=&amp;edate=">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amp;progCode=1000842100000100000&amp;pagenum=4&amp;pagesize=5&amp;cornerFlag=0&amp;ContentTypeID=1&amp;ProgramGroupID=0&amp;search=&amp;SubprogCode=&amp;sdate=&amp;edate=</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듣기(내용의 평가)_설득적 담화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L-5번							
수정/보완 의견	평가 요소 수정[사실적 듣기(핵심 정보의 파악)→비판적 듣기(내용의 비판)] 및 그에 따른 발문과 답지 전면 수정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②</div></div> <div>① 남자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의를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교사가 주의 주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div> <div>② 남자가 ‘교사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발언을 요약했고, 주장의 흐름으로 볼 때 가능한 비판이다.</div> <div>③ 이 토론은 학교 폭력 단속을 위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학교 폭력의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div> <div>④ 남자의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경찰의 개입을 주장한다고 해서 학생을 처벌과 제재의 대상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div>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1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8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5번</p><table><thead><tr><th>Option</th><th>Percentage</th></tr></thead><tbody><tr><td>①</td><td>3.50%</td></tr><tr><td>②(정답)</td><td>81.00%</td></tr><tr><td>③</td><td>9.50%</td></tr><tr><td>④</td><td>6.00%</td></tr></tbody></table></div>	Option	Percentage	①	3.50%	②(정답)	81.00%	③	9.50%	④	6.00%
Option	Percentage											
①	3.50%											
②(정답)	81.00%											
③	9.50%											
④	6.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1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87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오답은 없어 보이나 오답 선택 비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예상보다 난이도가 낮아 다른 문항 역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다면 답지를 일부 수정할 필요는 있다.										
	수정 방향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왔으므로 답지 중 일부를 수정하여 난이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한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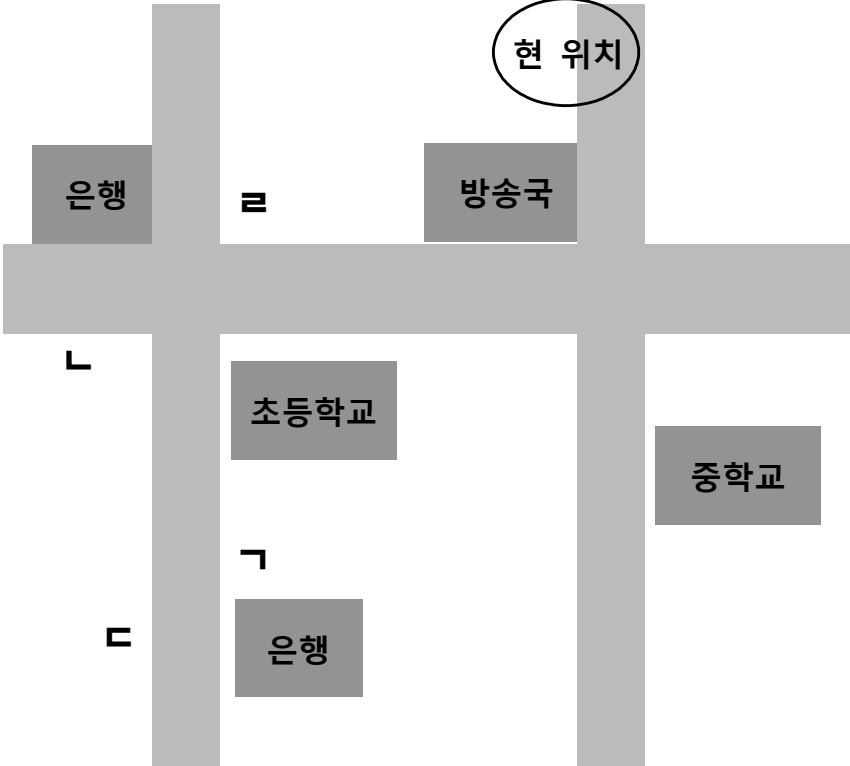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6		문항 정보		L-다-2	
평가 문항	※ 이번에는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p>점원: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이 필요하세요?</p> <p>손님: 바지 하나 사려고요.</p> <p>점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바지는 어떠세요?</p> <p>손님: 이 바지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나요?</p> <p>점원: 요즘 이런 바지가 유행이에요.</p> <p>손님: 그래도 저는 불편한 바지는 싫는데..... 통이 좀 더 넓은 바지는 없어요?</p> <p>점원: 요새 누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요? 그냥 이거 입으세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p> <p>손님: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한번 입어 볼게요. (휴지)</p> <p>손님: 아,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끼어서 불편한데요. 좀 더 편한 바지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밝아서 좀 그래요.</p> <p>점원: 손님, 바지는 입다 보면 다 늘어나요. 그리고 이 색이 이번 가을에 제일 유행하는 색이에요. 다른 집 가 보세요. 다 이 색이 유행이라고 할걸요?</p> <p>손님: 그래도 이 바지는 안 되겠어요. 다른 바지 보여 주세요.</p> <p>점원: 다른 바지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 통 넓은 바지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않아요. 다른 가게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 바지로 하세요.</p>						
	6. (물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점원은 자신의 의견을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다.						
	② 고객은 점원의 말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료 출처	2012 기초 연구 보고서(연구진이 직접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듣기(형식의 평가)_설득적 담화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L-11						
수정/보완 의견	평가 요소를 비판적 듣기(종합적 평가)에서 비판적 듣기(형식의 평가)로 수정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① 점원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다. ② 고객이 점원의 말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없다. ③ 고객은 일관성 있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찾고 있다. ④ 점원은 고객이 원하는 바지는 요새 유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96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09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div>문항 반응</div>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span>[듣기] 가형 6번</span></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96.50%</div></div><div><div></div><div>2.50%</div></div><div><div></div><div>1.00%</div></div><div><div></div><div>0.00%</div></div></div><div><div>①(정답)</div><div>②</div><div>③</div><div>④</div></div></div></div></div></div></div></div>
결과 분석	<div>정답률이 0.965로 매우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092로 변별력이 없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정답 선택 비율이 96.50%로 난이도와 변별도 모두 수정할 필요가 있다.</div>
수정 방향	<div>예상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왔으므로 답지 중 일부를 수정하여 난이도를 높이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변별도 역시 높이도록 한다.</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7		문항 정보		L-가-1	
평가 문항	※ 이번에는 반사회 회의의 일부 내용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div>여 1: 자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남 1: 지난주에 운동 기구 놓고 헬스장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 1: 뭐 집에 러닝머신 같은 거 있는데 또 그걸 사야 하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남 1: 그럼 어떻게 쓰죠? 여 2: 택배실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친정 아파트는 그렇게 하던데요. 남 1: 거기 택배를 모아 놓으면 누가 관리하죠? 여 2: 우리 아이 놀이방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우편물을 놓친 적이 있어요. 남 1: 지금도 경비 아저씨가 받아 주시기는 하잖아요. 여 1: 분실하고 그럼 또 말 많아질 텐데..... 일단 뭐 그럼 택배실도 쓰고..... 남 1: 공부방은요? 애들 책상 갖다 놓고 독서실처럼 쓸 수 있게..... 여 1: 그것도 좋네요. 독서실 가 봤자 애들 놀기만 할 텐데 거기 있으면 한 번씩 내려가 보면 되겠네요. 여 2: 아니 그럼 애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괜히 신경만 쓰이죠.</div>						
	7. (물음) 이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헬스장                      ② 놀이방                      ③ 택배실                      ④ 공부방						
자료 출처	2012 기초 연구 보고서(연구진이 직접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세부 정보의 확인)_설득적 담화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L-7번						
수정/보완 의견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지문 부분 수정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              ②</div><div>① 남 1과 여 1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② 여자 2가 놀이방을 언급한 것은 우편물을 놓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지하실 사용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 ③ 여 2와 남 1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④ 남 1, 여 1, 2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div></div>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94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27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7번</p><table><thead><tr><th>구분</th><th>응답률</th></tr></thead><tbody><tr><td>①</td><td>2.50%</td></tr><tr><td>②(정답)</td><td>94.00%</td></tr><tr><td>③</td><td>2.50%</td></tr><tr><td>④</td><td>1.00%</td></tr></tbody></table></div>	구분	응답률	①	2.50%	②(정답)	94.00%	③	2.50%	④	1.00%
구분	응답률											
①	2.50%											
②(정답)	94.00%											
③	2.50%											
④	1.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94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279로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오답이 없고 난이도가 낮아 변별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정답률이 높게 나왔으며 변별력이 낮아 논의가 필요하다. 피험자들에게 혼돈을 줄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한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확정 지은 후 제시하도록 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8	문항 정보	L-나-1
평가 문항	<p>※ 다음은 길거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p> <p>여: 저기요, 뭐 좀 여쭙 봐도 될까요?  남: 네, 말씀하세요.  여: 여기서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남: 이 아래로 쪽 내려가시다 보면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100미터쯤 곧장 가시면 초등학교가 보이는데요,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서 50미터쯤 가시면 우측으로 우체국이 있을 거예요. 건너편에 은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 네, 좀 복잡하네요. 일단 방송국까지 갔다가 초등학교를 찾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남: 네, 맞아요. 가다가 못 찾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이 동네 우체국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쉽게 찾으실 거예요.  여: 감사합니다.</p>		
	<p>8. (물음) 남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지도에서 우체국이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p>  <p>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p>		
자료 출처	2012 기초 연구 보고서(연구진이 직접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설명적 담화		<div>예상</div> <div>난이도</div> <div>하</div>
기초연구 문항	2012-L-8번		
수정/보완 의견	지도(ㄴ 위치 수정) 및 지문 일부 수정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① ㄱ은 은행 건너편이 아니라 옆이다. ② ㄴ은 은행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50미터 쯤 들어간 곳’ 이 아닙니다. ③ 남자의 말에서 ‘은행 건너편 건물’이라는 한 가지 단서만으로도 ㄷ에 우체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ㄹ은 은행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간 곳이 아니다.													
	정답률	0.89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예비 조사 결과	변별도	0.321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8번</p><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4.50%</td></tr><tr><td>②</td><td>3.00%</td></tr><tr><td>③(정답)</td><td>89.00%</td></tr><tr><td>④</td><td>3.50%</td></tr></tbody></table></div>						선택지	반응률	①	4.50%	②	3.00%	③(정답)	89.00%	④
선택지	반응률															
①	4.50%															
②	3.00%															
③(정답)	89.00%															
④	3.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9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21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낮게 나오고 변별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9	문항 정보	L-나-1
평가 문항	<p>※ 이번에 들려 드릴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아들: 아버지, 친구는 나이나 수준이 서로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p> <p>아버지: 옛말에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그 말은 이왕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닐 거야. 친구를 사귈 때 다 위로 보고 사귀다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평생 사귈 수 없지 않겠니?</p> <p>아들: 그럼 어떻게 해요?</p> <p>아버지: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를 애기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말이야. 나쁜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될 수도 있어. 너희처럼 자랄 때는 더 그렇지.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꼭 무얼 배울 만하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건 아니야.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p> </div> <p>9. (물음) ‘친구’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p> <p>①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p> <p>② 어떤 친구든 배울 점이 있게 마련이다.</p> <p>③ 평생 변함이 없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p> <p>④ 서로 믿고 힘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p>		
자료 출처	<p>이순원, ‘우정에 대하여’, 아들과 함께 걷는 길 / EBS라디오, 짧은 이야기 세상, 2012.7.20.방송분  <a href="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amp;client_id=short&amp;menu_seq=4&amp;enc_seq=3115253">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amp;client_id=short&amp;menu_seq=4&amp;enc_seq=3115253</a></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설득적 담화		<div>예상 난이도</div> <div>중</div>
기초연구 문항	2012-L-9번		
수정/보완 의견	지문 일부 수정		
정답 및 해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정답</div> <div>④</div> </div> <p>① 친구를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는 생각은 옛말이 그렇다는 것이다.</p> <p>②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친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p> <p>③ 평생 변함없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p> <p>④ 아버지가 끝 부분에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7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9번</p><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0.50%</td></tr><tr><td>②</td><td>16.00%</td></tr><tr><td>③</td><td>7.50%</td></tr><tr><td>④(정답)</td><td>76.00%</td></tr></tbody></table></div>							항목	반응률	①	0.50%	②	16.00%	③	7.50%	④(정답)	76.00%
	항목	반응률																
	①	0.50%																
②	16.00%																	
③	7.50%																	
④(정답)	76.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76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86으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문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유사하게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10	문항 정보	L-나-3
평가 문항	※ 마지막 듣기 문항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p>제가 일본에서 출간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 책에 나온 실험을 보면,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키운 생쥐들은 93%가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목조 건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피곤도가 2배 이상 높았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아토피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 아파트 생활에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아파트에서 탈출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생태 건축으로 보금자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짓기 준비를 했지요.</p> <p>그래서 나무도 사 가지고 미리 말려서 다듬기 시작하고, 3년 후인 2000년 5월 3일에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2000년 11월 4일에 아직 미완성인 집에 이사를 했지요. 그 집에서 살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집사람은 당시에 허릿병이 있었는데 황토방에서 지쳐서 그런지 썩 나았어요. 저도 만성 피로랑 아토피가 썩 없어졌고요. 그래서 “참 이 흙집이 대단하구나, 흙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p> <p>흙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새나 벌도 자기 집은 스스로 짓잖아요. 여기 산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느라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거의 독학으로 흙집을 짓고 흙집 짓기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흙집 짓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p>		
	<p>10. (물음) 이 강연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p> <p>① 민재: 혼자 배워서 집을 짓게 되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p> <p>② 동훈: 아파트 생활과 흙집 생활을 좀 더 과학적으로 비교해 보면 좋겠어.</p> <p>③ 경은: 만성 피로나 아토피 같은 질병은 아파트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것 같아.</p> <p>④ 민정: 의사도 흙집의 치료 효과를 인정했다니 믿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p>		
자료 출처	KBS 강연, 공감 100℃, 고제순, 흙이 삶을 살린다. <a href="http://asx.kbs.co.kr/player_56ad.html?title=%B0%AD%BF%AC+100%A1%C9&amp;url=tv%24100do%24120525_01_03_00.asf&amp;type=202&amp;chkdate=20120725084017&amp;kind=56">http://asx.kbs.co.kr/player_56ad.html?title=%B0%AD%BF%AC+100%A1%C9&amp;url=tv%24100do%24120525_01_03_00.asf&amp;type=202&amp;chkdate=20120725084017&amp;kind=56</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적용)_선택적 담화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L-10		
수정/보완 의견	독자의 반응 중심으로 문두 및 답지 수정		
정답 및 해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정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④</div> </div>		
	<p>① ‘거의 독학으로 흙집을 짓고’라는 말이 있으므로 가능한 반응이다.</p> <p>② 허릿병, 만성 피로, 아토피를 치료했다는 것은 강연자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좀 더 과학적인 비교를 궁금해 할 수 있다.</p> <p>③ 강연자가 만성 피로나 아토피가 아파트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였으므로 가능한 반응이다.</p> <p>④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라고 언급했지만 의사가 흙집의 치료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57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10번</p><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8.50%</td></tr><tr><td>②</td><td>23.50%</td></tr><tr><td>③</td><td>11.00%</td></tr><tr><td>④(정답)</td><td>57.00%</td></tr></tbody></table></div>							선택지	반응률	①	8.50%	②	23.50%	③	11.00%	④(정답)	57.00%
	선택지	반응률																
	①	8.50%																
②	23.50%																	
③	11.00%																	
④(정답)	57.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570으로 적절하였으며 변별도는 0.488로 높게 나타났다. 답지 ②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3.50%로 나타났는데 책에서 읽은 생쥐 실험 이야기를 과학적 실험이라 판단하고 이미 과학적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생활과 흙집 생활에 대한 과학적 비교라 보기 어렵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답지 선택에 있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하지만 오답 선택률을 고려하여 표현을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																	

② 말하기 영역: 주관식 3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1		문항 정보		S-가-2			
평가 문항	1. (물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청(또는 군청) 민원실 담당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십시오.									
	<div>[ 상황 ]   ○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                   ○ 불법 주차가 많아 도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div> <div>[ 조건 ]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div>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득(요청하는 말하기)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S-3번									
수정/보완 의견	기초 연구의 제언에 따라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 이에 따라 발문 수정.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	0.4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6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결과 분석	난이도는 0.460으로 예상대로 중 수준의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864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모두 예상대로 양호하였으므로 특별한 수정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2		문항 정보		S-나-1			
평가 문항	2. (물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골라 <u>초등학교 1학년</u> 학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div>[ 상황 ]   ○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대처 방법                   ○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 대처 방법</div> <div>[ 조건 ]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div>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설명하는 말하기)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S-4번									
수정/보완 의견	<div>- 기초 조사의 제언에 따라 설명의 대상을 구체적인 개념, 사물, 현상, 과정, 절차로 변경.</div> <div>- 이번 평가에서는 속담이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도록 요구함.</div> <div>- 설명 대상과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 수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청자로 설정(초등학생도 1학년과 6학년은 인지적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div>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	0.5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9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결과 분석	난이도는 0.560으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894로 변별력이 매우 높게 나왔다. 난이도와 변별도 모두 예상대로 나타났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가 예상과 같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므로 수정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3		문항 정보		S-가-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득(주장하는 말하기)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S-1번										
수정/보완 의견			-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찬반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수정. -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이어지도록 문항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냄. (추후 채점할 때 주장과 근거를 통한 설득 능력 측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자신의 견해를 둘 중 하나로 분명하게 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두 주장을 모두 이야기하며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응답 패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함.)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	0.51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5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결과 분석	난이도는 0.511로 예상보다 조금 쉽게 나타났고 변별도는 0.75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조금 쉽게 측정되었지만 말하기 영역의 전체 난이도 측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특별히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 양호성이 검증된 문항 그대로 본 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가 양호하다 판단되므로 특별한 수정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③ 읽기 영역: 객관식 20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p>1. 다음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만평입니다. 이 만평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p>		
	<div data-bbox="424 506 1323 1106" data-label="Image"> </div> <p>① 공의 변화를 알기 어렵듯이 선거의 결과도 알기 어렵다.          ② 선거를 통해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③ 선거에서는 정확하게 기표하는 일이 중요하다.          ④ 선거에서 기표 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p>		
자료 출처	<p>내일신문 2011년 10월 25일자 만평(김경수 화백)  <a href="http://www.naeil.com/news/table/Photo_ViewList_Cartoon.asp?mn_id=588&amp;GotoPage=2">http://www.naeil.com/news/table/Photo_ViewList_Cartoon.asp?mn_id=588&amp;GotoPage=2</a></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만평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R-3번		
수정/보완 의견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답지 ④를 수정		
정답 및 해설	<div data-bbox="437 1632 668 1713" data-label="Text"> <p>정답 2</p> </div>		
	<p>① 만평에서는 공을 쥐는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질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공의 변화를 알기 어렵거나, 선거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② 만평에서는 공을 쥐는 방법을 바꾸어 구질을 변화시키듯 선거에 의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만평의 기표 표시는 '선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p>		

		④ 공을 쥐는 방법에 따라 구질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의 손에 의해 세상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지 기표 방식의 다양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1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26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1번</p><table><thead><tr><th>구분</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8.00%</td></tr><tr><td>②(정답)</td><td>81.50%</td></tr><tr><td>③</td><td>9.50%</td></tr><tr><td>④</td><td>1.00%</td></tr></tbody></table></div>							구분	반응률 (%)	①	8.00%	②(정답)	81.50%	③	9.50%	④	1.00%
	구분	반응률 (%)																
①	8.00%																	
②(정답)	81.50%																	
③	9.50%																	
④	1.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15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268로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변별력이 낮은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수정 방향	난이도는 예상과 일치하나 변별력이 낮아 답지 표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문항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해 논의 후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2	문항 정보	R-다-2
<p>평가 문항 (<b>공통</b>)</p>	<p>&lt;가교 문항&gt;</p>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_만평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R-4번		
수정/보완 의견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2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0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2번/ 나형 3번</p><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10.75%</td></tr><tr><td>②</td><td>14.50%</td></tr><tr><td>③(정답)</td><td>62.50%</td></tr><tr><td>④</td><td>12.25%</td></tr></tbody></table></div>						선택지	반응률	①	10.75%	②	14.50%	③(정답)	62.50%	④	12.25%
	선택지	반응률															
	①	10.75%															
②	14.50%																
③(정답)	62.50%																
④	12.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625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505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오답의 선택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 있으며 변별도 역시 높아 문항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논의를 통해 본 조사에 그대로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3	문항 정보	R-가-3
평가 문항 (공통)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기사문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9번			
수정/보완 의견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71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21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3번/ 나형 4번</p><table><thead><tr><th>문항 번호</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6.50%</td></tr><tr><td>②(정답)</td><td>71.00%</td></tr><tr><td>③</td><td>13.50%</td></tr><tr><td>④</td><td>9.00%</td></tr></tbody></table></div>						문항 번호	정답률 (%)	①	6.50%	②(정답)	71.00%	③	13.50%	④	9.00%
	문항 번호	정답률 (%)															
	①	6.50%															
②(정답)	71.00%																
③	13.50%																
④	9.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710으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521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고 오답 선택 비율도 고르므로 적절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4	문항 정보	R-다-3
평가 문항 (공통)	<p>〈가교 문항〉</p>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_기사문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10번			
수정/보완 의견	본문 수정에 따라 기존 답지 ②를 수정하여 순서를 재배치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7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61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4번/ 나형 5번</p><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15.00%</td></tr><tr><td>②</td><td>11.25%</td></tr><tr><td>③</td><td>6.75%</td></tr><tr><td>④(정답)</td><td>67.00%</td></tr></tbody></table></div>							선택지	반응률 (%)	①	15.00%	②	11.25%	③	6.75%	④(정답)	67.00%
	선택지	반응률 (%)																
	①	15.00%																
②	11.25%																	
③	6.75%																	
④(정답)	67.00%																	
결과 분석	난이도는 0.670으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615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고 오답 선택 비율에도 문제가 없는 문항이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5	문항 정보	R-가-2
평가 문항	※ 다음 사설을 보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5~6]		
	<p style="text-align: center;"><b>주민들이 나서서 매듭지은 청주-청원 통합</b></p> <p>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네 번의 도전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청원군은 그제 주민 투표에서 투표율 36.8%, 찬성률 77.2%로 통합을 결정했다. 청주시가 이미 시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14년 통합 청주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p> <p>주민 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인 이번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官)보다 민(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여 지역 주민과 지방 의회의 반발을 샀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두 자치 단체는 주민 단체를 통해 통합의 기반을 다져 왔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 통합 시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9개 사항 7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합의를 일궈 나갔다. 특히 행정 구역 통합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해 요금 인하 효과를 보여 준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두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p> <p>이렇듯 청주-청원의 주민 자율 통합 모델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행정 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2010년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줄속 추진의 후유증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아직도 내분을 겪고 있다. 행정 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탈이 나게 돼 있다.</p>		
	<p><b>5. 이 사설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b></p> <p>① 행정 구역의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p> <p>② 행정 구역의 통합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모아야 한다.</p> <p>③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구역의 통합 시도는 취소되어야 한다.</p> <p>④ 행정 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야 한다.</p>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자 사설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논설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R-15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정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div> </div>		
	<p>① 행정 구역 통합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 구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p> <p>② 행정 구역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는 필자의 중심 내용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언급되</p>		

	<p>어 있을 뿐 이러한 사례를 더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p> <p>③ 이 사실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구역의 통합에서 청주-청원 통합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 구역 통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p> <p>④ 마지막 문단, 행정 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주민 설득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뒤탈이 난다는 내용 등에서 행정 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9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4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5번</p><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0.50%</td></tr><tr><td>②</td><td>6.00%</td></tr><tr><td>③</td><td>4.50%</td></tr><tr><td>④(정답)</td><td>89.00%</td></tr></tbody></table></div>						항목	반응률 (%)	①	0.50%	②	6.00%	③	4.50%	④(정답)	89.00%
	항목	반응률 (%)															
	①	0.50%															
②	6.00%																
③	4.50%																
④(정답)	89.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9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47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문제가 없어 적절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6	문항 정보	R-나-5
평가 문항	※ 다음 사설을 보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5~6]		
	<p style="text-align: center;"><b>주민들이 나서서 매듭지은 청주-청원 통합</b></p> <p>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네 번의 도전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청원군은 그제 주민 투표에서 투표율 36.8%, 찬성률 77.2%로 통합을 결정했다. 청주시가 이미 시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14년 통합 청주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p> <p>주민 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인 이번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官)보다 민(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여 지역 주민과 지방 의회의 반발을 샀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두 자치 단체는 주민 단체를 통해 통합의 기반을 다져 왔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 통합 시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9개 사항 7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합의를 일궈 나갔다. 특히 행정 구역 통합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해 요금 인하 효과를 보여 준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두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p> <p>이렇듯 청주-청원의 주민 자율 통합 모델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행정 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2010년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졸속 추진의 후유증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아직도 내분을 겪고 있다. 행정 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탈이 나게 돼 있다.</p>		
	<p><b>6. 이 사설을 쓴 이의 생각에 대한 추측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b></p> <p>① 이번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널리 권장할 만한 예로 보고 있구나.          ②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구나.          ③ 이전에 있었던 창원과 마산, 진해의 통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④ 주민과 관청 간의 의사소통을 행정 구역 통합의 성공 요건으로 보고 있구나.</p>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자 사설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논설		<div>예상</div> <div>난이도</div> <div>하</div>
기초연구 문항	2012-R-16번		
수정/보완 의견	질문에 있던 순화 대상어 '입장'을 '생각'으로 수정.		
정답 및 해설	<div>정답</div> <div>2</div>		
	① 글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예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구역 통합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② 행정 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거주 환경을 바꾸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p> <p>③ 이전에 이루어진 경남 창원시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추진의 예로,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p> <p>④ 행정 구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관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9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7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6번</p><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7.00%</td></tr><tr><td>②(정답)</td><td>69.00%</td></tr><tr><td>③</td><td>11.50%</td></tr><tr><td>④</td><td>12.50%</td></tr></tbody></table></div>						항목	반응률	①	7.00%	②(정답)	69.00%	③	11.50%	④	12.50%
	항목	반응률															
	①	7.00%															
②(정답)	69.00%																
③	11.50%																
④	12.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690으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574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읽기 영역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문항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유사하게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평가 문항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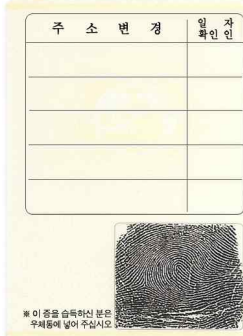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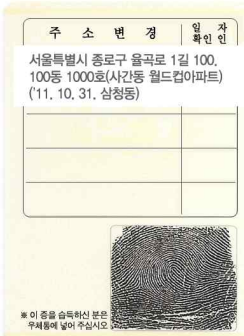
7. 이 안내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용 도로명 주소(새주소) 스티커 교부 안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문서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 주소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 주소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 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본인이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티커는 아래의 부착 요령을 참고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전(A)	스티커 부착 후(B)	부착 요령
		<p><b>종로구</b></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컵아파트) (‘11. 10. 31. 삼청동)</p> <p>※ ‘성명’ 부분을 잘라 내어 스티커 뒷면을 떼어 내고 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그림(B)와 같이 붙이면 됩니다.</p>

- ① 2011년 10월 3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써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
- ② 한번 교부받은 스티커가 훼손되면 다시 교부받을 길이 없으니 조심해야겠어.
- ③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서 내가 스스로 붙여야 하는구나.
- ④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으려면 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 하는구나.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및 광진구청 누리집  
[http://www.gwangjin.go.kr/\\_board-read.do?boardId=MIT038&boardNo=132244154749093&command=READ](http://www.gwangjin.go.kr/_board-read.do?boardId=MIT038&boardNo=132244154749093&command=READ)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안내문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R-7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본문 윤문)																	
정답 및 해설	<div>정답3</div>																	
	<p>① 안내문의 내용에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써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이해이다.</p> <p>② 안내문에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p> <p>③ 안내문에서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하면 이를 ‘본인이’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스티커 부착 방법을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다.</p> <p>④ 안내문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3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6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읽기] 가형 7번/나형 6번</div><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4.75%</td></tr><tr><td>②</td><td>3.75%</td></tr><tr><td>③(정답)</td><td>83.25%</td></tr><tr><td>④</td><td>8.25%</td></tr></tbody></table></div>							선택지	반응률 (%)	①	4.75%	②	3.75%	③(정답)	83.25%	④	8.25%
	선택지	반응률 (%)																
	①	4.75%																
②	3.75%																	
③(정답)	83.25%																	
④	8.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33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60으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고 오답 선택 비율도 고르므로 적절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 다음 가정 통신문을 보고 8번과 9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8~9]

○○중 2013 - 17호

## 가 정 통 신 문

부서 담당자: 교무지원부 심순애  
전화 번호: 02)503-1234  
홈페이지: http://○○○.ms.kr

안녕하십니까? 새봄과 함께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언제나 본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와 드리며 새 학기 소식을 전합니다.

2013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며 올해에도 ○○중학교를 함께 이끌어 주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급별 학부모 모회를 조직하고 담임교사와 만나는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녀 교육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3. 3. 19.(화), 14:00
2. 장소: 본교 대강당 및 교실
3. 대상: ○○중학교 학부모
4.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4:00 ~ 14:50	학부모 총회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안내 및 학교 운영 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대강당
15:00 ~ 16:30	담임 교사와의 시간 ·학급 학부모회 조직 ·학급 연간 운영 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대화	각 교실

2013년 3월 11일

○○ 중 학교 장 홍길동



----- 결 취 선 -----

2013학년도 학부모 총회 참석 동의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해당란에 참석 여부를 ○로 표시	
				참석	불참

학부모 성명: (인)

8. 이 가정 통신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학교운영위원을 뽑는 데 참여해야겠어.
- ②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을 들어 봐야겠어.
-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사가 없으니 교실에 갈 필요가 없겠어.
- ④ 학급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으니 우리 아이의 반 교실로 가야겠어.

자료 출처

과천 중학교 가정 통신문(변형)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가정통신문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5번																	
수정/보완 의견	기초 조사에서 본문의 내용에 혼동이 있음을 지적. 이를 반영하여 본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이에 따라 답지 수정.																	
정답 및 해설	<div>정답3</div>																	
	<p>①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다고 하였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p> <p>②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안내한다고 하였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에서의 행사이므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회의)와는 관계가 없다.</p> <p>④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학급 학부모회를 조직한다고 하였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78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임기] 가형 8번</p><table><tr><th>답지</th><th>반응률 (%)</th></tr><tr><td>①</td><td>0.50%</td></tr><tr><td>②</td><td>1.50%</td></tr><tr><td>③(정답)</td><td>78.00%</td></tr><tr><td>④</td><td>20.00%</td></tr></table></div>							답지	반응률 (%)	①	0.50%	②	1.50%	③(정답)	78.00%	④	20.00%
	답지	반응률 (%)																
	①	0.50%																
②	1.50%																	
③(정답)	78.00%																	
④	20.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78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49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답지 ④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0.00%였는데 이는 ‘학부모 위원’과의 혼동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유사하게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 다음 가정 통신문을 보고 8번과 9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8~9]

평가 문항

○○중 2013 - 17호

## 가 정 통 신 문

부서 담당자: 교무지원부 심순애  
전화 번호: 02)503-1234  
홈페이지: http://○○○.ms.kr

안녕하십니까? 새봄과 함께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언제나 본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 학기 소식을 전합니다.

2013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며 올해에도 ○○중학교를 함께 이끌어 주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급별 학부모 회를 조직하고 담임교사와 만나는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녀 교육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3. 3. 19.(화), 14:00
2. 장소: 본교 대강당 및 교실
3. 대상: ○○중학교 학부모
4.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4:00 ~ 14:50	학부모 총회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안내 및 학교 운영 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대강당
15:00 ~ 16:30	담임 교사와의 시간 ·학급 학부모회 조직 ·학급 연간 운영 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대화	각 교실

2013년 3월 11일

○○ 중 학교 장 홍길동



----- 절 취 선 -----

2013학년도 학부모 총회 참석 동의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해당란에 참석 여부를 ○로 표시	
				참석	불참

학부모 성명: (인)

9. 이 행사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운영의 계획이나 특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학교와 학급 운영에 참여할 학부모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학교와 학급의 연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 출처

과천 중학교 가정 통신문(변형)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가정통신문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6번																
수정/보완 의견	기초 조사에서 본문의 내용에 혼동이 있음을 지적. 이를 반영하여 본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이에 따라 답지 수정.																
정답 및 해설	<div>정답4</div>																
	①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 운영 계획을 안내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 담임교사와의 시간에서는 학급 학부모회를 조직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학교와 학급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0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읽기] 가형 9번</div><table><thead><tr><th>답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6.00%</td></tr><tr><td>②</td><td>6.50%</td></tr><tr><td>③</td><td>21.50%</td></tr><tr><td>④(정답)</td><td>66.00%</td></tr></tbody></table></div>						답지	반응률	①	6.00%	②	6.50%	③	21.50%	④(정답)	66.00%
	답지	반응률															
①	6.00%																
②	6.50%																
③	21.50%																
④(정답)	66.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660으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500으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다. 답지 ③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1.50%였는데, 이는 내용을 통해 ‘학교와 학급 운영’이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정답

2

① <표준 언어 예절>은 ○○구에서 발간한 언어 예절 책자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언어 예절 책자이다.

②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이 <표준 언어 예절>이므로 이 책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공문에서는 국립국어원에 <표준 언어 예절>의 배부를 요청한 것이지, 책자의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

④ ○○구에서는 <표준 언어 예절> 책자를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배부 요청을 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률

0.54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6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가형 10번

5.50%

54.00%

21.50%

19.00%

①

②(정답)

③

④

예비 조사 결과

결과 분석

정답률이 0.540으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63으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나 읽기 영역 전반이 난이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난이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유사하게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1	문항 정보	R-나-2
평가 문항	<p style="text-align: center;">〈가교 문항〉</p>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공문서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R-20번			
수정/보완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본문을 다소 수정. 문항은 수정 사항 없음</p>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9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61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11번</p><table><thead><tr><th>응답</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2.00%</td></tr><tr><td>②(정답)</td><td>89.00%</td></tr><tr><td>③</td><td>7.50%</td></tr><tr><td>④</td><td>1.50%</td></tr></tbody></table></div>						응답	비율	①	2.00%	②(정답)	89.00%	③	7.50%	④	1.50%
	응답	비율															
	①	2.00%															
②(정답)	89.00%																
③	7.50%																
④	1.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9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61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아 적절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2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공통)	<p>12. 이 편지에서 ‘엄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p> <div data-bbox="435 398 1393 104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사랑하는 아들이</p> <p>네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잘 받았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산부인과에서 아빠가 외할머니와 열싸우고 만세를 불렀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군인이 됐다니 대견하다.</p> <p>아들아, 엄마는 훈련소란 용광로라고 생각한다. 각종 성분이 함유된 철광 원석들이 한곳에 모여 뜨겁게 녹아내려 강한 철로 만들어지는 곳, 용광로. 훈련소가 바로 그 용광로다. 그동안 몸과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가슴에 새겨 강철처럼 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p> <p>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네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 여름날 보름 동안 자전거로 해남 땅끝까지 완주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아들이니까……, 마당에 있는 그 영광의 자전거가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주기도 한단다.</p> <p>건강하고 현명한 우리 00, 사랑한다!</p> <p>힘내라 우리 아들~!</p> <p style="text-align: right;">3월 4일에 엄마가</p> </div> <p>① 서둘러 병원에 가 보기를 바란다.          ② 훈련을 보람 있게 마치기를 바란다.          ③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주어 고맙다.          ④ 아픔을 이겨 내고 체력을 기르기를 바란다.</p>		
	자료 출처	개인 블로그의 글을 대상으로 대폭 윤문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편지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21번		
수정/보완 의견	발문 수정, 본문에서 답지와 관계없는 부분 삭제. 답지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		
정답 및 해설	<div data-bbox="435 1588 668 166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 5px;">정답</div> <div style="padding: 2px 5px;">2</div> </div> <p>① 다친 팔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서둘러 병원에 가 보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네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에서도 '병원에 가라.'보다 아들에 대한 믿음과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② 엄마는 자전거 완주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들이 현재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훈련을 끝까지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p> <p>③ 아들의 부상에 마음은 아프지만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부모를 안심시키는 일을 하기를 바라거나 안심시켜 주어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p> <p>④ 아들이 현재의 아픔(부상)을 잘 이겨 내고 훈련을 잘 마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p>		

	체력을 더 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3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0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12번/ 나형 11번</p><table><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0.25%</td></tr><tr><td>②(정답)</td><td>83.75%</td></tr><tr><td>③</td><td>1.75%</td></tr><tr><td>④</td><td>14.25%</td></tr></tbody></table></div>						항목	비율	①	0.25%	②(정답)	83.75%	③	1.75%	④	14.25%
	항목	비율															
	①	0.25%															
②(정답)	83.75%																
③	1.75%																
④	14.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38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04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다.																
수정 방향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도록 한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지를 일부 수정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3	문항 정보	R-나-4
평가 문항 (공통)	<p>13. 다음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p> <div data-bbox="563 353 1265 124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20px;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div data-bbox="611 432 1098 813" style="background-color: #e0ffe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가: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한의 김○ ○ 대리입니다. 내일(12일) 회의는 오후 네 시부터 저희 회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 자료는 전자 우편으로 저에게 오늘 저녁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몇 분이 함께 오시나요? 미리 알려 주시면 식당에 예약해 두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738 813 1217 981" style="background-color: #e0e0ff;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나: 인원은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마무리해서 곧 보내 드릴게요.</p> </div> <div data-bbox="611 1003 1098 1137" style="background-color: #e0ffe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p>가: 알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알려 주세요.</p> </div> </div> <p>① 회의 자료는 ‘주식회사 대한’에서 작성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④ ‘주식회사 대한’에 외부 사람들이 회의를 하러 올 예정이다.</p>		
	자료 출처	기초연구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문자메시지		<div>예상 난이도</div> <div>중</div>
기초연구 문항	2012-R-23번		
수정/보완 의견	발문의 정확성을 위해 표현 수정, 본문 일부의 내용 수정. 답지 ③ 수정.		
정답 및 해설	<div>정답</div> <div>1</div>		
	<p>①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인 ‘가’가 회의 자료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고, 상대인 ‘나’가 곧 회의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으므로 회의 자료 작성은 ‘가’인 ‘주식회사 대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인원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하였으므로 회의 참석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③ ‘가’가 식당을 예약해 두겠다고 하였으므로 회의 전이나 후로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안내한 ‘가’는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이고, 안내를 받은 ‘나’는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이 아님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외부 사람이 주식회사 대한에 회의를 하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5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2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임기] 가형 13번/ 나형 13번</div>  <table><thead><tr><th>항목</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정답)</td><td>85.25%</td></tr><tr><td>②</td><td>3.25%</td></tr><tr><td>③</td><td>1.75%</td></tr><tr><td>④</td><td>9.75%</td></tr></tbody></table>						항목	정답률 (%)	①(정답)	85.25%	②	3.25%	③	1.75%	④	9.75%
	항목	정답률 (%)															
	①(정답)	85.25%															
②	3.25%																
③	1.75%																
④	9.7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52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24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다.																
수정 방향	논의를 통해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해 그대로 본 조사에 반영할지 수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 다음 공익 광고를 보고 1번과 2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1~2]		
	<div data-bbox="422 320 1401 1245">  <div data-bbox="710 481 1029 604"> <p>뽑는 데 1초 자라는 데 20년</p> </div> <div data-bbox="710 638 1332 795"> <p>1톤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만 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p> </div> </div>		
	<p>1.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p> <p>①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맙시다. ②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합시다. ③ 일회용 종이컵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소중히 아껴 씁시다. ④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 보존에 기여합시다.</p>		
자료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 <a href="http://www.kobaco.co.kr">http://www.kobaco.co.kr</a> )의 ‘공익 광고 자료실’(인쇄 공익 광고)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공익광고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R-13번		
수정/보완 의견	답이 명확하지 않아 답지를 수정		

정답 및 해설	정답		4															
	① 종이컵의 사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종이컵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광고를 통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광고에서는 종이컵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요인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종이컵 생산의 어려움은 광고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④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7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2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읽기] 나형 1번</div> <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1.50%</td></tr><tr><td>②</td><td>2.00%</td></tr><tr><td>③</td><td>9.50%</td></tr><tr><td>④(정답)</td><td>87.00%</td></tr></tbody></table>							선택지	반응률	①	1.50%	②	2.00%	③	9.50%	④(정답)	87.00%
	선택지	반응률																
	①	1.50%																
②	2.00%																	
③	9.50%																	
④(정답)	87.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7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27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고 변별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적절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2	문항 정보	R-가-4
평가 문항	<p style="text-align: center;">〈가교 문항〉</p>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공익광고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수정/보완 의견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8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8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나형 2번</p><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5.50%</td></tr><tr><td>②(정답)</td><td>68.50%</td></tr><tr><td>③</td><td>11.00%</td></tr><tr><td>④</td><td>15.00%</td></tr></tbody></table></div>						항목	반응률	①	5.50%	②(정답)	68.50%	③	11.00%	④	15.00%
	항목	반응률															
	①	5.50%															
②(정답)	68.50%																
③	11.00%																
④	15.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685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86으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변별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 다음 계약서를 보고 7번과 8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7~8]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W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입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 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화,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9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

	<div></div>					
	7.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제2조를 보니 임대차 기간을 연월일까지 명시해야 하는구나. ② 제5조를 보니 계약이 종료될 당시 연체 임대료가 있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구나. ③ 제7조를 보면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구나. ④ 제8조를 보니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약될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구나.					
자료 출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a href="http://blog.naver.com/flogjump?Redirect=Log&amp;logNo=90150437384">http://blog.naver.com/flogjump?Redirect=Log&amp;logNo=90150437384</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계약서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11번					
수정/보완 의견	본문이 피조사자에게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하여 답지를 간명하게 수정.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2</div></div> ① 제2조에 계약 기간을 년, 월, 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② 제5조에 연체 임대료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③ 제7조에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④ 제8조에 해약이 되어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1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변별도	0.48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문항 반응	<div><div>[읽기] 나형 7번</div><div><div>81.50%</div><div>2.00%</div><div>10.00%</div><div>6.50%</div></div><div>①                      ②(정답)                      ③                      ④</div></div>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15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82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나 지문이 복잡하여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하기에는 예상되는 변수가 큰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나 변별력이 높고, 문항을 수정하였을 때 변수가 큰 지문이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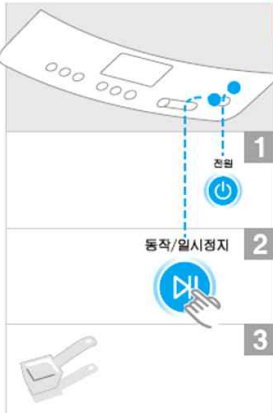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8	문항 정보	R-가-2
평가 문항	<p style="text-align: center;">〈가교 문항〉</p>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계약서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수정/보완 의견	문항이 복잡하고 어려워 하나의 조항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27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2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나형 8번</p><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1.00%</td></tr><tr><td>②(정답)</td><td>27.00%</td></tr><tr><td>③</td><td>69.00%</td></tr><tr><td>④</td><td>3.00%</td></tr></tbody></table></div>						선택지	반응률 (%)	①	1.00%	②(정답)	27.00%	③	69.00%	④	3.00%
	선택지	반응률 (%)															
	①	1.00%															
②(정답)	27.00%																
③	69.00%																
④	3.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270으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22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답 선택 비율에 비해 오답 선택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오답 선택률이 높다는 점은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한다. (문항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9	문항 정보	R-가-4
평가 문항	※ 다음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고 9번과 10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9~10]		
	<div data-bbox="422 353 1391 972"> <div> <div> <div>표준 코스</div> <div>세탁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코스입니다.</div> </div> <div> <div>1</div> <div>빨랫감을 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 자동으로 표준 코스가 선택됩니다.</div> </div> <div> <div>2</div> <div>[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판이 돌아간 후, 빨래 무게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당한 물높이를 표시해 줍니다.</div> </div> <div> <div>3</div> <div>물높이에 맞게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div> </div> </div> <div> <div>참고</div> <div> ▶ 작동 중 뚜껑을 열면 안전을 위해 모든 동작을 멈춥니다. (단, 뚜껑을 열어도 급수는 됩니다.)  ▶ 온수만 사용 시 뜨거운 물에 의한 옷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0초간 온수와 냉수가 함께 급수됩니다.  ▶ 세탁 진행 중 세탁 시간, 행굼 횟수, 탈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 세척 코스 및 일부 코스는 제외)</div> </div> </div>		
	<p>9. ‘표준 코스’로 세탁하고자 합니다. 위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p> <p>①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② ② 과정을 마친 뒤, 이에 따라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었다.          ③ ③ 과정을 마친 뒤, 원하는 세탁 시간과 행굼 횟수를 설정했다.          ④ 작동을 시작한 뒤,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다.</p>		
자료 출처	시중 시판 중인 세탁기 사용 설명서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사용설명서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R-1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 4</div>		
	<p>① [전원]을 버튼을 누르는 것이 첫째 과정(㉠), [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 둘째 과정(㉡)로 제시되어 있다.</p> <p>② 과정 ㉡에 빨래 무게를 감지하여 표시해 주는 적당한 물 높이에 따라서 적정량의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도록 설명되어 있다.</p> <p>③ 설명서의 내용상 ‘표준 코스’는 세탁 시간, 행굼 횟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참고’에서 세탁 중에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p> <p>④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서는 동작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참고’의 설명에 따르면 작동 중 뚜껑을 열면 모든 동작이 멈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원]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83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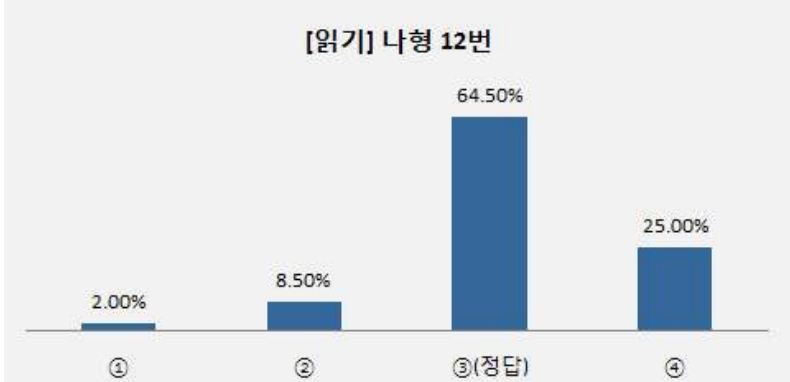


	변별도	0.32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나형 9번</p><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3.50%</td></tr><tr><td>②</td><td>1.50%</td></tr><tr><td>③</td><td>11.50%</td></tr><tr><td>④(정답)</td><td>83.50%</td></tr></tbody></table></div>						항목	반응률	①	3.50%	②	1.50%	③	11.50%	④(정답)	83.50%
항목	반응률																
①	3.50%																
②	1.50%																
③	11.50%																
④(정답)	83.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835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28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문제가 없으므로 적절한 문항이라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0		문항 정보		R-다-4	
평가 문항	※ 다음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고 9번과 10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9~10]						
	<div><div><div></div><div><div><div>■ 표준 코스</div><div>세탁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코스입니다.</div><div><div>1 빨랫감을 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div><div>▶ 자동으로 표준 코스가 선택됩니다.</div></div><div><div>2 [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div><div>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판이 돌아간 후, 빨래 무게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당한 물높이를 표시해 줍니다.</div></div><div><div>3 물높이에 맞게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div></div></div></div><div><div>참고</div><div><div>▶ 작동 중 뚜껑을 열면 안전을 위해 모든 동작을 멈춥니다. (단, 뚜껑을 열어도 급수는 됩니다.)</div><div>▶ 온수만 사용 시 뜨거운 물에 의한 옷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0초간 온수와 냉수가 함께 급수됩니다.</div><div>▶ 세탁 진행 중 세탁 시간, 행굼 횟수, 탈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 세탁 코스 및 일부 코스는 제외)</div></div></div></div></div>						
	10. 이 설명서를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div>① ‘표준 코스’일 때의 온수와 냉수의 비율</div> <div>② ‘표준 코스’로 설정하는 방법</div> <div>③ 세탁기 조작을 위한 버튼의 위치</div> <div>④ 빨래할 때 물 높이를 맞추는 방법</div>						
자료 출처	시중 시판 중인 세탁기 사용 설명서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_사용설명서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2번						
수정/보완 의견	혼동을 줄이기 위해 답지 ①번 수정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1</div></div> <div>① ‘표준 코스’에서의 온수와 냉수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div> <div>② 설명서의 처음 ‘표준 코스’에서 ‘표준 코스’가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코스라고 설명되어 있다.</div> <div>③ 설명서에서 그림을 통해 조작 버튼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다.</div> <div>④ 설명서의 ②에서 빨래의 무게를 자동 감지하여 적당한 물 높이를 표시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div>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7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1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div> <div>문항 반응</div> <div> <div> <div>[읽기] 나형 10번</div> <div> <div>67.00%</div> <div>8.00%</div> <div>2.00%</div> <div>23.00%</div> </div> <div> <div>①(정답)</div> <div>②</div> <div>③</div> <div>④</div> </div> </div> </div> </div>
<div> <div>결과 분석</div> <div> <div>정답률이 0.670으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514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다. 답지 ④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3.00%였는데 물높이에 대한 이해를 추론의 과정이 필요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div> </div> </div>	
<div> <div>수정 방향</div> <div> <div>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div> </div> </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2		문항 정보		R-나-2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편집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전자우편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R-25번						
수정/보완 의견		‘교수’와 ‘선생(교사)’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 다소 수정. 필요 없는 기술 삭제, 년도를 2013년으로 수정.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4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1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나형 12번</p><table><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2.00%</td></tr><tr><td>②</td><td>8.50%</td></tr><tr><td>③(정답)</td><td>64.50%</td></tr><tr><td>④</td><td>25.00%</td></tr></tbody></table></div>	항목	비율	①	2.00%	②	8.50%	③(정답)	64.50%	④	25.00%
항목	비율											
①	2.00%											
②	8.50%											
③(정답)	64.50%											
④	25.00%											
결과 분석	<p>정답률이 0.645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414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대로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높다. 답지 ④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5.00%였는데 이는 ‘오전에 계시다면’이라는 표현에서, 글쓴이가 오전에 교수님이 학교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p>											
수정 방향	<p>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p>											

④ 쓰기 영역: 주관식 3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1

문항 정보

W-가-1

평가 문항

1. 등산 동호회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등산회 총무라고 생각하고 아래 초청장의 본문을 완성해 보세요. (3문장으로 작성)

회원 여러분께.

일시: 2013년 12월 27일(금) 저녁 6시

장소: 진미 한정식

회비: 3만 원

자료 출처

(기초 연구 보고서 참조)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초청장 쓰기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W-1번

수정/보완 의견

글의 양식을 전자 우편에서 초청장으로 변경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초청)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계절 인사, 초청의 목적, 끝 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2	3	5	6	8

예시 답안: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송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	0.76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결과	난이도는 0.761로 예상과 같이 쉬운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변별도는 0.440으로					

	분석	높게 나타났다. 난이도와 변별도 모두 예상과 같이 나타났으므로 본 조사를 위한 평가 도구로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가 양호하므로 특별한 수정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2		문항 정보		W-나-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적 글쓰기-설명문 쓰기				예상 난이 도	중	
기초연구 문항								
수정/보완 의견								
정답 및 해설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 채점 기준 작성)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	0.38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4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결과 분석	난이도는 0.388로 ‘적절한’ 수준에 속하고 변별도는 0.847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답지 분석 결과 문항에 대한 오해로 인해 출제 의도와는 다른 답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답지 분석 결과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답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 판단되므로, 발문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3		문항 정보		W-다-1			
평가 문항	3. 군 복무를 마쳐 병역 의무를 다한 남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글을 써 보세요. (400자 내외)								
	[조건] -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둘 중 하나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힐 것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 것								
자료 출처	(기초 연구 보고서 참조)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논설문 쓰기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W-7번								
수정/보완 의견	발문을 명확하게 하고 찬성과 반대의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도록 조건으로 제시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단락 의식을 가지고 서론-본론-결론을 구성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5	10	16	21	26
예시 답안: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논란이 다시 사회 일각에서 불고 있다. 군 복무자는 국방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젊음을 희생하였고 사회로 복귀하여 적응하는 데 일정 시간이 또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산점 제도에 반대한다. 군 복무자가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가산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그 이유는 첫째, 군 복무는 납세의 의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 복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여성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이나 호봉을 높여주는 등,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	0.48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9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결과 분석	난이도는 0.483으로 예상보다는 조금 쉬운 문항으로 파악되었으며 변별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비 조사의 답지를 분석한 결과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제시하기보다는 주장과 근거의 나열로 답을 제시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수정 방향	변별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난이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 한 편의 글로 형식을 갖추도록 문항을 제시한 후 이를 채점 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면 출제 의도를 살리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문법 영역: 객관식 10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1		문항 정보		G-가-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수정/보완 의견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5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1번</p><table><thead><tr><th>답지</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정답)</td><td>65.00%</td></tr><tr><td>②</td><td>9.25%</td></tr><tr><td>③</td><td>21.25%</td></tr><tr><td>④</td><td>4.50%</td></tr></tbody></table></div>						답지	비율	①(정답)	65.00%	②	9.25%	③	21.25%	④	4.50%
	답지	비율															
	①(정답)	65.00%															
②	9.25%																
③	21.25%																
④	4.5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650으로 적절하였으며 변별도는 0.447로 높게 나타났다. 답지 ③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1.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이’와 ‘어의’의 표기에 혼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답지 선택에 있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2		문항 정보		G-가-2											
평가 문항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그 도시는 별로 <u>구경할</u> 게 없다. ② <u>서울에서 부터</u> 대전까지 걸어갔다. ③ 얼마나 많이 <u>먹었는 지</u> 아직도 배가 부르다. ④ 나는 버스를 타고 갈 테니 너는 <u>너 대로</u> 알아서 와.																
자료 출처	어문규정집,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띄어쓰기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G-2번																
수정/보완 의견	답지 ④를 좀 더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예로 수정하여 문항의 완성도를 높임.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①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에 따라 의존 명사 ‘게’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었다. ② ‘부터’는 조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에 따라 ‘서울에서부터’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③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에 따라 ‘지’가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에서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그러나 ‘먹었는지’에서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너대로’로 써야 한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42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6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문법] 2번</div> <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정답)</td><td>42.25%</td></tr><tr><td>②</td><td>26.50%</td></tr><tr><td>③</td><td>2.00%</td></tr><tr><td>④</td><td>29.25%</td></tr></tbody></table>						선택지	반응률 (%)	①(정답)	42.25%	②	26.50%	③	2.00%	④	29.25%
	선택지	반응률 (%)															
①(정답)	42.25%																
②	26.50%																
③	2.00%																
④	29.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423으로 적절하였으며 변별도는 0.56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답지 ②번과 ④번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26.50%, 29.25%로 나왔는데 ②번의 경우 조사가 겹쳐 쓰일 때 붙여 쓴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판단되며 ④번의 경우는 의존 명사 ‘대로’와의 혼동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답지 선택에 있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3		문항 정보		G-다-1											
평가 문항	3. 높임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래</u> . ②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시래</u> . ③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라셔</u> . ④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시라셔</u> .																
	자료 출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문장_경어법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G-3번																
수정/보완 의견	기존 문항을 주체 경어법을 중심으로 수정하여 난이도 조절																
정답 및 해설	정답 3																
	① ‘오래’는 ‘오라고 해’가 줄어든 말인데 ‘해’의 주어가 존칭인 ‘선생님’이므로 ‘-시-’가 들어가지 않은 ‘오래’는 잘못이다. ②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가 줄어든 말인데 ‘오-’의 주어가 철수이므로 ‘-시-’가 들어간 ‘오시래’는 잘못이다. ③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인데 ‘철수’와 관련된 ‘오-’는 높이지 않고 ‘선생님’과 관련된 ‘하-’에 ‘-시-’를 사용하여 높였으므로 맞는 표현이다. ④ ‘오시라셔’는 ‘오시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인데 ‘철수’와 ‘선생님’ 모두에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잘못이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55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6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3번</p><table><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38.75%</td></tr><tr><td>②</td><td>5.50%</td></tr><tr><td>③(정답)</td><td>55.50%</td></tr><tr><td>④</td><td>0.25%</td></tr></tbody></table></div>						항목	비율	①	38.75%	②	5.50%	③(정답)	55.50%	④	0.25%
	항목	비율															
	①	38.75%															
②	5.50%																
③(정답)	55.50%																
④	0.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555로 적절하였으며 변별도는 0.462로 높게 나타났다. 답지 ①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38.75%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장에서 ‘오다’의 행동주가 ‘철수’라는 점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답지 선택에 있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4		문항 정보		G-나-1	
평가 문항	4.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u>안절부절</u> 했다. ② 옷에 음식을 흘리다니 참 <u>칠칠치</u> 못하구나. ③ 새로 나온 휴대 전화는 예전 것과 모양이 <u>틀리다</u> . ④ 모두 열심히 노력해 준 <u>탓</u> 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의미와 용법					예상 난이도	상
기초연구 문항	2012-G-4번						
수정/보완 의견	답지 ④를 좀 더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예로 수정하여 문항의 완성도를 높임.						
정답 및 해설	정답		2				
	① ‘안절부절못하다’가 적절한 낱말이다. ② ‘칠칠치 못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라는 뜻의 ‘칠칠하다’라는 형용사와 ‘못하다’라는 보조 형용사가 결합한 형태로 문맥에 적절하게 쓰였다. ③ ‘틀리다’는 ‘맞다’와 반대되는 낱말이다. 여기에서는 새로 나온 휴대 전화와 예전 것의 모양을 비교하는 상황이므로, ‘다르다’가 적절한 낱말이다. ④ ‘탓’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을 뜻하는 말로 긍정적인 경우에는 ‘덕, 덕분에’를 쓰는 게 적절하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55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0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결과 분석	정답률이 0.553으로 적절하였으며 변별도는 0.509로 높게 나타났다. 답지 ①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33.50%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안절부절하다’와 ‘안절부절못하다’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답지 선택에 있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5		문항 정보		G-나-2		
평가 문항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div>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u>값</u>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div>							
	① 가격		② 비용		③ 가치		④ 대가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의미 관계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G-5번							
수정/보완 의견	문항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u>값</u> 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에서 ‘값이’를 ‘값’으로 수정함.							
정답 및 해설	<div>정답3</div>							
	<p>① ‘가격’은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p> <p>② ‘비용’은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p> <p>③ ‘값’은 다의어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p> <p>「1」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ㄴ가문05(價文).</p> <p>「2」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p> <p>「3」 어떤 일이나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p> <p>「4」 노력이나 희생에 따른 대가.</p> <p>「5」 어떤 것에 합당한 노릇이나 구실.</p> <p>「6」 『수학』 하나의 글자나 식이 취하는 수. 또는 그런 수치.</p> <p>여기에서는 「3」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당한 낱말은 ‘가치’이다.</p> <p>④ ‘대가’는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93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0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범] 5번</div><div><div>0.25%</div><div>0.25%</div><div>93.00%</div><div>6.50%</div></div><div><div>①</div><div>②</div><div>③(정답)</div><div>④</div></div></div>						
	결과 분석	정답률이 0.930으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08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오답이 없으나 예상 난이도가 ‘하’였으므로 특별히 수정이 필요한 문항은 아니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같이 나왔으며 변별도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6		문항 정보		G-나-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수정/보완 의견																	
정답 및 해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93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26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6번</p><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0.50%</td></tr><tr><td>②(정답)</td><td>93.50%</td></tr><tr><td>③</td><td>3.75%</td></tr><tr><td>④</td><td>2.25%</td></tr></tbody></table></div>						구분	정답률 (%)	①	0.50%	②(정답)	93.50%	③	3.75%	④	2.25%
	구분	정답률 (%)															
	①	0.50%															
②(정답)	93.50%																
③	3.75%																
④	2.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935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265로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오답이 없고 변별력이 낮아 답지를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방향	정답률이 높고 변별력이 낮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난이도와 변별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7		문항 정보		G-나-3	
평가 문항	7. 밑줄 친 표현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① 형은 <u>입이 짧아서</u> 무엇이든 잘 먹는다. ② 남의 일에도 일일이 참견하고 참 <u>오지랖도</u> 넓다. ③ 경기에서 진 선수들은 풀이 죽어 <u>어깨를 으쓱거렸다</u> . ④ 놀고 싶어 <u>오금이 저렸지만</u> 시험이 내일이라 놀지 못했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관용 표현의 의미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G-7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2</div>						
	① ‘입이 짧다’는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②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③ ‘어깨를 으쓱거리다’는 뽐내거나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 ‘오금이 저리다’는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라는 뜻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94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2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법] 7번</div><div><div>94.25%</div><div>3.00%</div><div>1.25%</div><div>1.50%</div></div><div>①②(정답)③④</div></div>					
	결과 분석	정답률이 0.942로 매우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29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예상과 달리 매우 낮게 나와 검토가 필요하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예상과 달리 매우 높게 나와 답지를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8		문항 정보		G-다-2												
평가 문항	8. 문장의 흐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 일은 절대로 오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년에는 회사 실적이 아마 올해만 못할 겁니다. ③ 글을 잘 쓰려면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④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을 이겨 냈습니다.																	
	자료 출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문장_호응 관계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2012-G-8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2</div></div> <p>① ‘절대로’라는 부정 부사어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긍정형의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② ‘내년에는’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못할 겁니다’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③ ‘텔레비전’이라는 목적어와 ‘읽어야 한다’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④ ‘것은’이라는 주어와 ‘이겨 냈습니다’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p>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5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2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법] 8번</div><table><tr><th>항목</th><th>비율</th></tr><tr><td>①</td><td>4.75%</td></tr><tr><td>②(정답)</td><td>56.00%</td></tr><tr><td>③</td><td>16.00%</td></tr><tr><td>④</td><td>23.25%</td></tr></table></div>							항목	비율	①	4.75%	②(정답)	56.00%	③	16.00%	④	23.25%
	항목	비율																
①	4.75%																	
②(정답)	56.00%																	
③	16.00%																	
④	23.25%																	
결과 분석	정답률이 0.560으로 적절하였으며 변별도는 0.520으로 높게 나타났다. 답지 ④번을 선택한 피험자가 23.2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는 것은’이 주어로 올 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 방향		난이도와 변별도, 답지 선택에 있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므로 수정 사항 없이 본 조사에 반영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9		문항 정보		G-다-3												
평가 문항	9. 두 문장을 연결하고자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            ) 오후가 되자 날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① 그래서		② 그러면		③ 그런데		④ 왜냐하면										
자료 출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문장_접속 관계						예상 난이도	하										
기초연구 문항	2012-G-9번																	
수정/보완 의견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정답		3															
	①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②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③ 아침과 오후의 상황이 대조적이므로 ‘그런데’나 ‘그러나’와 같은 접속 부사가 의미상 적절하다. ④ ‘왜냐하면’은 ‘왜 그러나 하면’의 뜻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98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18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9번</p><table><thead><tr><th>선택지</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1.25%</td></tr><tr><td>②</td><td>0.25%</td></tr><tr><td>③(정답)</td><td>98.50%</td></tr><tr><td>④</td><td>0.00%</td></tr></tbody></table></div>							선택지	비율	①	1.25%	②	0.25%	③(정답)	98.50%	④	0.00%
	선택지	비율																
	①	1.25%																
②	0.25%																	
③(정답)	98.50%																	
④	0.00%																	
결과 분석	정답률이 0.985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183으로 변별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오답이 없고 변별력이 낮아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방향	난이도에 대한 예상이 ‘하’였으므로 난이도보다는 변별도에 중점을 두어 문항을 수정한다. 문항이 출제 의도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피험자들에게 혼동을 줄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한다.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따로 제시하도록 한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10		문항 정보		G-가-3	
평가 문항	10. <보기>의 ㉠, ㉡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div><div>&lt;보 기&gt;</div><div><div>○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    ㉠    )</div><div>○ 내가 문제 낼게. (    ㉡    ) 봐.</div></div></div>						
	㉠		㉡				
	① 맞췄다	알아맞춰	② 맞췄다	알아맞혀	③ 맞혔다	알아맞춰	④ 맞혔다
자료 출처	어문규정집,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표준어					예상 난이도	중
기초연구 문항 수정/보완 의견	2012-G-10번 현실에서 혼동이 많은 ‘맞히다/맞추다, 알아맞히다/알아맞추다’로 수정하여 문항의 완성도를 높임						
정답 및 해설	정답		4				
	① ‘주사를 맞게 하다’는 ‘주사를 맞히다’이고 ‘퀴즈의 정답을 대다’는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이다. ② ‘주사를 맞게 하다’는 ‘주사를 맞히다’이고 ‘퀴즈의 정답을 대다’는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이다. ③ ‘주사를 맞게 하다’는 ‘주사를 맞히다’이고 ‘퀴즈의 정답을 대다’는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이다. ④ ‘주사를 맞게 하다’는 ‘주사를 맞히다’이고 ‘퀴즈의 정답을 대다’는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이다. ⑤ ‘주사를 맞게 하다’는 ‘주사를 맞히다’이고 ‘퀴즈의 정답을 대다’는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이다.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11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27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법] 10번</div><div><div><div>11.25%</div><div>30.50%</div><div>47.25%</div><div>11.00%</div></div><div><div>①</div><div>②</div><div>③</div><div>④(정답)</div></div></div></div>					
	결과 분석	정답률이 0.110으로 어려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270으로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난이도가 매우 높은 데다 변별력이 낮아 전반적으로 문항을 재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 방향	난이도가 매우 낮게 나왔으며 변별력이 낮아 수정이 필요하다. 출제 의도는 유지하되 혼동의 정도가 매우 심한 예시는 피하도록 한다. 피험자들의 국어 능력과 관계가 깊다고 판단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변별도를 높이도록 한다.						

## 4.5. 변인별 분석

주지하듯이, 예비 조사의 목적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지 않고, 본 조사 시행을 위해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보다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조사 도구가 적합하였는지,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점검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성, 여성),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직업군(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학력군(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5개 변인을 상정하였는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5개 영역에 따라 해당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 ① 듣기 영역

먼저, 듣기 영역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점수가 약간 높지만 유의도가 0.05보다 커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듣기 영역의 난도가 비교적 쉬운 편이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T	유의도
	남성	여성		
성별	118.80	120.00	-0.402	0.688

<표 61> 듣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다음으로, 듣기 영역의 연령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듣기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본 연구와 같은 평가형 조사에 익숙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사후 비교에서도 20대가 40대, 50대보다, 30대가 50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대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	127.50	123.90	116.70	109.50	7.948	0.000	20대>40대, 20대>50대, 30대>50대

<표 62> 듣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지역 규모에 따른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읍면 단위의 국민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언어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만 지역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조사 시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역규모	118.20	118.20	123.00	0.975	0.379	

<표 63> 듣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직업군에 따른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직업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집단에는 학생 집단이 포함되어 평균이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직업	123.92	112.60	122.66	6.381	0.002	정신노동>육체노동, 기타>육체노동

<표 64> 듣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끝으로, 학력군에 따른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대재 이상이 고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아 학력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졸 이하와 고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학력	109.29	112.60	125.04	10.384	0.000	대재이상>중졸이하, 대재이상>고졸

<표 65> 듣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듣기 영역 점수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듣기 영역 조사 도구 및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특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듣기 영역의 문항들이 다소 쉬운 편이어 본 조사 시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② 말하기 영역

먼저, 말하기 영역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평균 점수가 약간 높지만 유의도가 0.05보다 커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에게 비해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말하기 영역의 문항 속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T	유의도
	남성	여성		
성별	76.01	77.12	-0.362	0.718

<표 66> 말하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다음으로, 듣기 영역의 연령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20대와 30대가 40대보다 높고, 50대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는 30대와 50대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수준의 연령대에 의한 말하기 능력 차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20대와 30대의 차이는 공식적인 말하기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연령대에 따른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	77.79	81.93	76.95	69.59	2.880	0.037	30대>50대

<표 67> 말하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지역 규모에 따른 말하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평균이 높고, 통계적으로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사이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읍면 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언어 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해 볼 때, 지역 규모에 따른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역규모	79.76	77.37	69.38	3.975	0.020	대도시>읍면지역

<표 68> 말하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직업군에 따른 말하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정신노동자, 기타, 육체노동자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직업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집단에는 학생 집단이 포함되어 평균이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직업	82.32	71.65	76.32	4.307	0.015	정신노동>육체노동

<표 69> 말하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끝으로, 학력군에 따른 말하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대재 이상이 고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된 것과 같아 학력에 따른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졸 이하와 고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듣기 영역의 결과와 일치하는 면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학력	70.43	70.23	81.42	6.882	0.001	대재이상>고졸

<표 70> 말하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말하기 영역 점수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말하기 영역 조사 도구 및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특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영역 속성을 고려할 때에도 조사 방식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하기 영역 전공자들에 의해 진행된 채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③ 읽기 영역

먼저, 읽기 영역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점수가 약간 높지만 유의도가 0.05보다 커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읽기 영역의 난도가 비교적 쉬운 편이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T	유의도
	남성	여성		
성별	142.95	143.70	-0.207	0.836

<표 71> 읽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다음으로, 읽기 영역의 연령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읽기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본 연구와 같은 평가형 조사에 익숙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사후 비교에서는 20대와 50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표본 집단 선정 및 조사 도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	148.95	147.00	141.60	135.75	2.729	0.044	20대>50대

<표 72> 읽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지역 규모에 따른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읍면 단위의 국민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언어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만 지역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조사 시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역규모	142.50	149.10	139.20	1.991	0.138	

<표 73> 읽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직업군에 따른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직업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집단에는 학생 집단이 포함되어 평균이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직업	148.49	135.83	146.57	5.026	0.007	정신노동>육체노동 기타>육체노동

<표 74> 읽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끝으로, 학력군에 따른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아 학력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학력	118.71	137.45	150.87	15.989	0.000	대재이상>고졸> 중졸이하

<표 75> 읽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읽기 영역 점수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읽기 영역 조사 도구 및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특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영역에 비해,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차이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조사 도구의 구성에 대단히 타당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④ 쓰기 영역

먼저, 쓰기 영역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점수가 다소 높지만 유의도가 0.05보다 커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높다는 추정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T	유의도
	남성	여성		
성별	120.15	128.44	-1.458	0.146

<표 76> 쓰기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다음으로, 쓰기 영역의 연령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쓰기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본 연구와 같은 평가형 조사에 익숙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사후 비교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	132.47	125.04	123.42	116.26	1.368	0.254	

<표 77> 쓰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지역 규모에 따른 쓰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원 점수를 기준으로 읍면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적인 추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역규모	122.71	133.91	117.87	2.157	0.118	

<표 78> 쓰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직업군에 따른 쓰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기타,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기타와 육체노동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직업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집단에는 학생 집단이 포함되어 평균이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직업	126.84	113.69	133.38	4.376	0.014	기타>육체노동

<표 79> 쓰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끝으로, 학력군에 따른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재 이상과 중졸 이하, 대재 이상과 고졸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아 학력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졸 이하와 고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학력	101.44	116.85	133.18	7.713	0.001	대재이상>중졸이하, 대재이상>고졸

<표 80> 쓰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쓰기 영역 점수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쓰기 영역 조사 도구 및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특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쓰기 영역 전공자들에 의해 진행된 채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⑤ 문법 영역

먼저, 문법 영역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도구 및 표본 집단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T	유의도
	남자	여자		
성별	100.43	98.85	0.672	0.502

<표 81> 문법 영역의 성별 차이(예비 조사)

다음으로, 문법 영역의 연령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법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본 연구와 같은 평가형 조사에 익숙하다는 점, 제도권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맞춤법 교육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인 수준에서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사후 비교에서도 20대와 50대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대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	105.75	100.35	97.50	94.95	3.998	0.008	20대>50대

<표 82> 문법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예비 조사)

지역 규모에 따른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원 점수를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평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읍면 단위의 국민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언어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만 지역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조사 시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역규모	101.25	100.05	96.00	1.700	0.184	

<표 83> 문법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예비 조사)

직업군에 따른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기타,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의 순으로 평균이 높으며, 기타와 육체노동자 사이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직업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집단에는 학생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교육에서의 맞춤법 교육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직업	100.58	94.27	104.76	7.132	0.001	기타>육체노동

<표 84> 문법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예비 조사)

끝으로, 학력군에 따른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대재 이상이 고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추정한 것과 같아 학력에 따른 표본 집단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졸 이하와 고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평균점수			F	유의도	사후비교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학력	92.14	92.34	105.40	16.607	0.000	대재이상>중졸이하, 대재이상>고졸

<표 85> 문법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예비 조사)

문법 영역 점수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법 영역 조사 도구 및 표본 집단 추출 과정에 특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V. 본 조사 시행

### 1. 조사 도구 수정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 및 예비 조사의 시행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 도구를 수정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1.1. 조사 영역 및 문항의 재배치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듣기, 읽기, 문법 영역은 선택형 객관식 문항으로, 말하기, 쓰기 영역은 수행형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 도구이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많은 시간을 들여 피조사자들이 직접 수행한 결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 40-50대는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능동적인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음.
- 정신노동 응답자는 바쁘다,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조사를 피하는 반면, 육체노동/중졸 이하 응답자는 이해도가 떨어져 중도 탈락이 많음.
- 20-30대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익숙하여 직접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40-50대, 육체노동/중졸 이하 응답자는 맞춤법과, 필체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글쓰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읽기, 문법을 다 풀고 난 후 쓰기 문항에 부담감을 느껴 거절, 혹은 쓰고 싶은 문항만 작성하려고 함. 특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묘사하는 문항을 어렵게 느껴 쓰기 문항 1번 진행 후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말하기를 거절함.

이러한 문제점들은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상되었던 것들로, 본 연구의 조사가 어느 정도의 평가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들에 비해 피조사자가 실제 수행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다른 영역의 문항들에 응답을 한 후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가’ 형과 ‘나’ 형 모두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가장 처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영역을 재배치하여 조사의 수월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예비 조사 영역 배치			본 조사 영역 배치		
‘가’ 형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듣기	10	15	말하기	3	15
	말하기	3	15	듣기	10	15
	읽기	13	26	읽기	13	26
	문법	10	10	문법	10	10
	누계	36문항	66분	누계	36문항	66분
‘나’ 형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13	26	쓰기	3	30
	문법	10	10	읽기	13	26
	쓰기	3	30	문법	10	10
	누계	26문항	66분	누계	26문항	66분

<표 86> 조사 영역 재배치

또한, 읽기 영역은 20개의 문항이 ‘가’ 형과 ‘나’ 형에 각각 배분되고, 6개의 공통 문항을 설정하여 ‘가’ 형과 ‘나’ 형 각각 13개씩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예비 조사 도구에서는 6개의 공통 문항을 하나의 조사 도구 내에서 피조사자가 느끼는 피로도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다 보니, 공통 문항이 두 조사 도구 각각에 다른 문항 번호로 배치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공통 문항의 번호가 일치하도록 읽기 영역의 문항 순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통계 처리 및 결과 기술의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 문항 번호	기존 문항			
	가 형		나 형	
	번호	텍스트	번호	텍스트
1번	2(나3)	만평	3(가2)	만평
2번	1	만평	12	이메일
3번	3(나4)	기사문	4(가3)	기사문
4번	4(나5)	기사문	5(가4)	기사문
5번	5	사설	1	공익광고
6번	6	사설	2	공익광고
7번	7(나6)	도로명안내	6(가7)	도로명안내
8번	8	가정통신문	9	사용설명서
9번	9	가정통신문	10	사용설명서
10번	10	공문	7	계약서
11번	11	공문	8	계약서
12번	12(나11)	편지	11(가12)	편지
13번	13(나13)	문자메시지	13(나13)	문자메시지

<표 87> 읽기 영역 문항 순서 재배치

이러한 문항 순서 재배치에 따라 읽기 영역의 문항 정보도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 <읽기 ‘가’ 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배점
		도로명 안내	가정 통신문	사용 설명서	기사문	민원 공문	전세 계약서	논설 /사설	취업 추천서	만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1	다-2									●					15
2	나-1									○					15
3	가-3				●										15
4	다-3				●										15
5	가-2							○							15
6	나-5							○							15
7	가-1	●													15
8	가-1		○												15
9	나-3		○												15
10	가-1					○									15
11	나-2					○									15
12	나-1											●			15
13	나-4												●		15
	계	1	2		2	2		2		2		1	1		195

\* 공통 문항은 ●로 표시

<표 88> 읽기 영역(‘가’ 형)의 텍스트 유형(본 조사)

### <읽기 ‘나’ 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배점
		도로명 안내	가정 통신문	사용 설명서	기사문	민원 공문	전세 계약서	논설 /사설	취업 추천서	만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1	다-2									●					15
2	나-2													○	15
3	가-3				●										15
4	다-3				●										15
5	나-1										○				15
6	가-4										○				15
7	가-1	●													15
8	가-4			○											15
9	다-4			○											15
10	가-1						○								15
11	가-2						○								15
12	나-1											●			15
13	나-4												●		15
	계	1		2	2		2			1	2	1	1	1	195

\* 공통 문항은 ●로 표시

<표 89> 읽기 영역(‘나’ 형)의 텍스트 유형(본 조사)

## 1.2. 개별 문항별 수정 내용

예비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항별 난이도, 변별도, 답지 반응을 등의 자료와 변인별 차이 분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활용할 조사 도구 문항을 수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영역별로 한두 개씩의 수정 사례를 제시하고, 개별 문항별 세부 수정 내용은 문항 카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듣기 영역

예비 조사 결과, 듣기 6번 문항은 난이도가 0.965로 대단히 쉬우며, 변별도는 0.092로 분석되어 변별력이 없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답지 중 일부를 수정하여 난이도를 상향하고,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항을 수정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6	문항 정보	L-다-2
평가 문항	<p>※ 이번에는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점원: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이 필요하세요?          손님: 바지 하나 사려고요.          점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바지는 어떠세요?          손님: 이 바지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나요?          점원: 요즘 이런 바지가 유행이에요.          손님: 그래도 저는 불편한 바지는 싫는데....., 통이 좀 더 넓은 바지는 없어요?          점원: 요새 누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요? 그냥 이거 입으세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손님: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한번 입어 볼게요.          (휴지)          손님: 아,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끼어서 불편한데요. 좀 더 편한 바지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밝아서 좀 그래요.          점원: 손님, 바지는 입다 보면 다 들어나요. 그리고 이 색이 이번 가을에 제일 유행하는 색이에요. 다른 집 가 보세요. 다 이 색이 유행이라고 할걸요?          손님: 그래도 이 바지는 안 되겠어요. 다른 바지 보여 주세요.          점원: 다른 바지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 통 넓은 바지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않아요. 다른 가게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 바지로 하세요.</p>		
	<p>6. (물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손님은 상품의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② 점원은 상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다.          ③ 손님은 상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④ 점원은 다른 상점과 비교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관적 듣기(형식의 평가)_설득적 담화		
수정 사항	<p>예상보다 정답률이 높고 변별도가 낮아 아래와 같이 답지를 수정하였다.</p> <p>1. 발문은 ‘알맞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          2. 매력적인 오답을 넣고 난이도를 높여 답지를 수정한다.          (답지 ①, ②, ③, ④ 모두 교체)</p>		



## ② 말하기 영역

예비 조사 결과, 말하기 영역의 주관식 3문항은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와 변별도가 모두 양호하여 특별한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만, 예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정교화하였다.

## ③ 읽기 영역

예비 조사 결과, 읽기 영역의 ‘가’ 형 12번 문항은 난이도는 0.838로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04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일부 수정이 필요하였다. 난이도를 낮추고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 깊이 있는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답지 ①의 선택물이 가장 낮았는데, 이에 대한 오답 매력도를 높여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2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공통)	12. 이 편지에서 ‘엄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p>사랑하는 아들아</p> <p>네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잘 받았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던데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산부인과에서 아빠가 외할머니와 열싸안고 만세를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군인이 됐다니 대견하다.</p> <p>아들아, 엄마는 훈련소란 용광로라고 생각한다. 각종 성분이 함유된 철광 원석들이 한곳에 모여 뜨겁게 녹아내려 강한 철로 만들어지는 곳, 용광로. 훈련소가 바로 그 용광로다. 그동안 몸과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가슴에 새겨 강철처럼 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p> <p>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네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 여름날 보름 동안 자전거로 해남 땅끝까지 완주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아들이니까……, 마당에 있는 그 영광의 자전거가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주기도 한단다.</p> <p>건강하고 현명한 우리 00, 사랑한다!</p> <p>힘내라 우리 아들~!</p> <p style="text-align: right;">3월 4일에 엄마가</p>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_편지		
텍스트 정보	가형-12번, 나형-11번		
예비 조사 문항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지를 수정하였다.		
수정 사항	(정답 외의 답지, 즉 ①, ③, ④를 교체)		

#### ④ 쓰기 영역

예비 조사 결과, 쓰기 영역의 주관식 세 문항은 예비 조사 결과 난이도와 변별도가 모두 양호하여 특별한 수정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점 과정에서 2번 문항의 출제 의도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답지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점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묘사하라’는 서술어를 출제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여 객관적인 기술이 아닌, 주관적인 감상을 적은 답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고 문항을 간결하게 다듬어 출제 의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2	문항 정보	W-나-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하는 글 쓰기-묘사		
수정 사항	난이도와 변별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답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 하에, 발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신 불필요한 조건을 없애 문항을 간결하게 다듬었다.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발문을 다듬었음.)		

#### ⑤ 문법 영역

예비 조사 결과, 문법 영역의 7번 문항은 난이도가 0.942로 매우 쉬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329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난이도가 예상과 달리 매우 높게 나왔다. 문법 영역 전체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4개의 문항의 정답률이 90%가 넘었다. 오답 매력도를 높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7	문항 정보	G-나-3
평가 문항	<p>7. 밑줄 친 표현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형은 <u>입이 걸어서</u> 무엇이든 잘 먹는다.</p> <p>② 남의 일에도 일일이 참견하고 참 <u>오지랖도 넓다</u>.</p> <p>③ 경기에서 진 선수들은 풀이 죽어 <u>어깨를 낮추었다</u>.</p> <p>④ 놀고 싶어 <u>오금이 땅겼지만</u> 시험이 내일이라 놀지 못했다.</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관용 표현의 의미
수정 사항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밑줄 그은 부분을 조금 더 난도가 높거나 매력도가 높은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문법 영역의 10번 문항은 난이도는 0.110으로 어려운 문항이었으며 변별도는 0.270으로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난이도가 매우 낮으며 변별력이 낮아 전반적으로 문항을 재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보기> 예문 두 가지를 교체하고 답지도 좀 더 단순하게 조정하였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10	문항 정보	G-가-3
평가 문항	10. <보기>의 ㉠, ㉡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lt;보 기&gt;  ○ 친구가 새 양복을 ( ㉠ ).  ○ 내가 문제 낼게. ( ㉡ ) 봐.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① 맞혔다</div> <div>맞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② 맞혔다</div> <div>맞혀</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③ 맞췄다</div> <div>맞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④ 맞췄다</div> <div>맞혀</div> </div>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표준어		
수정 사항	문항이 어려운 데다 혼란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확한 예시로 보기를 교체하고 답지를 단순화하였다.		

### 1.3.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조사 도구 확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영역을 담당하는 공동 연구원들이 수정한 영역별 문항을, 모든 공동 연구원들이 협의를 통해 검토한 후, 별도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 2013년 8월 19일(월요일)
- 참석자

영역	전문가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듣기	박종훈 교수(부산교대)	민병곤 교수(서울대)	김종철 교수 (서울대)	이관희 이지수 박은진 정재미
말하기		박재현 교수(상명대)		
읽기	이성영 교수(춘천교대)	김봉순 교수(공주교대)		
쓰기	김정자 교수(경인교대)	주재우 연구원(서울대)		
문법	김은성 교수(이화여대)	정희창 교수(동덕여대)		

<표 90>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문항 카드를 통해 제시하고, 일부 문항별로 주요 수정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정에서 전체 문항별로 발문을 격식체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영역	번호	수정 내용
말하기	—	수정 사항 없음.
듣기	4	영역 전체의 정답 분포를 고려하여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6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변별도가 낮아 아래와 같이 답지를 수정하였다. 1. 발문은 ‘알맞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 2. 매력적인 오답을 넣고 난이도를 높여 답지를 수정한다.
	7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9	예비 조사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생각’이므로 ‘가장 잘’을 넣어야 한다는 자문 회의 결과에 따라 발문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답지 순서도 조정)
	10	발문의 표현과 답지 ②번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문법	4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6	정답률이 높고 변별력이 낮아 답지를 수정하였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난이도와 변별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7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밑줄 그은 부분을 조금 더 난도가 높거나 매력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9	두 문장으로 접속어를 판단하기보다는 세 문장 이상이 조금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자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기와 답지를 모두 수정하였다.
	10	문항이 어려운 데다 혼란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확한 예시로 보기를 교체하고 답지를 단순화하였다.
쓰기	2	난이도와 변별도에 문제는 없었으나, 답지 분석 결과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답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발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3	발문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유도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하였다.
읽기 (가)	1 (예비2번)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2 (예비1번)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3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9	난이도와 변별도에 문제가 없어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답지 ③번의 ‘모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답지 ③번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12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지를 수정하였다.

	13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가’, ‘나’를 ‘김 대리’, ‘박 실장’으로 수정하였고 글자체를 바꾸었다.
읽기 (나)	8 (예비9번)	난이도와 변별도에 문제가 없어 문항은 수정할 필요가 없으나 답지 ②번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11 (예비 8번)	난이도와 변별도에 문제는 없었으나 오답 선택률이 높아 문항을 조금 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발문의 표현도 수정하였다.

<표 91>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문항 수정 방향

## 2. 조사 방식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 모두 숙달된 조사원들이 표집된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로 만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사원의 피조사자 설득과 표준화된 방식으로의 조사 시행이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조사원의 숙달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사는 예비 조사와 달리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사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규모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비고	관할 지역	조사원 수
서울 본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48
부산 지사	부산, 울산, 경남	25
대구 지사	대구, 경북	15
광주 지사	광주, 전남, 전북	15
대전 지사	대전, 충남, 충북	15
<b>총계</b>		<b>118명</b>

<표 92>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수

이들은 많은 설문 조사 경험을 보유한 30-50대 여성이며, 대부분 이전에 유사 조사 경험이 있어 조사 수행 기관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 있고, 조사 취지에 쉽게 공감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예비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중심으로 조사원을 구성하여 조사 시행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이들 조사원들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조사원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교육은 각 지역의 실사 관리자가 동석하였으며, TNS 담당 연구원 1인이 모든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자에 의한 교육 내용의 편차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육에는 예비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이 분포되어 있어 예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조사원들과 조사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세부 교육 내용은 II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조사 지역	교육 장소	1차 교육	2차 교육	참여 인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TNS 본사(서울)	8월 31일(금)	9월 3일(화)	1차: 26명 2차: 22명
부산, 울산, 경남	TNS 부산사무소	9월 4일(수)	—	25명
대구, 경북	TNS 대구사무소	9월 4일(수)	—	15명
광주, 전남, 전북	TNS 광주사무소	9월 2일(월)	—	15명
대전, 충남, 충북	TNS 대전사무소	9월 2일(월)	—	15명

<표 93> 조사원 교육 일정

### 3. 표본 집단 추출

#### 3.1. 표본 추출 방식 및 표본 대상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은 2단계 집락 추출 방식(cluster sampling)이며, 설정한 5개의 변인 중 직업군과 학력군은 소프트 할당(soft quota) 방식으로 변인을 통제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가 조사 효율성과 표본 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도권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학력군 변인도 인구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표본을 추출했던 것과 달리, 본 조사의 표본 집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표본 집단의 크기도 2set×1,500명으로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표본 집단은 지역 규모, 성별, 연령대, 직업군, 학력군의 변인들을 정합적으로 통제하여 추출하였다. 예비 조사가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해, 본 조사는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보다 엄밀하게 실제 분포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집락 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사용하며, 이때의 집락은 행정 구역상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확률 비례 추출(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적용하여 규모가 큰 집락(읍·면·동)일수록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비례해서 높아지게 하였다. 하나의 집락(읍·면·동)에서 조사되는 표본 수는 10명으로 설계하며, 따라서 1,500명을 추출하기 위한 집락(읍·면·동) 수는 총 150개가 된다. 이때, ‘가’ 형과 ‘나’ 형을 구분하여 동일한 표본 집단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총 표본 수는 300개 집락, 3,000명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따라 지역을 배분할 경우 제주도에 해당되는 표본 수가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주도에 배분되는 표본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나머지 1,470명의 표본을 인구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지역별로 추출된 집락 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모집단의 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도	모집단(20세~59세 인구) 수			추출된 집락 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서울특별시	6,603,301			31		
부산광역시	2,140,926		67,696	10		
대구광역시	1,439,430		113,133	7		
인천광역시	1,776,781		46,230	8		
광주광역시	889,082			4		
대전광역시	953,550			5		
울산광역시	610,412		126,843	3		1
경기도		6,368,604	1,245,452		30	6
강원도		553,644	344,889		3	2
충청북도		581,156	346,734		3	2
충청남도		556,304	679,080		3	3
전라북도		765,612	290,081		4	1
전라남도		484,403	547,657		2	3
경상북도		873,873	689,937		4	3
경상남도		1,304,256	686,070		6	3
제주도		248,562	89,921		2	1
합계	14,413,482	11,736,414	5,273,723	68	57	25

<표 94> 지역별 할당 집락 수

이 과정을 통해 1단계로 표본 집락을 추출한 후, 추출된 집락 내에서 개별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은 추출된 집락 내에서 성별, 연령대의 분포를 고려하여 균등한 비율로 할당하여 실제 피조사자를 추출하였다. 지역별로 지역 규모, 성별, 연령대를 하드 할당 방식으로 1,500명 기준의 표본 할당 표를 구획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각 집단의 2배 크기의 표본 집단을 산출하여 ‘가’ 형과 ‘나’ 형의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구 분	구 분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합계	1500	163	151	201	193	216	205	187	184
대도시	서울	310	35	35	43	42	41	40	36	38
	부산	100	11	10	12	12	13	13	14	15
	대구	70	8	7	8	9	10	10	9	9
	인천	80	9	8	11	10	12	11	10	9
	광주	40	5	4	5	6	6	5	4	5
	대전	50	6	5	7	6	7	7	6	6
	울산	30	3	3	4	4	4	4	4	4
중소도시	경기	300	32	31	41	41	45	44	34	32
	강원	30	3	3	4	4	4	4	4	4
	충북	30	3	3	4	4	4	4	4	4

	충남	30	3	3	5	4	5	4	3	3
	전북	40	4	4	5	5	6	6	5	5
	전남	20	2	2	3	3	3	3	2	2
	경북	40	4	4	5	5	6	6	5	5
	경남	60	7	6	8	7	9	9	7	7
	제주	20	2	2	3	3	3	3	2	2
읍/면지역	울산	10	1	1	1	1	2	2	1	1
	경기	60	6	5	9	8	9	8	8	7
	강원	20	3	2	2	2	3	2	3	3
	충북	20	2	2	3	2	3	2	3	3
	충남	30	3	3	4	3	4	4	5	4
	전북	10	1	1	1	1	1	1	2	2
	전남	30	3	2	4	3	5	4	5	4
	경북	30	3	2	4	3	4	4	5	5
	경남	30	3	2	4	4	5	4	4	4
	제주	10	1	1	1	1	2	1	2	1

<표 95> 지역별 조사 표본 수

다음으로, 학력군과 직업군 변인은 소프트 할당 방식으로 변인을 통제하는데, 이때 읍면동을 기준으로 학력군과 직업군을 할당하게 되면, 추출된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특정 학력군이나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력과 직업은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도별로 표본 수를 할당하고 그 비율에 맞춰 추출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다면, 같은 시도 내 다른 읍면동에서는 저학력 응답자가 더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도 전체의 학력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소프트 할당량(soft quota)의 한 변인인 학력군은 각 시도별로 통계청 인구 총 조사(2010년) 자료를 참조하여 모집단의 크기와 대비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각 시도별로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세 구간에 따른 표본 할당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각 구간에서 2배의 표본을 추출하여 ‘가’ 형과 ‘나’ 형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시도	모집단 (20~59세)			표본 할당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서울특별시	2.0%	6.4%	13.1%	28	92	190	310
부산광역시	1.1%	2.5%	3.6%	14	35	51	100
대구광역시	0.7%	1.6%	2.8%	10	22	38	70
인천광역시	0.7%	2.4%	2.5%	10	34	36	80
광주광역시	0.3%	1.0%	1.8%	4	13	23	40
대전광역시	0.4%	0.9%	1.9%	6	15	29	50
울산광역시	0.3%	1.0%	1.0%	5	17	18	40
경기도	2.5%	8.9%	12.4%	37	135	188	360



강원도	0.6%	1.0%	1.3%	9	18	23	50
충청북도	0.5%	1.1%	1.3%	9	19	22	50
충청남도	0.7%	1.5%	1.7%	11	23	26	60
전라북도	0.6%	1.1%	1.6%	9	17	24	50
전라남도	0.7%	1.1%	1.2%	11	19	20	50
경상북도	0.9%	1.9%	2.2%	13	26	31	70
경상남도	1.0%	2.5%	2.8%	13	36	41	90
제주특별자치도	0.1%	0.3%	0.5%	4	10	16	30

<표 96> 학력군별 조사 표본 수

또 다른 소프트 할당(soft quota) 변인인 직업군은 예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직업 인구 분포 현황을 반영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학력군 변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의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지역별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실제로는 각 구간에서 2배의 표본을 추출하여 ‘가’ 형과 ‘나’ 형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시도	모집단 (20~59세)			표본 할당			
	정신 노동	육체 노동	기타	정신 노동	육체 노동	기타	합계 (명)
서울특별시	7.5%	6.9%	7.0%	109	99	102	310
부산광역시	1.8%	2.7%	2.7%	25	38	37	100
대구광역시	1.3%	2.0%	1.9%	17	27	26	70
인천광역시	1.5%	2.3%	1.9%	21	32	27	80
광주광역시	0.8%	1.1%	1.1%	11	15	14	40
대전광역시	1.0%	1.1%	1.1%	15	17	18	50
울산광역시	0.6%	1.0%	0.8%	9	17	14	40
경기도	7.3%	8.9%	7.6%	111	134	115	360
강원도	0.6%	1.2%	1.0%	11	21	18	50
충청북도	0.7%	1.3%	1.0%	12	22	16	50
충청남도	0.9%	1.8%	1.1%	14	28	18	60
전라북도	0.8%	1.4%	1.1%	12	22	16	50
전라남도	0.6%	1.5%	0.9%	11	24	15	50
경상북도	1.0%	2.3%	1.6%	15	33	22	70
경상남도	1.5%	2.8%	2.0%	22	39	29	90
제주특별자치도	0.3%	0.5%	0.3%	8	14	8	30

<표 97> 직업군별 조사 표본 수

### 3.2. 분석 대상

이상의 과정을 거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말하기 영역의 채점 과정에서 84명의 결측치가 발생<sup>20)</sup>하여 이들 자료는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시 말해, ‘가’ 형 조사 도구에 응답한 84명의 결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가’ 형이 1,416명, ‘나’ 형이 1,500명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별로 실제 분석 대상이 된 피조사자의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 ① 지역 변인

지역 변인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였고, 또한 지역 규모별로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에서, 정상적으로는 확률 비례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각각의 집락(읍면동)별로 10명씩의 표본이 추출되었어야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가’ 형의 말하기 영역에서 84명의 결측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 형의 일부 집락에서는 10명이 안 되는 피조사자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지역 규모	지역	세부 지역	‘가’ 형	‘나’ 형
대도시	서울 동 지역	용산구 청과동	10	10
		성동구 성수1가제2동	10	10
		성동구 왕십리제2동	10	10
		광진구 중곡제1동	10	10
		동대문구 답십리제2동	10	10
		중랑구 면목제3동	10	10
		성북구 정릉제1동	10	10
		강북구 수유제3동	10	10
		도봉구 창제4동	10	10
		노원구 월계2동	10	10
		노원구 하계1동	10	10
		은평구 구산동	10	10
		서대문구 홍제제2동	10	10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	10	10
		마포구 도화동	10	10
		양천구 신정3동	10	10
		양천구 목2동	10	10
		강서구 염창동	10	10
		구로구 구로제5동	10	10
		금천구 독산제2동	10	10
		금천구 시흥제5동	10	10
		영등포구 당산제2동	10	10
		동작구 상도제1동	10	10
		관악구 서림동	10	10

20)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후의 5항의 ‘문항 채점’ 항목에서 기술한다.

		서초구 서초2동	10	10
		강남구 삼성2동	10	10
		강남구 개포2동	10	10
		송파구 마천1동	9	10
		송파구 석촌동	10	10
		강동구 상일동	10	10
		강동구 길동	10	10
	부산 동 지역	서구 아미동	10	10
		부산진구 연지동	5	10
		부산진구 개금제3동	7	10
		남구 대연제3동	10	10
		북구 금곡동	10	10
		해운대구 좌제1동	10	10
		사하구 괴정제2동	9	10
		금정구 부곡제2동	10	10
		연제구 거제제1동	10	10
		수영구 민락동	10	10
	대구 동 지역	동구 효목2동	8	10
		서구 평리4동	10	10
		북구 침산2동	10	10
		북구 읍내동	9	10
		수성구 지산2동	9	10
		달서구 용산1동	10	10
		달서구 진천동	8	10
	인천 동 지역	남구 학익1동	10	10
		연수구 동춘2동	10	10
		남동구 만수2동	10	10
		부평구 부평4동	10	10
		부평구 부개1동	10	10
		계양구 계산1동	7	10
		계양구 작전2동	10	10
		서구 가좌2동	10	10
	광주 동 지역	서구 치평동	9	10
		남구 효덕동	9	10
		북구 두암3동	10	10
		광산구 운남동	9	10
	대전 동 지역	동구 가양2동	10	10
		중구 문화2동	10	10
		서구 갈마2동	9	10
		유성구 온천2동	10	10
		대덕구 송촌동	10	10
	울산 동 지역	중구 우정동	9	10
		남구 삼산동	7	10
		동구 전하2동	6	10
중소도시	경기 동 지역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9	10
		수원시 권선구 평동	10	1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	10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6	1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0	10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0	10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0	10
		의정부시 의정부동	10	10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10	10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10	10
		부천시 원미구 상동	10	10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	10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	10
		광명시 하안3동	10	10
		평택시 비전2동	9	10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10	10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9	10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9	10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	1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10	10
		구리시 수택1동	10	10
		오산시 신장동	5	10
		시흥시 하중동	9	10
		군포시 산본2동	10	10
		하남시 덕풍1동	9	10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0	1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10	10
		파주시 운정1동	10	10
		김포시 김포1동	10	10
		화성시 동탄3동	9	10
	강원 동 지역	춘천시 후평3동	10	10
		원주시 단계동	10	10
		강릉시 성덕동	10	10
	충북 동 지역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10	10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9	10
		충주시 연수동	7	10
	충남 동 지역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	10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10	10
		아산시 온양3동	10	10
	전북 동 지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0	10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10	10
		군산시 나운3동	8	10
		익산시 어양동	9	10
	전남 동 지역	목포시 상동	10	10
		순천시 덕연동	10	10
	경북 동 지역	포항시 남구 상대동	10	10
		경주시 성건동	10	10
		구미시 도량동	10	10
		영천시 중앙동	10	10
	경남 동 지역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8	1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0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9	10

		진주시 하대1동	3	10
		김해시 내외동	6	10
		양산시 삼성동	10	10
	제주 동 지역	제주시 이도2동	10	10
		제주시 노형동	9	10
읍면 단위	울산 읍면 지역	울산시 범서읍	8	10
	경기 읍면 지역	평택시 안중읍	9	10
		남양주시 화도읍	10	10
		파주시 문산읍	10	10
		김포시 통진읍	10	10
		광주시 오포읍	10	10
		포천시 소흘읍	10	10
	강원 읍면 지역	춘천시 동내면	10	10
		원주시 문막읍	10	10
	충북 읍면 지역	청원군 오창읍	10	10
		진천군 진천읍	10	10
	충남 읍면 지역	아산시 배방읍	10	10
		당진시 송악읍	8	10
		예산군 예산읍	10	10
	전북 읍면 지역	완주군 봉동읍	6	10
	전남 읍면 지역	순천시 해룡면	10	10
		화순군 화순읍	10	10
		영광군 영광읍	9	10
	경북 읍면 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10	10
		경산시 하양읍	8	10
		칠곡군 석적읍	10	10
	경남 읍면 지역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10	10
		김해시 장유면	10	10
		함안군 칠원면	10	10
	제주 읍면 지역	제주시 애월읍	9	10
			1,416명	1,500명

<표 98> 조사 대상의 지역별, 지역 규모별 분포

이러한 집락별 표본을 16개 시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전체	
서울	309명	21.82%	310명	20.67%	619명	21.23%
부산	91명	6.43%	100명	6.67%	191명	6.55%
대구	64명	4.52%	70명	4.67%	134명	4.60%
인천	77명	5.44%	80명	5.33%	157명	5.38%
광주	37명	2.61%	40명	2.67%	77명	2.64%
대전	49명	3.46%	50명	3.33%	99명	3.40%
울산	30명	2.12%	40명	2.67%	70명	2.40%

경기	343명	24.22%	360명	24.00%	703명	24.11%
강원	50명	3.53%	50명	3.33%	100명	3.43%
충북	46명	3.25%	50명	3.33%	96명	3.29%
충남	56명	3.95%	60명	4.00%	116명	3.98%
전북	43명	3.04%	50명	3.33%	93명	3.19%
전남	49명	3.46%	50명	3.33%	99명	3.40%
경북	68명	4.80%	70명	4.67%	138명	4.73%
경남	76명	5.37%	90명	6.00%	166명	5.69%
제주	28명	1.98%	30명	2.00%	58명	1.99%
계	1,416명	100	1,500명	100	2,916	100

<표 99>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또한, 지역 규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합계
대도시	649명(45.83%)	680명(45.33%)	1329명(45.58%)
중소도시	530명(37.43%)	570명(38.00%)	1100명(37.72%)
읍면 지역	237명(16.74%)	250명(16.67%)	487명(16.70%)
계	1416명(100%)	1500명(100%)	2916명(100%)

<표 100> 조사 대상의 지역 규모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본 조사에서는 실제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이 매우 적게 할당되는 제주도에 대해 ‘가’ 형과 ‘나’ 형 각각에서 30명의 표본을 과다 표집하였다. 또한 확률 비례 추출에 따라 하나의 집락(읍면동)에서 10명씩의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표집된 표본 집단의 시도별 구성비와 실제 모집단의 구성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모집단의 구성비에 가까운 값으로 변환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 과정을 거쳤는데, 사후 층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층에 속한 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칸 가중법(Cell weighting)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칸 가중법에 활용한 변수는 거주 시도이다. 이미 성별과 연령 등 다른 변인에 대해서는 조사 설계 과정에서 인구 통계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의 필요가 없었던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분포는 제주도의 과다 표집으로 인한 불균형을 보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칸 가중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치는 시도별 인구 비례를 정확히 반영하는 표본 수를 실제 표집된 표본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단, 본 조사에서는 ‘가’ 형의 84명 결측치로 인해 ‘가’ 형의 표본 수는 1,416명, ‘나’ 형의 표본 수는 1,500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가’ 형은 1,416명의 표본을 실제 인구 비율에 맞게, ‘나’ 형은 1,500명의 표본을 실제 인구 비율에 맞게 배분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각 시도에 속한 표본의 측정값에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실제 조사된 표본 수 (①)	1,416명을 시도별 인구 비례대로 배분한 표본 수(②)	가중치 = ② ÷ ①
서울특별시	309	298	0.9644
부산광역시	91	100	1.0989
대구광역시	64	70	1.0938
인천광역시	77	82	1.0649
광주광역시	37	40	1.0811
대전광역시	49	43	0.8776
울산광역시	30	33	1.1000
경기도	343	343	1.0000
강원도	50	40	0.8000
충청북도	46	42	0.9130
충청남도	56	56	1.0000
전라북도	43	48	1.1163
전라남도	49	46	0.9388
경상북도	68	70	1.0294
경상남도	76	90	1.1842
제주도	28	15	0.5357

<표 101> ‘가’ 형의 지역별 가중치

	실제 조사된 표본 수 (①)	1,416명을 시도별 인구 비례대로 배분한 표본 수(②)	가중치 = ② ÷ ①
서울특별시	310	315	1.0161
부산광역시	100	105	1.0500
대구광역시	70	74	1.0571
인천광역시	80	87	1.0875
광주광역시	40	43	1.0750
대전광역시	50	46	0.9200
울산광역시	40	35	0.8750
경기도	360	364	1.0111
강원도	50	43	0.8600
충청북도	50	44	0.8800
충청남도	60	59	0.9833
전라북도	50	50	1.0000
전라남도	50	49	0.9800
경상북도	70	75	1.0714
경상남도	90	95	1.0556
제주도	30	16	0.5333

<표 102> ‘나’ 형의 지역별 가중치

이때, 동일 시도에 속한 표본의 가중치는 모두 같으므로 각 시도별 결과만 보면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6개 시도의 결과를 합산하여 전국의 결과를 계산할 경우에는 가중치 적용 전과 후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가 실제 시도별 인구 비례를 더 잘 반영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변인별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 규모별 분석 대상 표집 집단의 분포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가’ 형	‘나’ 형
대도시	657명	696명
중소도시	526명	561명
읍면 지역	233명	242명

<표 103> 조사 대상의 지역 규모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또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에 따라 각 시도별 분석 대상 표집 집단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전체	
서울	298	21.05%	315	21.00%	613	21.02%
부산	100	7.06%	105	7.00%	205	7.03%
대구	70	4.94%	74	4.93%	144	4.94%
인천	82	5.79%	87	5.80%	169	5.80%
광주	40	2.82%	43	2.87%	83	2.85%
대전	43	3.04%	46	3.07%	89	3.05%
울산	33	2.33%	35	2.33%	68	2.33%
경기	343	24.22%	364	24.27%	707	24.25%
강원	40	2.82%	43	2.87%	83	2.85%
충북	42	2.97%	44	2.93%	86	2.95%
충남	56	3.95%	59	3.93%	115	3.94%
전북	48	3.39%	50	3.33%	98	3.36%
전남	46	3.25%	49	3.27%	95	3.26%
경북	70	4.94%	75	5.00%	145	4.97%
경남	90	6.36%	95	6.33%	185	6.34%
제주	15	1.06%	16	1.07%	31	1.06%
계	1,416	100%	1,500	100%	2,916	100%

<표 104>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이러한 가중치 적용 결과가 실제 인구 비례를 더 정교하게 반영함을 감안하여, 이후의 변인별

2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 전의 결과와 총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가중치 적용 후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다.

## ② 성별 변인

성별 변인은 추출된 집락 내에서 균등한 비율로 할당하는 하드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때, ‘가’ 형의 결측치 84명을 제외하면 실제 표집된 대상은 ‘가’ 형과 ‘나’ 형 각각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합계
남성	715명(50.49%)	767명(51.13%)	1482명(50.82%)
여성	701명(49.51%)	733명(48.87%)	1434명(49.18%)
계	1416명(100%)	1500명(100%)	2916명(100%)

<표 105> 조사 대상의 성별 분포(가중치 부여 전)

그런데 여기에 지역별 분포를 실제 인구 비례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설정한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이 결과가 통계 처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물론,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형	‘나’ 형	합계
남성	714명(50.42%)	767명(51.1%)	1480명(50.77%)
여성	702명(49.58%)	733명(48.9%)	1436명(49.23%)
계	1416명(100%)	1500명(100%)	2916명(100%)

<표 106> 조사 대상의 성별 분포(가중치 부여 후)

## ③ 연령 변인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이를 직접 표기하게 한 결과, 본 조사 대상 2916명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은 만 20세였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 59세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76세였다. 그런데 연령 변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정한 연령대로 구획하여 집단화할 필요가 있어 연령대를 20대(만 20-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만 50-59세)의 4개 구간으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표집의 기준은 인구 비례 분포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 형의 결측치 84명을 제외한 표집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합계
20대	297명(20.97%)	314명(20.93%)	611명(20.95%)
30대	364명(25.71%)	394명(26.27%)	758명(25.99%)
40대	402명(28.39%)	421명(28.07%)	823명(28.22%)
50대	353명(24.93%)	371명(24.73%)	724명(24.83%)
계	1416명(100%)	1500명(100%)	2916명(100%)

<표 107> 조사 대상의 연령대별 분포(가중치 부여 전)

그런데 여기에 지역별 분포를 실제 인구 비례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설정한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이 결과가 통계 처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물론,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형	‘나’ 형	합계
20대	296명(20.93%)	314명(20.94%)	611명(20.94%)
30대	363명(25.64%)	394명(26.27%)	757명(25.96%)
40대	403명(28.46%)	421명(28.06%)	824명(28.26%)
50대	353명(24.96%)	371명(24.73%)	724명(24.84%)
계	1416명(100%)	1500명(100%)	2916명(100%)

<표 108> 조사 대상의 연령대별 분포(가중치 부여 후)

#### ④ 직업 변인

전술하였듯이, 직업 변인은 세부 직업들을 모두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세 직업군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각 시도별로 인구 비례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의 크기와 대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해당 모집단의 직업군별 분포와 비례하여 표본 집단의 직업군별 표집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표집 대상에 ‘가’형의 결측치 84명의 자료를 제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합계	
정신노동	400	28.25%	416	27.73%	816	27.98%
육체노동	558	39.41%	604	40.27%	1162	39.85%
기타	458	32.34%	480	32.00%	938	32.17%
계	1,416	100	1,500	100	2,916	100

<표 109> 조사 대상의 직업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직업군별 분포 역시 여기에 지역별 분포를 실제 인구 비례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설정한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직업군별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이 결과가 통계 처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물론,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형		‘나’ 형		합계	
정신노동	399	28.16%	416	27.71%	814	27.93%
육체노동	558	39.42%	604	40.27%	1162	39.85%
기타	459	32.43%	480	32.02%	939	32.22%
계	1,416	100	1,500	100	2,915	100

<표 110> 조사 대상의 직업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 ⑤ 학력 변인

끝으로, 학력 변인 역시 직업 변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력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각 시도별로 인구 비례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의 크기와 대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해당 모집단의 학력군별 분포와 비례하여 표본 집단의 학력군별 표집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표집 대상에 ‘가’ 형의 결측치 84명의 자료를 제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형		‘나’ 형		합계	
중졸 이하	153	10.81%	169	11.27%	322	11.04%
고졸	485	34.25%	521	34.73%	1006	34.50%
대재 이상	778	54.94%	810	54.00%	1588	54.46%
계	1,416	100	1,500	100	2,916	100

<표 111> 조사 대상의 학력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전)

다른 변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역별 분포를 실제 인구 비례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설정한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학력군별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이 결과가 통계 처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물론,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형		‘나’ 형		합계	
중졸 이하	156	11.04%	169	11.28%	326	11.16%
고졸	481	33.95%	521	34.70%	1001	34.34%
대재 이상	779	55.02%	810	54.01%	1589	54.50%
계	1,416	100	1,500	100	2,916	100

<표 112> 조사 대상의 학력군별 분포(가중치 적용 후)

## 4. 조사 시행

이상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118명의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조사 도구는 수정된 본 조사용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예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안내 리플릿과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전체적인 조사의 진행은 예비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조사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확인을 통해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였으며, 듣기, 읽기, 문법 영역의 문항은 피조사자가 조사 도구에 정답 표시를 하게 하였다. 또한, 쓰기 영역은 제공되는 원고지에 기입하게 하였으며, 말하기 영역은 준비된 녹음 도구를 통해 피조사자의 응답을 녹음하였다.

조사 시기는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10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 5. 문항 채점

### 5.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본 조사에서 역시 예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OMR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사 특성상 피조사자의 집단이 다양하여 자칫 OMR 카드의 미숙한 사용으로 인해 조사 결과에 오류가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피조사자들이 조사 도구에 직접 기입한 답안을 조사원들이 효율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조사지에 직접 답을 기입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여 검증 과정을 거친 뒤 TN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입력 시스템인 surveycraft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력 과정을 통해 통계 산출이 용이한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객관식 문항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 5.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예비 조사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조사 대상이 각각 200명씩으로, 말하기 답안 600개( $200\text{명} \times 3\text{문항}$ ), 쓰기 답안 600개( $200\text{명} \times 3\text{문항}$ )가 채점 대상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수가 1,500명으로, 말하기 답안 4,500개( $1,500\text{명} \times 3\text{문항}$ ), 쓰기 답안 4,500개( $1,500\text{명} \times 3\text{문항}$ )가 채점 대상이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주관식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채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채점단을 동일한 인원으로 편성하여 채점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관식 영역 채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은 말하기와 쓰기를 전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생들이었으며, 이들은

각 영역의 담당 공동 연구원들의 진행과 조율에 따라 대규모 채점을 진행하였다.

말하기 영역	1번 문항 1,500개 답안	김승현, 백정이, 이소연	박재현(상명대 교수)
	2번 문항 1,500개 답안	이민형, 박성석, 권택일	
	3번 문항 1,500개 답안	이성준, 장성민, 박기순	
쓰기	1번 문항 1,500개 답안	정보미, 송치순, 이은주	주재우(서울대 연구원)
	2번 문항 1,500개 답안	서보영, 황윤정, 김태경	
	3번 문항 1,500개 답안	김서윤, 박혜영, 장지혜	

<표 113> 주관식 답안 채점단 구성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하나의 문항에 대해 해당 영역의 전문가 3인이 교차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예비 조사의 채점자들이 본 조사 문항도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일 문항에 대해 3인의 교차 채점한 결과를 상관계수 및 일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한 후에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은 채점자를 대상으로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개별 문항에 대한 채점자들의 채점 요소별 채점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여 일정 비율의 답안을 함께 채점하도록 하였다.

예비 조사의 채점 과정 및 결과 분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채점자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문항별 배점 및 세부 채점은 예비 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sup>22)</sup>. 먼저, 말하기 영역의 3개 문항은 각각 50점 만점으로 채점하되 4개의 채점 요소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다음으로, 쓰기 영역의 3개 문항은 각각 40점, 80점, 130점으로 차등하여 배점하고, 각 문항마다 ‘내용, 조직, 표현’의 채점 요소를 두어 채점을 진행하였다. 또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되 각 채점 요소별 배점을 기준으로 척도 점수에 해당하는 원 점수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해, 쓰기 영역은 보다 세밀한 채점 기준을 제공하여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점된 결과에 대해서는,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각 문항별로 3인의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여 그 결과에 대한 평균이 해당 피조사자의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로 산출되기 때문에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개별 문항 차원과 개별 문항의 채점 요소 차원에서 이중으로 확인하였으며, 전자를 위해서는 상관 분석 및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반복 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보고, 후자를 위해서는 채점자 간 일치도 및 Cohen의 Kappa 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일치

22) 구체적인 배점 및 채점 기준은 예비 조사의 주관식 채점 항목을 참조.

도는 전체 피조사자 중에서 두 명의 채점자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된다. 이에 비해 Kappa 계수는 일치도 계수에서 우연에 의해 두 채점자로부터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확률을 보정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일치도 계수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우연에 의해 두 채점자로부터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기대 피조사자 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①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의 3개 문항, 1500명 피조사자에 대한 1차 채점 결과, 채점자에 따라서 피조사자의 점수 분포가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채점자 간 상관관계수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모든 문항에서 상관관계수가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채점자 간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826	.918	.829
문항 2	.930	.930	.970
문항 3	.748	.786	.877

<표 114>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에 따라서 각 문항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1에서는 3명의 채점자 사이의 점수 차이가 1점 이내로 매우 낮았다. 문항 2에서는 채점자 1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2명의 채점자들에 비해 3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문항 3에서는 채점자 3의 평균 점수가 다른 채점자들보다 2~3점 정도 높게 분석되었다.

비고	평균 점수			F	유의도	사후 비교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25.26	25.30	26.00	47.271	.000	채점자 1과 2는 차이 없음
문항 2	23.05	19.93	20.93	332.010	.000	채점자 1, 2, 3 모두 유의한 차이
문항 3	22.05	21.76	24.26	295.590	.000	채점자 1, 2, 3 모두 유의한 차이

<표 115> 말하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끝으로, 각 문항의 채점 요소별로도 분석하였는데, 말하기 영역이 쓰기 영역에 비해 채점자 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kappa 계수가 0.4 이하인 경우도 존재했으며, 특히 문항 2의 표현 영역과 문항 3의 전체 영역에서 채점자 1과 다른 채점자 사이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채점요소	일치도			Kappa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문항 1	내용선정	.577	.716	.529	.388	.616	.342
	조직	.643	.725	.650	.444	.584	.458
	표현	.666	.660	.692	.451	.452	.500
	전달	.756	.823	.761	.618	.728	.627
문항 2	내용선정	.708	.727	.841	.573	.595	.757
	조직	.689	.712	.846	.547	.581	.767
	표현	.437	.488	.638	.244	.305	.485
	전달	.596	.617	.956	.409	.441	.933
문항 3	내용선정	.463	.434	.556	.227	.206	.393
	조직	.552	.484	.661	.284	.234	.515
	표현	.536	.367	.546	.268	.121	.365
	전달	.530	.520	.655	.277	.273	.497

<표 116> 말하기 1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이러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채점자 집단의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채점자와 채점 요소에 대한 논의하게 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2차 채점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3개 문항 모두에서 상관계수가 0.82 이상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매우 양호해졌다.

비고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826	.918	.829
문항 2	.927	.927	.970
문항 3	.936	.938	.877

<표 117>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차 채점에 비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피조사자의 수가 1,500명의 대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평균 점수의 차이는 1~2점 정도의 작은 수준이어 이러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	평균 점수			F	유의도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25.26	25.30	26.00	47.271	.000
문항 2	22.59	20.20	21.24	243.924	.000
문항 3	22.54	21.86	24.39	308.162	.000

<표 118> 말하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끝으로, 3개 문항의 채점 요소별로 일치도를 다시 분석하였는데, 쓰기 영역과 비교하면 말하기 영역의 채점자 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문항에서 일치도가 0.5 이상이고 Kappa 계수<sup>23)</sup> 역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0.4 이상으로 분석되어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채점 요소	일치도			Kappa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문항1	내용선정	.577	.716	.529	.388	.616	.342
	조직	.643	.725	.650	.444	.584	.458
	표현	.666	.660	.692	.451	.452	.500
	전달	.756	.823	.761	.618	.728	.627
문항2	내용선정	.708	.727	.841	.573	.595	.757
	조직	.689	.712	.846	.547	.581	.767
	표현	.514	.583	.638	.349	.429	.485
	전달	.596	.617	.956	.409	.441	.933
문항3	내용선정	.737	.697	.556	.685	.639	.393
	조직	.785	.717	.661	.745	.651	.515
	표현	.624	.714	.546	.515	.625	.365
	전달	.521	.515	.655	.369	.365	.497

<표 119> 말하기 2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이러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기 영역의 점수는 2차 채점 후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채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조사자들이 특정 문항에 대한 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확인되어 이들의 응답 결과는 무효로 처리하였다. 그에 따라 ‘가’ 형에 응답한 1,500명의 피조사자 중에서 84명의 응답 결과를 결측값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들의 자료는 모든 영역에

23) 일반적으로, Kappa 계수에 대한 해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kappa 계수	의 미
0 미만	no agreement
0 - 0.20	slightly agreement
0.21 - 0.40	fair
0.41 - 0.60	moderate agreement
0.61 - 0.80	substantial agreement
0.81 - 1	almost perfect agreement



서 제외하여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sup>24)</sup>.

- 조사원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여 다른 피조사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1번 문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해야 하는데 둘 모두를 응답한 경우
- 응답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어져 시간 조건이 달라진 경우
- 녹음 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쓰기 영역

쓰기 영역 역시 말하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3개 문항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각 문항에 대한 채점자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분석되어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고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969	.968	.975
문항 2	.966	.969	.955
문항 3	.897	.905	.883

<표 120>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또한, 채점자에 따라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피조사자가 1,500명의 대규모 집단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특히 문항 1과 문항 2는 점수 차이가 1점 이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다만, 문항 3의 경우 채점자 1과 채점자 3의 점수 차이가 5점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	평균 점수			F	유의도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30.71	30.58	30.11	55.745	.000
문항 2	34.84	34.21	35.14	25.690	.000
문항 3	58.92	56.73	53.62	180.286	.000

<표 121> 쓰기 1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결으로, 각 문항의 채점 요소별로도 분석하였는데, 문항 1과 문항 2는 채점자 간 신뢰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3 역시 대부분 일치도는 0.5 이상, Kappa 계수도 모두 0.4 이상이며 채점자 간 신뢰도가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문항 3의 표현 영역에서 채점자 3과 다른 채점자 사이의 일치도가 다소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이러한 유형들을 참조하여 다음 주기 조사에서는 말하기 영역의 조사 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항번호	채점요소	일치도			Kappa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문항 1	내용	.881	.855	.823	.840	.804	.762
	조직	.901	.912	.903	.825	.845	.833
	표현	.829	.771	.711	.698	.640	.554
문항 2	내용	.889	.908	.917	.841	.868	.881
	조직	.800	.765	.717	.721	.678	.610
	표현	.658	.769	.649	.538	.687	.529
문항 3	내용	.793	.819	.847	.663	.701	.741
	조직	.810	.765	.764	.536	.521	.523
	표현	.699	.499	.468	.591	.371	.336

<표 122> 쓰기 1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이러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채점자 집단의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채점자와 채점 요소에 대해 논의하게 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2차 채점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먼저, 채점자 간 점수 분포에 대한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확보되어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고	채점자 1과 2	채점자 1과 3	채점자 2와 3
문항 1	.969	.968	.975
문항 2	.966	.969	.955
문항 3	.897	.929	.910

<표 123>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신뢰도

다음으로, 채점자에 따라서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대규모의 사례 수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되며, 문항 1과 문항 2의 점수 차이가 1점 이내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으며, 문항 3에서 역시 그 차이가 3점으로 좁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용인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비고	평균 점수			F	유의도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		
문항 1	30.71	30.58	30.11	55.745	.000
문항 2	34.84	34.21	35.14	25.690	.000
문항 3	58.92	56.73	55.71	92.783	.000

<표 124> 쓰기 2차 채점에 대한 채점자 간 평균 점수 차이

마지막으로, 3개 문항의 채점 요소별로 일치도를 재분석하였는데, 모든 문항에서 일치도는 0.5 이상, Kappa 계수도 0.4 이상으로 분석되어 채점자 간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채점요소	일치도			Kappa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채점자1,2	채점자1,3	채점자2, 3
문항 1	내용	.881	.855	.823	.840	.804	.762
	조직	.901	.912	.903	.825	.845	.833
	표현	.829	.771	.711	.698	.640	.554
문항 2	내용	.889	.908	.917	.841	.868	.881
	조직	.800	.765	.717	.721	.678	.610
	표현	.658	.769	.649	.538	.687	.529
문항 3	내용	.793	.819	.847	.663	.701	.741
	조직	.810	.765	.764	.536	.521	.523
	표현	.699	.847	.815	.591	.796	.749

<표 125> 쓰기 2차 채점 요소별 채점자 간 일치도

이상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쓰기 영역의 점수는 2차 채점 후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 Ⅵ. 본 조사 결과 분석

### 1. 본 조사 결과 개관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의 본 조사는 201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10주에 걸쳐 전국 분포 20세~59세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도구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가’ 형과 ‘나’ 형으로 구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에 대한 국어능력을 조사하였다. 조사 도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한 결과, 각 영역의 모든 문항이 변별도가 있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층화 표본 추출 방식으로 표집되었으며, 16개 시도의 인구 분포 비율을 고려하고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을 인구 분포 비율에 비례하게 통제하여 선정하였다. 실제 분석은 말하기 영역에서 결측치를 보인 84명을 제외하고, ‘가’ 형에 응답한 1,416명과 ‘나’ 형에 응답한 1,500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영역별로는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1,416명, 쓰기 영역이 1,500명, 읽기와 문법 영역이 2,916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각 영역별 점수의 산출은 문항 반응 이론(2모수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객관식 영역(듣기, 읽기, 문법)은 이분 반응 모형을, 주관식 영역(말하기, 쓰기)은 등급 반응 모형을 적용하여 척도 변환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추정 역시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 산출되었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결과는 대규모 전문가 집단이 앵고프 방식으로 판정한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네 등급의 수준 등급으로 분할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표본 선정 과정에서 상정한 5개 변인별로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 국민의 전체 국어능력 평균 점수는 579.62점(1000점 만점)으로 분석되어 우리 국민의 전체 국어능력은 평균적으로 ‘보통 등급과 기초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 등급별 분포 비율을 따져 보면, 우수 등급이 347명(11.9%), 보통 등급이 975명(33.4%), 기초 등급이 1,338명(45.9%), 기초 미달 등급이 256명(8.8%)으로 산출되어, 보통 수준 이상의 국어능력을 지닌 국민이 전체의 45.3%(11.9% + 33.4%)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듣기 영역이 108.88점(150점 만점), 말하기 영역이 69.79점(150점 만점), 읽기 영역이 190.66점(300점 만점), 쓰기 영역이 122.07점(250점 만점), 문법 영역이 88.14점(150점 만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성취 수준 등급 결과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국어능력은 듣기, 읽기, 문법 영역에서는 ‘보통’의 수준이며,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는 ‘기초’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 영역별로 성취 수준 등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말하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40명(2.8%), 보통 등급이 470명(33.2%), 기초 등급이 702명(49.5%), 기초 미달 등급이 205명(14.5%)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말하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

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쓰기 영역 역시 우수 등급이 55명(3.6%), 보통 등급이 341명(22.7%), 기초 등급이 829명(55.3%), 기초 미달 등급이 275명(18.4%)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쓰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듣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478명(33.7%), 보통 등급이 514명(36.3%), 기초 등급이 288명(20.35%), 기초 미달 등급이 137명(9.7%)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듣기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 영역은 우수 등급이 662명(22.7%), 보통 등급이 1110명(38.1%), 기초 등급이 882명(30.2%), 기초 미달 등급이 262명(9%)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읽기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문법 영역은 우수 등급이 522명(17.9%), 보통 등급이 1095명(37.5%), 기초 등급이 949명(32.5%), 기초 미달 등급이 350명(12%)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문법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표본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정한 5개 변인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국어능력의 측면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대별 차이는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40대가 50대에 비해 국어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규모별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 도시에 비해, 직업군별 차이는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학력군별 차이는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국어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해 보면, 먼저 말하기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30대가 50대에 비해, 대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중소 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대도시가 중소 도시에 비해,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에 비해 쓰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듣기 영역에서는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에 비해 듣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읽기 영역에서는 30대가 50대에 비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이 중소 도시에 비해,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에 비해 읽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끝으로, 문법 영역에서는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30대가 50대에 비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비해,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 집단이 육체노동자에 비해,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에 비해 문법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 2. 척도 점수 산출 방식

일반적으로 평가형 조사의 결과를 도출할 때, 가장 손쉬운 방식은 정답을 맞힌 문항들에 가중치를 준 후(배점), 이들을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도출하는 원 점수 체제이다. 이러한 원 점수 체

제는 계산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해당 조사 도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원 점수는 조사 도구의 난이도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므로 연도별 추이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원 점수 체재에서는 난이도, 변별도 등 해당 문항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 도구 간의 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는 특정 시점의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5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국어능력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 변화 추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 점수 체재로 결과를 산출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특정 조사에서의 점수는 일반적으로 측정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원 점수는 점수대별로 측정의 오차가 다르다. 이때, 중간 원 점수대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 오차량이 극단에 있는 원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 오차량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측정의 오차가 점수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각 피조사자의 국어능력 수준 판정의 신뢰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원 점수 체재로는 해당 조사에 임한 피조사자가 지니고 있는 국어능력을 정합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어능력 조사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검사 동등화를 실시할 경우, 동등화된 원 점수는 일반적으로 소수점을 가진 점수 형태이다. 원 점수는 정수인데 동등화된 원 점수는 소수점을 가지게 되어 점수 척도의 충분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는 ‘가’ 형과 ‘나’ 형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설계되었고, 각 조사 도구에서 조사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었으며 읽기 영역 6개 문항, 문법 영역 10개 문항이 공통 문항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사 도구를 원 점수로 분석하면, 두 유형의 조사 도구를 통해 측정된 원 점수를 동일한 척도로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원 점수의 한계와 이번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 점수를 기본 척도로 삼지 않고, 개발된 척도 변환 점수를 기본 척도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 조사 시에는 두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검사 동등화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1. 영역별 원 점수 산출

먼저, 각 영역별로 원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듣기와 말하기 영역은 ‘가’ 형 조사 도구에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례 수가 1,416명(말하기 영역의 84명 결측치 제외)이고, 쓰기 영역은 ‘나’ 형 조사 도구에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례 수가 1,500명이다. 또한, 읽기와 문법 영역은 ‘가’ 형과 ‘나’ 형 모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례 수가 2,916명이다. 각 영역별 원 점수 기준 평균을 살펴보면, 듣기 영역이 111.2점(150점 만점), 읽기 영역이 127.8점(195점 만점<sup>25)</sup>), 문법 영역이 88.3점(150점 만점), 말하기 영역이 69.8점(150점 만점), 쓰기 영역이 122.3점(25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 점수 결과는 척도 변환 점수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

25) 읽기 영역은 ‘가’ 형과 ‘나’ 형 각각에 공통 문항 6개씩과 비공통 문항 7개씩 포함되었기 때문에, 13개 문항 195점 만점으로 원 점수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향후의 분석에서는 두 조사 도구의 동등화를 통해 20개 문항, 3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가 있을 뿐, 실제 피조사자들의 영역별 능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사례 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듣기 영역	1,416	0.0	150.0	111.2	29.07
읽기 영역	2,916	0.0	195.0	127.8	41.77
문법 영역	2,916	0.0	150.0	88.3	28.83
말하기 영역	1,416	30.0	134.3	69.8	19.01
쓰기 영역	1,500	50.0	239.7	122.3	37.59

<표 126> 본 조사의 영역별 원 점수

## 2.2. 영역별 척도 변환 점수 산출

각 영역별 척도 변환 점수와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척도 변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문항 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 모형을 적용하여 피조사자의 영역별 및 전체 능력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였다. 듣기, 읽기, 문법의 객관식 영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정답과 오답의 두 가지 판정으로 나타나는 이분 반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 반응에 대한 문항 반응 이론 모형은 추정하는 문항의 모수 개수에 따라서 1모수, 2모수, 3모수 로지스틱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1모수 모형은 문항 난이도만 추정하고, 2모수 모형은 난이도와 변별도를 추정하며, 3모수 모형은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추정하게 된다. 3가지 모형 중 이번 조사 결과의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각 모형의  $-2 \times \log(\text{likelihood})$ 로 계산되는 적합도 지표인 deviance 값을 통해 모형 간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로 각각의 모수 모형에 대한 deviance 값과 모형 간 deviance 차이 값에 대한 검정치는 다음과 같다.

영역	Deviance			$\Delta D$ ( $\chi^2$ -검정 유의확률)	
	1모수 모형	2모수 모형	3모수 모형	1모수-2모수	2모수-3모수
듣기 영역	14,905.16	14,809.34	14,823.54	95.825 (.000)	-14.201 (.164)
읽기 영역	45,100.01	44,856.03	44,745.14	243.975 (.000)	110.891 (.000)
문법 영역	35,108.61	35,046.74	35,057.17	61.874 (.000)	-10.432 (.403)

<표 127> 로지스틱 모형 간의 통계적 검증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추정하는 2모수 모형이 난이도만 추정하는 1모수 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모수 모형과 3모수 모형을 비교하면, 추측도 모수가 추가되어 더 복잡한 3모수 모형이 듣기와 문법 영역에서는 더 낮은 적합도를 보였고, 읽기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향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분석 결과를 볼 때,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듣기와 문법 영역에서는 2모

수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고 읽기 영역에서만 3모수 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영역의 모형 간 통일성을 고려하여 2모수 모형을 최종적인 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말하기와 쓰기의 주관식 영역의 채점 결과는 5점 척도로 채점되는 다분 반응 자료이기 때문에, 문항 반응 이론 모형 중에서 2모수 모형의 일종인 등급 반응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2모수 모형을 전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듣기, 읽기, 문법의 객관식 영역에 적용된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듣기 영역은 ‘가’ 형에만 포함되고 문법 영역은 모든 문항이 ‘가’ 형과 ‘나’ 형에 동등하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읽기 영역은 6개의 공통 문항을 설정하고 조사 도구 별로 서로 다른 7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사 도구로 조사에 참여한 두 집단 간의 동등화를 위해 읽기 영역 6개의 공통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의 모수가 동일하도록 제약을 설정하였다.

$$P_i(\theta) = \frac{1}{1 + e^{-\alpha_i(\theta - \beta_i)}}$$

$P_i(\theta)$  : 능력 모수가  $\theta$ 인 피조사자가  $i$ 번째 문항을 맞힐 확률

$\alpha_i$  :  $i$ 번째 문항의 변별도 모수

$\beta_i$  :  $i$ 번째 문항의 난이도 모수

$\theta$  : 피조사자 능력 모수

또한, 말하기와 쓰기의 주관식 영역에 적용한 등급 반응 모형은 피조사자의 반응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능력을 추정하도록 설계된 수리적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을  $C$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개별 피조사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확률을 수리적으로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때 문항  $i$ 에 대하여 능력(혹은 잠재 특성) 수준이  $\theta$ 인 피조사자가  $c(c=1,2,\dots,C)$ 번째 유형의 점수로 분류될 확률을  $P_{ic}(\theta)$ 라고 하면, 등급 반응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P_{ic}^*(\theta) = \begin{cases} 1 & (c=0) \\ \frac{1}{1 + e^{-\alpha_i(\theta - \beta_{ic})}} & (c=1,2,\dots,C-1) \\ 0 & (c=C) \end{cases}$$

$$P_{ic}(\theta) = P_{i(c-1)}^*(\theta) - P_{ic}^*(\theta)$$

이상의 이분 반응 모형(듣기, 읽기, 문법)과 등급 반응 모형(말하기, 쓰기)을 통해 각각의 영역별 능력 모수를 추정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 피조사자의 상대적인 위치는 분석할 수 있지만, 전체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해석의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역별 배점을 달리 설정한 것은 ‘국어능력’이라는 전체 능력 속에서 각 영역별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척도 변환 점수 체재에서도 이러한



비중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영역별로 척도 변환 점수의 범위가 원 점수의 크기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변환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는 각 영역별로 원 점수의 표준편차를 곱하고, 원 점수의 평균을 더해 주는 선형 변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환한 척도에서 영역의 최고점 혹은 최저점을 벗어나는 점수에 대해서는 최고점 혹은 최저점으로 변환하는 절삭(trunc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역별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 3. 문항별 분석

#### 3.1.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예비 조사 도구의 문항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조사 도구의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고전 검사 이론에 터해 분석하였다.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할 경우, 5점 척도의 등급 반응 자료로 결과가 산출되는 주관식 영역(말하기, 쓰기)의 각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각 등급 척도별로 분석되어 개별 문항에 대한 문항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6)</sup>.

고전 검사 이론에서 난이도는 평균 점수를 총점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변별도는 문항 점수와 해당 영역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산출된다. 이때, 각각의 난이도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언어적으로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Cangelosi(1990)에서 제시한 기준을, 변별도의 판별 기준으로는 Ebel(1965)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였다(성태제, 1998 재인용). 해당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항 난이도	문항 평가
.25 이하	어려운 문항
.25 ~ .75	적절한 문항
.75 이상	쉬운 문항

<표 128> 난이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문항 변별도 지수	문항 평가
.40 이상	변별력이 높은 문항
.30 ~ .39	변별력이 있는 문항
.20 ~ .29	변별력이 낮은 문항
.10 ~ .19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10 미만	변별력이 없는 문항

<표 129> 변별도 분포에 대한 해석(고전 검사 이론)

26) 이러한 이유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역시 척도 변환 점수는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 산출하더라도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고전 검사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 ①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은 주관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전 검사 이론에 터해 각 문항별·하위 채점 요소별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은데, 문항 2와 문항 3의 난이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문항 1은 쉬운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별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문항들이 피조사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사례 수	난이도	판정	변별도	판정
문항 1	1,416	0.762	쉬운 문항	0.758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항 2	1,416	0.434	적절한 문항	0.794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항 3	1,416	0.439	적절한 문항	0.742	변별력이 높은 문항

<표 130> 말하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다음으로, 각 문항의 하위 채점 요소별로도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시 하위 요소별로도 난이도는 0.391에서 0.546까지로 형성되어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변별도 역시 모든 하위 요소에서 0.6 이상으로 분석되어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각 문항별로 설정한 하위 채점 요소들이 피조사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번호	하위 요소	사례 수	난이도	변별도
문항 1	내용 선정	1,416	0.546	0.658
	조직	1,416	0.532	0.667
	표현	1,416	0.526	0.659
	전달	1,416	0.416	0.633
문항 2	내용 선정	1,416	0.450	0.741
	조직	1,416	0.436	0.753
	표현	1,416	0.410	0.710
	전달	1,416	0.391	0.790
문항 3	내용 선정	1,416	0.451	0.687
	조직	1,416	0.445	0.682
	표현	1,416	0.472	0.675
	전달	1,416	0.482	0.719

<표 131> 말하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본 조사)

## ② 쓰기 영역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쓰기 영역의 3개 문항 역시 고전 검사 이론을 통해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과 같은데, 세 문항 모두 난이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변별도 면에서 역시 3개 문항 모두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항 2와 문항 3은 변별도가 0.8 이상으로 분석되어 대단히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 즉, 쓰기 영역의 3 문항이 피조사자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사례 수	난이도	판정	변별도	판정
문항 1	1,500	0.512	적절한 문항	0.450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항 2	1,500	0.426	적절한 문항	0.804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항 3	1,500	0.460	적절한 문항	0.884	변별력이 높은 문항

<표 132> 쓰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다음으로, 각 문항의 하위 채점 요소별로도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시 하위 요소별로도 난이도는 0.410에서 0.837까지로 형성되어 적절한 요소와 쉬운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별도 면에서는 문항 2와 문항 3에서는 모든 하위 요소들이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문항 1의 경우 조직 요소와 표현 요소에서는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각 문항별로 설정한 하위 채점 요소들이 피조사자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하위요소	사례 수	난이도	변별도
문항 1	내용	1,500	0.697	0.448
	조직	1,500	0.837	0.398
	표현	1,500	0.812	0.386
문항 2	내용	1,500	0.435	0.752
	조직	1,500	0.427	0.785
	표현	1,500	0.440	0.793
문항 3	내용	1,500	0.410	0.848
	조직	1,500	0.420	0.690
	표현	1,500	0.540	0.831

<표 133> 쓰기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결과(본 조사)

### ③ 듣기 영역

객관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듣기 영역에 대해서도 고전 검사 이론에 따라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다. 난이도는 0.908에서 0.569까지로 형성되어 쉬운 문항이 4개, 적절한 문항이 6개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전반적으로 듣기 영역의 문항들이 비교적 쉬운 편으로 분석되어 다음 주기의 조사 도구를 설계할 때에는 어려운 문항을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변별도는 0.322에서 0.537까지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2개,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8개로 분석되어 듣기 영역의 문항들이 변별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예비 조사 과정에서 변별력이 낮은 문항(7번), 매우 낮은 문항(1번), 없는 문항(6번)으로 분류되었던 문항들이 본 조사의 조사 도구 설계 시 상당히 개선되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번호	응답자수	난이도	판정	변별도	판정
듣기 1번	1,416	0.908	쉬운 문항	0.455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2번	1,416	0.838	쉬운 문항	0.513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3번	1,416	0.732	적절한 문항	0.537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4번	1,416	0.709	적절한 문항	0.460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5번	1,416	0.694	적절한 문항	0.426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6번	1,416	0.632	적절한 문항	0.517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7번	1,416	0.849	쉬운 문항	0.390	변별력이 있는 문항
듣기 8번	1,416	0.786	쉬운 문항	0.322	변별력이 있는 문항
듣기 9번	1,416	0.569	적절한 문항	0.482	변별력이 높은 문항
듣기 10번	1,416	0.695	적절한 문항	0.464	변별력이 높은 문항

<표 134> 듣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④ 읽기 영역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읽기 영역은 ‘가’ 형과 ‘나’ 형 각각 13개 문항(공통 문항 6개)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고전 검사 이론을 통해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난이도는 0.793에서 0.521까지로 형성되어 쉬운 문항이 4개, 적절한 문항이 16개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어려운 수준의 문항이 없어 다음 주기의 조사 도구 개발 시에는 좀 더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별도는 0.353에서 0.545까지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3개,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17개로 분석되어, 읽기 영역의 문항들이 피조사자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대단히 적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비 조사에서 변별도가 낮았던 문항들을 개선하여 본 조사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문항번호	응답자 수	난이도	판정	변별도	판정
읽기 공통 1번	2,916	0.527	적절한 문항	0.45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공통 3번	2,916	0.590	적절한 문항	0.529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공통 4번	2,916	0.658	적절한 문항	0.545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공통 7번	2,916	0.735	적절한 문항	0.360	변별력이 있는 문항
읽기 공통 12번	2,916	0.572	적절한 문항	0.353	변별력이 있는 문항
읽기 공통 13번	2,916	0.739	적절한 문항	0.483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2번	1,416	0.642	적절한 문항	0.494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5번	1,416	0.758	쉬운 문항	0.499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6번	1,416	0.529	적절한 문항	0.468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8번	1,416	0.716	적절한 문항	0.43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9번	1,416	0.564	적절한 문항	0.513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10번	1,416	0.521	적절한 문항	0.415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가’ 형 11번	1,416	0.756	쉬운 문항	0.487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2번	1,500	0.648	적절한 문항	0.51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5번	1,500	0.793	쉬운 문항	0.433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6번	1,500	0.624	적절한 문항	0.49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8번	1,500	0.731	적절한 문항	0.43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9번	1,500	0.589	적절한 문항	0.40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10번	1,500	0.775	쉬운 문항	0.484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나’ 형 11번	1,500	0.737	적절한 문항	0.379	변별력이 있는 문항

<표 135> 읽기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⑤ 문법 영역

문법 영역은 ‘가’ 형과 ‘나’ 형 모두에서 객관식 10개씩 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난이도와 변별도는 각각의 문항에 따라 고전 검사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난이도 분석 결과, 0.903에서 0.347까지로 형성되어 쉬운 문항이 2개, 적절한 문항이 8개로 분류되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수준의 문항이 분석되지 않아 다음 주기 조사 도구 개발 시에는 일부 어려운 문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별도는 0.338에서 0.459까지로 형성되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3개,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7개로 나타났다. 즉, 문법 영역의 조사 도구 역시 피조사자의 문법 능력을 측정하는 데 대단히 적합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예비 조사에서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10번과 6번,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9번 문항은 본 조사 도구 설계 시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높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항번호	응답자 수	난이도	판정	변별도	판정
문법 1번	2,916	0.640	적절한 문항	0.452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2번	2,916	0.308	적절한 문항	0.363	변별력이 있는 문항
문법 3번	2,916	0.571	적절한 문항	0.440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4번	2,916	0.347	적절한 문항	0.411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5번	2,916	0.903	쉬운 문항	0.338	변별력이 있는 문항
문법 6번	2,916	0.627	적절한 문항	0.442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7번	2,916	0.792	쉬운 문항	0.459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8번	2,916	0.511	적절한 문항	0.439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9번	2,916	0.554	적절한 문항	0.431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10번	2,916	0.632	적절한 문항	0.394	변별력이 있는 문항

<표 136> 문법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본 조사)

### 3.2. 개별 문항별 분석(문항 카드)

여기에서는 개별 문항별로 문항 카드의 형식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 카드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문항별로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수정 사항), 최종 조사 문항, 평가 요소,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의 난이도·변별도·답지별 반응률이 제시되어 있다.

❶ 말하기 영역: 주관식 3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1		문항 정보		S-가-2					
평가 문항	1. (물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청(또는 군청) 민원실 담당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십시오.											
	<div>[ 상황 ]   ○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                  ○ 불법 주차가 많아 도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div> <div>[ 조건 ]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div>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득하는 말하기-요청하는 말하기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6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5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2		문항 정보		S-나-1			
평가 문항	2. (물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골라 <u>초등학교 1학년</u> 학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div>[ 상황 ]    ◦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대처 방법                   ◦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 대처 방법</div> <div>[ 조건 ]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div>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하는 말하기-설명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43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9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S-3		문항 정보		S-가-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43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4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② 쓰기 영역: 주관식 3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1		문항 정보		W-가-1		
평가 문항	1. 등산 동호회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등산회 총무라고 생각하고 아래 초청장의 본문을 완성해 보십시오. (3문장으로 작성)							
	<div>회원 여러분께.</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일시: 2013년 12월 27일(금) 저녁 6시</div> <div>장소: 진미 한정식</div> <div>회비: 3만 원</div>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초청장 쓰기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초청)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계절 인사, 초청의 목적, 끝 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2	3	5	6	8
<div>[예시 답안]</div> <div>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송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div>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1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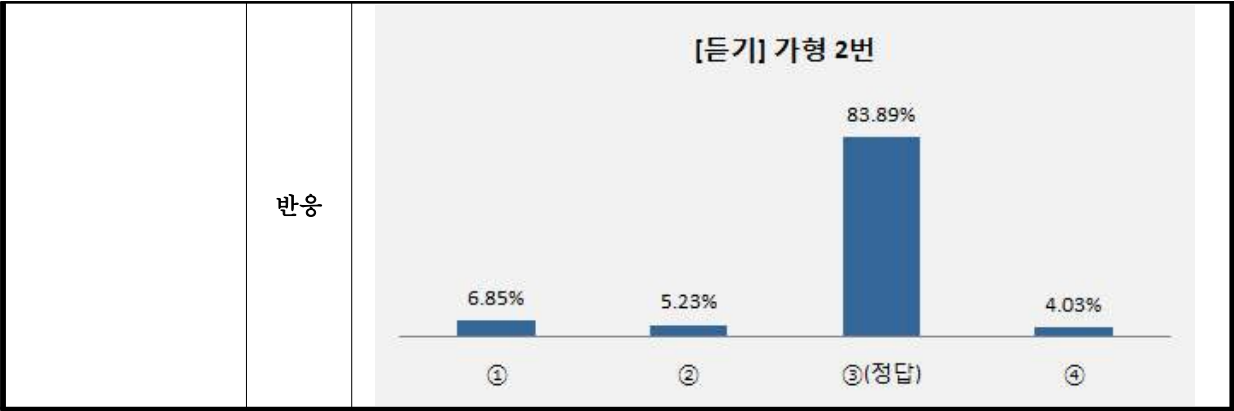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2		문항 정보		W-나-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42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W-3		문항 정보		W-다-1		
평가 문항	3. 군 복무를 마친 남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한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글을 써 보십시오. (400자 내외)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논설문 쓰기							
수정 사항	한 편의 완성된 글로 형식을 갖추도록 문항을 제시한 후 이를 채점 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을 간결하게 다듬었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단락 의식을 가지고 서론-본론-결론을 구성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5	10	16	21	26
[예시 답안]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논란이 다시 사회 일각에서 불고 있다. 군 복무자는 국방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젊음을 희생하였고 사회로 복귀하여 적응하는 데 일정 시간이 또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산점 제도에 반대한다. 군 복무자가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가산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그 이유는 첫째, 군 복무는 남세의 의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 복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여성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이나 호봉을 높여주는 등,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46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8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③ 듣기 영역: 객관식 10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1		문항 정보		L-가-3							
평가 문항	※ 은행의 전화 자동 응답 안내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물음)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눌러야 하는 서비스 버튼은 무엇입니까?												
	<div>행복을 채우는 농협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금융 사기 신고는 331번, 이체 및 납부는 1번, 조회는 2번, 사고 신고는 3번, 기타 서비스는 별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div>												
		① 1		② 2		③ 3		④ *					
자료 출처		농협 안내 방송 1588-2100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지시의 이행 능력)_설명적 담화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① 1번은 이체 및 납부를 하고자 할 때 눌러야 한다. ②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조회’에 해당하므로 2번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③ 3번은 사고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눌러야 한다. ④ 별표(*)는 기타 다른 서비스를 원할 때 눌러야 한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90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문항 반응		<div><div>[듣기] 가형 1번</div><div><div>90.75%</div><div>1.85%</div><div>4.83%</div><div>2.58%</div></div><div><div>①</div><div>②(정답)</div><div>③</div><div>④</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2		문항 정보		L-가-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83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1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 0.19)	낮음 ( ~ 0.29)	있음 (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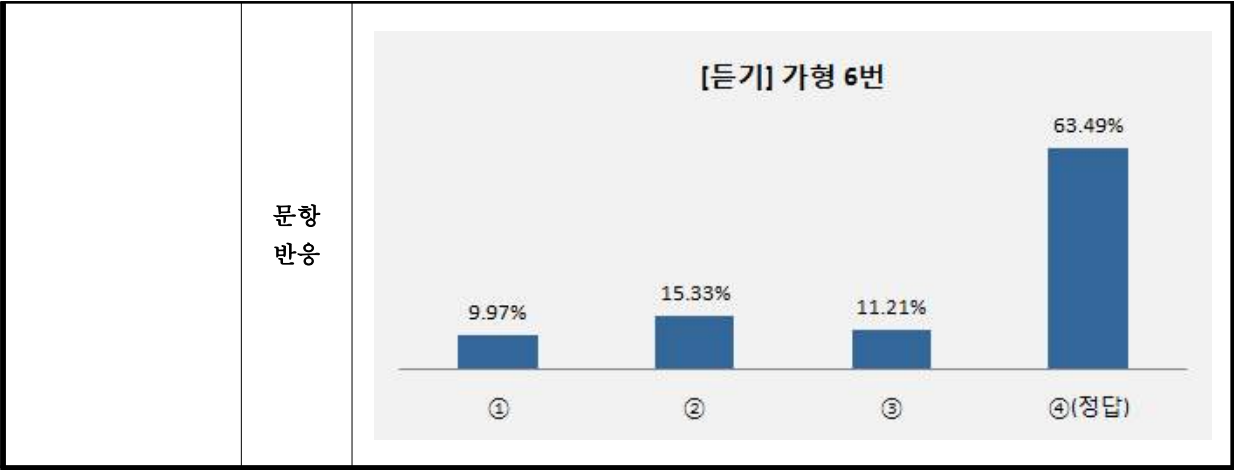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3		문항 정보		L-나-2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732</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537</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 ~0.19)</td><td>낮음 ( ~0.29)</td><td>있음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73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3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73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3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3번</p><table><thead><tr><th>응답</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6.51%</td></tr><tr><td>②</td><td>5.57%</td></tr><tr><td>③</td><td>14.03%</td></tr><tr><td>④(정답)</td><td>73.89%</td></tr></tbody></table></div>							응답	비율	①	6.51%	②	5.57%	③	14.03%	④(정답)	73.89%						
응답	비율																						
①	6.51%																						
②	5.57%																						
③	14.03%																						
④(정답)	73.89%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4		문항 정보		L-가-2	
평가 문항	※ 이번에는 들려 드리는 뉴스의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div>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18일 새벽 4시를 넘기며 사용자 쪽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을 3.5%, 무사고 수당을 4만 원 올리는, 총액 기준 4.6% 임금 인상안에 사용자 쪽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새벽 3시까지 협상장인 용산구 동자동 버스 노조 회관을 찾아 “노동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시의 대중교통 적자를 고려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div>						
	4. (물음) 이 뉴스에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        )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div>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        )</div> <div>① 타결                      ② 결렬                      ③ 난항                      ④ 협조</div>						
자료 출처	한겨레신문 2012.5.12.일자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핵심 정보의 파악)_설명적 담화						
수정 사항	영역 전체의 정답 분포를 고려하여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①</div>						
	<p>① 뉴스에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를 뜻하는 ‘타결(妥結)’이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p> <p>② 결렬(決裂)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됨’의 뜻이다.</p> <p>③ 난항(難航)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p> <p>④ 협조(協調)는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의 뜻으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0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6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듣기] 가형 4번</div><div><div>70.50%</div><div>7.21%</div><div>8.84%</div><div>13.45%</div></div><div>③(정답)                      ②                      ③                      ④</div></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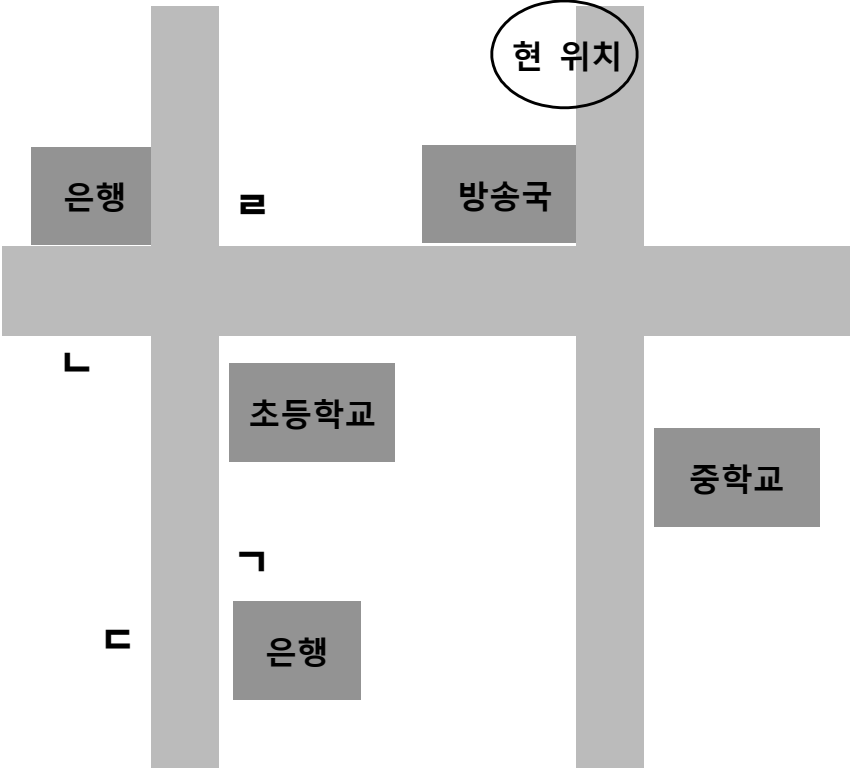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5		문항 정보		L-다-1																	
평가 문항	※ 다음은 방송 시사 토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div>남: 저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 금지된 후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의를 주는 것뿐인데 학교 폭력은 점점 더 일상화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여: 저는 학교에 경찰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div> <div>.....</div>																						
	5. (물음) 여자가 토론을 계속할 때 남자의 말을 반박하기에 적절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div>①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div> <div>②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세워질까요?</div> <div>③ 학교 폭력의 원인이 학생에게만 있는 것일까요?</div> <div>④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div>																						
자료 출처	MBC 100분토론 지금, 학교에서는...(2012. 2. 21)(본문 대폭 수정) <a href="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amp;progCode=1000842100000100000&amp;pagenum=4&amp;pagesize=5&amp;cornerFlag=0&amp;ContentTypeID=1&amp;ProgramGroupID=0&amp;search=&amp;SubprogCode=&amp;sdate=&amp;edate=">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amp;progCode=1000842100000100000&amp;pagenum=4&amp;pagesize=5&amp;cornerFlag=0&amp;ContentTypeID=1&amp;ProgramGroupID=0&amp;search=&amp;SubprogCode=&amp;sdate=&amp;edate=</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듣기(내용의 평가)_선택적 담화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div>		<div>②</div>																				
	<div>① 남자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의를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교사가 주의 주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div> <div>② 남자가 ‘교사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발언을 요약했고, 주장의 흐름으로 볼 때 가능한 비판이다.</div> <div>③ 이 토론은 학교 폭력 단속을 위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학교 폭력의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div> <div>④ 남자의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경찰의 개입을 주장한다고 해서 학생을 처벌과 제재의 대상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div>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694</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26</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9)</td><td>낮음 (~0.29)</td><td>있음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69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2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69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2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div>문항 반응</div> <div><div>[듣기] 가형 5번</div><div><div>70.03%</div><div>18.02%</div><div>6.38%</div><div>5.57%</div></div><div><div>①</div><div>②(정답)</div><div>③</div><div>④</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6		문항 정보		L-다-2	
평가 문항	※ 이번에는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div>점원: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이 필요하세요?</div> <div>손님: 바지 하나 사려고요.</div> <div>점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바지는 어떠세요?</div> <div>손님: 이 바지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나요?</div> <div>점원: 요즘 이런 바지가 유행이에요.</div> <div>손님: 그래도 저는 불편한 바지는 싫는데..... 통이 좀 더 넓은 바지는 없어요?</div> <div>점원: 요새 누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요? 그냥 이거 입으세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div> <div>손님: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한번 입어 볼게요.</div> <div>(휴지)</div> <div>손님: 아,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끼어서 불편한데요. 좀 더 편한 바지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밝아서 좀 그래요.</div> <div>점원: 손님, 바지는 입다 보면 다 늘어나요. 그리고 이 색이 이번 가을에 제일 유행하는 색이에요. 다른 집 가 보세요. 다 이 색이 유행이라고 할걸요?</div> <div>손님: 그래도 이 바지는 안 되겠어요. 다른 바지 보여 주세요.</div> <div>점원: 다른 바지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 통 넓은 바지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않아요. 다른 가게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 바지로 하세요.</div>						
	6. (물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손님은 상품의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② 점원은 상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다.						
자료 출처	2012 기초 연구 보고서(연구진이 직접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듣기(형식의 평가)_설득적 담화						
수정 사항	예상보다 정답률이 높고 변별도가 낮아 아래와 같이 답지를 수정하였다. 1. 발문은 ‘알맞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 2. 매력적인 오답을 넣고 난이도를 높여 답지를 수정한다.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④</div></div> <div>① 손님은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편리함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div> <div>② 점원은 손님이 원하는 바지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바지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다.</div> <div>③ 손님은 점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지를 일관성 있게 요구하고 있다.</div> <div>④ 점원은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원하는 바지를 팔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를 다른 상점과 비교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div>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3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1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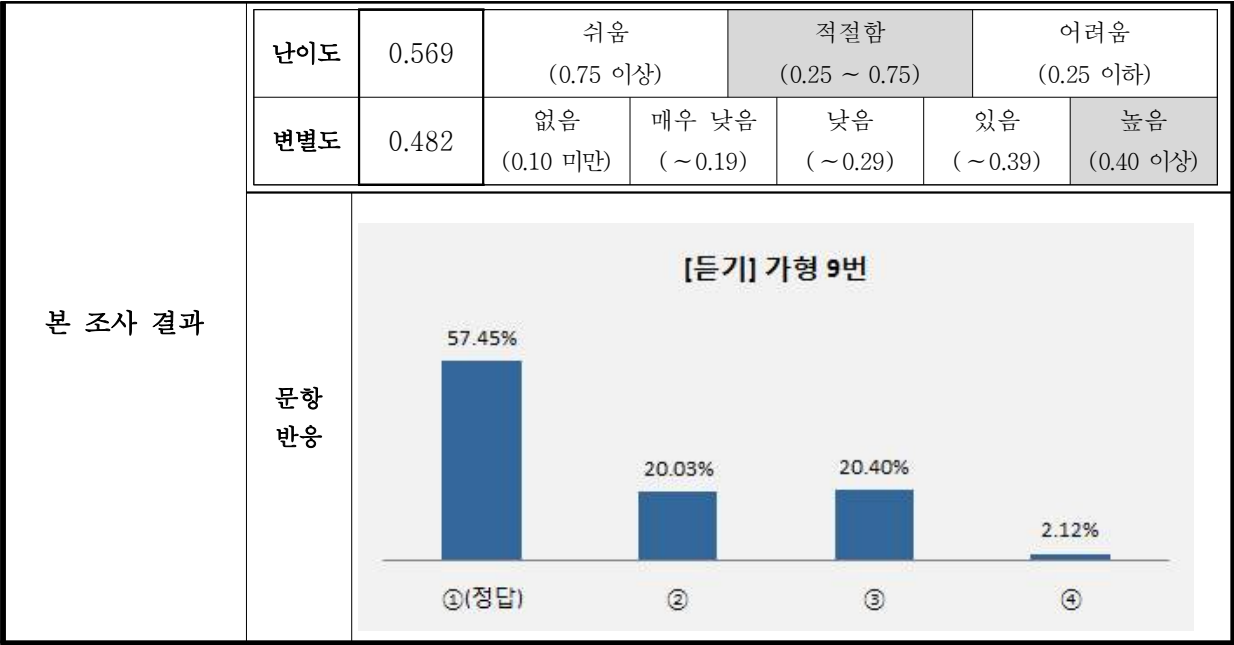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7		문항 정보		L-가-1	
평가 문항	※ 이번에는 반사회 회의의 일부 내용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div>여 1: 자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남 1: 지난주에 운동 기구 놓고 헬스장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 1: 뭐 집에 러닝머신 같은 거 있는데 또 그걸 사야 하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남 1: 그럼 어떻게 쓰죠? 여 2: 택배실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친정 아파트는 그렇게 하던데요. 남 1: 거기 택배를 모아 놓으면 누가 관리하죠? 여 2: 우리 아이 놀이방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우편물을 놓친 적이 있어요. 남 1: 지금도 경비 아저씨가 받아 주시기는 하잖아요. 여 1: 분실하고 그럼 또 말 많아질 텐데..... 일단 뭐 그럼 택배실도 쓰고..... 남 1: 공부방은요? 애들 책상 갖다 놓고 독서실처럼 쓸 수 있게..... 여 1: 그것도 좋네요. 독서실 가 봤자 애들 놀기만 할 텐데 거기 있으면 한 번씩 내려가 보면 되겠네요. 여 2: 아니 그럼 애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괜히 신경만 쓰이죠.</div>						
	7. (물음) 이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헬스장                      ② 택배실                      ③ 놀이방                      ④ 공부방						
자료 출처	2012 기초 연구 보고서(연구진이 직접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세부 정보의 확인)_설득적 담화						
수정 사항	답지 순서를 조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③</div></div> <div>① 남 1과 여 1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② 여 2와 남 1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③ 여자 2가 놀이방을 언급한 것은 우편물을 놓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지하실 사용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남 1, 여 1, 2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div>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84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9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div><div>문항 반응</div><div><div>[듣기] 가형 7번</div><div><div>9.67%</div><div>3.44%</div><div>84.12%</div><div>2.77%</div></div><div><div>①</div><div>②</div><div>③(정답)</div><div>④</div></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8	문항 정보	L-나-1
평가 문항	※ 다음은 길거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여: 저기요, 뭐 좀 여쭙 봐도 될까요?</p> <p>남: 네, 말씀하세요.</p> <p>여: 여기서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인지 아세요?</p> <p>남: 이 아래로 쪽 내려가시다 보면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100미터쯤 곧장 가시면 초등학교가 보이는데요,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서 50미터쯤 가시면 우측으로 우체국이 있을 거예요. 건너편에 은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p> <p>여: 네, 좀 복잡하네요. 일단 방송국까지 갔다가 초등학교를 찾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p> <p>남: 네, 맞아요. 가다가 못 찾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이 동네 우체국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쉽게 찾으실 거예요.</p> <p>여: 감사합니다.</p>		
	8. (물음) 남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지도에서 우체국이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자료 출처	2012 기초 연구 보고서(연구진이 직접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설명적 담화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div> <div>③</div>		

	<p>① ㄱ은 은행 건너편이 아니라 옆이다.</p> <p>② ㄴ은 은행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50미터 쯤 들어간 곳’이 아니다.</p> <p>③ 남자의 말에서 ‘은행 건너편 건물’이라는 한 가지 단서만으로도 ㄷ에 우체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④ ㄹ은 은행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간 곳이 아니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8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2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듣기] 가형 8번</p><table><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3.87%</td></tr><tr><td>②</td><td>13.18%</td></tr><tr><td>③(정답)</td><td>78.32%</td></tr><tr><td>④</td><td>4.64%</td></tr></tbody></table></div>						항목	비율	①	3.87%	②	13.18%	③(정답)	78.32%	④
항목	비율															
①	3.87%															
②	13.18%															
③(정답)	78.32%															
④	4.64%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9	문항 정보	L-나-1
평가 문항	<p>※ 이번에 들려 드릴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data-bbox="432 403 1401 90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아들: 아버지, 친구는 나이나 수준이 서로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p> <p>아버지: 옛말에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그 말은 이왕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닐 거야. 친구를 사귄다 보면 다 위로 보고 사귀다 보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평생 사귄다. 수 없지 않겠니?</p> <p>아들: 그럼 어떻게 해요?</p> <p>아버지: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를 얘기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말이야. 나쁜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될 수도 있어. 너희처럼 자랄 때는 더 그렇지.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꼭 무얼 배울 만하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건 아니야.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p> </div> <p>9. (물음) ‘친구’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서로 믿고 힘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p> <p>② 평생 변함없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p> <p>③ 어떤 친구든 배울 점이 있게 마련이다.</p> <p>④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p>		
자료 출처	<p>이순원, ‘우정에 대하여’, 아들과 함께 걷는 길 / EBS라디오, 짧은 이야기 세상, 2012.7.20.방송분</p> <p><a href="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amp;client_id=short&amp;menu_seq=4&amp;enc_seq=3115253">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amp;client_id=short&amp;menu_seq=4&amp;enc_seq=3115253</a></p>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선택적 담화		
수정 사항	<p>예비 조사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생각’이므로 ‘가장 잘’을 넣어야 한다는 자문 회의 결과에 따라 발문의 표현을 수정하였다.</p> <p>(정답 배분을 고려하여 답지 순서 조정)</p>		
정답 및 해설	<div data-bbox="443 1619 676 170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정답</span> <span>①</span> </div> <p>① 아버지가 끝 부분에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② 평생 변함없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p> <p>③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친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p> <p>④ 친구를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는 생각은 옛말이 그렇다는 것이다.</p>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L-10	문항 정보	L-나-3
평가 문항	※ 마지막 듣기 문항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제가 일본에서 출간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 책에 나온 실험을 보면,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키운 생쥐들은 93%가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목조 건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피곤도가 2배 이상 높았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아토피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 아파트 생활에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아파트에서 탈출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생태 건축으로 보금자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짓기 준비를 했지요.</p> <p>그래서 나무도 사 가지고 미리 말려서 다듬기 시작하고, 3년 후인 2000년 5월 3일에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2000년 11월 4일에 아직 미완성인 집에 이사를 했지요. 그 집에서 살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 집사람은 당시에 허릿병이 있었는데 황토방에서 지져서 그런지 썩 나았어요. 저도 만성 피로랑 아토피가 썩 없어졌고요. 그래서 “참 이 흙집이 대단하구나, 흙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p> <p>흙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새나 벌도 자기 집은 스스로 짓잖아요. 여기 산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느라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거의 독학으로 흙집을 짓고 흙집 짓기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흙집 짓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p>		
	<p>10. (물음) 이 강연을 잘 이해한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민재: 혼자 배워서 집을 짓게 되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p> <p>② 동훈: 아파트 생활과 흙집 생활을 비교해서 설명하니 더 설득력이 있네.</p> <p>③ 경은: 만성 피로나 아토피 같은 질병은 아파트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것 같아.</p> <p>④ 민정: 의사도 흙집의 치료 효과를 인정했다니 믿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p>		
자료 출처	KBS 강연, 공감 100℃, 고제순, 흙이 삶을 살린다. <a href="http://asx.kbs.co.kr/player_56ad.html?title=%B0%AD%BF%AC+100%A1%C9&amp;url=1tv%24100do%24120525_01_03_00.asf&amp;type=202&amp;chkdate=20120725084017&amp;kind=56">http://asx.kbs.co.kr/player_56ad.html?title=%B0%AD%BF%AC+100%A1%C9&amp;url=1tv%24100do%24120525_01_03_00.asf&amp;type=202&amp;chkdate=20120725084017&amp;kind=56</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적용)_설득적 담화		
수정 사항	발문의 표현과 답지 ②번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정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④</div> </div> <p>① ‘거의 독학으로 흙집을 짓고’라는 말이 있으므로 가능한 반응이다.</p> <p>② 아파트 생활과 흙집 생활을 비교하면서 흙집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p> <p>③ 강연자가 만성 피로나 아토피가 아파트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였으므로 가능한 반응이다.</p> <p>④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라고 언급했지만 의사가 흙집의 치료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p>		

본 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가형 10번

①

②

③

④(정답)

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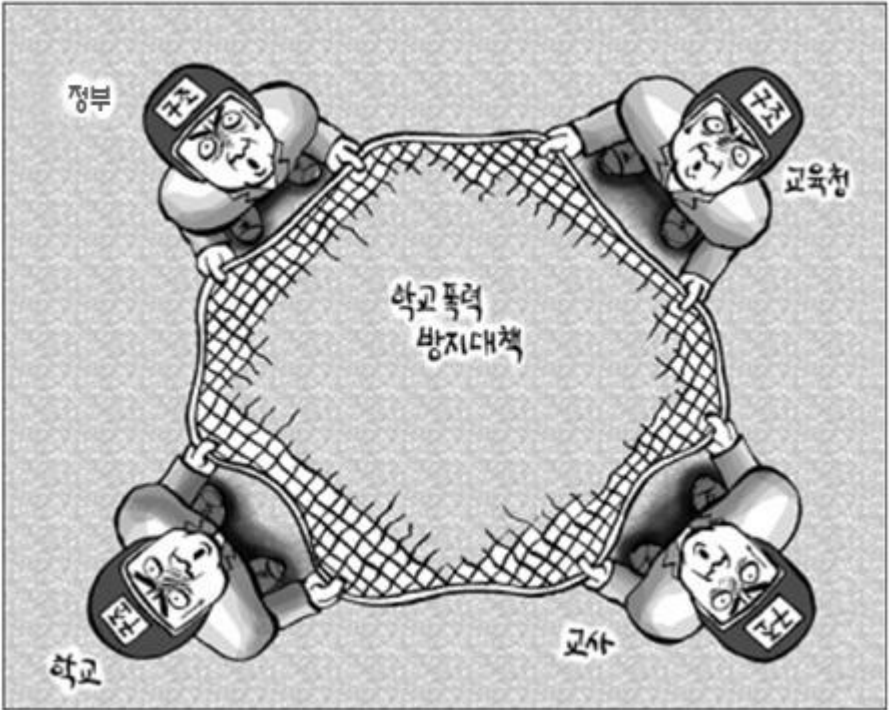
6.35%

7.11%

69.33%

난이도	0.69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6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 0.19)	낮음 ( ~ 0.29)	있음 ( ~ 0.39)	높음 (0.40 이상)	

④ 읽기 영역: 객관식 20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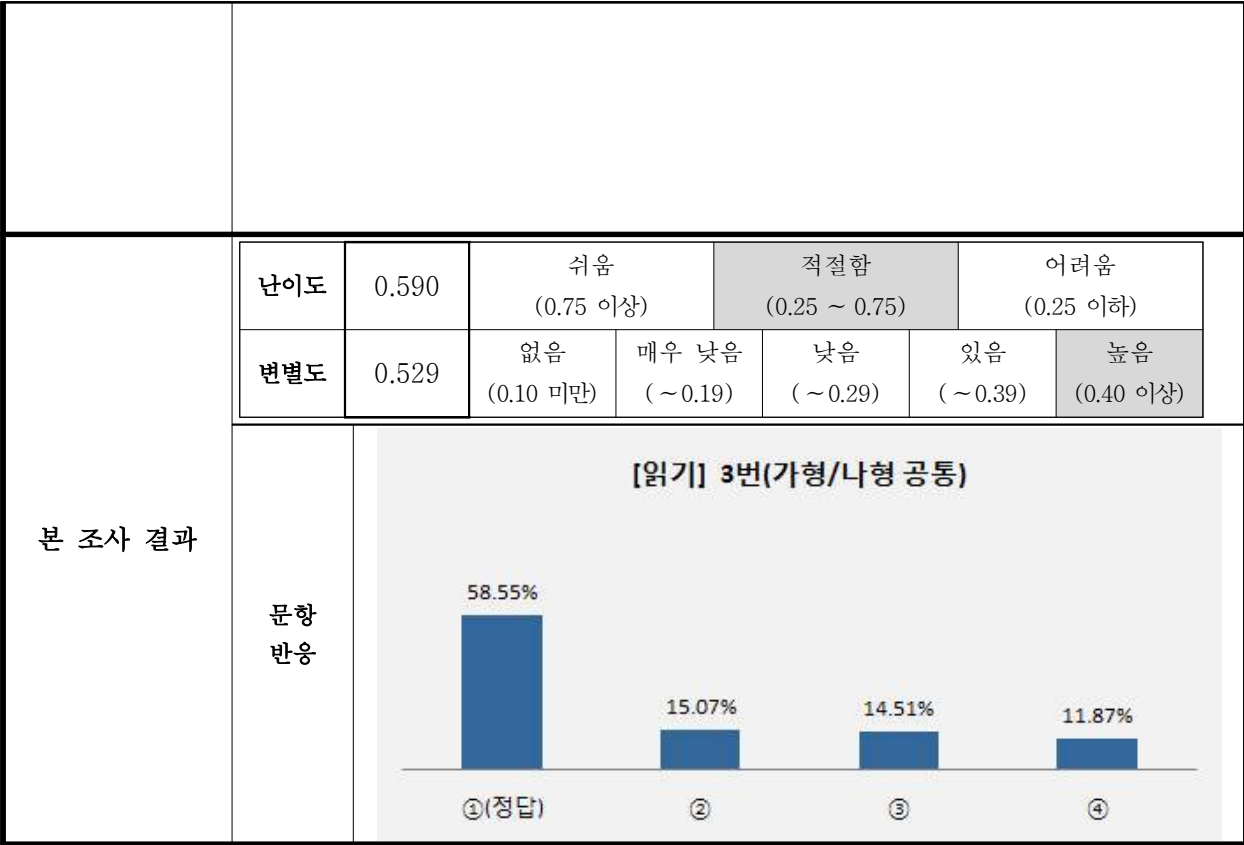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	문항 정보	R-다-2
평가 문항 (공통)	1. 다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만평입니다. 만평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실효성이 없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찢어진 그물망으로 표현했구나. ② 학교 폭력 방지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네 명의 사람으로 표현했구나. ③ 학교 폭력 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으로 표현했구나. ④ 학교 폭력 방지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을 구조대원으로 표현했구나.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1년 12월 27자 만평(배계규 화백). <a href="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112/h2011122620385475870.htm&amp;ver=v002">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112/h2011122620385475870.htm&amp;ver=v002</a>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_만평		
예비 조사 문항	가형-2번, 나형-3번		
수정 사항	답지 순서 조정.		
정답 및 해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정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④</div> </div>		
	① 만평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인물들이 들고 있는 그물에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그물 가운데가 뚫어져 있다는 것은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만평에 등장한 네 명에 대해 ‘정부, 교육청, 학교, 교사’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직접적인 관련자라 할 수 있다.		

	<p>③ 만평에서 대책인 ‘그물’이 찢어졌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물을 들고 위만 쳐다보고 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p> <p>④ 만평의 네 인물이 구조대원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관련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기구에 소속된 인물이라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27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p>[읽기] 1번(가형/나형 공통)</p> <table><thead><tr><th>문항</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10.57%</td></tr><tr><td>②</td><td>12.91%</td></tr><tr><td>③</td><td>24.28%</td></tr><tr><td>④(정답)</td><td>52.24%</td></tr></tbody></table>						문항	반응률	①	10.57%	②	12.91%	③	24.28%	④(정답)
문항	반응률															
①	10.57%															
②	12.91%															
③	24.28%															
④(정답)	52.24%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2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div data-bbox="837 741 987 775" data-label="Text">           &lt;가교 문항&gt;         </div>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예비 조사 문항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4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 0.19)	낮음 ( ~ 0.29)	있음 (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div>[읽기] 가형 2번</div><table><caption>[읽기] 가형 2번 문항 반응</caption><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3.69%</td></tr><tr><td>②</td><td>18.87%</td></tr><tr><td>③(정답)</td><td>64.01%</td></tr><tr><td>④</td><td>13.43%</td></tr></tbody></table></div></div>							항목	반응률 (%)	①	3.69%	②	18.87%	③(정답)	64.01%	④
항목	반응률 (%)																
①	3.69%																
②	18.87%																
③(정답)	64.01%																
④	13.43%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3	문항 정보	R-가-3
<p>평가 문항 (공통)</p>	<p>&lt;가교 문항&gt;</p>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예비 조사 문항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4		문항 정보		R-다-3															
평가 문항 (공통)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예비 조사 문항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5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4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 0.19)		낮음 ( ~ 0.29)		있음 (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4번(가형/나형 공통)</p><table><thead><tr><th>문항 번호</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8.46%</td></tr><tr><td>②</td><td>11.91%</td></tr><tr><td>③</td><td>13.53%</td></tr><tr><td>④(정답)</td><td>66.10%</td></tr></tbody></table></div>										문항 번호	반응률 (%)	①	8.46%	②	11.91%	③	13.53%	④(정답)
문항 번호	반응률 (%)																				
①	8.46%																				
②	11.91%																				
③	13.53%																				
④(정답)	66.10%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5	문항 정보	R-가-2
평가 문항	※ 다음 사설을 보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5~6]		
	<p style="text-align: center;"><b>주민들이 나서서 매듭지은 청주-청원 통합</b></p> <p>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네 번의 도전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청원군은 그제 주민 투표에서 투표율 36.8%, 찬성률 77.2%로 통합을 결정했다. 청주시가 이미 시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14년 통합 청주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p> <p>주민 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인 이번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官)보다 민(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여 지역 주민과 지방 의회의 반발을 샀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두 자치 단체는 주민 단체를 통해 통합의 기반을 다져 왔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 통합 시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9개 사항 7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합의를 일궈 나갔다. 특히 행정 구역 통합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해 요금 인하 효과를 보여 준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두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p> <p>이렇듯 청주-청원의 주민 자율 통합 모델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행정 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2010년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줄속 추진의 후유증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아직도 내분을 겪고 있다. 행정 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탈이 나게 돼 있다.</p> <p><b>5. 이 사설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b></p> <p>① 행정 구역의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행정 구역의 통합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모아야 한다.          ③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구역의 통합 시도는 취소되어야 한다.          ④ 행정 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야 한다.</p>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자 사설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논설		
예비 조사 문항	가형-5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정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④</div> </div> <p>① 행정 구역 통합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 구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p> <p>② 행정 구역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는 필자의 중심 내용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언급되어</p>		

있을 뿐 이러한 사례를 더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실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구역의 통합에서 청주-청원 통합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 구역 통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④ 마지막 문단, 행정 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주민 설득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뒤통이 난다는 내용 등에서 행정 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able> <tr> <td>난이도</td><td>0.758</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 <tr> <td>변별도</td><td>0.499</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 ~0.19)</td><td>낮음 ( ~0.29)</td><td>있음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 </table>	난이도	0.75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75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본 조사 결과	<div> <div>문항 반응</div> <div> <div>[읽기] 가형 5번</div> <table> <tr> <th>항목</th> <th>반응률</th> </tr> <tr> <td>①</td> <td>4.13%</td> </tr> <tr> <td>②</td> <td>11.40%</td> </tr> <tr> <td>③</td> <td>8.88%</td> </tr> <tr> <td>④(정답)</td> <td>75.59%</td> </tr> </table> </div> </div>	항목	반응률	①	4.13%	②	11.40%	③	8.88%	④(정답)	75.59%						
항목	반응률																
①	4.13%																
②	11.40%																
③	8.88%																
④(정답)	75.59%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6		문항 정보		R-나-5			
평가 문항		6. 이 사설을 쓴 이의 생각에 대한 추측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이번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널리 권장할 만한 예로 보고 있구나. ②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구나. ③ 이전에 있었던 창원과 마산, 진해의 통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④ 주민과 관청 간의 의사소통을 행정 구역 통합의 성공 요건으로 보고 있구나.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자 사설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논설							
예비 조사 문항		가형-6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②</div></div> <p>① 글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예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구역 통합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② 행정 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거주 환경을 바꾸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p> <p>③ 이전에 이루어진 경남 창원시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추진의 예로,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p> <p>④ 행정 구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관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2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6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읽기] 가형 6번</div><div><div>5.78%</div><div>52.78%</div><div>23.10%</div><div>18.34%</div></div><div><div>①</div><div>②(정답)</div><div>③</div><div>④</div></div></div>							

평가 문항  
(공통)

7. 이 안내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등록증용 도로명 주소(새주소) 스티커 교부 안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문서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 주소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 주소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 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본인이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티커는 아래의 부착 요령을 참고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전(A)	스티커 부착 후(B)	부착 요령
		<div> <div>종 길 동</div> <div>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            곡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컵아파트)            ('11. 10. 31. 삼청동)         </div> </div> <p>※ ‘성명’ 부분을 잘라 내어 스티커 뒷면을 떼어 내고 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그림(B)와 같이 붙이면 됩니다.</p>

- ① 2011년 10월 3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써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  
 ② 한번 교부받은 스티커가 훼손되면 다시 교부받을 길이 없으니 조심해야겠어.  
 ③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서 내가 스스로 붙여야 하는구나.  
 ④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으려면 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 하는구나.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및 광진구청 누리집  
[http://www.gwangjin.go.kr/\\_board-read.do?boardId=MIT038&boardNo=132244154749093&command=READ](http://www.gwangjin.go.kr/_board-read.do?boardId=MIT038&boardNo=132244154749093&command=READ)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안내문

## 예비 조사 문항

가형-7번, 나형-6번

## 수정 사항

없음

정답

③

정답 및 해설

① 안내문의 내용에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써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이해이다.

② 안내문에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③ 안내문에서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하면 이를 ‘본인이’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스티커 부착 방법을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다.

④ 안내문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본 조사 결과

문항  
반응

[읽기] 7번(가형/나형 공통)

항목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6.37%	7.36%	74.19%	12.07%

※ 다음 가정 통신문을 보고 8번과 9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8~9]

○○중 2013 - 17호

## 가 정 통 신 문

부서 담당자: 교무지원부 심순애  
전화 번호: 02)503-1234  
홈페이지: http://○○○.ms.kr

안녕하십니까? 새봄과 함께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언제나 본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 학기 소식을 전합니다.

2013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며 올해에도 ○○중학교를 함께 이끌어 주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급별 학부모 모회를 조직하고 담임교사와 만나는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녀 교육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3. 3. 19.(화), 14:00
2. 장소: 본교 대강당 및 교실
3. 대상: ○○중학교 학부모
4.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4:00 ~ 14:50	학부모 총회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안내 및 학교 운영 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대강당
15:00 ~ 16:30	담임 교사와의 시간	·학급 학부모회 조직 ·학급 연간 운영 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대화	각 교실

2013년 3월 11일

○○ 중 학 교 장 홍길동



----- 절 취 선 -----

2013학년도 학부모 총회 참석 동의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해당란에 참석 여부를 ○로 표시	
				참석	불참

학부모 성명: (인)

8. 이 가정 통신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학교운영위원을 뽑는 데 참여해야겠어.
- ②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을 들어 봐야겠어.
-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사가 없으니 교실에 갈 필요가 없겠어.
- ④ 학급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으니 우리 아이의 반 교실로 가야겠어.

자료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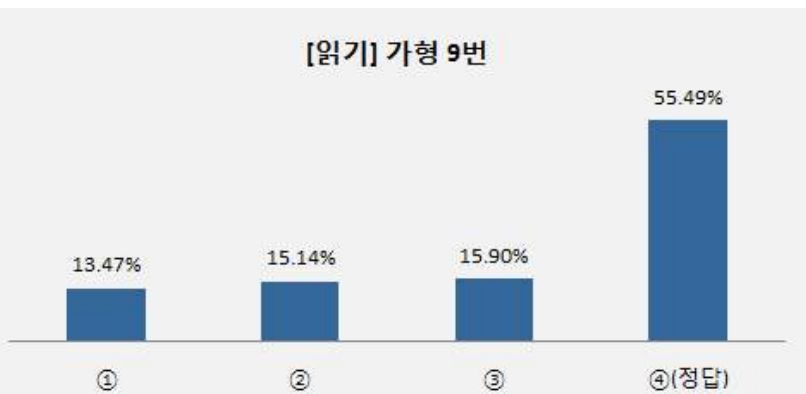
과천 중학교 가정 통신문(변형)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가정통신문

예비 조사 문항	가형-8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③</div>															
	<p>①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다고 하였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p> <p>②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안내한다고 하였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에서의 행사이므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회의)와는 관계가 없다.</p> <p>④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학급 학부모회를 조직한다고 하였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1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3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8번</p><table><thead><tr><th>답안</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3.02%</td></tr><tr><td>②</td><td>12.44%</td></tr><tr><td>③(정답)</td><td>72.30%</td></tr><tr><td>④</td><td>12.24%</td></tr></tbody></table></div>						답안	비율	①	3.02%	②	12.44%	③(정답)	72.30%	④
답안	비율															
①	3.02%															
②	12.44%															
③(정답)	72.30%															
④	12.24%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9		문항 정보		R-나-3															
평가 문항		9. 이 행사의 목적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② 학교 운영의 계획이나 특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④ 학교와 학급의 연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 출처		과천 중학교 가정 통신문(변형)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가정통신문																			
예비 조사 문항		가형-9번																			
수정 사항		답지 ③번의 ‘모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답지 ③번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table><tr><td>정답</td><td>4</td></tr></table> ①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 운영 계획을 안내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 담임교사와의 시간에서는 학급 학부모회를 조직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학교와 학급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설 명이다.						정답	4												
정답	4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6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1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읽기] 가형 9번</p><table><tr><th>답지</th><th>반응률</th></tr><tr><td>①</td><td>13.47%</td></tr><tr><td>②</td><td>15.14%</td></tr><tr><td>③</td><td>15.90%</td></tr><tr><td>④(정답)</td><td>55.49%</td></tr></table></div>										답지	반응률	①	13.47%	②	15.14%	③	15.90%
답지	반응률																				
①	13.47%																				
②	15.14%																				
③	15.90%																				
④(정답)	55.49%																				



정답

②

① <표준 언어 예절>은 ○○구에서 발간한 언어 예절 책자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언어 예절 책자이다.

②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이 <표준 언어 예절>이므로 이 책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공문에서는 국립국어원에 <표준 언어 예절>의 배부를 요청한 것이지, 책자의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

④ ○○구에서는 <표준 언어 예절> 책자를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배부 요청을 하고 있다.

난이도

0.52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1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본 조사 결과

문항 반응

[읽기] 가형 10번

52.19%

8.36%

15.82%

23.63%

①

②(정답)

③

④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1		문항 정보		R-나-2			
평가 문항		11. 이 공문 작성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국립국어원은 공적인 목적의 일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공공 기관은 기밀 사항이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공공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책자에 대해 배부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민이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등의 사용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 출처		국립국어원 수신 공문(2012년 3월 15일자)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공문서							
예비 조사 문항		가형-11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②</div></div> <p>① ○○구청에서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요청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국립국어원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공적인 목적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는 가정이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p> <p>② &lt;표준 언어 예절&gt;이라는 책의 배부를 요청한 것은 국립국어원에 어떠한 기밀 사항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밀 사항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p> <p>③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책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 공공 기관이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배부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p> <p>④ ○○구청에서 &lt;표준 언어 예절&gt;의 책자를 배부 요청한 목적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고자’라고 했으므로 현재 국민들이 이러한 언어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5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읽기] 가형 11번</div><div><div>9.24%</div><div>75.61%</div><div>9.34%</div><div>5.81%</div></div><div><div>①</div><div>②(정답)</div><div>③</div><div>④</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2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공통)	12. 이 편지에서 ‘엄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div><p>사랑하는 아들이</p><p>네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잘 받았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산부인과에서 아빠가 외할머니와 열싸우고 만세를 불렀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군인이 됐다니 대견하다,</p><p>아들아, 엄마는 훈련소란 용광로라고 생각한다. 각종 성분이 함유된 철광 원석들이 한곳에 모여 뜨겁게 녹아내려 강한 철로 만들어지는 곳, 용광로, 훈련소가 바로 그 용광로다. 그동안 몸과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가슴에 새겨 강철처럼 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p><p>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네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 여름날 보름 동안 자전거로 해남 땅끝까지 완주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아들이니까……, 마당에 있는 그 영광의 자전거가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주기도 한단다,</p><p>건강하고 현명한 우리 00, 사랑한다!</p><p>힘내라 우리 아들~!</p><p style="text-align: right;">3월 4일에 엄마가</p></div>			
	<div><p>①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p><p>② 훈련을 보람 있게 마치기를 바란다.</p><p>③ 엄마 아빠의 사랑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p><p>④ 아픔을 이겨 내고 체력을 기르기를 바란다.</p></div>			
	자료 출처	개인 블로그의 글을 대상으로 대폭 윤문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편지		
예비 조사 문항	가형-12번, 나형-11번			
수정 사항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지를 수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2</div></div>			
	<div><p>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볼 수는 없다.</p><p>② 엄마는 자전거 완주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들이 현재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훈련을 끝까지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p><p>③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지에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편지를 쓴 것은 아니다.</p><p>④ 아들이 현재의 아픔(부상)을 잘 이겨 내고 훈련을 잘 마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체력을 더 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p></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3	문항 정보	R-나-4
평가 문항 (공통)	13. 다음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div><div><p>김 대리: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한의 김○○ 대리입니다. 내일(12일) 회의는 오후 4시부터 저희 회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 자료는 전자 우편으로 저에게 오늘 저녁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몇 분이 함께 오시나요? 미리 알려 주시면 식당에 예약해 두겠습니다.</p></div><div><p>박 실장: 인원은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마무리해서 곧 보내 드릴게요.</p></div><div><p>김 대리: 알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알려 주세요.</p></div></div>			
	<p>① 회의 자료는 ‘주식회사 대한’에서 작성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④ ‘주식회사 대한’에 외부 사람들이 회의를 하러 올 예정이다.</p>			
	자료 출처	기초연구 연구진 제작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문자메시지		
예비 조사 문항	가형-13번, 나형-13번			
수정 사항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가’, ‘나’를 ‘김 대리’, ‘박 실장’으로 수정하였고 글자체를 바꾸었다.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①</div></div> <p>①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인 ‘가’가 회의 자료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고, 상대인 ‘나’가 곧 회의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으므로 회의 자료 작성은 ‘가’인 ‘주식회사 대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인원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하였으므로 회의 참석 인원이 아직 정해지</p>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가 식당을 예약해 두겠다고 하였으므로 회의 전이나 후로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안내한 ‘가’는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이고, 안내를 받은 ‘나’는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이 아님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외부 사람이 주식회사 대한에 회의를 하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이도	0.73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 0.19)	낮음 ( ~ 0.29)	있음 ( ~ 0.39)	높음 (0.40 이상)	

본 조사 결과

문항  
반응

항목	비율
①(정답)	73.52%
②	7.65%
③	6.71%
④	12.12%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2	문항 정보	R-나-2
평가 문항	<div data-bbox="836 712 986 745" data-label="Text">           &lt;가교 문항&gt;         </div>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예비 조사 문항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4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1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나형 2번

3.81%

7.38%

65.24%

23.57%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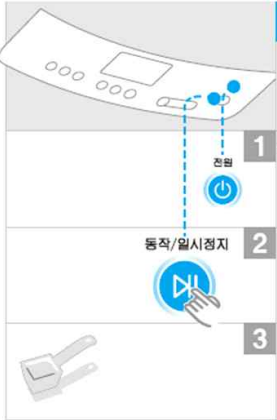
③(정답)

④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5	문항 정보	R-나-1
평가 문항	※ 다음 공익 광고를 보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5~6]		
	<div data-bbox="422 320 1396 1249">  <div data-bbox="710 481 1029 616"> <p>뽑는 데 1초 자라는 데 20년</p> </div> <div data-bbox="710 638 1332 806"> <p>1톤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만 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p> </div> </div>		
	<p>5.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맙시다. ②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합시다. ③ 일회용 종이컵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소중히 아껴 씁시다. ④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 보존에 기여합시다.</p>		
자료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 <a href="http://www.kobaco.co.kr">http://www.kobaco.co.kr</a> )의 ‘공익 광고 자료실’(인쇄 공익 광고)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공익광고		
예비 조사 문항	나형-1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div> <div>④</div>		<div>① 종이컵의 사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종이컵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div> <div>② 광고를 통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div> <div>③ 광고에서는 종이컵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요인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종이컵 생산의 어려움은 광고 내용과 거리가 멀다.</div> <div>④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div>												
	난이도	0.79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본 조사 결과	변별도	0.43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읽기] 나형 5번</div> <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2.74%</td></tr><tr><td>②</td><td>4.97%</td></tr><tr><td>③</td><td>13.01%</td></tr><tr><td>④(정답)</td><td>79.28%</td></tr></tbody></table>					선택지	반응률	①	2.74%	②	4.97%	③	13.01%	④(정답)
선택지	반응률														
①	2.74%														
②	4.97%														
③	13.01%														
④(정답)	79.28%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6		문항 정보		R-가-4										
평가 문항	6. 이 광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고자 합니다. 표현 방식의 특징을 <u>잘못</u>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광고의 글과 그림이 결합되어 광고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 ② 나무를 가꾸는 모습을 종이컵을 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 ③ 종이컵과 환경을 관련시키기 위해서 종이컵에 나무 그림을 그렸어. ④ 광고에 주목하게 하면서 자세한 내용도 담기 위해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였어.															
자료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 <a href="http://www.kobaco.co.kr">http://www.kobaco.co.kr</a> )의 ‘공익 광고 자료실’(인쇄 공익 광고)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공익광고															
예비 조사 문항	나형-2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②</div>		① 이 공익 광고는 기본적으로 그림과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 인출기를 통해 종이컵을 빼는 그림은 나무를 가꾸는 모습이 아니라 종이컵을 쉽게 쓰고 무심코 버리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종이컵의 사용이 나무를 훼손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종이컵에 나무 그림을 그려 놓았다. ④ 큰 글씨를 통해 광고에 주목하게 하고 작은 글씨로 자세한 설명을 써 놓았다. 글자 크기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광고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2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읽기] 나형 6번</div> <table><thead><tr><th>선택지</th><th>반응률</th></tr></thead><tbody><tr><td>①</td><td>6.72%</td></tr><tr><td>②(정답)</td><td>62.21%</td></tr><tr><td>③</td><td>15.64%</td></tr><tr><td>④</td><td>15.43%</td></tr></tbody></table>						선택지	반응률	①	6.72%	②(정답)	62.21%	③	15.64%	④
선택지	반응률															
①	6.72%															
②(정답)	62.21%															
③	15.64%															
④	15.43%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8	문항 정보	R-가-4
평가 문항	※ 다음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고 8번과 9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8~9]		
	<div data-bbox="422 353 1390 97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2;"> <p><b>■ 표준 코스</b> 세탁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코스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b> 빨랫감을 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 자동으로 표준 코스가 선택됩니다.</li> <li><b>2</b> [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판이 돌아간 후, 빨래 무게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당한 물높이를 표시해 줍니다.</li> <li><b>3</b> 물높이에 맞게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li> </ol>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참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동 중 뚜껑을 열면 안전을 위해 모든 동작을 멈춥니다. (단, 뚜껑을 열어도 급수는 됩니다.)</li> <li>▶ 온수만 사용 시 뜨거운 물에 의한 옷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0초간 온수와 냉수가 함께 급수됩니다.</li> <li>▶ 세탁 진행 중 세탁 시간, 행굼 횟수, 탈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 세척 코스 및 일부 코스는 제외)</li> </ul> </div> </div>		
	8. ‘표준 코스’로 세탁하고자 합니다. 위 설명서를 따르지 <u>않은</u> 것은 무엇입니까? ①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② ② 과정을 마친 뒤, 물높이 표시에 따라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었다. ③ ③ 과정을 마친 뒤, 원하는 세탁 시간과 행굼 횟수를 설정했다. ④ 작동을 시작한 뒤,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자료 출처	시중 시판 중인 세탁기 사용 설명서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사용설명서		
예비 조사 문항	나형-9번		
수정 사항	답지 ②번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정답 및 해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정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④</div> </div>		
	①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이 첫째 과정(㉠), [동작/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 둘째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과정 ②에 빨래 무게를 감지하여 표시해 주는 적당한 물 높이에 따라서 적정량의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도록 설명되어 있다. ③ 설명서의 내용상 ‘표준 코스’는 세탁 시간, 행굼 횟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참고’에서 세탁 중에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④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서는 동작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참고’의 설명에 따르면 작동 중 뚜껑을 열면 모든 동작이 멈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원]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다.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9		문항 정보		R-다-4							
평가 문항		9. 이 설명서를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표준 코스’일 때의 온수와 냉수의 비율 ② ‘표준 코스’로 설정하는 방법 ③ 세탁기 조작을 위한 버튼의 위치 ④ 빨래할 때 물 높이를 맞추는 방법											
자료 출처		시중 시판 중인 세탁기 사용 설명서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_사용설명서											
예비 조사 문항		나형-10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①</div></div> <p>① ‘표준 코스’에서의 온수와 냉수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p> <p>② 설명서의 처음 ‘표준 코스’에서 ‘표준 코스’가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코스라고 설명되어 있다.</p> <p>③ 설명서에서 그림을 통해 조작 버튼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다.</p> <p>④ 설명서의 ②에서 빨래의 무게를 자동 감지하여 적당한 물 높이를 표시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8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0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div><div>문항 반응</div><div><div>[읽기] 나형 9번</div><div><div><div>58.72%</div><div>8.96%</div><div>8.52%</div><div>23.80%</div></div><div><div>①(정답)</div><div>②</div><div>③</div><div>④</div></div></div></div></div>											



※ 다음 계약서를 보고 10번과 11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10~11]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 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화,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9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

	<div></div>						
	<div>10.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div> <div><div>① 제2조를 보니 임대차 기간을 연월일까지 명시해야 하는구나.</div><div>② 제5조를 보니 계약이 종료될 당시 연체 임대료가 있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구나.</div><div>③ 제7조를 보면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구나.</div><div>④ 제8조를 보니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약될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구나.</div></div>						
자료 출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http://blog.naver.com/flogjump?Redirect=Log&logNo=90150437384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계약서						
예비 조사 문항	나형-7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②</div>						
	<div>① 제2조에 계약 기간을 년, 월, 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div> <div>② 제5조에 연체 임대료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div> <div>③ 제7조에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div> <div>④ 제8조에 해약이 되어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div>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7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읽기] 나형 10번</div><div><div>2.95%</div><div>77.83%</div><div>15.32%</div><div>3.90%</div></div><div><div>①</div><div>②(정답)</div><div>③</div><div>④</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R-11		문항 정보		R-가-2										
평가 문항	11.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조항은 무엇입니까?															
	① 제1조 ② 제4조 ③ 제6조 ④ 제9조															
자료 출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http://blog.naver.com/flogjump?Redirect=Log&logNo=90150437384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읽기 능력_계약서															
예비 조사 문항	나형-8번															
수정 사항	난이도와 변별도에 문제는 없었으나 오답 선택률이 높아 문항을 조금 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발문의 표현도 수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① 제1조는 임차보증금 및 차액에 관한 조항이다. 이미 전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제3조의 사항을 어겼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제6조는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될 해당 조항이 아니다. ④ 제9조는 중개업자의 의무이므로 해당 조항이 아니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737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7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읽기] 나형 11번</div> <table><thead><tr><th>선택지</th><th>비율</th></tr></thead><tbody><tr><td>①</td><td>2.23%</td></tr><tr><td>②(정답)</td><td>73.82%</td></tr><tr><td>③</td><td>22.68%</td></tr><tr><td>④</td><td>1.27%</td></tr></tbody></table>						선택지	비율	①	2.23%	②(정답)	73.82%	③	22.68%	④
선택지	비율															
①	2.23%															
②(정답)	73.82%															
③	22.68%															
④	1.27%															

⑤ 문법 영역: 객관식 10개 문항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1		문항 정보		G-가-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4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1번 (가형/나형 공통)</p><table><thead><tr><th>응답</th><th>①(정답)</th><th>②</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비율</td><td>63.81%</td><td>8.09%</td><td>22.33%</td><td>5.77%</td></tr></tbody></table></div>						응답	①(정답)	②	③	④	비율	63.81%	8.09%	22.33%
응답	①(정답)	②	③	④												
비율	63.81%	8.09%	22.33%	5.77%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2		문항 정보		G-가-2			
평가 문항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그 도시는 별로 <u>구경할</u> 게 없다. ② <u>서울에서 부터</u> 대전까지 걸어갔다. ③ 얼마나 많이 <u>먹었는</u> 지 아직도 배가 부르다. ④ 나는 버스를 타고 갈 테니 너는 <u>너</u> 대로 알아서 와.							
자료 출처		어문규정집,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띄어쓰기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②</div></div> <p>①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에 따라 의존 명사 ‘게’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었다.</p> <p>② ‘부터’는 조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에 따라 ‘서울에서부터’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p> <p>③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에 따라 ‘지’가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에서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그러나 ‘먹었는지’에서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p> <p>④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너대로’로 써야 한다.</p>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30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6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법] 2번 (가형/나형 공통)</div><div><div><div>31.17%</div><div>26.99%</div><div>6.62%</div><div>35.23%</div></div><div><div>①(정답)</div><div>②</div><div>③</div><div>④</div></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3		문항 정보		G-다-1															
평가 문항		3. 높임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래</u> . ②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시래</u> . ③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라셔</u> . ④ 철수야, 선생님께서 <u>오시라셔</u> .																			
자료 출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문장_경어법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table border="1"><tr><td>정답</td><td>③</td></tr></table> <p>① ‘오래’는 ‘오라고 해’가 줄어든 말인데 ‘해’의 주어가 존칭인 ‘선생님’이므로 ‘-시-’가 들어가지 않은 ‘오래’는 잘못이다.</p> <p>②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가 줄어든 말인데 ‘오-’의 주어가 철수이므로 ‘-시-’가 들어간 ‘오시래’는 잘못이다.</p> <p>③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인데 ‘철수’와 관련된 ‘오-’는 높이지 않고 ‘선생님’과 관련된 ‘하-’에 ‘-시-’를 사용하여 높였으므로 맞는 표현이다.</p> <p>④ ‘오시라셔’는 ‘오시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인데 ‘철수’와 ‘선생님’ 모두에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잘못이다.</p>						정답	③												
정답	③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7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3번 (가형/나형 공통)</p><table><tr><th>항목</th><th>반응률 (%)</th></tr><tr><td>①</td><td>32.43%</td></tr><tr><td>②</td><td>9.92%</td></tr><tr><td>③(정답)</td><td>56.15%</td></tr><tr><td>④</td><td>1.50%</td></tr></table></div>										항목	반응률 (%)	①	32.43%	②	9.92%	③(정답)	56.15%
항목	반응률 (%)																				
①	32.43%																				
②	9.92%																				
③(정답)	56.15%																				
④	1.50%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4		문항 정보		G-나-1										
평가 문항	4.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모두 열심히 노력해 준 <u>탓</u> 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② 새로 나온 휴대 전화는 예전 것과 모양이 <u>틀리다</u> . ③ 동생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u>안절부절했다</u> . ④ 옷에 음식을 흘리다니 참 <u>칠칠치</u> 못하구나.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의미와 용법															
수정 사항	답지 순서 조정.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① ‘탓’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을 뜻하는 말로 긍정적인 경우에는 ‘덕, 덕분’을 쓰는 게 적절하다. ② ‘틀리다’는 ‘맞다’와 반대되는 낱말이다. 여기에서는 새로 나온 휴대 전화와 예전 것의 모양을 비교하는 상황이므로, ‘다르다’가 적절한 낱말이다. ③ ‘안절부절못하다’가 적절한 낱말이다. ④ ‘칠칠치 못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라는 뜻의 ‘칠칠하다’라는 형용사와 ‘못하다’라는 보조 형용사가 결합한 형태로 문맥에 적절하게 쓰였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347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11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4번 (가형/나형 공통)</p><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7.09%</td></tr><tr><td>②</td><td>9.39%</td></tr><tr><td>③</td><td>48.25%</td></tr><tr><td>④(정답)</td><td>35.27%</td></tr></tbody></table></div>						항목	반응률 (%)	①	7.09%	②	9.39%	③	48.25%	④(정답)
항목	반응률 (%)															
①	7.09%															
②	9.39%															
③	48.25%															
④(정답)	35.27%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5		문항 정보		G-나-2																	
평가 문항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div>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u>값</u>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div> <div>① 가격                      ② 비용                      ③ 가치                      ④ 대가</div>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의미 관계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③</div> <div>① ‘가격’은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 ② ‘비용’은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 ③ ‘값’은 다의어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ㄴ가문05(價文). 「2」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3」 어떤 일이나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4」 노력이나 희생에 따른 대가. 「5」 어떤 것에 합당한 노릇이나 구실. 「6」 『수학』 하나의 글자나 식이 취하는 수. 또는 그런 수치. 여기에서는 「3」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당한 낱말은 ‘가치’이다. ④ ‘대가’는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div>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903</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338</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 ~0.19)</td><td>낮음 ( ~0.29)</td><td>있음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90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3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903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3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법] 5번 (가형/나형 공통)</div><div><div>90.31%</div><div>1.13%</div><div>1.24%</div><div>7.32%</div></div><div>①                      ②                      ③(정답)                      ④</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6		문항 정보		G-나-1										
평가 문항	〈가교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수정 사항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27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 0.19)	낮음 ( ~ 0.29)	있음 (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p>[문법] 6번 (가형/나형 공통)</p><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정답)</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률</td><td>26.22%</td><td>62.17%</td><td>4.05%</td><td>7.56%</td></tr></tbody></table></div>						문항	①	②(정답)	③	④	반응률	26.22%	62.17%	4.05%
문항	①	②(정답)	③	④												
반응률	26.22%	62.17%	4.05%	7.56%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7		문항 정보		G-나-3																	
평가 문항	7. 밑줄 친 표현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형은 <u>입이 걸어서</u> 무엇이든 잘 먹는다. ② 남의 일에도 일일이 참견하고 참 <u>오지랖도</u> 넓다. ③ 경기에서 진 선수들은 풀이 죽어 <u>어깨를</u> 낮추었다. ④ 놀고 싶어 <u>오금이</u> 땅겼지만 시험이 내일이라 놀지 못했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관용 표현의 의미																				
	수정 사항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밑줄 그은 부분을 조금 더 난도가 높거나 매력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②</div></div> <p>① ‘입이 걸다’는 ‘말이 거림낌 없이 풀지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②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③ ‘어깨를 낮추다’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 ‘오금이 땅기다’는 ‘오금이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의 뜻이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p>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792</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59</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9)</td><td>낮음 (~0.29)</td><td>있음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79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79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div><div>문항 반응</div><div><div>[문법] 7번 (가형/나형 공통)</div><div><div>79.33%</div><div>7.84%</div><div>8.49%</div><div>4.34%</div></div><div><div>①</div><div>②(정답)</div><div>③</div><div>④</div></div></div></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8		문항 정보		G-다-2											
평가 문항	8. 문장의 흐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이 일은 절대로 오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년에는 회사 실적이 아마 올해만 못할 겁니다. ③ 글을 잘 쓰려면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④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을 이겨 냈습니다.																
	자료 출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문장_호응 관계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②</div>																
	① ‘절대로’라는 부정 부사어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긍정형의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② ‘내년에는’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못할 겁니다’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③ ‘텔레비전’이라는 목적어와 ‘읽어야 한다’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④ ‘것은’이라는 주어와 ‘이겨 냈습니다’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1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3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문법] 8번 (가형/나형 공통)</div> <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5.03%</td></tr><tr><td>②(정답)</td><td>50.67%</td></tr><tr><td>③</td><td>22.85%</td></tr><tr><td>④</td><td>21.46%</td></tr></tbody></table>						항목	반응률 (%)	①	5.03%	②(정답)	50.67%	③	22.85%	④	21.46%
		항목	반응률 (%)														
①	5.03%																
②(정답)	50.67%																
③	22.85%																
④	21.46%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9		문항 정보		G-다-3																	
평가 문항	9.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div>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이 화창하게 개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 곧 날이 흐려져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div> <div>① 하지만                      ② 그러다가                      ③ 게다가                      ④ 그런데</div>																						
자료 출처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문장_접속 관계																						
수정 사항	두 문장으로 접속어를 판단하기보다는 세 문장 이상이 조금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자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기와 답지를 모두 수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정답      ③</div> <div>① ‘하지만’은 앞 뒤의 문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경우에 쓰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div> <div>② ‘그러다가’는 문맥상 ‘작업을 하다가’의 의미로 쓰이므로 적절하다.</div> <div>③ ‘게다가’는 ‘그러한 데다가’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div> <div>④ ‘그런데’는 앞뒤의 문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div>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554</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31</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 ~0.19)</td><td>낮음 ( ~0.29)</td><td>있음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55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31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55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31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본 조사 결과	문항 반응	<div>[문법] 9번 (가형/나형 공통)</div> <div>55.15%</div> <div>19.06%</div> <div>12.57%</div> <div>13.22%</div> <div>①                      ②                      ③(정답)                      ④</div>																					

2013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G-10		문항 정보		G-가-3																	
평가 문항	10. <보기>의 ㉠, ㉡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div><div>&lt;보 기&gt;</div><div><div>○ 친구가 새 양복을 (    ㉠    ).</div><div>○ 내가 문제 낼게. (    ㉡    ) 봐.</div></div></div>																						
	㉠		㉡																				
	①	맞혔다		맞춰																			
	②	맞혔다		맞혀																			
	③	맞췄다		맞춰																			
	④	맞췄다		맞혀																			
자료 출처	어문규정집,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표준어																						
수정 사항	문항이 어려운 데다 혼란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확한 예시로 보기를 교체하고 답지를 단순화하였다.																						
정답 및 해설	<div><div>정답</div><div>④</div></div>																						
	<div>① ‘양복을 주문하다’의 의미일 때는 ‘양복을 맞추다’이고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는 의미일 때는 ‘문제를 맞히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div> <div>② ‘양복을 주문하다’의 의미일 때는 ‘양복을 맞추다’이고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는 의미일 때는 ‘문제를 맞히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div> <div>③ ‘양복을 주문하다’의 의미일 때는 ‘양복을 맞추다’이고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는 의미일 때는 ‘문제를 맞히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div> <div>④ ‘양복을 주문하다’의 의미일 때는 ‘양복을 맞추다’이고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는 의미일 때는 ‘문제를 맞히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답이다.</div>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632</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394</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9)</td><td>낮음 (~0.29)</td><td>있음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63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9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63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9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div><div>[문법] 10번 (가형/나형 공통)</div><div><div><div>3.67%</div><div>①</div></div><div><div>4.24%</div><div>②</div></div><div><div>29.28%</div><div>③</div></div><div><div>62.81%</div><div>④(정답)</div></div></div></div>																					

## 4. 성취 수준 등급화

### 4.1. 성취 수준 등급화의 목적

본 연구는 단순히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수치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어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조사 결과를 다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결과 드러난 국민의 국어능력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국어능력 조사가 특정 피조사자의 상대적인 국어능력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국어능력의 총량에 대한 절대적 판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등급화하기 위해서는 준거 참조 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에서 절대적인 능력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인 분할 점수(cut-score)를 산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예컨대,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가 80점으로 도출되었다고 할 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할 점수를 기준으로 80점이라는 수치가 읽기 능력이 우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위한 ‘원년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각 영역별 분할 점수들은 향후 다음 주기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점들은 측정학적으로 조사가 시행될 때마다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그만큼 원년 연구에서 설정하는 각 영역의 분할 점수들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 4.2. 성취 수준 등급의 설정

특정 능력의 수준을 등급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개의 등급으로 성취 수준을 분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는 ‘우수 1, 우수 2, 보통 1, 보통 2, 기초 1, 기초 2’의 여섯 등급으로 이루어진 등급 체계를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 도구가 전체 4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세분화된 등급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의 대규모 국어능력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네 단계로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각 영역별 분할 점수는 ‘우수와 보통 사이’, ‘보통과 기초 사이’, ‘기초와 기초 미달 사이’의 세 수준에서 결정된다.

### 4.3. 성취 수준 등급화 방식의 결정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4개 등급의 분할 점수를 도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은 ‘앵고프(Angoff) 방식’이다. 이 방법은 전문가 패널 집단이 각 문항에 대한 기대 정답률을 판정하여 분할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때 기대 정답률의 판정은 최소 능력자(Minimum Competency Person, MCP)가 각 점수를 획득할 확률이나 그가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를 개별 문항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Angoff(1971)는 기준 설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인원 수, 구체적인 논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앵고프 방식을 응용하여 수정된 앵고프 방법(Modified Angoff)이 다양하게 창안되었고, 선택형 문항뿐 아니라 서답형 문항(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문항 포함)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읽기, 쓰기, 문법 영역의 객관식 문항뿐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적은 수의 주관식 문항에서도 분할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항 형태에 대응할 수 있고 적은 문항으로도 상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앵고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문항의 채점 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성취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성취 수준 평가를 비롯한 여러 평가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앵고프 방법을 기준 설정의 방법론으로서 채택하였다. 이러한 앵고프 방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최소 능력자(Minimum Competency Person, MCP)에 대한 고려 : 판정에 있어 패널은 등급별로 최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지를 가정한다.
- ② 각 문항에 대한 최소 능력자의 정답 비율 추정 : 패널은 각 문항에 대하여 최소 능력자가 정답을 맞힐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록한다. 기록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패널이 설정한 가상의 최소 능력자가 해당 문항을 맞힐 확률을 예상하여 적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최소 능력자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여 이 중 몇 명이 해당 문항을 맞힐 수 있을지를 예상하여 적는 것이다.
- ③ 추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패널의 분할 점수 산출 : 기록된 비율을 모두 합한 점수가 분할 점수이다. 따라서 분할 점수를 산출했을 때, 전반적으로 쉬운 문항이 많을 경우 분할 점수가 높아지고 어려운 문항이 많을 경우 분할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분할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각 문항 및 전체 검사의 난이도를 살핀다.
- ④ 여러 명의 패널이 산출한 분할 점수의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구해 합의된 분할 점수로 상정 : 다수의 패널들이 참여하는 경우 각 패널들이 산출한 분할 점수의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구한다. 이 중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평균값이지만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 때문에 중앙값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산출한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여러 패널들이 합의한 최종 분할 점수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앵고프 방법론이 실제 적용되는 양상은 다양한 편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법론을 변형하여 적용하기도 하고<sup>27)</sup>, 판정 과정에 부수적인 절차들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특히 2003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부터 김선 외(2009), 홍소영(2011)과 같이 앵고프 방법을 활용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판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기대 정답률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거나 복수의 판정 과정과 전문가 간 토의를

27) 앵고프 방법을 변형한 방법론이 많고, 평가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변형된 방식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 실제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다.

거치도록 설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에 근거한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조사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간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분할점수 판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앵고프 방식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전문가 패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여 앵고프 절차를 구안하였다. 즉, 경험적인 자료와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집단 토의와 의견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할 점수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정 과정을 구성한 것이다.

#### 4.4. 앵고프를 통한 분할 점수 산출 과정

앵고프 방식을 통한 분할 점수 산출 과정은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진행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각 영역별 분할 점수를 산출하였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총 24명이라는 점, 이들이 평정해야 할 전체 문항의 수와 소요 시간,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두 차례로 나누어 시행한 것이다.

비고	일자	해당 영역	참여 전문가 수
1차 협의회	12월 10일(화)	말하기, 듣기, 문법	12명
2차 협의회	12월 14일(토)	읽기, 쓰기	12명

<표 137> 분할 점수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일정

##### ① 참여 전문가 패널의 선발

분할 점수의 산출 과정에 참여할 영역별 내용 전문가의 선발 시, 기본적으로 고려한 자격은 ‘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어능력 조사의 핵심 개념인 ‘국어능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 영역이 국어교육학이므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선발하였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다섯 영역 각각에 대해 분할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섯 영역의 내용 전문가들을 균등한 비율로 선발하였다. 이때 듣기와 말하기 영역은 연구의 영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4개 영역으로 전문가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 영역별로 6명씩 총 24명의 전문가를 분할 점수 도출을 위한 패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두 차례로 나누어 협의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영역별로 12명의 전문가가 해당 영역의 분할 점수 도출에 참여한 것이다. 예컨대, 2차 협의회에서는 읽기 영역의 전문가 6명과 쓰기 영역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의 분할 점수를 도출한 셈이다. 이를 통해 기준 설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영역의 국어교육 전문가를 통해 교차 판정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sup>28)</sup>.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분할 점수를 도출할 때, 전문가 패널의 개성과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특정한 성향의 전문가가 집단적으로 분할 점수 도출에 참여할 때, 해당 분할 점수의 일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국어교육의 실천가이자 연구자로서의 교사, 대학원생(박사 과정 이상), 전공 교수의 비율이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할 점수 도출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다음과 같다.

비고	영역	문항 수	전문가 집단의 구성
1차	듣기	10개	교사 2명
	말하기	3문항 × 4개 채점 요소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2명 교수 2명
	문법	10개	교사 2명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2명 교수 2명
2차	읽기	20개	교사 2명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2명 교수 2명
	쓰기	3문항 × 3개 채점 요소	교사 2명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2명 교수 2명

<표 138> 참여 전문가 구성

또한 3명씩 구성된 네 개의 소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판정과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때 소집단 편성에 있어서도 전문가 구성 비율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즉, 하나의 소집단은 교사 1명,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1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공 영역과 관련해서도 각 소집단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다른 영역의 전공자가 포함되도록 집단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읽기 전문가가 두 명 있는 소집단에는 쓰기 영역의 전문가 한 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가), (나), (다), (라)의 네 개의 소집단에 편성되었으며, 각각 (가)-1, (가)-2, (가)-3, (나)-1 ..... (라)-1, (라)-2, (라)-3과 같은 방식으로 패널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각 소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전체의 전문가들의 판정 결과를 참고하면서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28)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은 모두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이므로 국어교육 전공자라면 자신의 주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기준 설정에 참여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2> 성취 수준 등급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② 앵고프 협의회 진행

두 차례의 앵고프 협의회는 대상 영역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 진행 과정은 크게 준비 단계와 실제 분할 점수 판정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 각 전문가 패널들은 이번 연구의 전반적인 성격과 조사 방식, 조사 대상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실제 분할 점수의 산출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는다. 이에 더해, 해당 영역의 조사 도구 문항들을 검토하고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조사 도구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한다.

이러한 패널 교육을 통해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후에는,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국어능력 수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앵고프 방식은 전문가 패널이 상정하는 최소 능력 보유자의 상에 근거하여 분할 점수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각 등급에서의 최소 능력 보유자 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가적 경험과 직관에 비추어 최소 능력 보유자의 상을 설정하기에 앞서, 각 등급별 국어능력 수준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거나 서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sup>29)</sup>.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제시된 등급별 국어능력의 수준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국어능력의 수준에 대해 패널 전원이 토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등급	국어능력의 수준
우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대부분(80% 이상) 획득한 수준
보통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상당 부분(50% 이상 80% 미만) 획득한 수준
기초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20% 이상 50% 미만) 획득한 수준

<표 139> 본 연구에서 상정한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

29) 성취수준 특성 기술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성취수준의 특성만을 기술하기도 하고, 세부 평가 내용 요소별로 자세하게 성취수준 특성을 서술하거나 논의하기도 하며, 판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성취수준의 특성에 대해서만 논의 한 뒤, 결과 제시의 부분에서 등급별 성취수준의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따랐다.

실제 조사 대상 국민의 성별, 연령대, 직업군, 학력군의 분포에 대해 설명한 자료와, 위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비율을 근거로 분할한 자료<sup>30)</sup>를 중심으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어능력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문항 검토 작업이 이어졌다. 참여 전문가들이 각자 판정할 문항 전체를 직접 풀어본 후, 문항 풀이가 완료되면 문항 설계 방식, 정답, 해설과 문항 특성 정보 등이 포함된 문항 카드, 채점 기준을 제공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분할 점수 산출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명씩 4개의 소집단을 구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동일한 문항을 동시에 12번 판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러한 12명의 판정이 전체 3번의 라운드를 거치면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3번의 라운드는 <기대 정답률 판정 → 정보 피드백 → 토의 → 기대 정답률 판정 → 정보 피드백 → 토의 → 기대 정답률 판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되었다. 기대 정답률 판정은 각 개별 문항에 대해 이루어졌고, 반복된 판정 작업과 정보 피드백, 토의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sup>31)</sup>을 통해 전문가들 간의 편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 ③ 분할 점수 산출 과정

각각의 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기대 정답률 판정을 통한 분할 점수 산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 정답률의 판정은 객관식 문항(문법, 듣기, 읽기)의 경우에는 패널이 설정한 가상의 최소 능력 보유자가 해당 문항을 맞힐 확률이나, 해당 등급의 최소 능력자 100명 중 해당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예상하여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점수 도출의 편의를 위해 5의 배수 중 하나를 기대 정답률로 선택하여 적도록 하였다.

둘째,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경우에는 문항별로 설정된 ‘내용선정’, ‘조직’, ‘표현’, ‘전달’(듣기/4항목), ‘내용’, ‘조직’, ‘표현’(쓰기/3항목)의 채점 요소를 각각 하나의 문항으로 가정하고, 각 채점 요소의 배점을 100점으로 상정했을 때 가상의 최소 능력 보유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5의 배수로 판정하여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중 한 수준의 최소 능력 보유자의 상을 설정하여 모든 문항에 대해 판정하고, 나머지 각각의 수준들에서도 모든 문항에 대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판정을 진행하였다. 즉, 하나의 문항에 대해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 우수 등급을 상정한 가운데 전체 문항을 판정한 후, 이것이 끝나면 보통 등급을 상정하여 전체 문항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각 라운드의 분할 점수는 12명의 전체 패널이 판정한 기대 정답률의 중앙값으로 산출하였다. 전문가들이 한 영역의 모든 수준에 대한 판정을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판정 결과를 공개하

30) 이때의 비율은 기존의 학업 성취도 평가 및 기타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며, 기존의 경우들과서와 같이 기초 미달의 수준은 도달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준 정의는 하지 않았다.

31) 패널들 간의 합의 과정은 타협이 아니라 조사 문항과 국민들의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였다. 이렇게 산출한 전체의 중앙값과 12명 전문가의 점수 분포 자료를 제공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판정 결과와 비교하여 자신이 어떠한 판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산출된 분할 점수와 더불어 각 라운드 사이에는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예컨대,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듣기, 문법, 읽기 영역의 경우,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실제 정답률과 2차 판정 결과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등급별 피조사자의 비율과 분포도가 제공되었다. 또한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말하기, 쓰기 영역의 경우는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실제 채점 요소별 평균 점수와 채점에 적용한 오점 척도별 누적 빈도 자료와 상, 중, 하 수준에 속하는 피조사자의 실제 답안, 그리고 2라운드 결과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등급별 피조사자의 비율과 분포도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정보(기준 정보, 실질 정보, 영향 정보)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라운드의 절차 및 제공된 정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객관식 문항 (듣기, 읽기, 문법)	1라운드 → 2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전문가 집단의 1차 판정 결과의 중앙값과 분포표(기준 정보)</li> </ul>
	2라운드 → 3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전문가 집단의 2차 판정 결과의 중앙값과 분포표(기준 정보)</li> <li>■ 실제 정답률(실질 정보)</li> <li>■ 2차 판정 결과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등급별 피조사자 비율과 분포도(영향 정보)</li> </ul>
주관식 문항 (말하기, 쓰기)	1라운드 → 2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전문가 집단의 1차 판정 결과의 중앙값과 분포표(기준 정보)</li> </ul>
	2라운드 → 3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전문가 집단의 2차 판정 결과의 중앙값과 분포표(기준 정보)</li> <li>■ 문항의 채점 요소별 평균 점수와 채점에 적용한 오점 척도별 누적 빈도 자료(실질 정보)</li> <li>■ 상, 중, 하 수준에 속하는 피조사자의 실제 답안 (녹음 음성 파일 + 답안지)(실질정보)</li> <li>■ 2차 판정 결과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등급별 피조사자 비율과 분포도(영향 정보)</li> </ul>

<표 140> 라운드별 제공 정보

여섯째,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들 간의 소집단 토의가 이루어진 후 다시 기대 정답률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 번의 라운드를 거치면서 마지막 3라운드에서 패널들이 최종 판정한 기대 정답률의 중앙값을 토대로 최종 분할 점수를 산출하였다.

일곱째, 판정은 객관식 문항에서 주관식 문항 순으로, 즉, ‘듣기’와 같은 하나의 영역에서 점수 판정이 모두 끝난 뒤에 다른 영역에 대한 점수 판정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④ 영역별 분할 점수의 산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각 문항별 분할 점수에 문항별 배점을 곱한 뒤, 합산하여 각 영역별 분할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분할 점수는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를 앞서 개발한 척도 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전체 국어능력의 분할 점수들은 각 영역의 분할 점수들의 총합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최종적인 각 영역별 분할 점수는 다음과 같다.

영역	수준	분할 점수
듣기	우수	123.0
	보통	97.1
	기초	66.4
	기초미달	—
읽기	우수	242.3
	보통	173.3
	기초	106.5
	기초미달	—
문법	우수	117.8
	보통	87.4
	기초	54.0
	기초미달	—
말하기	우수	104.9
	보통	78.6
	기초	51.6
	기초미달	—
쓰기	우수	193.3
	보통	143.3
	기초	93.5
	기초미달	—
총점	우수	781.2
	보통	579.7
	기초	372.0
	기초미달	—

<표 141> 본 연구의 분할 점수 산출

#### ⑤ 분할 점수 평정 결과의 신뢰도 분석

이러한 평정 결과가 12명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통해 해당 분할 점수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로 분할 점수 평균의 범위가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역	수준	Round 1			Round 2			Round 3		
		최소	최대	범위	최소	최대	범위	최소	최대	범위
듣기 (10문항 평균)	우수	62.5	92.5	30.0	71.5	90.5	19.0	73.5	90.0	16.5
	보통	44.5	80.0	35.5	51.5	76.0	24.5	55.5	75.5	20.0
	기초	27.5	65.5	38.0	34.0	56.5	22.5	38.0	54.0	16.0
읽기 (20문항 평균)	우수	61.3	93.3	34.0	71.3	85.5	14.5	71.5	85.3	13.5
	보통	35.0	75.8	39.5	45.3	63.3	18.5	50.0	63.0	12.0
	기초	11.0	66.0	55.0	22.8	39.8	17.5	26.3	45.3	18.0
문법 (10문항 평균)	우수	57.5	89.5	32.0	65.0	86.5	21.5	67.5	85.5	18.0
	보통	38.5	73.5	35.0	45.5	68.5	23.0	46.0	67.5	21.5
	기초	19.0	56.5	37.5	22.5	48.5	26.0	25.5	45.0	19.5
말하기 (12개 채점 요소 평균)	우수	66.3	87.9	21.7	57.1	82.9	25.8	56.7	82.5	25.8
	보통	51.3	72.1	20.8	35.0	66.3	31.3	41.7	62.1	20.4
	기초	24.6	53.8	29.2	15.0	46.3	31.3	27.1	43.8	16.7
쓰기 (9개 채점 요소 평균)	우수	68.1	93.3	25.4	70.1	86.1	16.0	63.7	83.5	19.9
	보통	47.0	74.6	27.5	49.5	68.8	19.4	42.0	66.8	24.7
	기초	19.1	62.1	43.0	28.8	50.5	21.8	25.1	44.0	18.8

<표 142> 영역별 분할 점수 범위의 변화 과정

전체적으로, round 1에서 round 3으로 갈수록 1평정 결과의 영역별 범위 평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ound 1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평정 결과가 차이가 컸으나, round 3에서는 전문가 간 일치도가 높아졌다.

듣기 영역에서는 범위 평균이 각 라운드에서 우수 수준에서는 30.0, 19.0, 16.5로 줄어들었고, 보통 수준에서는 35.5, 24.5, 20.0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초 수준에서는 38.0, 22.5, 16.0으로 줄어들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범위 평균이 각 라운드에서 우수 수준에서는 34.0, 14.5, 13.5로 줄어들었고, 보통 수준에서는 39.5, 18.5, 12.0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초 수준에서는 55.0, 17.5, 18.0으로 줄어들었다. 문법 영역에서는 범위 평균이 각 라운드에서 우수 수준에서는 32.0, 21.5, 18.0로 줄어들었고, 보통 수준에서는 35.0, 23.0, 21.5로 줄어들었으며, 기초 수준에서는 37.5, 26.0, 19.5로 줄어들었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범위 평균이 각 라운드에서 우수 수준에서는 21.7, 25.8, 25.8로 줄어들었고, 보통 수준에서는 20.8, 31.3, 20.4로 2라운드에서 다소 범위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으며, 기초 수준에서는 29.2, 31.3, 16.7로 2라운드에서 다소 범위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 쓰기 영역에서는 범위 평균이 각 라운드에서 우수 수준에서는 25.4, 16.0, 19.9로 2라운드에서 크게 줄어들었다가 3라운드에서 조금 더 커졌고, 보통 수준에서는 27.5, 19.4, 24.7로 2라운드에서 크게 줄어들었다가 3라운드에서 커졌다. 그러나 1라운드에 비해서는 3라운드에서 범위 범위가 더 작았음. 기초 수준에서는 43.0, 21.8, 18.8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분할 점수 도출 과정은 12명 전문가 집단의 일치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도출된 분할 점수에 대해 신뢰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 5.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

### 5.1. 전체 국어능력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동등 집단 공통 문항 설계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이원화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을 조사하였다. 다시 말해, ‘가’ 형 조사 도구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문법 영역을, ‘나’ 형 조사 도구에서는 쓰기, 읽기, 문법 영역을 배치하되 읽기 영역의 6개 문항과 문법 영역의 10개 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설정하여 조사 도구를 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개별 피조사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참여 피로도가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물론, 모든 피조사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게 하는 조사 방식에 비해 조사 결과 분석의 정합성이 낮은 면이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개별 피조사자의 상대적인 국어능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조사 대상 집단의 평균적인 국어능력에 대한 분석에 있다는 점에서 조사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두 조사 도구 간의 공통 문항을 통한 동등화를 시행하여 보다 정합적인 방식으로 조사 대상 집단별 국어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조사 설계 방식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항 반응 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두 조사 도구를 통해 조사된 개별 피조사자들의 전체 국어능력 점수를 추정하였다. 이때, 각 영역별로 피조사자들의 응답(반응) 방식이 이분 반응 자료와 등급 반응 자료로 다르기 때문에 이분 반응 모형(객관식 영역)과 등급 반응 모형(주관식 영역)이 혼합된 모형을 활용하여 피조사자들의 능력 모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척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척도 점수 산출 과정과 마찬가지로 능력 모수를 원 점수의 총점과 같은 평균과 표준 편차 분포를 지니도록 선형 변환을 실시하여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척도 변환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조사 도구의 설계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을 모두 응답한 피조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원 점수에 대한 총점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 영역별 척도 변환 점수의 평균에 대한 합산으로 전체 국어능력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또한, 표준 편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 형과 ‘나’ 형의 공통 문항으로 설정된 16개 문항(읽기 영역 6개, 문법 영역 10개)의 원 점수 총점의 표준 편차에서 전체 영역 총점에 대한 공통 문항 총점의 비를 곱한 값을 산출하였다. 즉, 공통 문항 16개 문항에 대한 표준 편차를 전체 문항에 대한 표준 편차로 확장하여 산출한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분포를 따르는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척도 변환 점수를 계산한 후, 절삭(trunc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척도 변환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산출한 척도 변환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국어능력(총점) 및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1,000점 만점의

32) 더 엄밀한 방식은 총점의 표준 편차를 산출하거나 각 영역별 표준 편차들을 합산하여 전체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2,916명의 피조사자가 모든 영역의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의 방식으로 전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대체한 것이다. 이때 본 연구의 조사 도구 설계 시 공통 문항은 읽기와 문법 영역의 대표성을 띠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 문항의 표준 편차를 통한 전체 문항의 표준 편차 산출의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국어능력에 대한 조사 도구에서 579.62점의 평균 점수(척도 변환 점수 기준)가 산출된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 수
듣기 영역	108.88	29.12	11.00	150.00	1,416
읽기 영역	190.66	61.81	15.17	300.00	2,916
문법 영역	88.14	28.87	0.00	149.08	2,916
말하기 영역	69.79	19.08	0.00	120.87	1,416
쓰기 영역	122.07	37.49	0.00	256.00	1,500
<b>총점</b>	<b>579.62</b>	<b>165.38</b>	<b>0.00</b>	<b>1000.00</b>	<b>2,916</b>

<표 143> 각 영역별 및 전체 국어능력의 척도 변환 점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척도 변환 점수와 각 영역별 척도 변환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데, 전체 국어능력 점수와 각 영역별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듣기 영역 0.659, 읽기 영역 0.843, 문법 영역 0.576, 말하기 영역 0.479, 쓰기 영역 0.582로 분석되어 각 영역과 전체 국어능력 점수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방식을 통한 전체 국어능력 점수의 산출이 각 영역별 점수와 상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출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듣기 영역	읽기 영역	문법 영역	말하기 영역	쓰기 영역	전체
듣기 영역	1	.540	.348	.107	—	.659
읽기 영역	.540	1	.421	.143	.194	.843
문법 영역	.348	.421	1	.153	.208	.576
말하기 영역	.107	.143	.153	1	—	.479
쓰기 영역	—	.194	.208	—	1	.582
전체	.659	.843	.576	.479	.582	1

<표 144> 각 영역별 및 전체 국어능력의 척도 변환 점수 상관관계

이상의 방식으로 산출한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점수 분포를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앵고프 방식으로 분할한 성취 수준 등급으로 나눈 결과<sup>33)</sup>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국어능력의 평균이 579.62점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전체 국어능력은 평균적으로 ‘보통 등급과 기초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 등급별로 분포 비율을 따져 보면, 우수 등급이 347명(11.9%), 보통 등급이 975명(33.4%), 기초 등급이 1,338명(45.9%), 기초 미달 등급이 256명(8.8%)으로 산출되어, 보통 수준 이상의 국어능력을 지닌 국민이 전체의 45.3%(11.9% + 33.4%)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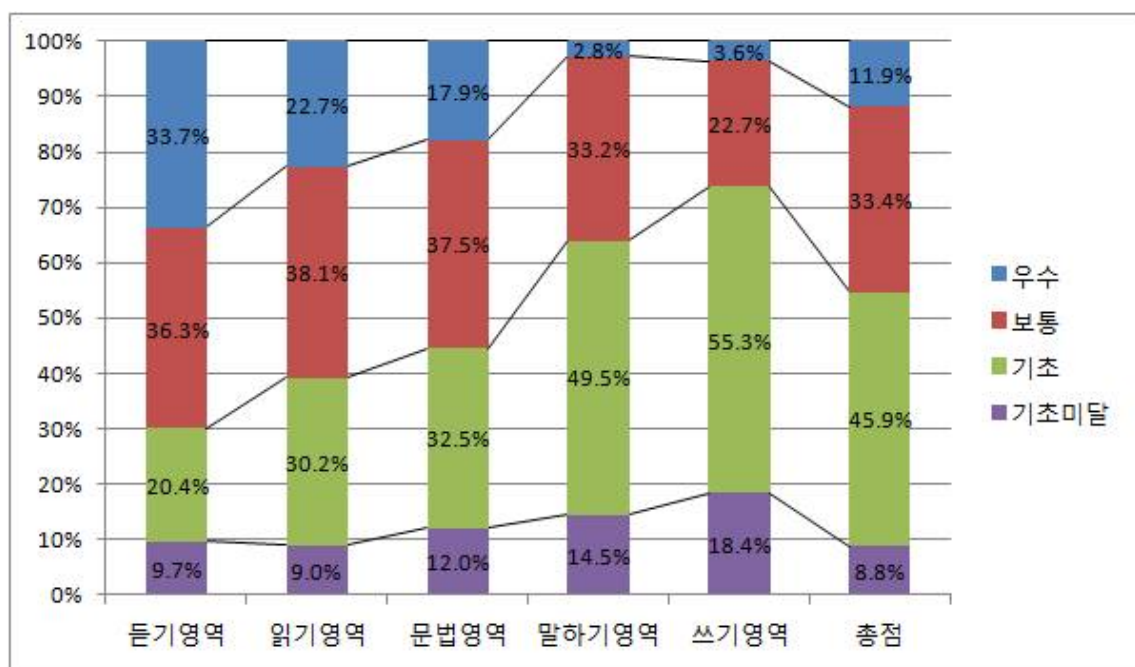
33) 앵고프 방식에 의한 분할 점수의 산출은 각 영역별로 진행되나,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분할 점수는 각 영역의 분할 점수에 대한 합산으로 산출된다.



영역	수준	분할 점수	인원(명)	비율
전체 국어능력	우수	781.2	347	11.9%
	보통	579.7	975	33.4%
	기초	372.0	1338	45.9%
	기초 미달		256	8.8%
계			2,9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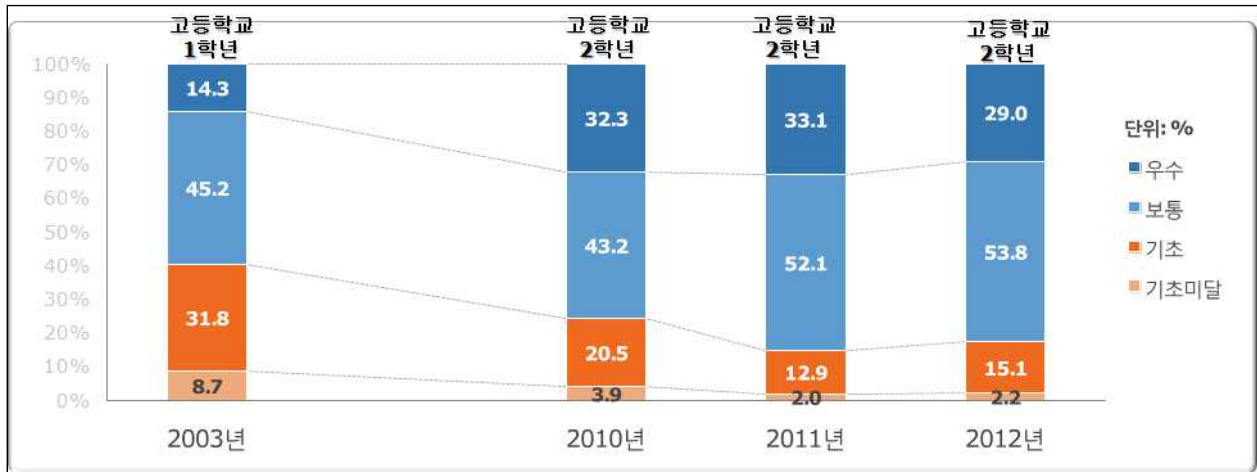
<표 145> 전체 국어능력의 수준 등급별 분포

이러한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수준 등급별 분포 비율을 각 영역별 수준 등급별 분포 비율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기초 및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들의 말하기,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각 영역별 및 총점의 수준 등급별 분포

일반 국민의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수준 등급별 분포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등급(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은 우수(11.9%), 보통(33.4%), 기초(45.9%), 기초 미달(8.8%)의 보인다는 점에서 200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2003년 조사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처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는 우수(29%), 보통(53.8%), 기초(15.1%), 기초 미달(2.2%)의 비율로 국어능력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도 2013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4> 고등학교 학생의 국어능력 수준 변화 추이(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본 연구에서 상정한 5개의 변인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면, 평균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0점 정도 높았지만 유의도<sup>34)</sup>가 0.099로 산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T	유의도
	남(1,481명)	여(1,436명)		
국어능력	574.65점(166.04)	584.75점(164.61)	-1.650	.099

<표 146> 전체 국어능력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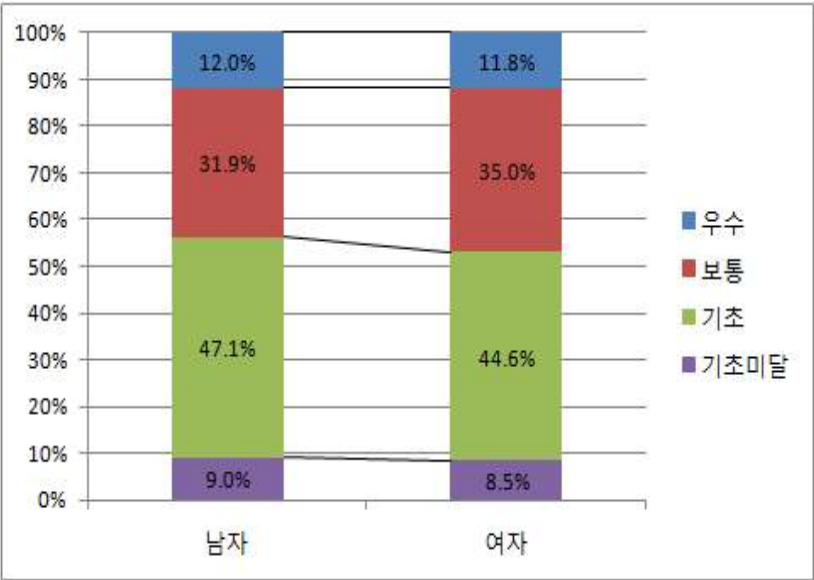
이러한 성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체화하여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우수 12.0%, 보통 31.9%, 기초 47.1%, 기초 미달 9.0%로 나뉘고, 여성의 경우 우수 11.8%, 보통 35.0%, 기초 44.6%, 기초 미달 8.5%로 나뉘어 남성보다 여성이 보통 이상의 등급에 많이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수준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국어 능력	우수	177	12.0%	170	11.8%	347	11.9%
	보통	472	31.9%	503	35.0%	975	33.4%
	기초	698	47.1%	641	44.6%	1,339	45.9%
	기초미달	134	9.0%	122	8.5%	256	8.8%
	계	1,481	100.0%	1,436	100.0%	2,917	100.0%

<표 147>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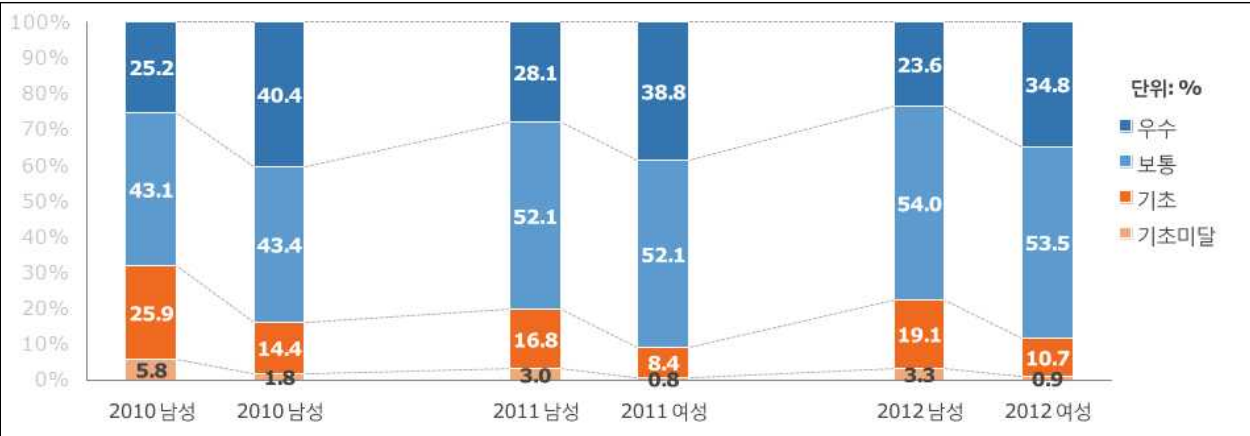
34) 일반적으로, 0.05를 기준으로 유의도가 이 수치보다 작을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국어능력 수준의 성별 분포 차이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초와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언어능력이 뛰어나다는 보고와 일치되는 결과로, 정규 교육에서의 성별에 따른 국어능력의 차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유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16> 고등학생의 국어능력 수준의 성별 차이(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로 전체 국어능력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40대가 50대에 비해 국어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 도	사후비교 (Turkey HSD)
	20대 (610명)	30대 (759명)	40대 (823명)	50대 (724명)			
국어 능력	600.76 (173.82)	598.80 (164.58)	572.98 (166.77)	549.27 (151.90)	15.525	.000	20대>40대 20대>50대 30대>40대 30대>50대 40대>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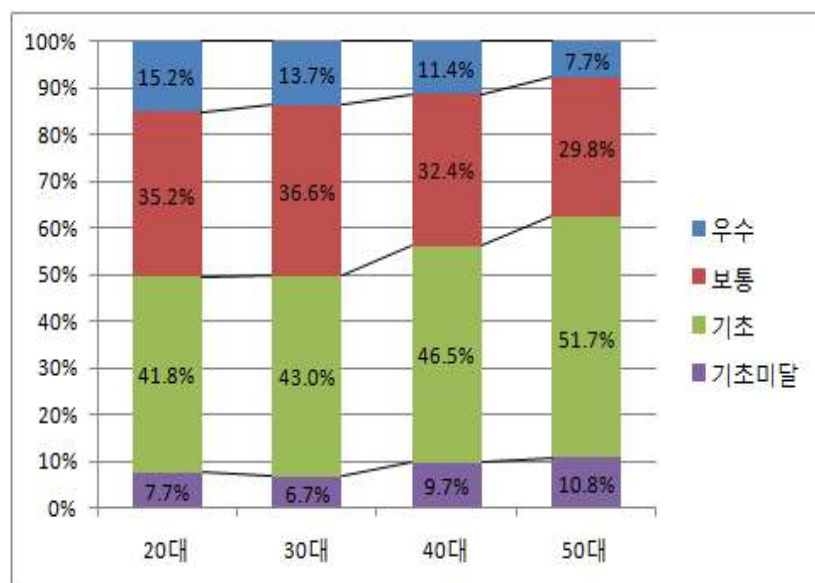
<표 148> 전체 국어능력의 연령대별 차이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20대의 경우 우수 15.2%, 보통 35.2%, 기초 41.8%, 기초 미달 7.7%로 나뉘고, 30대의 경우 우수 13.7%, 보통 36.6%, 기초 43.0%, 기초 미달 6.7%, 40대의 경우 우수 11.4%, 보통 32.4%, 기초 46.5%, 기초 미달 9.7%, 50대의 경우 우수 7.7%, 보통 29.8%, 기초 51.7%, 기초 미달 10.8%로 나뉜다.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우수	93	15.2%	104	13.7%	94	11.4%	56	7.7%	347	11.9%
보통	215	35.2%	278	36.6%	267	32.4%	216	29.8%	976	33.4%
기초	255	41.8%	327	43.0%	383	46.5%	374	51.7%	1,339	45.9%
기초 미달	47	7.7%	51	6.7%	80	9.7%	78	10.8%	256	8.8%
계	610	100.0%	760	100.0%	824	100.0%	724	100.0%	2,918	100.0%

<표 149>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역 규모별로 전체 국어능력의 조사 결과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도시가 중소 도시에 비해 국어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대도시 (1361명)	중소 도시 (1083명)	읍면 지역 (472명)			
국어 능력	593.37 (171.14)	563.54 (158.46)	576.87 (160.86)	9.946	.000	대도시>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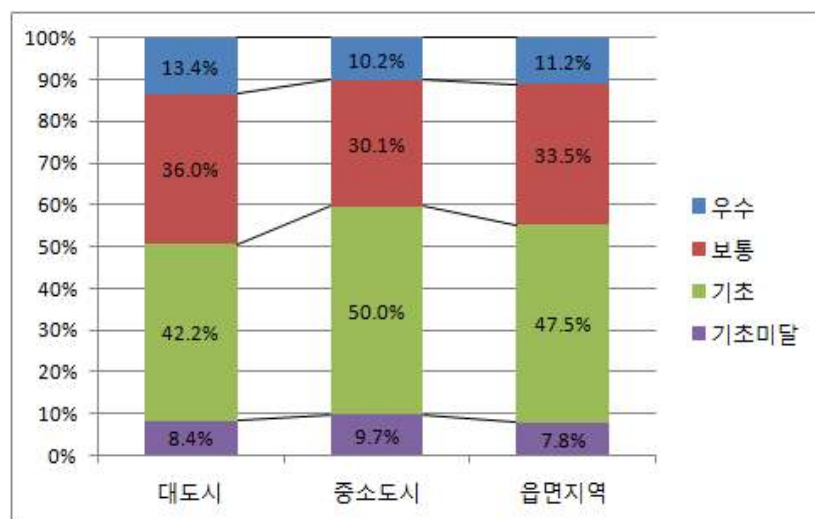
<표 150> 전체 국어능력의 지역 규모별 차이

이러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우수 13.4%, 보통 36.0%, 기초 42.2%, 기초 미달 8.4%, 중소 도시의 경우 우수 10.2%, 보통 30.1%, 기초 50.0%, 기초 미달 9.7%, 읍면 지역의 경우 우수 11.2%, 보통 33.5%, 기초 47.5%, 기초 미달 7.8%의 분포를 보인다.

영역	수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명	%	명	%	명	%	명	%
국어 능력	우수	183	13.4%	110	10.2%	53	11.2%	346	11.9%
	보통	490	36.0%	326	30.1%	158	33.5%	974	33.4%
	기초	574	42.2%	541	50.0%	224	47.5%	1,339	45.9%
	기초미달	114	8.4%	105	9.7%	37	7.8%	256	8.8%
	계	1,361	100.0%	1,082	100.0%	472	100.0%	2,9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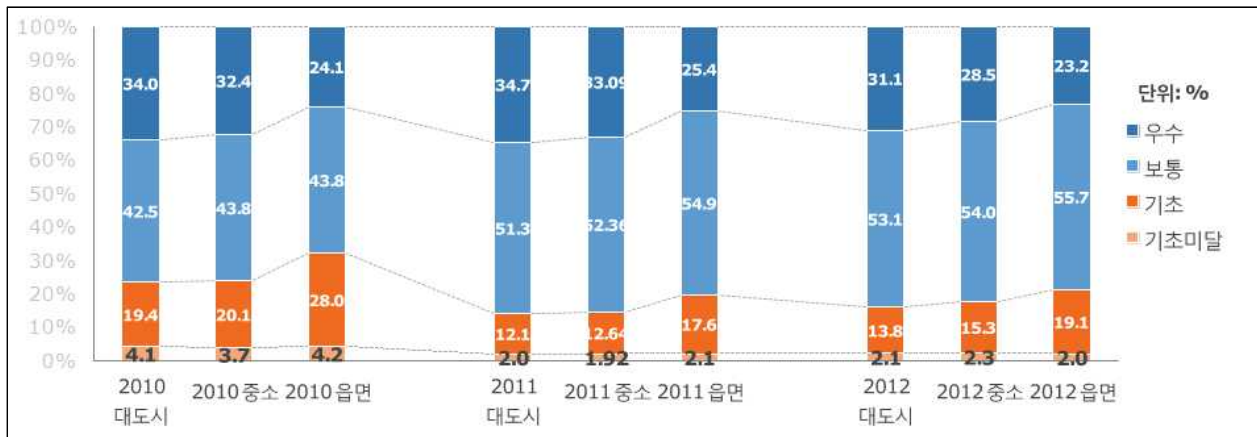
<표 151>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국어능력 수준의 지역 규모별 분포 차이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초와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읍면 지역>중소 도시>대도시의 순으로 높음에 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소 도시>읍면 지역>대도시의 순으로 기초와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높다. 향후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19> 고등학생의 국어능력 수준의 지역 규모별 차이(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다음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별로 전체 국어능력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국어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직업군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집단 안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정신노동 (817명)	육체노동 (1161명)	기타 (938명)			
국어 능력	603.91 (171.29)	555.59 (151.46)	588.21 (172.73)	22.657	.000	정신>육체 기타>육체

<표 152> 전체 국어능력의 직업군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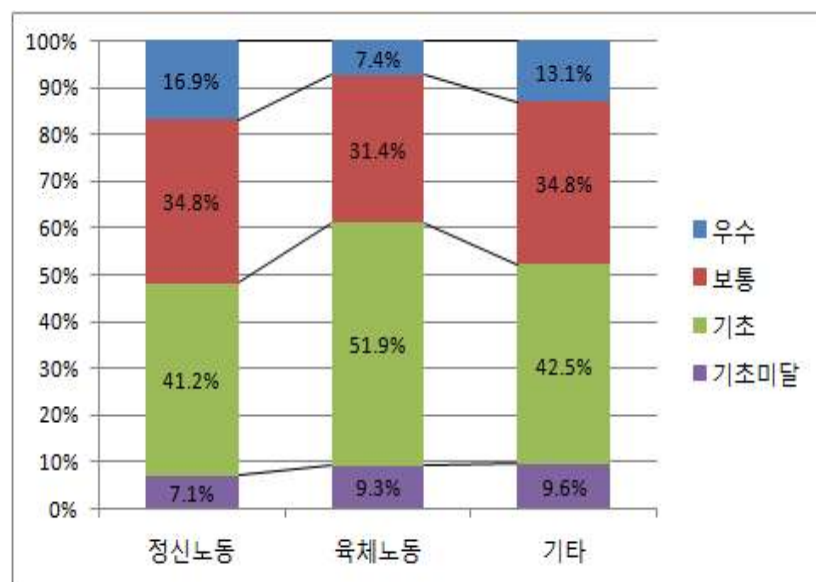
이러한 직업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정신노동의 경우 우수 16.9%, 보통 34.8%, 기초 41.2%, 기초 미달 7.1%, 육체노동의 경우 우수 7.4%, 보통 31.4%, 기초 51.9%, 기초 미달 9.3%, 기타의 경우 우수 13.1%, 보통 34.8%, 기초 42.5%, 기초 미달 9.6%의 분포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국어 능력	우수	138	16.9%	86	7.4%	123	13.1%	347	11.9%
	보통	284	34.8%	365	31.4%	326	34.8%	975	33.4%
	기초	336	41.2%	603	51.9%	399	42.5%	1,338	45.9%
	기초미달	58	7.1%	108	9.3%	90	9.6%	256	8.8%
	계	816	100.0%	1,162	100.0%	938	100.0%	2,916	100.0%

<표 153>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학력군별로 전체 국어능력의 조사 결과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국어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 도	사후비교 (Turkey HSD)
	중졸 이하 (324명)	고졸 (1002명)	대재 이상 (1590명)			
국어 능력	538.55 160.99	559.55 154.88	600.65 169.58	30.842	.000	대재>중졸 대재>고졸

<표 154> 전체 국어능력의 학력군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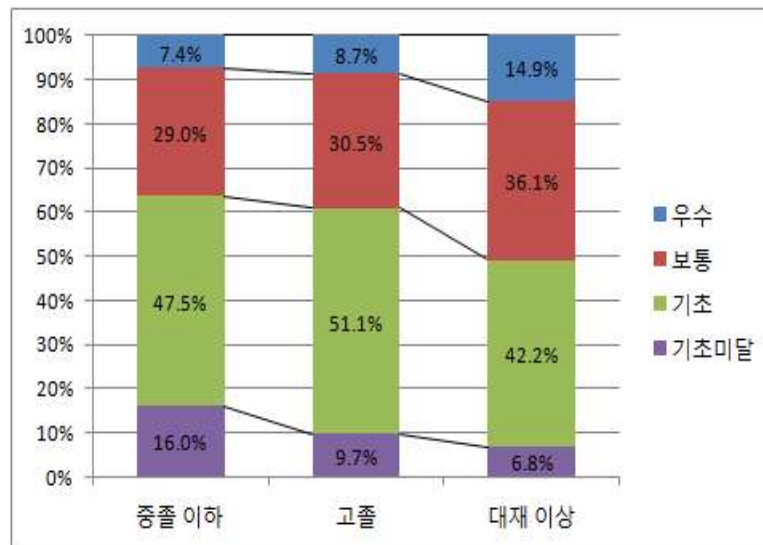
이러한 학력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집단은 우수 7.4%, 보통 29.0%, 기초 47.5%, 기초 미달 16.0%, 고졸 집단은 우수 8.7%, 보통 30.5%,

기초 51.1%, 기초 미달 9.7%, 대재 이상 집단은 우수 14.9%, 보통 36.1%, 기초 42.2%, 기초 미달 6.8%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국어 능력	우수	24	7.4%	87	8.7%	236	14.9%	347	11.9%
	보통	94	29.0%	306	30.5%	574	36.1%	974	33.4%
	기초	154	47.5%	513	51.1%	671	42.2%	1,338	45.9%
	기초미달	52	16.0%	97	9.7%	108	6.8%	257	8.8%
	계	324	100.0%	1,003	100.0%	1,589	100.0%	2,916	100.0%

<표 155>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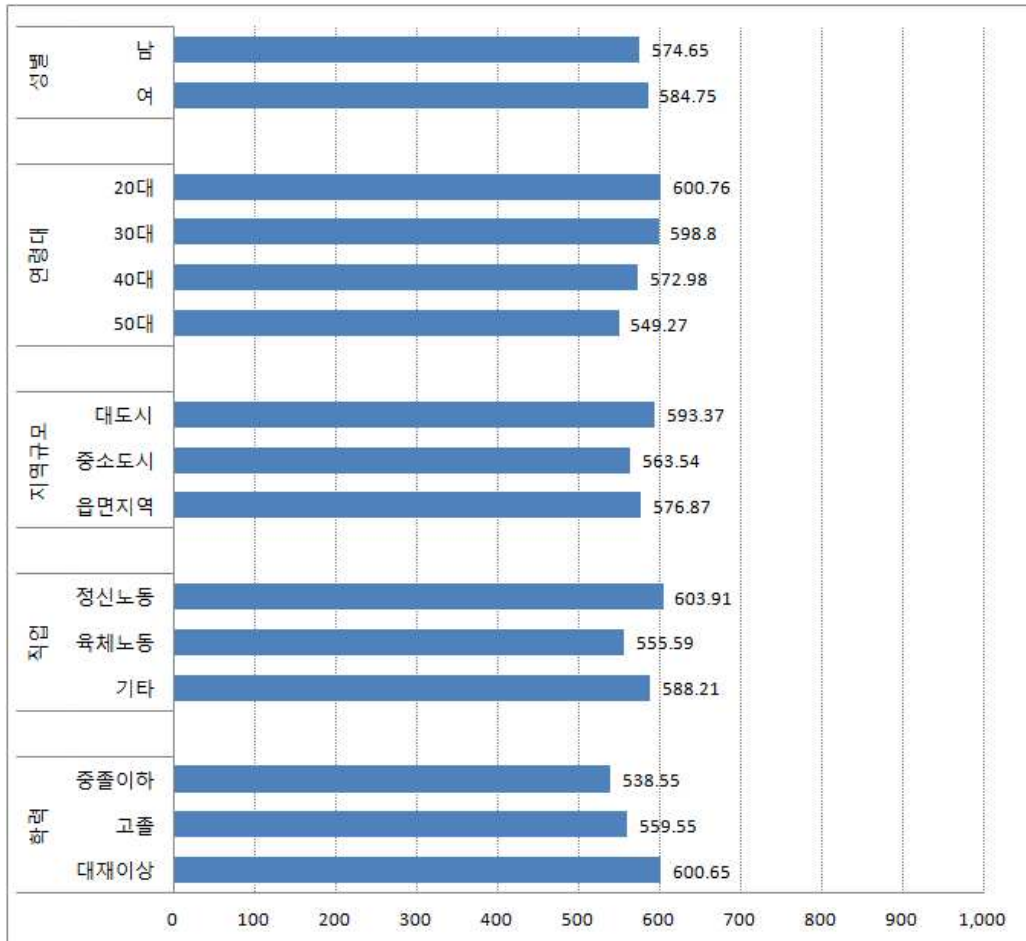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국어능력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국어능력의 변인별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국어능력의 변인별 평균 차이

## 5.2. 영역별 결과 분석

전체 국어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에 이어, 여기에서는 각 영역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전체 국어능력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평균 점수 → 등급화 결과 → 성별 차이 → 성별 등급화 결과 →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별 등급화 결과 → 지역 규모별 상관관계 → 지역 규모별 등급화 결과 → 직업군별 차이 → 직업군별 등급화 결과 → 학력군별 차이 → 학력군별 등급화 결과’의 순서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조사 결과는 전술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전제로 분석되었다.

첫째, 평균 점수는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변환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둘째, 변인별 차이 및 등급화에 대한 분석은, 지역별 분포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례 수가 실제 피조사자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 ①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의 평균 점수는 69.79점(150점 만점)이었으며, 최솟값 0점, 최댓값 120.87점을 보였다. 표준 편차는 19.08이었으며, 조사 도구 ‘가’ 형의 결측치 84명을 제외한 실제 분석 대상은 1416명이었다. 말하기 영역의 평균 점수인 69.79점은 수준 등급으로는 기초 등급에 해당되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말하기 능력이 기초 등급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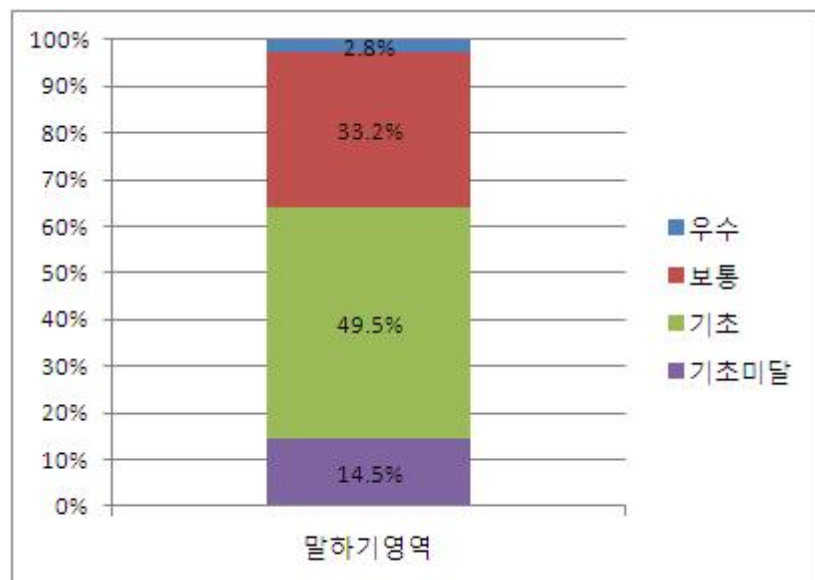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 수
말하기 영역	69.79	19.08	0.00	120.87	1,416

<표 156> 말하기 영역의 기술 통계

말하기 영역의 점수 분포를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앵고프 방식으로 분할한 수준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우수 등급이 40명(2.8%), 보통 등급이 470명(33.2%), 기초 등급이 702명(49.5%), 기초 미달 등급이 205명(14.5%)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말하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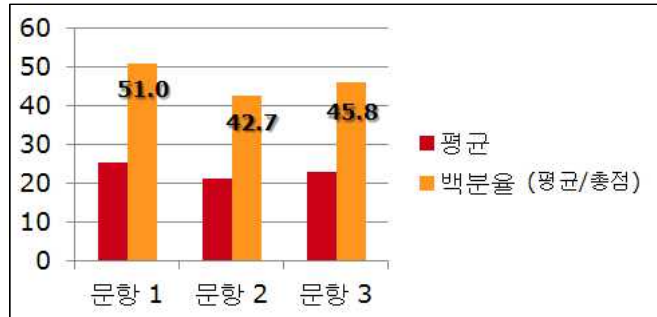
영역	수준	분할 점수	인원(명)	비율
말하기	우수	104.9	40	2.8%
	보통	78.6	470	33.2%
	기초	51.6	702	49.5%
	기초미달		205	14.5%
계			1,417	100%

<표 157> 말하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그림 23> 말하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또한, 말하기 영역에서 조사하였던 3개 문항에 대해, 원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비교해 보면, 특히 2번 문항의 백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국민들이 설명하는 말하기를 설득하는 말하기(문항 1: 요청, 문항 3: 주장)에 비해 어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말하기 영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

여기에서는 각 문항별로 평가 점수가 상, 중, 하로 분류된 피조사자의 답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이나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말하기를 요구한 1번 문항에 대한, 피조사자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두 전사본은 각각 ‘내용 선정, 조직, 전달’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말하기 답안과 ‘표현’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말하기 답안이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상(내용선정, 조직, 전달)		542-1번		김 익 겹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남자	40대	사무 종사자	대학교 졸업	
<p>현재 제가 구청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매장 앞에 2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차량들 때문에 지금 온건데. 이게 한 쪽 길로만 지금 통행을 합니다. 그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에 상당히 끼이고↗ 끼이다 보면 막 경적 소리 울려대고. 막 이러다 보면 애들도 울고 그러다 보면 막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리고 또 보행자들도 다니는 길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근데. 이게 단속이라는게 많이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 차량이 없어질텐데↗ 단속도 아~주 가끔 나오고... 뭐 나와서도 대중 지나가기만 하고. 뭐 견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점점점점 더 많아지고~ 어.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숨 한 번 들이 마쉬고) 그러니까는 그 구청에서도.. 뭐 시간이 뭐 이쪽 구역만 단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수시로 나와서 단속하고 그러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불법 차량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온건데~ 암튼 고 점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p>					

평가		파일번호		이름	
상(표현)		103-1		한상엽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남자	40대	사무 종사자	대학교 졸업	

예 수고하십니다. 요 앞에 그... 공원길을 지나쳐 왔는데요↗. .. 거기가~ 편도 2차선 도론데~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한 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그.. 구청 측에서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물론... 구청에서도~ 그렇게 일손이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금방 그렇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또 민원인들이 대개~ 아니 거기 주차한 차량들이 대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없. 없. 없지 않으시리라고 보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제도를 개선해주셔야~ 아. 어.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해서 좀 부탁을 드리봅니다.

다음의 두 개 예시 답안은 1번 문항에서 각각, 중간 정도의 점수와 낮은 점수를 받았던 답안들을 전사한 자료이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중		506-1		정인숙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여자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
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어.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하는 일꾼들을 더 사용하여서. 지저분한 것을 처리를 해주셔야 별레나.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어. 주민들이 밝고,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하		244-1		박성희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남자	40대	서비스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
예.. 정리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특정 청자를 가정하여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대처 방법’이나 ‘낮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같이 가자고 할 때 대처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는 말하기 능력을 조사한 2번 문항에 대한 피조사자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두 전사본은 각각 ‘내용 선정, 조직, 전달’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말하기 답안과 ‘표현’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말하기 답안이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상(내용 선정, 조직, 전달)		1765-2		정춘구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기	남자	50대	사무 종사자	중학교 졸업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올 때나... 수원 갔다가 집에 올 때... 이럴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은 길로 다녀야 되고~ 혹시 낯선 사람이 와서 뭐 맛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뭐 맛있는 걸 사줄테니 같이 가자라던.. 가자거나↗ 아니면 길을 잘 몰라서 그러니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 을 같이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 음..... 그 사람이 얼굴 인상이 아무리 좋고, 거.. 음. 착해보이고↗ 그.. 뭐.. 약한 여자.. 여자이더라도 .. 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거지.... 어.. 나쁜 사람이. 얼굴에.. 나쁜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는 없거든... 나쁜 짓을 할러그러... 할러 그래도 음.. 좋은 얼굴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와서 얘기를 하지, 절대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얼굴 표정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와서.... 음... 얘기.. 웃으면서 와서.. 그..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길로 다니는게 좋아. 그리고 항상..음.. 뭐 핸드.. 그 휴대폰이나 뭐 그 부모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거야.

평가		파일번호		이름	
상(표현)		2487-2		한길연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전북	여자	40대	무직/퇴직/기타	대학교 졸업	
<p>어 학교에서 오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어. 친절하게 말을 걸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줄게~ 들어봐. 낯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 뭐.. 젊은 아저씨일 수도 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 근데 젊은.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힘이 세지~. 힘이 센데 너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또는 너에게 친절을 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같이 차에서 뭘 꺼내 오자고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해. 너보다 힘이 센데 도와달라고 하는거잖아 지금.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뭐 어려운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른이고. 나보다 힘이 센 어른인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말고. 집으로 와야. 오거나↗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젊은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어. 근데 젊은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침을 삼킴). 이제 젊은 아줌마는 대. 대부분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젊은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뭐. 뭔가 좀 나한테 뭘..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해. 근데 그런거 외에 뭐 이제. 얘기. 얘기를 데리고 있는 아줌마라던가 또는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어. 아줌마일 수도 있어. 근데 얘기를 데리고 있는 아줌마나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하면서 그.. 그걸 그냥.. 무심코 생각하면서 네~ 하고 따라갈 수도 있어. 또 강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젊은 아줌마의 흉내를 내며) 어~ 이 강아지 너무 예쁘지? 같이 강아지랑 놀자”하면서 따라가자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도 특히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요즘에는 나이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어. 이 애들을 납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애네들을 어. 어떻게 하면 납치해갈까 생각해서.. 젊은 아줌마나↗ 또는 나이. 약간. 있는 아줌마들이 얘기를 데리고 다니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거나 하면서 애들을 데려갈 수.. 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 또는 엄마나. 내 가족 외에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서 나랑 같이 가자~ 뭐 줄게~ 같이 가자라고 하면은 대꾸도 하지 말고 집으로 와야 해. 알았지? 알았지?</p>					

다음의 두 개 예시 답안은 2번 문항에서 각각, 중간 정도의 점수와 낮은 점수를 받았던 답안들을 전사한 것이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중		61-2		이은희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여자	30대	사무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	
<p>다음아. 음.. 낯선 사람이 쫓아올 때는.. 절대 따라가면 안돼. 왜냐면..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르고~ 어?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쫓아가지 말라고.. 낯선 사람들은 또 혹시.. 음.. 이. 이모가 뭐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낯선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어~ 뭐 이렇게 돈.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뭐 물건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돼. 그거는. 알았지? 그거는 엄마가. 엄마가 얘기했을거야 아마~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이모도 당부하니까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알았지?</p>					

평가		파일번호		이름	
하		241-2		박은미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여자	30대	주부	고등학교 졸업	
걱정하지 말고 긴급 버튼 누르면 되고,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끝으로, 3번 문항에서는 ‘정년연장법’이라는 특정 논제에 대해 자신의 찬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조사자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세 전사본은 각각 모든 평가 요소에서 상, 중, 하의 점수를 받은 예시 답안들이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상		485-3		이민호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남자	30대	사무 종사자	대학교 졸업	
<p>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청년들이 그 취직할 자리를 그 노령자들이 계속해서 눌러 앉아서. 더 이상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까지 이야기 될 만큼 중요한 이슈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청년 일자리 고령자 일자리가 대체 관계에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숨을 한 번 들이 마시고) 무슨 말이나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지금 고령자들이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고↗ 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이.. 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 이쪽을 선호하고 고령자들이 주로 있는 기업을 보면. 영세기업, 중소기업. 기능.직에 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놓고 본다면. 고령자가 안 나가면↗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 이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전체나 국민들이 놓고 본다면↗ 직종과 업종과 산업이 다르다는 것이죠. (침을 삼키고) 즉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정년 연장된다고 해서 청년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p>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구요. 또 하나는 고령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거기서 숙련된 경험으로 살림. 숙련된.. 경험을. 살림으로써 생산량에 산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전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어. 분명히 생각하구요.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상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 저의 생각입니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중		45-3		차중원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남자	40대	사무 종사자	대학교 졸업	
어..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어.. 대상자들이 보통 인제.. 가장으로서 지출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고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거에 대해서 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 젊은 층의 새로운 직장 진출 기회가 제한된다 줄어든다고 하시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사항은 사실은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나이 든 사람은 연장이 되고.. 젊은 사람도 취업이 가능할 수 있게.. 저.. 정책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파일번호		이름	
하		323-3		마순호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서울	남자	50대	단순 노무 종사자	중학교 졸업	
찬성이요. 요즘에는 60이어도.. 옛날 40대하고 똑같은디 노는 것도 환장할 일 아니여 이거.. 찬성!					

이상의 문항별 분석에 이어 말하기 영역의 변인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말하기 영역의 조사 결과를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면, 유의도가 0.003로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일정 정도 우수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평균(표준편차)		T	유의도
	남(714명)	여(702명)		
말하기 영역	68.31점(19.52)	71.30점(18.52)	-2.955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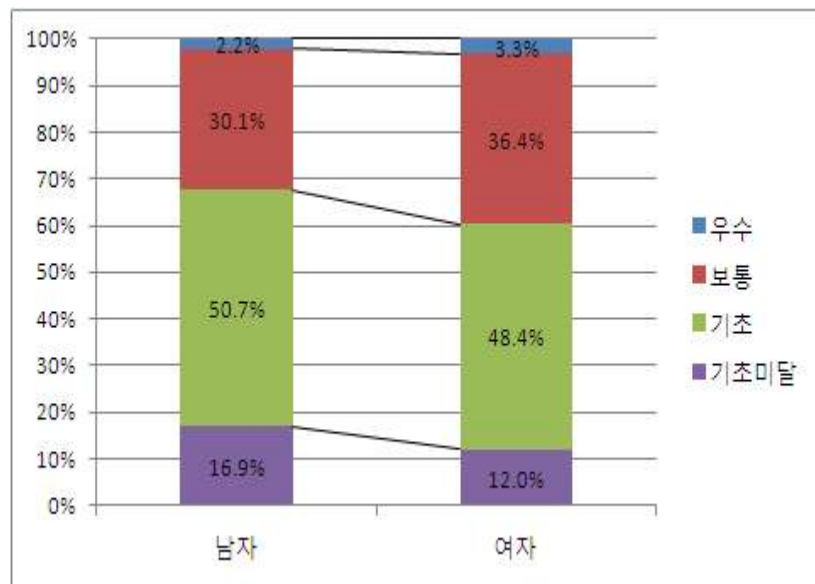
<표 158> 말하기 영역의 성별 차이

이러한 성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우수 2.2%, 보통 30.1%, 기초 50.7%, 기초 미달 16.9%로 나뉘고, 여성의 경우 우수 3.3%, 보통 36.4%, 기초 48.4%, 기초 미달 12.0%로 나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통 이상의 등급에 많이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수준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말하기	우수	16	2.2%	23	3.3%	39	2.8%
	보통	215	30.1%	255	36.4%	470	33.2%
	기초	362	50.7%	339	48.4%	701	49.5%
	기초미달	121	16.9%	84	12.0%	205	14.5%
	계	714	100.0%	701	100.0%	1415	100.0%

<표 159>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로 말하기 영역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30대가 50대보다 말하기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20대 (296명)	30대 (365명)	40대 (403명)	50대 (353명)			
말하기 영역	69.57 (17.31)	73.06 (18.02)	69.74 (20.16)	66.67 (19.83)	6.805	.000	30대>50대

<표 160> 말하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20대의 경우 우수 1.7%,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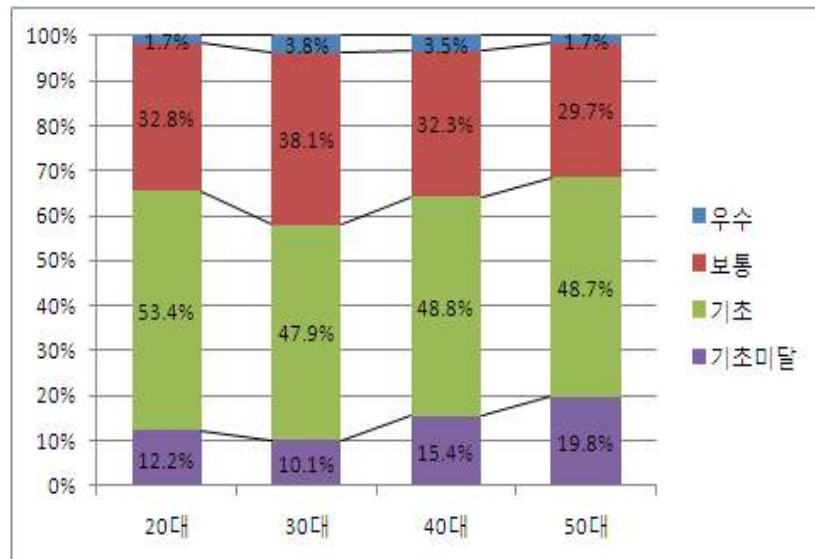


32.8%, 기초 53.4%, 기초 미달 12.2%로 나뉘고, 30대의 경우 우수 3.8%, 보통 38.1%, 기초 47.9%, 기초 미달 10.1%, 40대의 경우 우수 3.5%, 보통 32.3%, 기초 48.8%, 기초 미달 15.4%, 50대의 경우 우수 1.7%, 보통 29.7%, 기초 48.7%, 기초 미달 19.8%로 나뉜다.

영역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말하기	우수	5	1.7%	14	3.8%	14	3.5%	6	1.7%	39	2.8%
	보통	97	32.8%	139	38.1%	130	32.3%	105	29.7%	471	33.3%
	기초	158	53.4%	175	47.9%	196	48.8%	172	48.7%	701	49.5%
	기초 미달	36	12.2%	37	10.1%	62	15.4%	70	19.8%	205	14.5%
	계	296	100.0%	365	100.0%	402	100.0%	353	100.0%	1416	100.0%

<표 161>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역 규모별로 말하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해 터키 검정 결과 대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중소 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대도시 (649명)	중소 도시 (530명)	읍면 지역 (237명)			
말하기 영역	71.39 (19.75)	69.55 (17.79)	65.74 (19.10)	7.624	.001	대도시>읍면 중소>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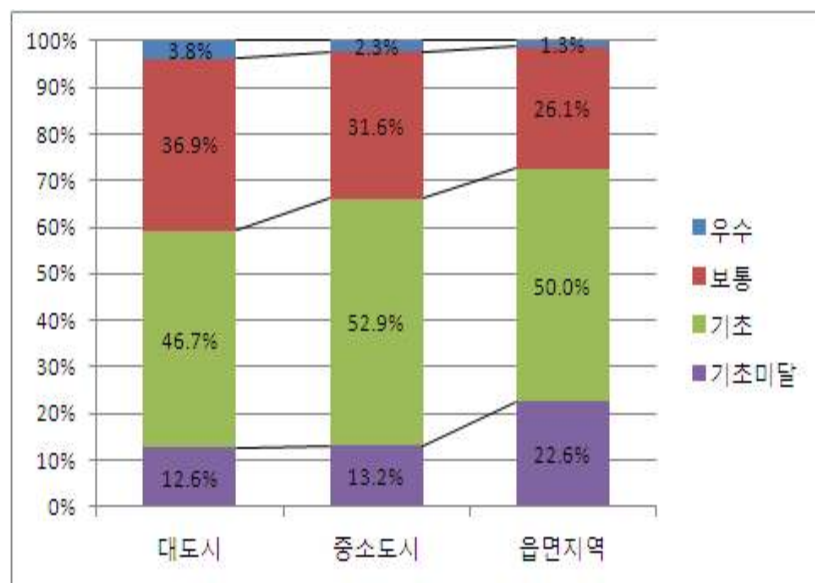
<표 162> 말하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이러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우수 3.8%, 보통 36.9%, 기초 46.7%, 기초 미달 12.6%, 중소 도시의 경우 우수 2.3%, 보통 31.6%, 기초 52.9%, 기초 미달 13.2%, 읍면 지역의 경우 우수 1.3%, 보통 26.1%, 기초 50.0%, 기초 미달 22.6%의 분포를 보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우수와 보통 등급은 많고, 기초와 기초 미달 등급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수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말하기	우수	25	3.8%	12	2.3%	3	1.3%	40	2.8%
	보통	246	36.9%	165	31.6%	60	26.1%	471	33.2%
	기초	311	46.7%	276	52.9%	115	50.0%	702	49.5%
	기초미달	84	12.6%	69	13.2%	52	22.6%	205	14.5%
	계	666	100.0%	522	100.0%	230	100.0%	1418	100.0%

<표 163>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다음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별로 말하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직업군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집단 안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 도	사후비교 (Turkey HSD)
	정신노동 (401명)	육체노동 (557명)	기타 (458명)			
말하기 영역	71.26 (18.53)	67.68 (19.25)	71.08 (19.16)	5.678	.003	정신>육체 기타>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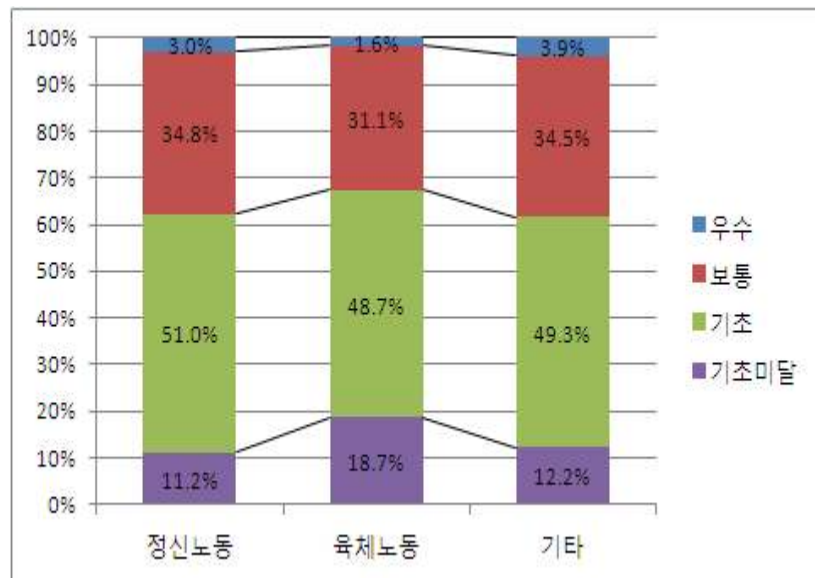
<표 164> 말하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이러한 직업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정신노동의 경우 우수 3.0%, 보통 34.8%, 기초 51.0%, 기초 미달 11.2%, 육체노동의 경우 우수 1.6%, 보통 31.1%, 기초 48.7%, 기초 미달 18.7%, 기타의 경우 우수 3.9%, 보통 34.5%, 기초 49.3%, 기초 미달 12.2%의 분포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말하 기	우수	12	3.0%	9	1.6%	18	3.9%	39	2.8%
	보통	140	34.8%	173	31.1%	158	34.5%	471	33.2%
	기초	205	51.0%	271	48.7%	226	49.3%	702	49.5%
	기초미달	45	11.2%	104	18.7%	56	12.2%	205	14.5%
	계	402	100.0%	557	100.0%	458	100.0%	1417	100.0%

<표 165>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학력군별로 말하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07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

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말하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중졸 이하 (155명)	고졸 (482명)	대재 이상 (780명)			
말하기 영역	66.96 (21.24)	68.47 (19.57)	71.18 (18.21)	4.947	.007	대재>중졸 대재>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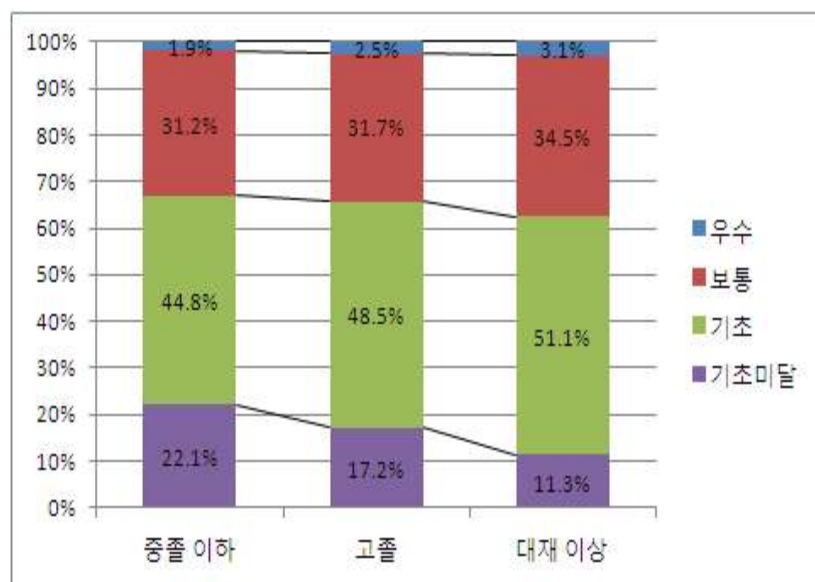
<표 166> 말하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이러한 학력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집단은 우수 1.9%, 보통 31.2%, 기초 44.8%, 기초 미달 22.1%, 고졸 집단은 우수 2.5%, 보통 31.7%, 기초 48.5%, 기초 미달 17.2%, 대재 이상 집단은 우수 3.1%, 보통 34.5%, 기초 51.1%, 기초 미달 11.3%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말하기	우수	3	1.9%	12	2.5%	24	3.1%	39	2.8%
	보통	48	31.2%	153	31.7%	269	34.5%	470	33.2%
	기초	69	44.8%	234	48.5%	398	51.1%	701	49.5%
	기초미달	34	22.1%	83	17.2%	88	11.3%	205	14.5%
	계	154	100.0%	482	100.0%	779	100.0%	14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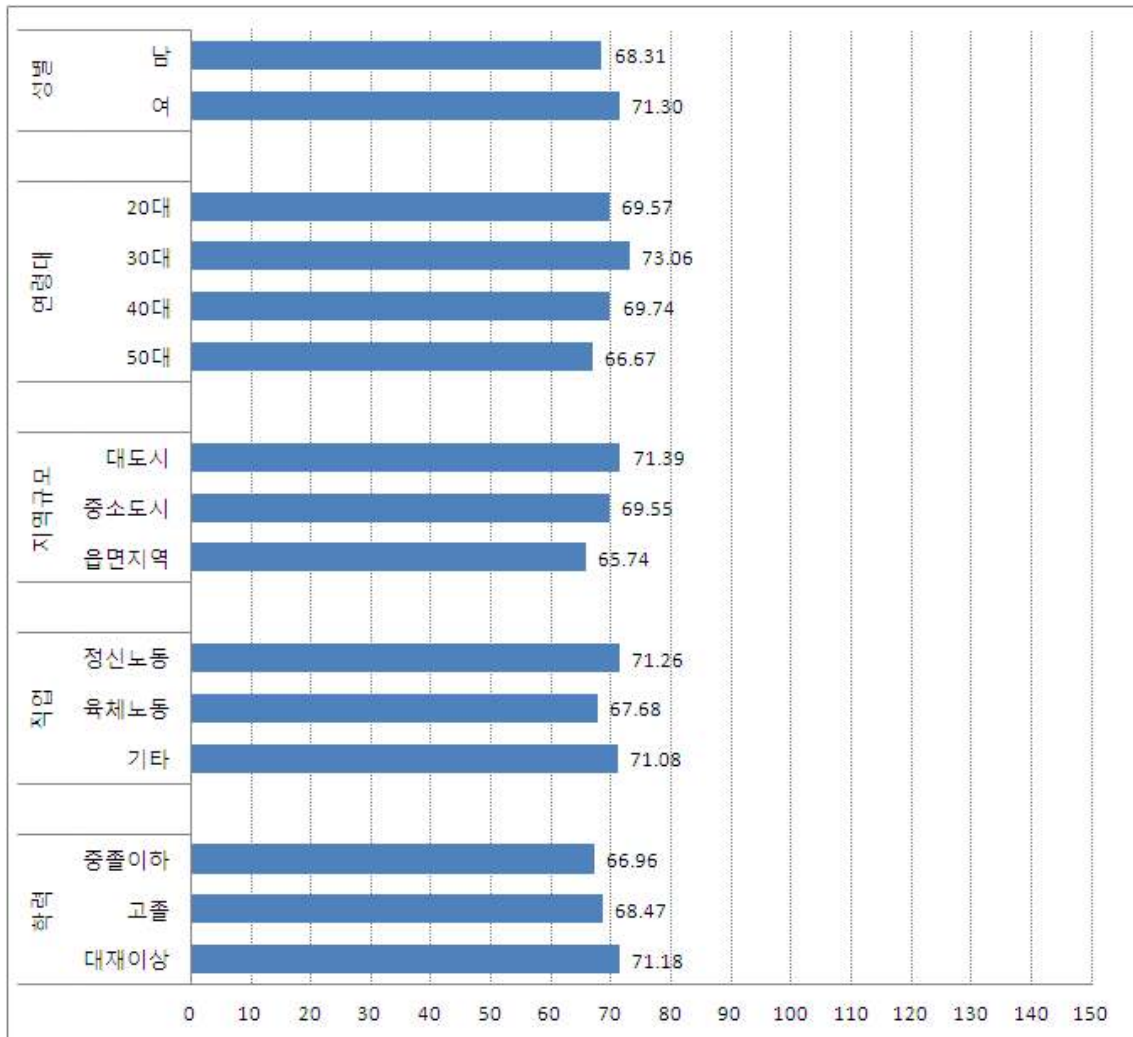
<표 167>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말하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말하기 영역의 변인별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0> 말하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②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의 평균 점수는 122.07점(250점 만점)이었으며, 최솟값 0점, 최댓값 256점을 보였다. 표준 편차는 37.49이었으며, 분석 대상은 1500명이었다. 쓰기 영역의 평균 점수 122.07점은 수준별 등급으로는 기초 등급에 해당되어, 조사 대상 국민의 평균적인 쓰기 능력은 ‘기초’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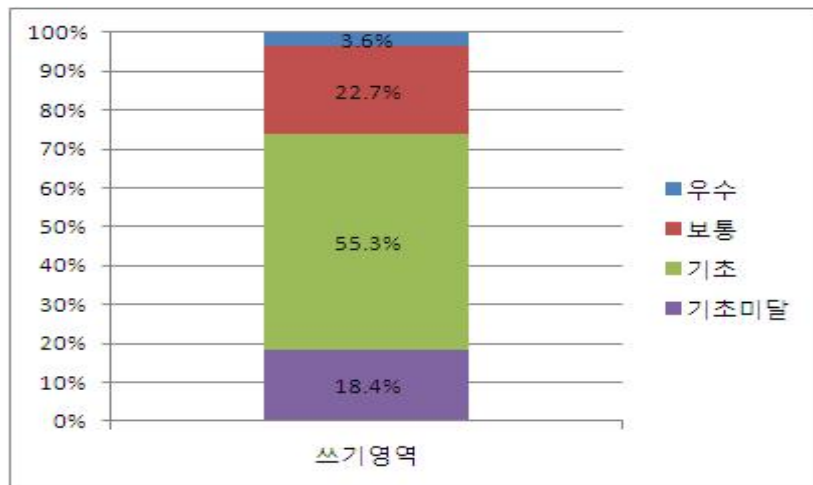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 수
쓰기 영역	122.07	37.49	0.00	256.00	1,500

<표 168> 쓰기 영역의 기술 통계

쓰기 영역의 점수 분포를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앵고프 방식으로 분할한 수준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우수 등급이 55명(3.6%), 보통 등급이 341명(22.7%), 기초 등급이 829명(55.3%), 기초 미달 등급이 275명(18.4%)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쓰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국어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기초와 기초 미달 집단의 비율이 각각 55.3%, 18.4%나 된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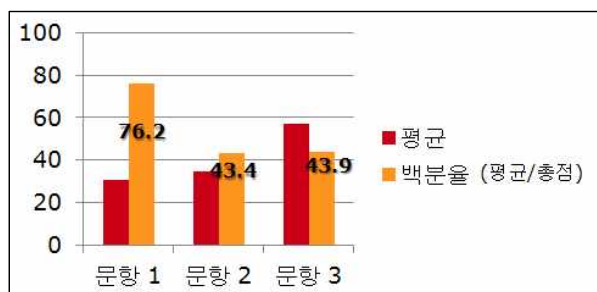
영역	수준	분할 점수	인원(명)	비율
쓰기	우수	193.3	55	3.6%
	보통	143.3	341	22.7%
	기초	93.5	829	55.3%
	기초미달		275	18.4%
계			1,500	100%

<표 169> 쓰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그림 31> 쓰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또한, 쓰기 영역에서 조사하였던 3개 문항에 대해 원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특히 문항 2와 문항 3의 백분율이 문항 1의 백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1의 친교적 글쓰기에 비해, 문항 2의 설명하는 글쓰기나 문항 3의 논증하는 글쓰기 능력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글쓰기의 분량 면에서도 300자 이상의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2> 말하기 영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

여기에서는 각 문항별로 평가 점수가 상, 중, 하로 분류된 피조사자의 답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1번 문항에서는 등산 동회의 송년회 초청장을 3문장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다음의 세 자료는 각각 모든 평가 요소에서 상, 중, 하의 점수를 받은 피조사자의 예시 답안들이다.

응답자 ID: 16-1  
 면접원 ID: 5-3P  
 작성 일시: 18월 5월 18시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국어능력실태조사

1. 등산 동호회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등산회 총무라고 생각하고 아래 초청장의 본문을 완성해 보십시오. (3문장으로 작성)

회원 여러분께,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시점은 막아 회초님들과 올해를  
 마감하며 새해의 계획을 구상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가지려 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3년 12월 27일(금) 저녁 6시  
 장소: 진미 한정식  
 회비: 3만 원

<그림 33> 쓰기 문항 1 상 예시 답안

응답자 ID: 1477-1  
 면접원 ID: 130146  
 작성 일시: 10월 8월 2시 10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국어능력실태조사

1. 등산 동호회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등산회 총무라고 생각하고 아래 초청장의 본문을 완성해 보십시오. (3문장으로 작성)

회원 여러분께,

등산회 여러명을 모시고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원여러분께는 지난해 때와는 눈빛들을 모두바라보고  
 다가오는 201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3년 12월 27일(금) 저녁 6시  
 장소: 진미 한정식  
 회비: 3만 원

<그림 34> 쓰기 문항 1 중 예시 답안



응답자 ID: 296-1  
 면접원 ID: 960667  
 작성 일시: 10월 1일 1시 20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국어능력실태조사

1. 동산 동호회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동산회 총무라고 생각하고 아래 초창장의 본문을 완성해 보십시오. (3문장으로 작성)

회원 여러분께.

저희 동산동호회에서 다음과 같이 2013년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한분은 바깥으로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3. 12. 27. 2월 10시. 북한산성 일주. 진미 한정식

일시: 2013년 12월 27일(금) 저녁 6시  
 장소: 진미 한정식  
 회비: 3만 원

<그림 35> 쓰기 문항 1 下 예시 답안

다음으로, 문항 2에서는 그림으로 탈을 제시하고 이 탈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300자 내외로 쓰도록 요구하였는데 다음의 세 자료는 각각 모든 평가 요소에서 상, 중, 하의 점수를 받은 피조사자의 예시 답안들이다.

응답자 ID: 100-2  
 면접원 ID: 60843  
 작성 일시: 10월 25일 10시 20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국어능력실태조사

2. 전통 문화 답사 활동 중 다음과 같은 탈을 보았습니다. 이 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탈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300자 내외)

탈은 형은 흡사 계란과 같고 양 볼과  
 이마에 편저고지 화장을 하였습니 다. 고  
 는 크고 길며 대테적으로 관계 변어 있  
 으며 콧방울은 두툼하고 포주멍은 드러  
 내고 윗지 납습니 다. 반면 입술은 얇고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다물어진 형  
 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검 가는 턱부의  
 행문함을 느낄 수 있는 조승을 모양을  
 한 눈매가 인상적이며 눈썹과 눈매가  
 물음의 모양대로 똑같은 아치형을 하고  
 살짝 쳐져 있습니다. 머리엔 빗빗한 검은  
 색 족관을 쓰고 귀가 보이지 않습  
 니 다. 인종은 짙고 턱은 다소 긴 편이  
 지만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정겨운 인상  
 을 가진 탈입니다.

<그림 36> 쓰기 문항 2 上 예시 답안




응답자 ID : 133-2  
면접원 ID : 101221  
작성 일시 : 9 월 28 일 11 시 10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2. 전통 문화 답사 활동 중 다음과 같은 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의 요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300자 내외)

이 말을 처음보면 보정으로 들리니까 미안하게 있는 엄마와 같은 마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눈과 눈매~~ ~~눈매~~ 눈매하면 당시 풍자한 보면 당시 눈과 눈매이  
반영이든 눈매를 지고 있는 것만큼 눈매 때문에 눈매를 눈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눈매에 미안하게 너무 눈매하고 눈매 눈매 눈매  
문제가 눈매이다. 그리고 눈매의 눈매를 눈 매안한 눈매이며  
이마와 눈매에 눈매로 눈매 눈매 눈매 눈매



응답자 ID : 292


연결원 ID : 30

작성 일시 : 9월 24일 17시 00분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2. 전통 문학 답사 활동 중 다음과 같은 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300자 내외)

우리나라의 권로문래래로이 새새의 같이 영의신과 같이  
수많은 것은 많은 것이 많습니다.



끝으로, 문항 3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라는 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400자 내외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다음의 세 자료는 각각 모든 평가 요소에서 상, 중, 하의 점수를 받은 피조사자의 예시 답안들이다.

응답자 ID: 612-3  
 면접원 ID: 43081  
 작성 일시: 9 월 27 일 6 시 30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3. 군 복무를 마친 남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한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글을 써 보십시오. (400자 내외)

제 생각에는 군복무를 마친 우리나라 남자에게는 취업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여 초반 한창 형이왕성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기간 대신 학업이나 다른 일을 했다면, 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생활이 군생활을 통해 훈련(직장생활)을 조직문화에 적응도 빠르고, 조직(단체)에 군생활에서 습득한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최근 삼기계층 자비들은 군대입대를 피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한 국가들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어서, 우리나라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39> 쓰기 문항 3 상 예시 답안

응답자 ID: 1659-3  
 면접원 ID: 30166  
 작성 일시: 10월 3월 19시 20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3. 군 복무를 마친 남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한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글을 써 보십시오. (400자 내외)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자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습이다.  
 모든 남자가 꼭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복무를 기피하려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동에는 많이 있는것은 맞다.  
 군복무는 때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어 자기 목숨을 바쳐 말기느것과 같기 때문이  
 또 어떤 대가가 군복무 기피 한사람은 구명 되기야 하다면 생각 한다.

<그림 40> 쓰기 문항 3 중 예시 답안

응답자 ID: 1356~9  
 면접원 ID: P51549  
 작성 일시: 9월 24일 15시

쓰기 영역 | 2013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3. 군 복무를 마친 남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한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글을 써 보십시오. (400자 내외)

그런 동안 육가의 인본을 위해서  
 살도 들이긴 행동은 규제와 많은만큼  
 국자를 위해 충성심 다한 젊은이들이  
 회사사에 가장점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그림 41> 쓰기 문항 3 下 예시 답안

이상의 문항별 분석에 이어, 쓰기 영역의 변인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쓰기 영역의 조사 결과를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면, 유의도가 0.276으로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에 비해 뛰어나다고 보고되지만, 이번 조사의 쓰기 능력 면에서는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평균(표준편차)		T	유의도
	남(767명)	여(733명)		
쓰기 영역	121.04점(37.21)	123.15점(37.77)	-1.090	.276

<표 170> 쓰기 영역의 성별 차이

이러한 성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우수 3.8%, 보통 21.4%, 기초 55.8%, 기초 미달 19.0%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우수 3.5%, 보통 24.1%, 기초 54.7%, 기초 미달 17.7%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쓰기	우수	29	3.8%	26	3.5%	55	3.7%
	보통	164	21.4%	177	24.1%	341	22.7%
	기초	428	55.8%	402	54.7%	830	55.3%
	기초미달	146	19.0%	130	17.7%	276	18.4%
	계	767	100.0%	735	100.0%	1502	100.0%

<표 171>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로 쓰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쓰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20대 (314명)	30대 (394명)	40대 (421명)	50대 (371명)			
쓰기 영역	132.29	127.39	118.60	111.72	21.949	.000	20대>40대 20대>50대 30대>40대 30대>50대

<표 172> 쓰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20대의 경우 우수 6.1%, 보통 29.9%, 기초 54.5%, 기초 미달 9.6%로 나뉘고, 30대의 경우 우수 4.1%, 보통 25.6%, 기초 55.8%, 기초 미달 14.5%, 40대의 경우 우수 3.8%, 보통 19.0%, 기초 54.0%, 기초 미달 23.1%, 50대의 경우 우수 0.8%, 보통 17.5%, 기초 56.9%, 기초 미달 24.8%로 나뉜다.

영역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쓰기	우수	19	6.1%	16	4.1%	16	3.8%	3	0.8%	54	3.6%
	보통	94	29.9%	101	25.6%	80	19.0%	65	17.5%	340	22.7%
	기초	171	54.5%	220	55.8%	227	54.0%	211	56.9%	829	55.3%
	기초 미달	30	9.6%	57	14.5%	97	23.1%	92	24.8%	276	18.4%
	계	314	100.0%	394	100.0%	420	100.0%	371	100.0%	1499	100.0%

<표 173>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역 규모별로 쓰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2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도시가 중소 도시보다 쓰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대도시 (680명)	중소 도시 (570명)	읍면 지역 (250명)			
쓰기 영역	124.52 (34.71)	118.75 (39.96)	122.73 (38.47)	3.738	.024	대도시>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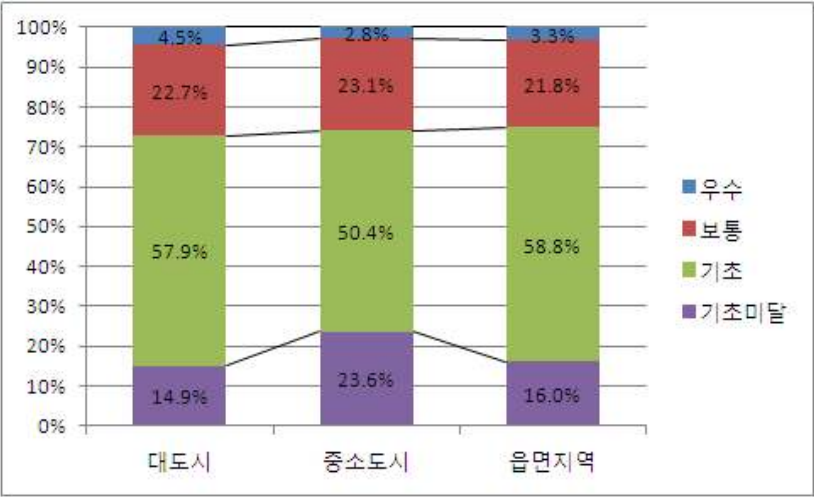
<표 174> 쓰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이러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우수 4.5%, 보통 22.7%, 기초 57.9%, 기초 미달 14.9%, 중소 도시의 경우 우수 2.8%, 보통 23.1%, 기초 50.4%, 기초 미달 23.6%, 읍면 지역의 경우 우수 3.3%, 보통 21.8%, 기초 58.8%, 기초 미달 16.0%의 분포를 보인다.

영역	수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명	%	명	%	명	%	명	%
쓰기	우수	31	4.5%	16	2.8%	8	3.3%	55	3.7%
	보통	158	22.7%	130	23.1%	53	21.8%	341	22.7%
	기초	403	57.9%	284	50.4%	143	58.8%	830	55.3%
	기초미달	104	14.9%	133	23.6%	39	16.0%	276	18.4%
	계	696	100.0%	563	100.0%	243	100.0%	1502	100.0%

<표 175>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다음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별로 쓰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쓰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직업군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집단 안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정신노동 (416명)	육체노동 (604명)	기타 (480명)			
쓰기 영역	124.73 (36.94)	117.62 (36.65)	125.38 (38.52)	7.224	.001	정신>육체, 기타>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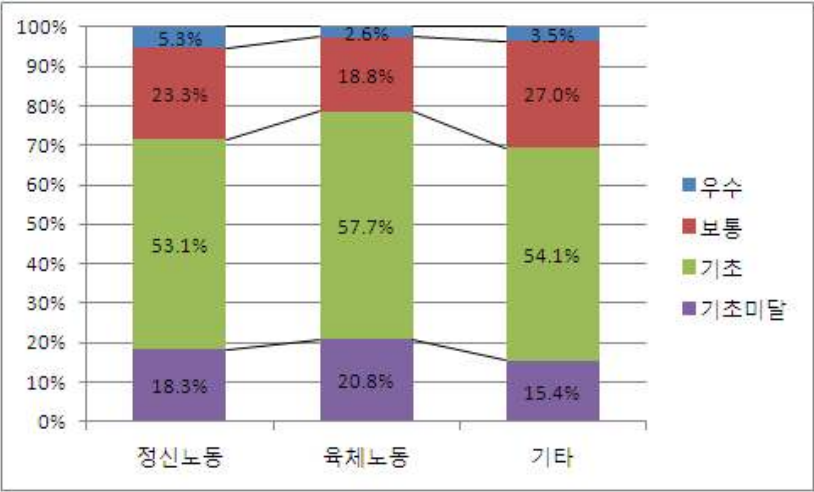
<표 176> 쓰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이러한 직업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정신노동의 경우 우수 5.3%, 보통 23.3%, 기초 53.1%, 기초 미달 18.3%, 육체노동의 경우 우수 2.6%, 보통 18.8%, 기초 57.7%, 기초 미달 20.8%, 기타의 경우 우수 3.5%, 보통 27.0%, 기초 54.1%, 기초 미달 15.4%의 분포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쓰기	우수	22	5.3%	16	2.6%	17	3.5%	55	3.7%
	보통	97	23.3%	114	18.8%	130	27.0%	341	22.7%
	기초	221	53.1%	349	57.7%	260	54.1%	830	55.3%
	기초미달	76	18.3%	126	20.8%	74	15.4%	276	18.4%
	계	416	100.0%	605	100.0%	481	100.0%	1502	100.0%

<표 177>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학력군별로 쓰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쓰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중졸 이하 (169명)	고졸 (521명)	대재 이상 (810명)			
쓰기 영역	112.62 (40.08)	117.05 (36.44)	127.28 (36.81)	18.270	.000	대재>중졸 대재>고졸

<표 178> 쓰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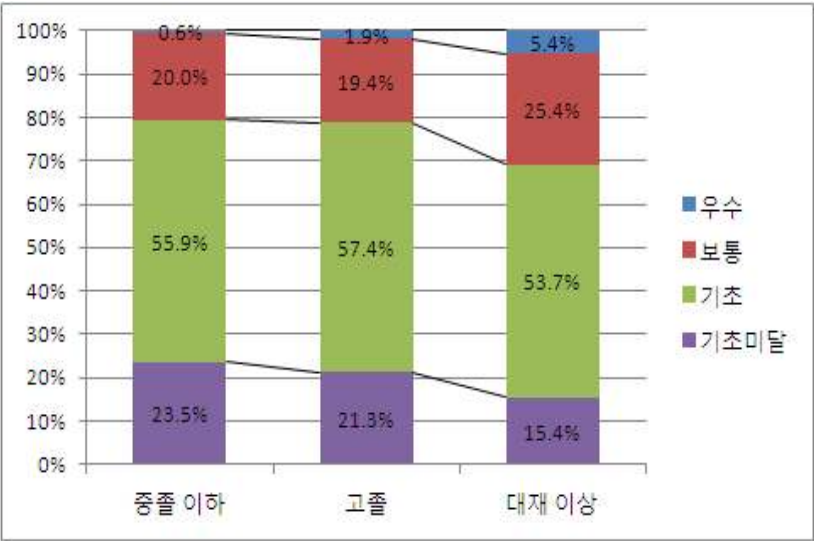
이러한 학력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집단은 우수 0.6%, 보통 20.0%, 기초 55.9%, 기초 미달 23.5%, 고졸 집단은 우수 1.9%, 보통 19.4%, 기초 57.4%, 기초 미달 21.3%, 대재 이상 집단은 우수 5.4%, 보통 25.4%, 기초 53.7%, 기초 미달 15.4%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쓰기	우수	1	0.6%	10	1.9%	44	5.4%	55	3.7%
	보통	34	20.0%	101	19.4%	206	25.4%	341	22.7%
	기초	95	55.9%	299	57.4%	435	53.7%	829	55.2%
	기초미달	40	23.5%	111	21.3%	125	15.4%	276	18.4%
	계	170	100.0%	521	100.0%	810	100.0%	1501	100.0%

<표 179>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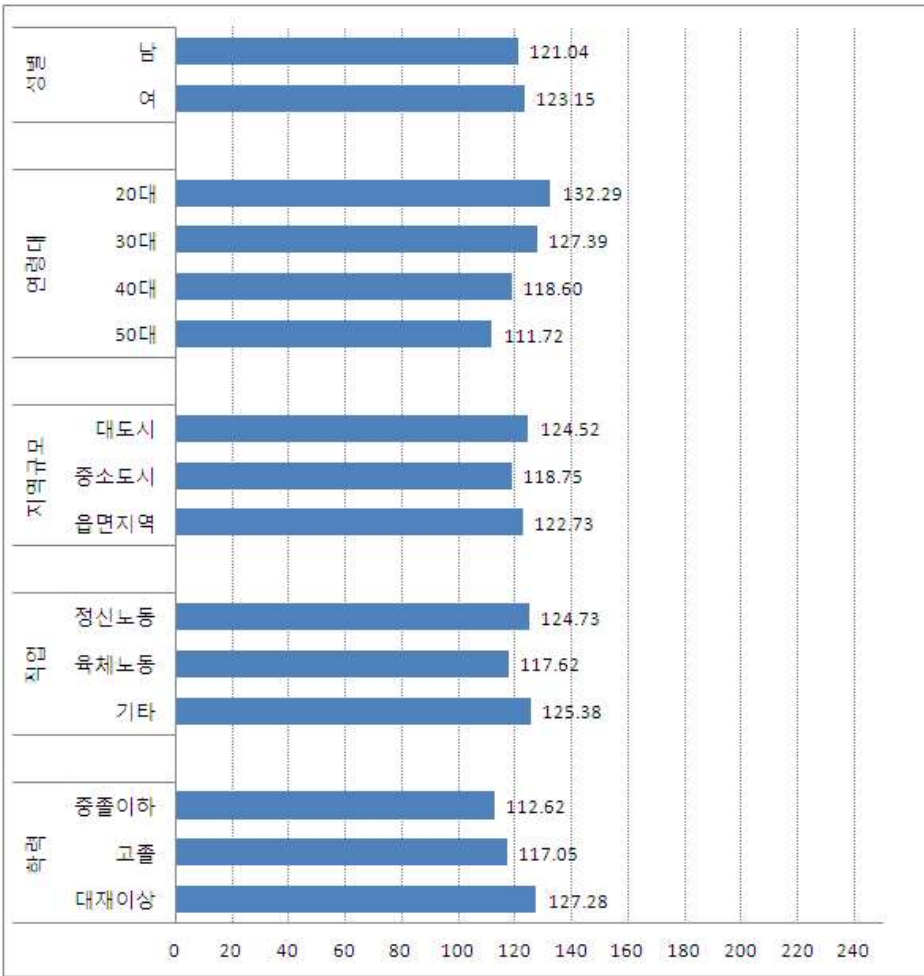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 쓰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쓰기 영역의 변인별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 쓰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③ 듣기 영역

1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는 108.88점(150점 만점)이었으며, 최솟값 11점, 최댓값 150점으로 분석되었다. 표준 편차는 29.12이었으며, 조사 도구 ‘가’ 형의 결측치 84명을 제외한 실제 분석 대상은 1416명이었다.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 108.88점은 수준 등급별 분할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 등급에 해당되어, 조사 대상 국민의 평균적인 듣기 능력은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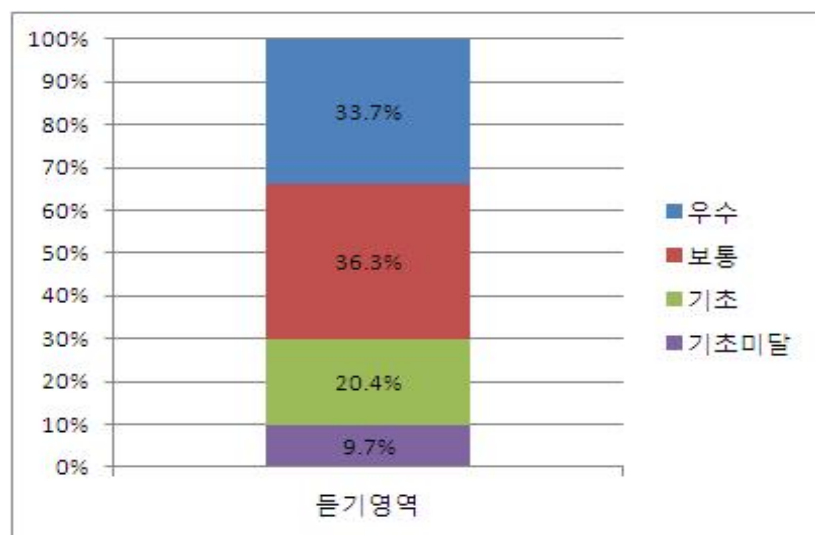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 수
듣기 영역	108.88	29.12	11.00	150.00	1416

<표 180> 듣기 영역의 기술 통계

듣기 영역의 점수 분포를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앵고프 방식으로 분할한 수준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우수 등급이 478명(33.7%), 보통 등급이 514명(36.3%), 기초 등급이 288명(20.4%), 기초 미달 등급이 137명(9.7%)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듣기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수준	분할 점수	인원(명)	비율
듣기	우수	123.0	478	33.7%
	보통	97.1	514	36.3%
	기초	66.4	288	20.4%
	기초미달		137	9.7%
계			1,417	100

<표 181> 듣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그림 48> 듣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듣기 영역의 조사 결과를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면, 유의도가 0.861로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에게 비해 우수하다고 보고되지만, 이번 조사의 듣기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약간 더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평균(표준편차)		T	유의도
	남(714명)	여(702명)		
듣기 영역	109.54점(29.46)	108.21점(28.79)	.861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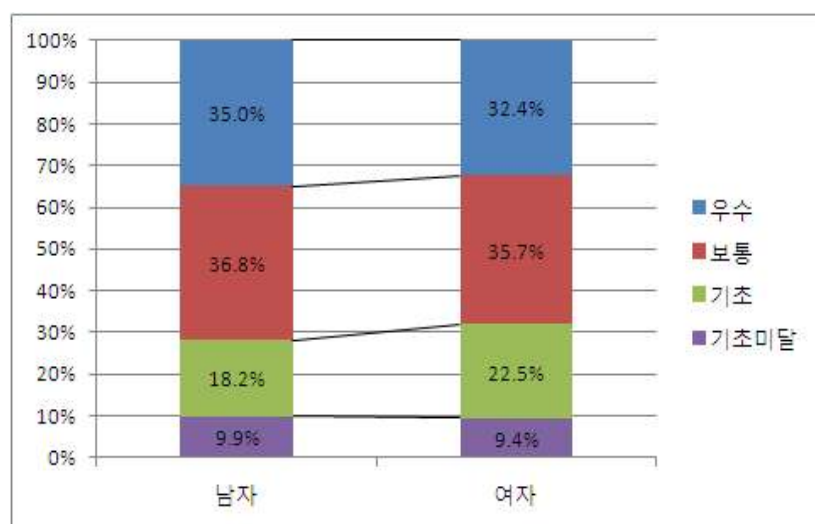
<표 182> 듣기 영역의 성별 차이

이러한 성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우수 35%, 보통 36.8%, 기초 18.2%, 기초 미달 9.9%로 나뉘고, 여성의 경우 우수 32.4%, 보통 35.7%, 기초 22.5%, 기초 미달 9.4%로 나뉜다.

영역	수준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듣기	우수	250	35.0%	227	32.4%	477	33.7%
	보통	263	36.8%	250	35.7%	513	36.3%
	기초	130	18.2%	158	22.5%	288	20.4%
	기초미달	71	9.9%	66	9.4%	137	9.7%
	계	714	100.0%	701	100.0%	1415	100.0%

<표 183>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9>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로 듣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296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평균상으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듣기 영역의 평균 점수가 높아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20대 (296명)	30대 (365명)	40대 (403명)	50대 (353명)			
듣기 영역	110.17 (29.95)	110.05 (29.71)	109.04 (28.73)	106.42 (28.21)	1.234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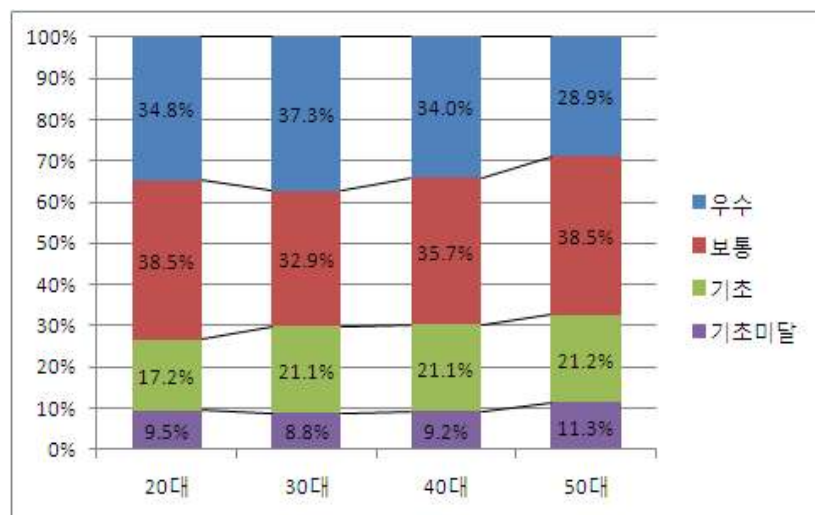
<표 184> 듣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20대의 경우 우수 34.8%, 보통 38.5%, 기초 17.2%, 기초 미달 9.5%로 나뉘고, 30대의 경우 우수 37.3%, 보통 32.9%, 기초 21.1%, 기초 미달 8.8%, 40대의 경우 우수 34%, 보통 35.7%, 기초 21.1%, 기초 미달 9.2%, 50대의 경우 우수 28.9%, 보통 38.5%, 기초 21.2%, 기초 미달 11.3%로 나뉜다.

영역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듣기	우수	103	34.8	136	37.3	137	34.0	102	28.9	478	33.7%
	보통	114	38.5	120	32.9	144	35.7	136	38.5	514	36.3%
	기초	51	17.2	77	21.1	85	21.1	75	21.2	288	20.3%
	기초 미달	28	9.5	32	8.8	37	9.2	40	11.3	137	9.7%
	계	296	100.0	365	100.0	403	100.0	353	100.0	1417	100.0

<표 185>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0>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역 규모별로 말하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232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영역에서는 대체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듣기 영역에서는 오히려 읍면 지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며, 듣기 영역의 조사 문항이 대체로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대도시 (665명)	중소 도시 (522명)	읍면 지역 (230명)			
듣기 영역	109.41 (28.63)	107.29 (29.32)	110.94 (30.03)	1.461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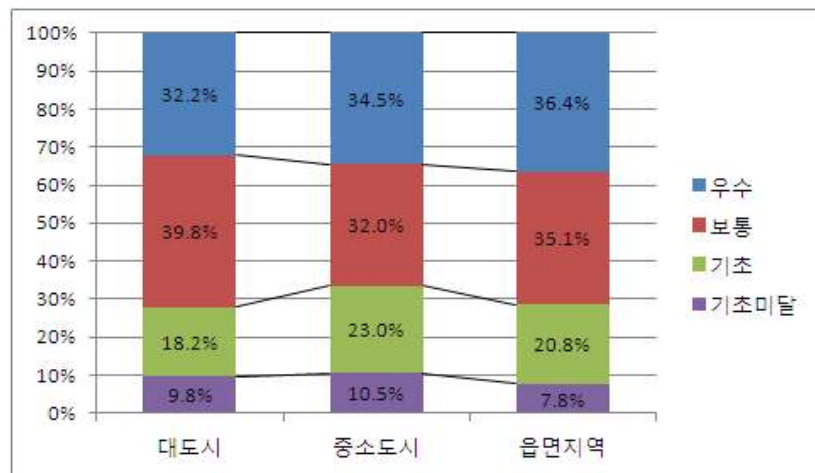
<표 186> 듣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이러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우수 32.2%, 보통 39.8%, 기초 18.2%, 기초 미달 9.8%, 중소 도시의 경우 우수 34.5%, 보통 32%, 기초 23%, 기초 미달 10.5%, 읍면 지역의 경우 우수 36.4%, 보통 35.1%, 기초 20.8%, 기초 미달 7.8%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명	%	명	%	명	%	명	%
듣기	우수	214	32.2%	180	34.5%	84	36.4%	478	33.7%
	보통	265	39.8%	167	32.0%	81	35.1%	513	36.2%
	기초	121	18.2%	120	23.0%	48	20.8%	289	20.4%
	기초미달	65	9.8%	55	10.5%	18	7.8%	138	9.7%
	계	665	100.0	522	100.0	231	100.0	1418	100.0

<표 187>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다음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별로 듣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21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듣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직업군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집단 안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정신노동 (401명)	육체노동 (557명)	기타 (458명)			
듣기 영역	111.64 (30.27)	106.43 (28.06)	109.44 (29.19)	3.868	.021	정신>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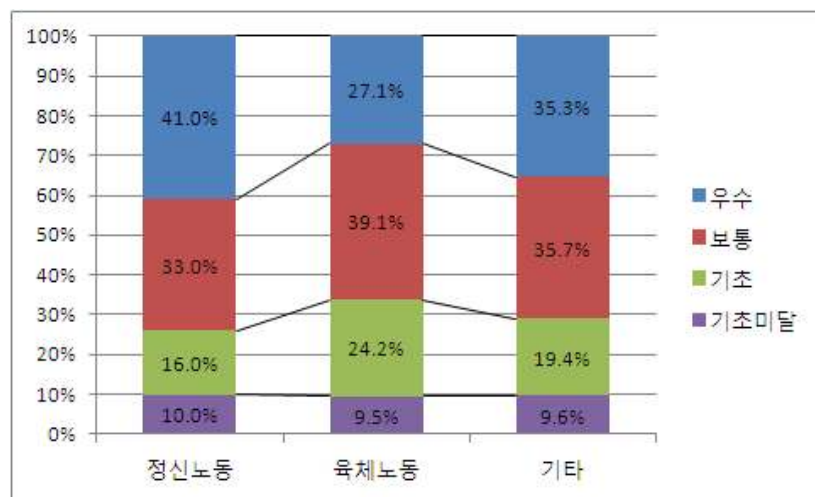
<표 188> 듣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이러한 직업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정신노동의 경우 우수 41%, 보통 33%, 기초 16%, 기초 미달 10%, 육체노동의 경우 우수 27.1%, 보통 39.1%, 기초 24.2%, 기초 미달 9.5%, 기타의 경우 우수 35.3%, 보통 35.7%, 기초 19.4%, 기초 미달 9.6%의 분포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듣기	우수	164	41.0%	151	27.1%	162	35.3%	477	33.7%
	보통	132	33.0%	218	39.1%	164	35.7%	514	36.3%
	기초	64	16.0%	135	24.2%	89	19.4%	288	20.3%
	기초미달	40	10.0%	53	9.5%	44	9.6%	137	9.7%
	계	400	100.0	557	100.0	459	100.0	1416	100.0

<표 189>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학력군별로 듣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듣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중졸 이하 (155명)	고졸 (482명)	대재 이상 (780명)			
듣기 영역	104.35 (29.21)	106.68 (28.94)	111.14 (29.12)	5.623	.004	대재>중졸, 대재>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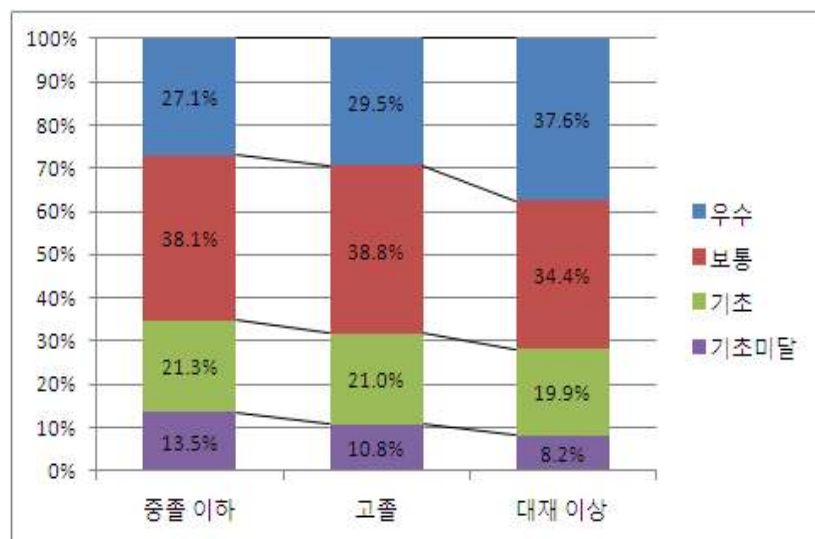
<표 190> 듣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이러한 학력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집단은 우수 27.1%, 보통 38.1%, 기초 21.3%, 기초 미달 13.5%, 고졸 집단은 우수 29.5%, 보통 38.8%, 기초 21%, 기초 미달 10.8%, 대재 이상 집단은 우수 37.6%, 보통 34.4%, 기초 19.9%, 기초 미달 8.2%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듣기	우수	42	27.1%	142	29.5%	293	37.6%	477	33.7%
	보통	59	38.1%	187	38.8%	268	34.4%	514	36.3%
	기초	33	21.3%	101	21.0%	155	19.9%	289	20.4%
	기초미달	21	13.5%	52	10.8%	64	8.2%	137	9.7%
	계	155	100.0	482	100.0	780	100.0	14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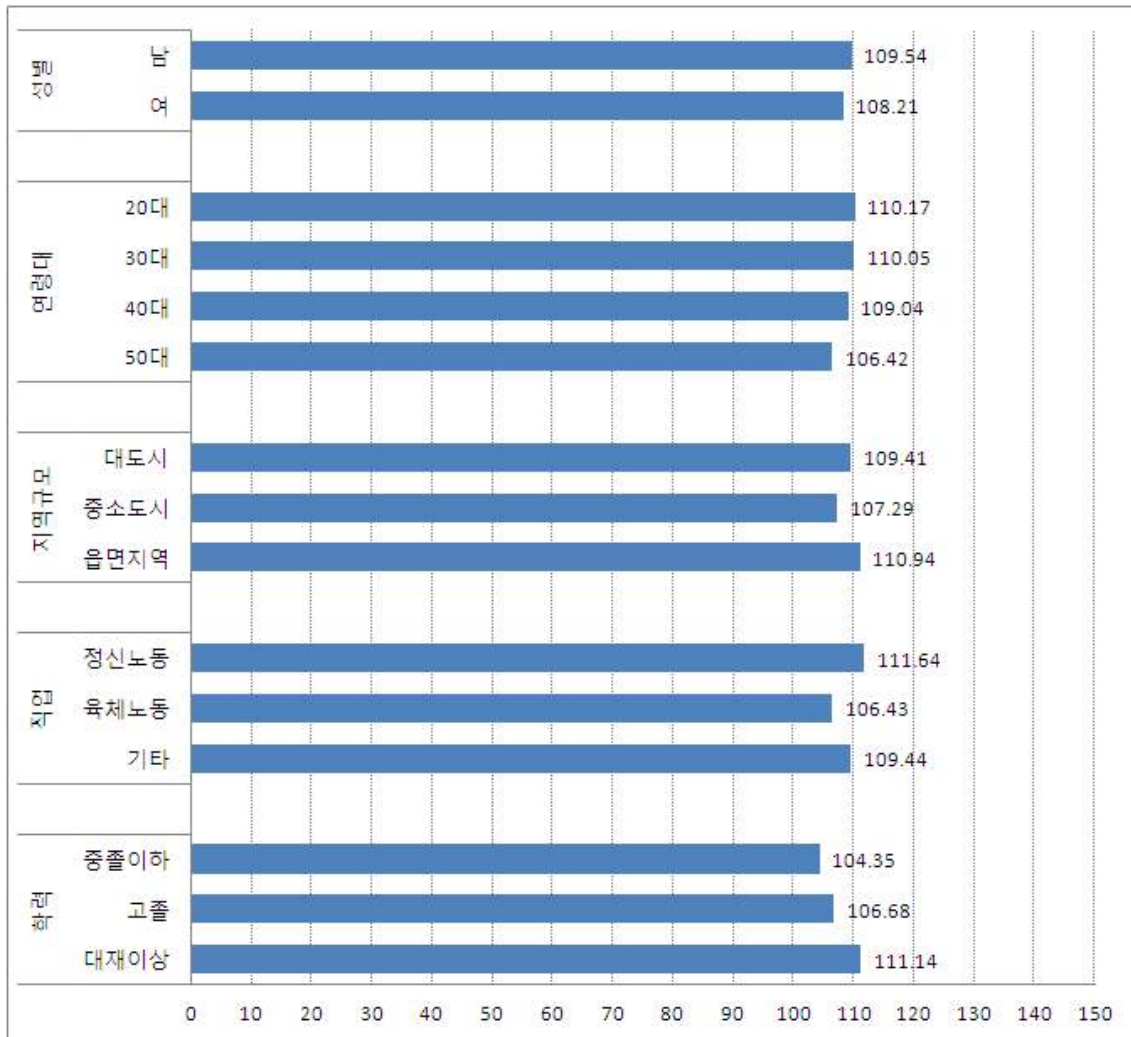
<표 191>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듣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듣기 영역의 변인별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4> 듣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④ 읽기 영역

척도 점수로 변환되어 산출된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는 190.66점(300점 만점)이었으며 최솟값 15.17, 최댓값 300점을 보였다. 표준 편차는 61.81이었으며, 조사 도구 ‘가’ 형과 ‘나’ 형에 모두 읽기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례 수는 조사 도구 ‘가’ 형의 결측치 84명을 제외한 2916명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공통 문항 6개를 기준으로 두 조사 도구 간의 검사 동등화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다.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 190.66점은 수준 등급별 분할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등급에 해당되어, 조사 대상 국민의 평균적인 읽기 능력은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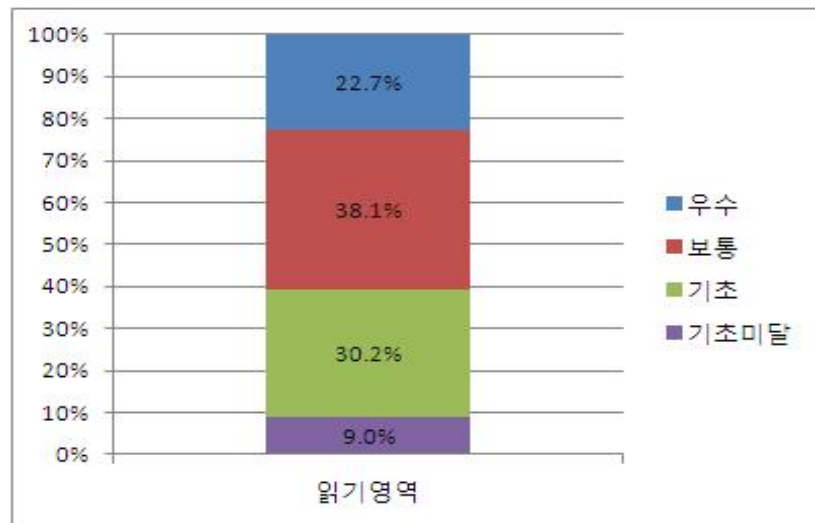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 수
읽기 영역	190.66	61.81	15.17	300.00	2916

<표 192> 읽기 영역의 기술 통계

읽기 영역의 점수 분포를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앵고프 방식으로 분할한 수준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우수 등급이 662명(22.7%), 보통 등급이 1110명(38.1%), 기초 등급이 882명(30.2%), 기초 미달 등급이 262명(9%)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읽기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분할 점수	인원(명)	비율
읽기	우수	242.3	662	22.7%
	보통	173.3	1,110	38.1%
	기초	106.5	882	30.2%
	기초미달		262	9.0%
계			2,916	100

<표 193>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그림 55>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읽기 영역의 조사 결과를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면, 유의도가 0.441로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고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읽기 점수가 남성보다 약간 높게 분석되었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평균(표준편차)		T	유의도
	남(1481명)	여(1436명)		
읽기 영역	189.79점(62.31)	191.55점(61.31)	-.771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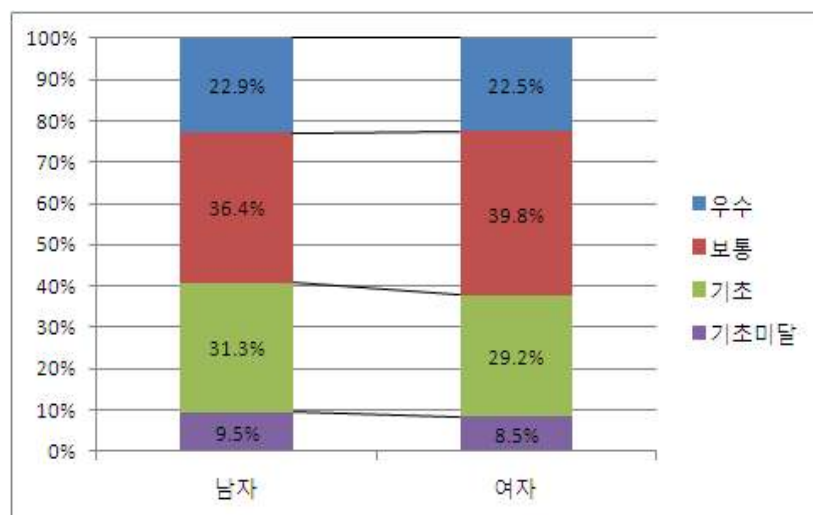
<표 194> 읽기 영역의 성별 차이

이러한 성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우수 22.9%, 보통 36.4%, 기초 31.3%, 기초 미달 9.5%로 나뉘고, 여성의 경우 우수 22.5%, 보통 39.8%, 기초 29.2%, 기초 미달 8.5%로 나뉜다.

영역	수준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읽기	우수	339	22.9%	323	22.5%	662	22.7%
	보통	539	36.4%	571	39.8%	1110	38.1%
	기초	463	31.3%	419	29.2%	882	30.2%
	기초미달	140	9.5%	122	8.5%	262	9.0%
	계	1481	100.0%	1435	100.0%	29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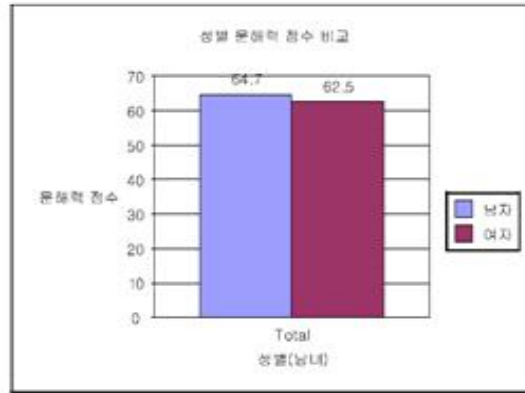
<표 195>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6>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이러한 읽기 영역의 성별 차이 결과를 2008년 국민의 문해력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8년 조사에서 역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가 2.2점으로 작아 읽기 능력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본 연구의 조사와 일치한다.



<그림 57> 2008 문해력 검사의 성별 차이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로 읽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4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30대가 50대보다 읽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20대의 읽기 점수가 30대보다 약간 더 낮음은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20대 (610명)	30대 (759명)	40대 (823명)	50대 (724명)			
읽기	193.10 (63.82)	196.01 (61.44)	188.78 (62.12)	185.12 (59.66)	4.421	.004	30대>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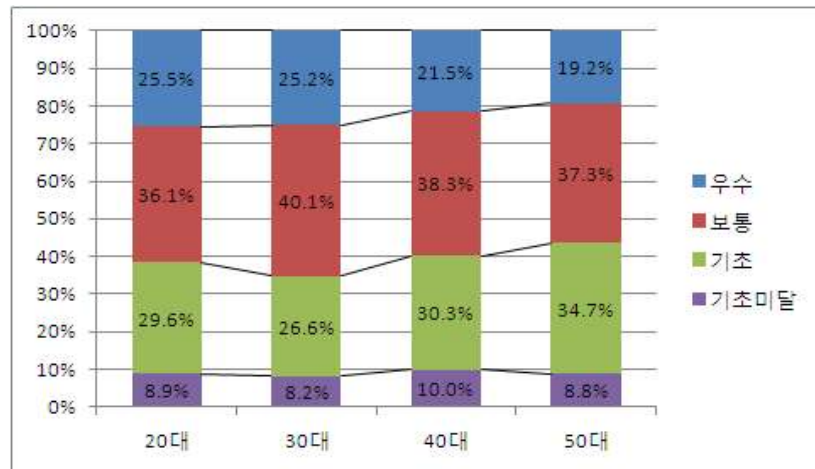
<표 196> 읽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20대의 경우 우수 25.5%, 보통 36.1%, 기초 29.6%, 기초 미달 8.9%로 나뉘고, 30대의 경우 우수 25.2%, 보통 40.1%, 기초 26.6%, 기초 미달 8.2%, 40대의 경우 우수 21.5%, 보통 38.3%, 기초 30.3%, 기초 미달 8.2%, 50대의 경우 우수 19.2%, 보통 37.3%, 기초 34.7%, 기초 미달 8.8%로 나뉜다.

영역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읽기	우수	155	25.5	191	25.2	177	21.5	139	19.2	662	22.7%
	보통	220	36.1	304	40.1	315	38.3	270	37.3	1109	38.0%
	기초	180	29.6	202	26.6	249	30.3	251	34.7	882	30.3%
	기초 미달	54	8.9	62	8.2	82	10.0	64	8.8	262	9.0%
	계	609	100.0	759	100.0	823	100.0	724	100.0	29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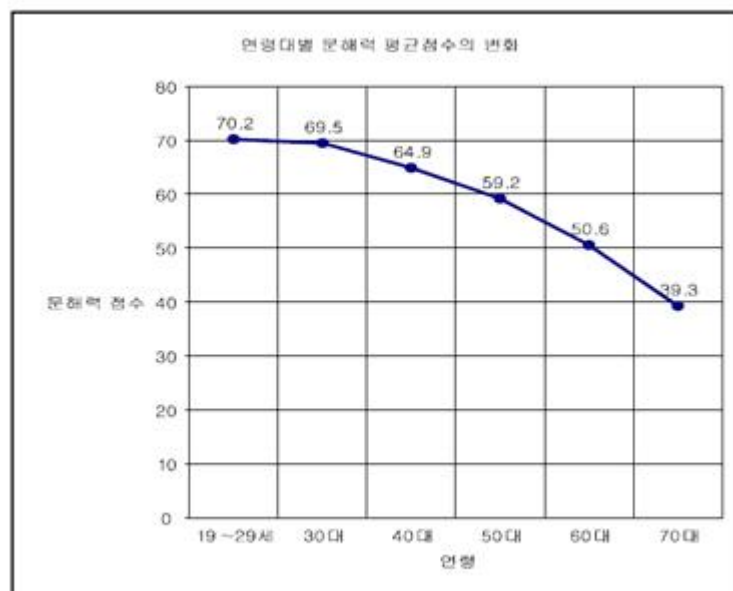
<표 197>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8>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러한 읽기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결과를 2008년 국민의 문해력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8년 조사에서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해력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본 조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2008 문해력 검사의 연령대별 차이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역 규모별로 읽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0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이 중소 도시보다 읽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가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 도시의 순으로 높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 도	사후비교 (Turkey HSD)
	대도시 (1361명)	중소 도시 (1083명)	읍면 지역 (472명)			
읽기 영역	192.66 (62.73)	185.71 (61.94)	196.22 (58.10)	6.115	.002	대도시>중소, 읍면>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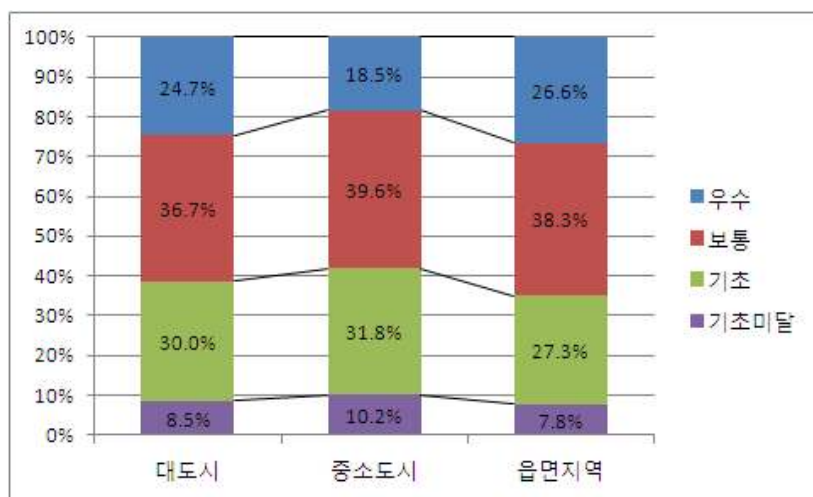
<표 198> 읽기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이러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우수 24.7%, 보통 36.7%, 기초 30%, 기초 미달 8.5%, 중소 도시의 경우 우수 18.5%, 보통 39.6%, 기초 31.8%, 기초 미달 10.2%, 읍면 지역의 경우 우수 26.6%, 보통 38.3%, 기초 27.3%, 기초 미달 7.8%의 분포를 보인다.

영역	수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명	%	명	%	명	%	명	%
읽기	우수	337	24.7%	200	18.5%	126	26.6%	663	22.7%
	보통	500	36.7%	429	39.6%	181	38.3%	1110	38.0%
	기초	409	30.0%	344	31.8%	129	27.3%	882	30.2%
	기초미달	116	8.5%	110	10.2%	37	7.8%	263	9.0%
	계	1362	100.0	1083	100.0	473	100.0	2918	100.0

<표 199>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0>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다음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별로 읽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읽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직업군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집단 안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 도	사후비교 (Turkey HSD)
	정신노동 (817명)	육체노동 (1161명)	기타 (938명)			
읽기 영역	197.34 (62.65)	185.50 (59.46)	191.21 (63.41)	8.905	.000	정신>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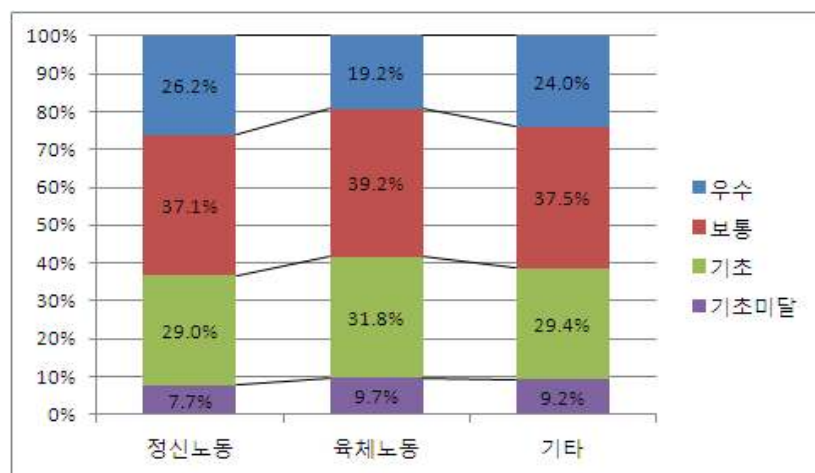
<표 200> 읽기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이러한 직업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정신노동의 경우 우수 26.2%, 보통 37.1%, 기초 29%, 기초 미달 7.7%, 육체노동의 경우 우수 19.2%, 보통 39.2%, 기초 31.8%, 기초 미달 9.7%, 기타의 경우 우수 24%, 보통 37.5%, 기초 29.4%, 기초 미달 9.2%의 분포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읽기	우수	214	26.2%	223	19.2%	225	24.0%	662	22.7%
	보통	303	37.1%	455	39.2%	352	37.5%	1110	38.1%
	기초	237	29.0%	369	31.8%	276	29.4%	882	30.2%
	기초미달	63	7.7%	113	9.7%	86	9.2%	262	9.0%
	계	817	100.0	1160	100.0	939	100.0	2916	100.0

<표 201>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학력군별로 읽기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

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읽기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중졸 이하 (324명)	고졸 (1002명)	대재 이상 (1590명)			
읽기 영역	179.25 (61.03)	186.57 (60.57)	195.56 (62.29)	12.807	.000	대재>중졸, 대재>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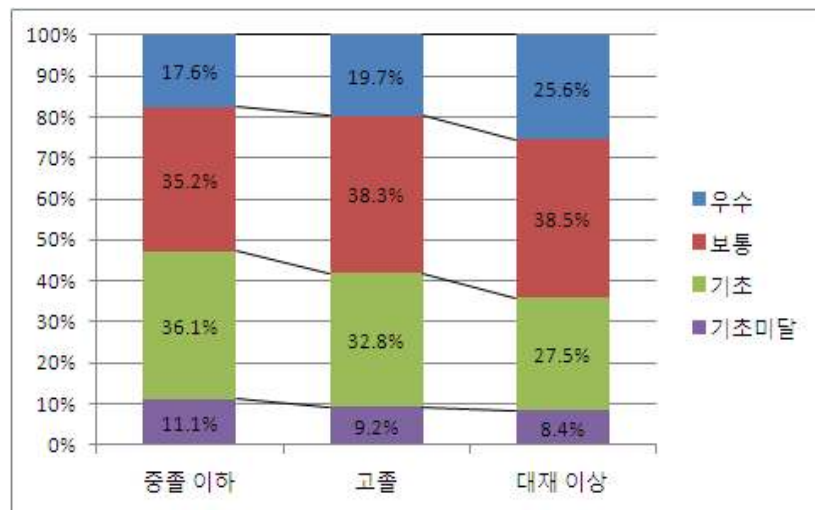
<표 202> 읽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이러한 학력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집단은 우수 17.6%, 보통 35.2%, 기초 36.1%, 기초 미달 11.1%, 고졸 집단은 우수 19.7%, 보통 38.3%, 기초 32.8%, 기초 미달 9.2%, 대재 이상 집단은 우수 25.6%, 보통 38.5%, 기초 27.5%, 기초 미달 8.4%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읽기	우수	57	17.6%	198	19.7%	407	25.6%	662	22.7%
	보통	114	35.2%	384	38.3%	612	38.5%	1110	38.1%
	기초	117	36.1%	329	32.8%	437	27.5%	883	30.3%
	기초미달	36	11.1%	92	9.2%	134	8.4%	262	9.0%
	계	324	100.0	1003	100.0	1590	100.0	2917	100.0

<표 203>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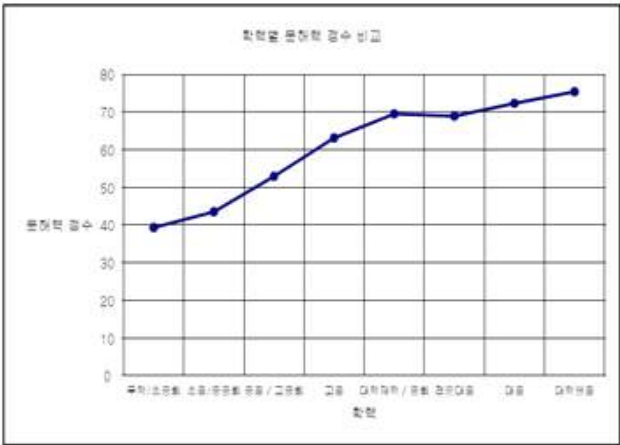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2>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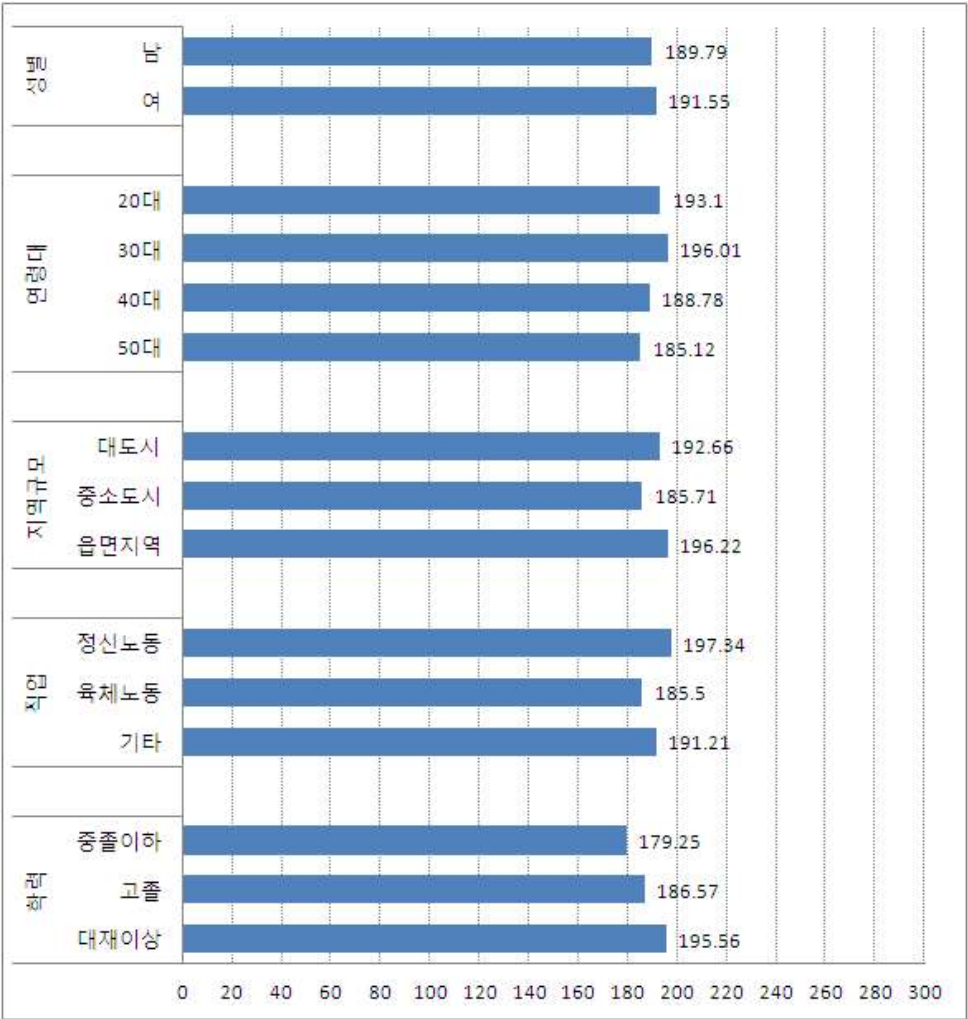
이러한 읽기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결과를 2008년 국민의 문해력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8년 조사에서 역시 학력이 높아질수록 문해력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본 조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3> 2008 문해력 검사의 학력별 차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읽기 영역의 변인별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4> 읽기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⑤ 문법 영역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는 88.14점(150점 만점)이었으며 최솟값 0점, 최댓값 149.08점을 보였다. 표준 편차는 28.87이었으며, 문법 영역의 10개 문항은 조사 도구 ‘가’ 형과 ‘나’ 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례 수는 조사 도구 ‘가’ 형의 결측치 84명을 제외한 2916명이었다.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 88.14점은 수준 등급별 분할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등급에 해당되어 조사 대상 국민의 평균적인 문법 능력은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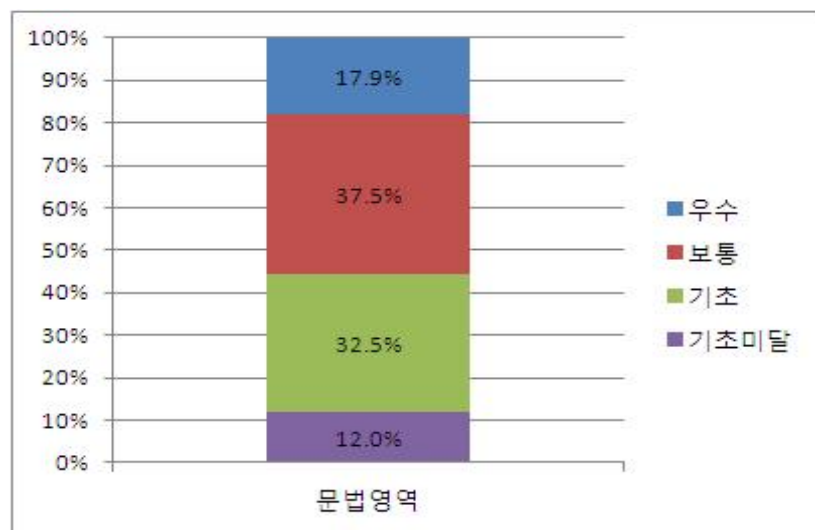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 수
문법 영역	88.14	28.87	0.00	149.08	2916

<표 204> 문법 영역의 기술 통계

문법 영역의 점수 분포를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앵고프 방식으로 분할한 수준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우수 등급이 522명(17.9%), 보통 등급이 1095명(37.5%), 기초 등급이 949명(32.5%), 기초 미달 등급이 350명(12%)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문법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분할 점수	인원(명)	비율
문법	우수	117.8	522	17.9%
	보통	87.4	1,095	37.5%
	기초	54.0	949	32.5%
	기초미달		350	12.0%
계			2,916	100

<표 205> 문법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그림 65> 문법 영역의 수준 등급별 분포



문법 영역의 조사 결과를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면, 유의도가 0.194로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고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약간 높게 분석되었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평균(표준편차)		T	유의도
	남(1481명)	여(1436명)		
문법 영역	87.45점(28.87)	88.84점(28.87)	-1.300	.194

<표 206> 문법 영역의 성별 차이

이러한 성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우수 17.6%, 보통 36.9%, 기초 32.9%, 기초 미달 12.6%로 나뉘고, 여성의 경우 우수 18.1%, 보통 38.3%, 기초 32.2%, 기초 미달 11.4%로 나뉜다.

영역	수준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문법	우수	261	17.6%	260	18.1%	521	17.9%
	보통	546	36.9%	549	38.3%	1095	37.6%
	기초	487	32.9%	462	32.2%	949	32.6%
	기초미달	186	12.6%	164	11.4%	350	12.0%
	계	1480	100.0%	1435	100.0%	2915	100.0%

<표 207>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6>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로 문법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20대가 40대보다, 20대가 50대보다, 30대가 50대보다 문법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20대 (610명)	30대 (759명)	40대 (823명)	50대 (724명)			
문법	92.50 (29.00)	89.42 (28.50)	87.05 (29.06)	84.35 (28.43)	9.774	.000	20대>40대 20대>50대 30대>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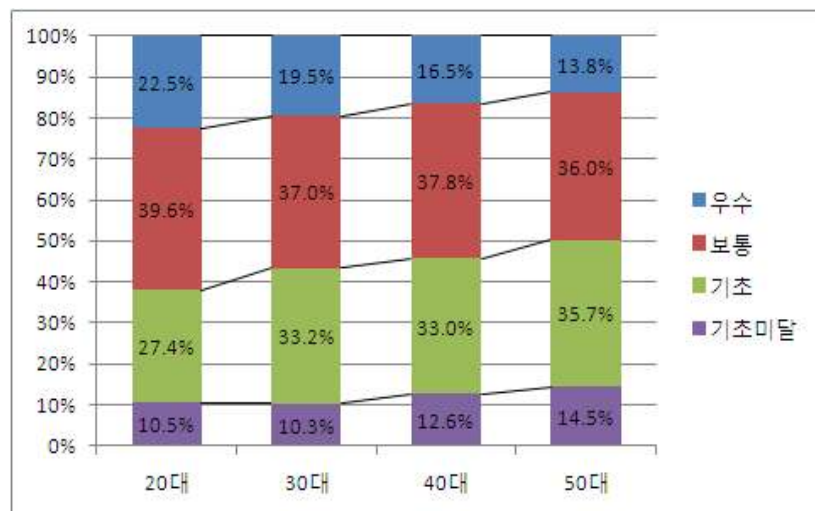
<표 208> 문법 영역의 연령대별 차이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20대의 경우 우수 22.5%, 보통 39.6%, 기초 27.4%, 기초 미달 10.5%로 나뉘고, 30대의 경우 우수 19.5%, 보통 37%, 기초 33.2%, 기초 미달 10.3%, 40대의 경우 우수 16.5%, 보통 37.8%, 기초 33%, 기초 미달 12.6%, 50대의 경우 우수 13.8%, 보통 36%, 기초 35.7%, 기초 미달 14.5%로 나뉜다.

영역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문법	우수	137	22.5	148	19.5	136	16.5	100	13.8	521	17.9%
	보통	241	39.6	281	37.0	311	37.8	261	36.0	1094	37.5%
	기초	167	27.4	252	33.2	272	33.0	259	35.7	950	32.6%
	기초 미달	64	10.5	78	10.3	104	12.6	105	14.5	351	12.0%
	계	609	100.0	759	100.0	823	100.0	725	100.0	2916	100.0

<표 209>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7>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역 규모별로 문법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01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문법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법 영역의 평균 점수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높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대도시 (1361명)	중소 도시 (1083명)	읍면 지역 (472명)			
문법 영역	90.23 (27.92)	86.50 (29.07)	85.87 (30.71)	6.795	.001	대도시>중소 대도시>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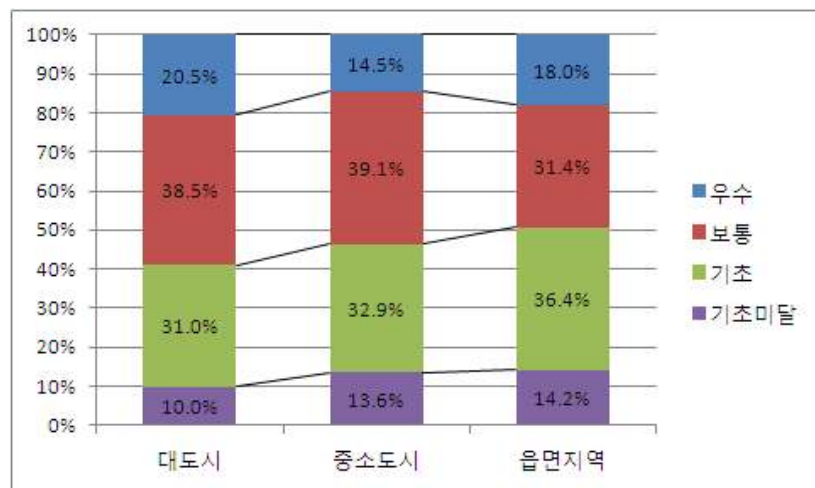
<표 210> 문법 영역의 지역 규모별 차이

이러한 지역 규모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우수 20.5%, 보통 38.5%, 기초 31%, 기초 미달 10%, 중소 도시의 경우 우수 14.5%, 보통 39.1%, 기초 32.9%, 기초 미달 13.6%, 읍면 지역의 경우 우수 18%, 보통 31.4%, 기초 36.4%, 기초 미달 14.2%의 분포를 보인다.

영역	수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명	%	명	%	명	%	명	%
문법	우수	279	20.5%	157	14.5%	85	18.0%	521	17.9%
	보통	524	38.5%	423	39.1%	148	31.4%	1095	37.6%
	기초	421	31.0%	356	32.9%	172	36.4%	949	32.6%
	기초미달	136	10.0%	147	13.6%	67	14.2%	350	12.0%
	계	1360	100.0	1083	100.0	472	100.0	2915	100.0

<표 211>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8>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지역 규모별 분포

다음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의 직업군별로 문법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타 집단이 육체노동자에 비해 문법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직업군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집단 안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정신노동 (817명)	육체노동 (1161명)	기타 (938명)			
문법 영역	90.48 (28.46)	85.15 (28.45)	89.79 (29.46)	10.525	.000	정신>육체, 기타>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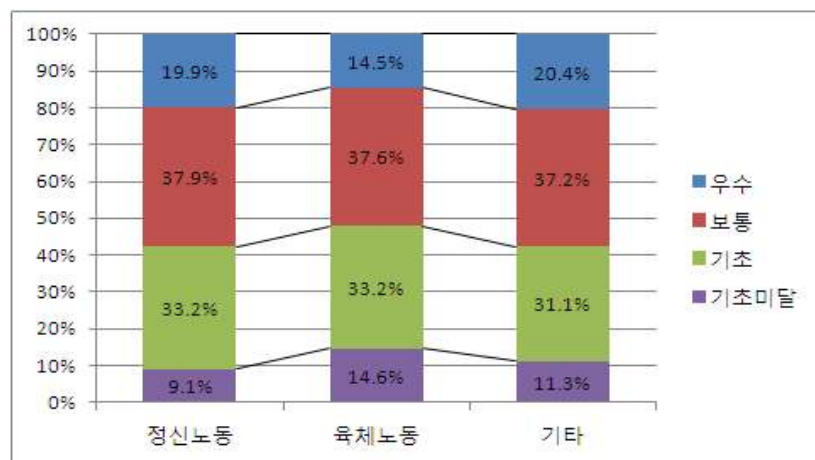
<표 212> 문법 영역의 직업군별 차이

이러한 직업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정신노동의 경우 우수 19.9%, 보통 37.9%, 기초 33.2%, 기초 미달 9.1%, 육체노동의 경우 우수 14.5%, 보통 37.6%, 기초 33.2%, 기초 미달 14.6%, 기타의 경우 우수 20.4%, 보통 37.2%, 기초 31.1%, 기초 미달 11.3%의 분포로 분석된다.

영역	수준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문법	우수	162	19.9%	168	14.5%	192	20.4%	522	17.9%
	보통	309	37.9%	437	37.6%	349	37.2%	1095	37.6%
	기초	271	33.2%	386	33.2%	292	31.1%	949	32.5%
	기초미달	74	9.1%	170	14.6%	106	11.3%	350	12.0%
	계	816	100.0	1161	100.0	939	100.0	2916	100.0

<표 213>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9>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학력군별로 문법 영역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후 비교를 위한 터키 검정 결과,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대재 이상이 고졸보다 문법 능력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사후비교 (Turkey HSD)
	중졸 이하 (324명)	고졸 (1002명)	대재 이상 (1590명)			
문법 영역	81.34 (30.91)	86.07 (28.39)	90.82 (28.43)	18.626	.000	대재>중졸 대재>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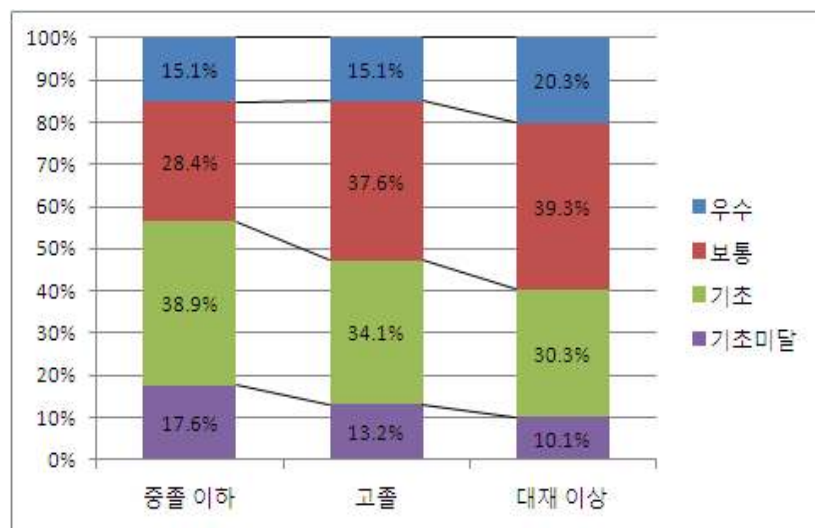
<표 214> 문법 영역의 학력군별 차이

이러한 학력군별 차이를 수준 등급으로 구획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집단은 우수 49%, 보통 28.4%, 기초 38.9%, 기초 미달 17.6%, 고졸 집단은 우수 15.1%, 보통 37.6%, 기초 34.1%, 기초 미달 13.2%, 대재 이상 집단은 우수 20.3%, 보통 39.3%, 기초 30.3%, 기초 미달 10.1%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문법	우수	49	15.1%	151	15.1%	322	20.3%	522	17.9%
	보통	92	28.4%	377	37.6%	625	39.3%	1094	37.5%
	기초	126	38.9%	342	34.1%	482	30.3%	950	32.6%
	기초미달	57	17.6%	132	13.2%	161	10.1%	350	12.0%
	계	324	100.0	1002	100.0	1590	100.0	29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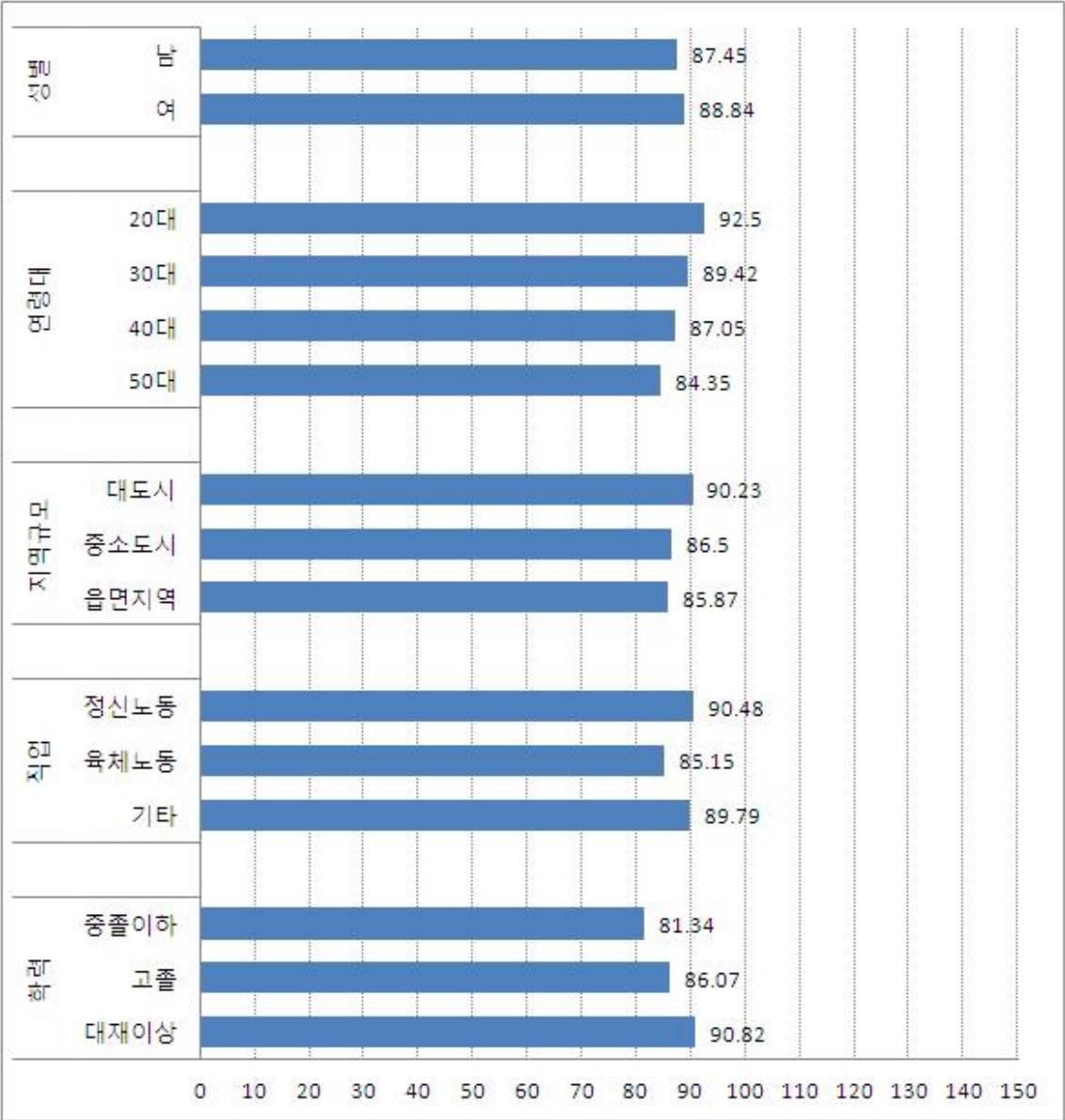
<표 215>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0> 문법 영역 수준 등급의 학력군별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문법 영역의 변인별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1> 문법 영역 변인별 평균 차이

## VII 제언

### 1.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2013년 현재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점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관련 국어 정책을 입안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을 시행하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어능력이 저조한 영역이 어느 부분이며,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1.1. 영역별 우선순위 결정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의 각 영역별 수준 등급의 비율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영역별로 기초 등급과 기초 미달 등급에 대해 정책적·교육적 대처가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그 비율은 쓰기, 말하기, 문법, 읽기, 듣기의 순으로 많다. 특히,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경우, 기초와 기초 미달 등급을 합한 비율이 각각 73.7%, 64.0%이며 일반 국민의 3명 중 2명 이상이 기초 등급 이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와 말하기의 표현 능력과 관련된 정책적·교육적 대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나 각 영역별 정책 과제를 배분할 때에도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쓰기와 말하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기초+ 기초 미달
말하기	2.8%	33.2%	49.5%	14.5%	64.0%
듣기	33.7%	36.3%	20.3%	9.7%	30.0%
읽기	22.7%	38.1%	30.2%	9.0%	39.2%
쓰기	3.6%	22.7%	55.3%	18.4%	73.7%
문법	17.9%	37.5%	32.5%	12.0%	44.5%

<표 216> 영역별 수준 등급 비율

#### 1.2. 집단별 우선순위 결정

본 연구에서 상정한 5개의 변인별로 우선적으로 정책적·교육적 대처가 요구되는 기초 + 기초 미달 등급 집단의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국어능력으로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변인에 해당하는 집단 중 우선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집단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 집단,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직업 군별로는 육체노동과 기타, 학력군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적·교육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집단에 대한 심층



적인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국어능력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특화된 국어 정책 및 국어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구분		전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기초	기초 미달	기초	기초 미달	기초	기초 미달	기초	기초 미달	기초	기초 미달	기초	기초 미달
성	남성	47.1%	9.0%	50.7%	16.9%	18.2%	9.9%	31.3%	9.5%	55.8%	19.0%	32.9%	12.6%
		56.1		67.6		28.1		40.8		74.8		45.5	
	여성	44.6%	8.5%	48.4%	12.0%	22.5%	9.4%	29.2%	8.5%	54.7%	17.7%	32.2%	11.4%
		53.1		60.4		31.9		37.7		72.4		43.6	
연령	20대	41.8%	7.7%	53.4%	12.2%	17.2%	9.5%	29.6%	8.9%	54.5%	9.6%	27.4%	10.5%
		49.5		65.6		26.7		38.5		64.1		37.9	
	30대	43.0%	6.7%	47.9%	10.1%	21.1%	8.8%	26.6%	8.2%	55.8%	14.5%	33.2%	10.3%
		49.7		58.0		29.9		34.8		70.3		43.5	
	40대	46.5%	9.7%	48.8%	15.4%	21.1%	9.2%	30.3%	10.0%	54.0%	23.1%	33.0%	12.6%
		56.2		64.2		30.3		40.3		77.1		45.6	
	50대	51.7%	10.8%	48.7%	19.8%	21.2%	11.3%	34.7%	8.8%	56.9%	24.8%	35.7%	14.5%
		62.5		68.5		32.5		43.5		81.7		50.2	
지역 규모	대도 시	42.2%	8.4%	46.7%	12.6%	18.2%	9.8%	30.0%	8.5%	57.9%	14.9%	31.0%	10.0%
		50.6		59.3		28.0		38.5		72.9		41.0	
	중소 도시	50.0%	9.7%	52.9%	13.2%	23.0%	10.5%	31.8%	10.2%	50.4%	23.6%	32.9%	13.6%
		59.7		66.1		33.5		42.0		77.6		46.5	
	읍면 지역	47.5%	7.8%	50.0%	22.6%	20.8%	7.8%	27.3%	7.8%	58.8%	16.0%	36.4%	14.2%
		55.3		77.6		28.6		35.1		74.8		50.6	
직업 군	정신 노동	41.2%	7.1%	51.0%	11.2%	16.0%	10.0%	29.0%	7.7%	53.1%	18.3%	33.2%	9.1%
		48.3		62.2		26.0		36.7		71.4		42.3	
	육체 노동	51.9%	9.3%	48.7%	18.7%	24.2%	9.5%	31.8%	9.7%	57.7%	20.8%	33.2%	14.6%
		61.2		67.4		33.7		41.5		78.5		47.8	
	기타	42.5%	9.6%	49.3%	12.2%	19.4%	9.6%	29.4%	9.2%	54.1%	15.4%	31.1%	11.3%
		52.1		61.5		29.0		38.6		69.5		42.4	
학력 군	중졸 이하	47.5%	16.0%	44.8%	22.1%	21.3%	13.5%	36.1%	11.1%	55.9%	23.5%	38.9%	17.6%
		63.5		66.9		34.8		47.2		79.4		56.5	
	고졸	51.1%	9.7%	48.5%	17.2%	21.0%	10.8%	32.8%	9.2%	57.4%	21.3%	34.1%	13.2%
		60.8		65.7		31.8		42.0		78.7		47.3	
	대재 이상	42.2%	6.8%	51.1%	11.3%	19.9%	8.2%	27.5%	8.4%	53.7%	15.4%	30.3%	10.1%
		49.0		62.4		28.1		35.9		69.1			

<표 217> 영역별 기초+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

### 1.3. 일반 국민 대상 국어교육의 정책화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국어능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쓰기, 말하기’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어능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민



들의 국어능력 함양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온라인 강의’의 형태로 개발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국어문화 학교’의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쓰기, 말하기’를 온라인 교육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폭넓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 이후에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실제 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환원되는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도에는 올해의 분석 결과에 따라 ‘쓰기,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15년 이후에는 ‘문법, 듣기, 읽기’ 영역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적·교육적 처치를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연구와 실행이 후속되어야 한다.

##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가의 시행이란 넓은 의미에서 ‘평가의 계획, 평가 도구의 개발, 평가 도구의 현장 투입과 회수, 평가 결과 분석과 보고 단계’ 등의 4단계 모두를 포괄(남민우·남가영, 2011:113)한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 단계의 일부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국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초 연구(문항 개발, 2012년) - 실행 연구(2013년) - 심층 분석 연구(2014년)<sup>35)</sup>’의 연구 실행 단계를 가정하여 ‘심층 분석 연구’에 해당할 수 있는 후속 연구 과제들을 일정 부분 제안하고자 한다.

### 2.1. 각 영역의 하위 요소별 분석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각 영역의 조사 도구는 일정한 조사 요소(평가 요소)의 설정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말하기 영역은 ‘설득, 설명’으로, 듣기 영역은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로, 읽기 영역은 ‘사실적/축자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로, 쓰기 영역은 ‘친교적 쓰기, 설명적 쓰기, 논증적 쓰기’로, 문법 영역은 ‘규범, 어휘, 문장’으로 조사 요소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각 조사 요소별로도 심층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35) 대규모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나 PISA 평가 등도 모두 이러한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예컨대, 듣기 영역에서 사실적 듣기의 평균 점수가 추론적 듣기의 평균 점수보다 높다고 할 때, 이것이 조사 도구의 난이도 때문인지, 실제 국민들의 듣기 능력의 차이 때문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2. 각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원 점수와 척도 변환 점수를 기준으로, 각 영역별 상관관계를 일정 정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각 성취 수준 등급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로 나누어 영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든지, 각 변인별(성별, 연령대별, 지역 규모별, 학력군별, 직업군별)로 영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접근할 때,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2.3. 쓰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주관식으로 진행된 쓰기과 말하기 영역의 점수가 다른 영역의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쓰기과 말하기 영역에서 설정한 하위 요소별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과 더불어 이미 확보된 대규모의 말하기와 쓰기 결과물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2.4. 변인별 격차 해소 방안 탐색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들에 대한 차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이때의 원인 분석은 단순히 추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태 조사 및 다른 연구 결과와의 비교 과정 등을 통해 세심하게 접근하여 보다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교육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부록으로 제시한 16개 시도별 국어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 대상 국어교육이나 정책적 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원인과 대처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 2.5. 맥락 변인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통계 정보의 변인만을 설정하였지만, 실상 국어능력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 변인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다 심층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피조사자를 추적하여 해당 피조사자들의 국어능력 관련 맥락 변인을 조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 영역, 수준, 변인별 집단 등에서 대표성을 띠는 소수의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관찰 등의 질적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2.6.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들 자료를 학계와 공유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의 대규모 데이터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부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 오고 있다. 또한,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sup>36)</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조사를 홍보함은 물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72> 2013년도 국제성인역량조사 홈페이지

## 3. 다음 주기 조사를 위한 제언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는 단순히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포착하는 데 있지 않고, 향후 국민의 국어능력 추이를 중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기 조사에서도 몇 가지 측정학적 장치를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첫째, 2013년의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기 조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척도 점수

36) 24개 국가 혹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16세에서 65세에 이르는 15만 7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평생 학습 정책과와 고용부 직업 능력 개발 정책과의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고 국내 조사 및 연구 총괄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이 조사 실행은 통계청에서 담당한다.

변환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원 점수 체제로는 연도 간 국어능력의 종단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척도 점수 체제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 도구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점수대에 따른 측정 오차가 유사해야 하며, 검사 동등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점수의 증분이 일정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의 앵고프 방식에 따른 판정으로 도출한 각 영역별 성취 수준 등급의 분할 점수들을 연도 간 변화 추이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사 주기에 따른 피조사자들의 국어능력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이 변화는 기준년(2013년)에 설정된 성취 수준 등급의 분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점은 측정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조사 도구를 통해 국어능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두 조사 도구 간의 검사 동등화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동등화는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된 조사 도구 간의 난이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한 조사 도구는 가능한 유사하게 개발하려 하지만 실제의 조사 결과에서는 난이도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피조사자가 어떠한 조사 도구로 문항을 풀더라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익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 도구 간에 존재하는 난이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정하고 나면 서로 다른 해에 실시된 조사의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능력 수준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도 조사 도구와 다음 주기 조사 도구 사이에 가교 문항을 설정하여 이 문항들을 중심으로 조사 도구 사이의 동등화를 시행해야 한다.

### 3.1. 가교 문항의 선정

본 연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향후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원년 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5년 주기의 ‘주기별 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원 점수만으로는 국어능력 성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고, 이후의 조사 결과와의 비교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표준화된 척도 점수로 산출해야 한다.

또한, 주기별 조사를 통해 측정된 국어능력이 하나의 척도로 수렴하게 하기 위해, 전체 문항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교 문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교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사 문항의 공개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고 피조사자와 당시 조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문항의 20% 정도를 가교 문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각 영역별로 선정한 일정한 분량의 가교 문항들은 5년 뒤의 조사에서도 조사 도구에 포함하여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두 조사 간의 동등화 과정을 거쳐 척도 점수로 변환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국어능력 변화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가교 문항들은 각 영역별로 해당 영역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피조사자의 능력 속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문항의 난이도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가교 문항이 전체 문항들의 난

이도 분포에 비해 좁은 범위를 가질 때 가교 문항들과 전체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동등화의 정확성도 향상되므로 전체 문항들의 난이도 평균과 가교 검사 문항들의 난이도 평균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 도구 문항 중 각 영역별로 20%에 해당하는 가교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때, 영역별 난이도 평균과 가교 문항의 난이도 평균은 가급적 일치하도록 유지하였다.

영역	전체 문항 수	가교 문항 수(20%)	영역별 난이도 평균	가교 문항	가교 문항의 난이도 평균
듣기 영역	10	2	0.74	2번, 3번	0.79
말하기 영역	3	1	0.55	3번	0.46
읽기 영역	20	4	0.66	2번(가), 2번(나), 3번(공통), 4번(공통)	0.63
쓰기 영역	3	1	0.47	2번	0.43
문법 영역	10	2	0.59	1번, 6번	0.63

<표 218> 영역별 가교 문항 선정

이러한 가교 문항들은 해당 영역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피조사자의 능력 속성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문항 자체의 변별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교 문항들의 변별도는 다음과 같다.

영역	문항 번호	변별도	판정
듣기 영역	2번	0.513	변별력이 높은 문항
	3번	0.537	변별력이 높은 문항
말하기 영역	3번	0.742	변별력이 높은 문항
읽기 영역	2번(가)	0.494	변별력이 높은 문항
	2번(나)	0.512	변별력이 높은 문항
	3번(공통)	0.529	변별력이 높은 문항
	4번(공통)	0.545	변별력이 높은 문항
쓰기 영역	2번	0.804	변별력이 높은 문항
문법 영역	1번	0.452	변별력이 높은 문항
	6번	0.442	변별력이 높은 문항

<표 219> 가교 문항의 변별도

이러한 가교 문항들은 5년 후의 다음 주기 조사 도구에 반영되어, 두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교 문항은 5년 후의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문항이 노출되거나 조사 시기에 따라 더 적절한 문항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경우 동형의 문항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한 문항 대신에 동형의 유사한 문항들을 가교 문항으로 설정하는 것도 조사 도구 동등화의 한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문항을 가교 문항으로 설

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통계적 처리가 요구된다.

### 3.2. 전 영역에 걸친 공통 문항 설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실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동등 집단 공통 문항 설계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설계하여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조사 도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때, 읽기 영역의 6개 문항, 문법 영역의 10개 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두 조사 도구 간의 동등화를 시행하여 전체 국어능력을 추정하였다.

전체 국어능력을 추정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정합적인 방식은 개별 피조사자가 응답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점수를 다른 영역의 결과를 통해 추정해 내는 방식일 것이다. 예컨대, ‘가’ 형에만 응답한 피조사자의 ‘나’ 형에만 포함되어 있는 쓰기 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읽기 영역 6개 문항, 문법 영역 10개의 공통 문항을 통하여 ‘가’ 형과 ‘나’ 형의 검사 동등화를 실시하고, ‘가’ 형에만 응답한 피조사자의 ‘나’ 형에만 포함되어 있는 쓰기 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 형의 듣기, 말하기, 읽기, 문법 영역과 ‘나’ 형의 쓰기 영역 사이에 상관관계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국어능력 추정을 위해 각 영역별로 원 점수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아,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듣기, 읽기, 문법 영역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나,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말하기, 쓰기 영역과 나머지 영역 사이에는 상관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7)</sup>.

	듣기 영역	읽기 영역	문법 영역	말하기 영역	쓰기 영역
듣기 영역	1	.526	.381	.123	—
읽기 영역	.526	1	.420	.170	.216
문법 영역	.381	.420	1	.176	.239
말하기 영역	.123	.170	.176	1	—
쓰기 영역	—	.216	.239	—	1

<표 220> 각 영역별 원 점수 상관관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국어능력 점수를 추정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조사 도구에 공통으로 설정한 16개 문항의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국어능력 모수를 설정하고 문항 반응 이론 모형을 통해 전체 국어능력 점수를 추정하였던 것이다.

다음 주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정합적인 방식으로 전체 국어능력을 추정하기 위해 조사 도구를 이원적으로 설계한다고 해도, 전 영역에 걸쳐 공통 문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조사 도구에 모든 영역을 포함하게 하되, 각 영역의 문항 수는 줄이고 공통 문항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의 문항만으로도 해당 영역의 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도구를 설계할

37) 사실, 이 문제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각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도 요구된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도, 국어능력이라는 전체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3.3. 다양한 배경 변인 설정

본 연구에서는 변인별 국어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 변인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배경 변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맥락 변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국어능력 조사와 병행하여 자료를 얻고, 둘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배경 질문지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지 역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1. 귀하께서는 한 달 평균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① 전혀 읽지 않음    ② 1~2권 정도    ③ 3~4권 정도    ④ 5권 이상
2.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TV를 시청하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3.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4. 귀하께서는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에서 어려운 단어나 구절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십니까?  
 ① 찾아보는 편이다 (→문 4-1로)    ② 찾아보지 않는 편이다 (→문 4-2로)
- 4-1. (문 4에서 ①응답자만) 사전을 찾아보신다면 어떤 사전을 찾아보십니까?  
 ① 종이 사전    ② 인터넷 사전    ③ 전자사전    ④ 모바일 사전
- 4-2. (문 4에서 ②응답자만)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신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단어나 구절을 이해하십니까?  
 ① 앞뒤 문장을 통해 뜻을 짐작한다  
 ②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  
 ③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
5. 말을 통한 소통과 글을 통한 소통 중 어느 것이 더 쉽고 편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말을 통한 소통(말하기, 듣기)    ② 글을 통한 소통(읽기, 쓰기)
6. 한자 실력이 자신의 국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자를 많이 알수록 국어능력도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 ② 한자 실력과 국어능력은 서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③ 한자를 아는 것은 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7. 정부 차원의 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문 7-1로)
- ② 필요하지 않다.

7-1. 그렇다면, 현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교육 외의 다른 방식의 국어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국어교육, 또는 학교 졸업 이후 평생 교육 차원)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표 221> 맥락 변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 예시

이러한 별도의 조사를 통해 국어능력 조사 결과와 다양한 배경 변인 사이의 차이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타당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설문 조사 이외에 면담 조사, 실태 조사 등을 병행하여 배경 변인과 국어능력 수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sup>38)</sup>.

### 3.4. 조사 도구의 개선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 기반하여 제작하였고, 40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 영역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계되었다. 영역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변별력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조사 도구가 국민의 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데 대단히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문항의 난이도가 쉽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어려운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항이 조사 도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연령대, 직업군, 학력군 등의 변인에 따라 추출된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피조사자의 조사 참여 피로도나 집중도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보다 정합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 주기 조사에서는 조사 문항들의 난이도 분포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주기 연구에서는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의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간을 확보함은 물론, 기초 연구와 실행 연구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배수 이상의 조사 문항들을 충분하게 확보해 두어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문항들은 삭제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역시 조사 도구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조사 도구의 문제 중 하나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문항이었다. 국민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 평가를 실행하였지만, 조사 실행

38) 전수 조사로 시행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다양한 배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실제성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 말하기의 경우 녹음기를 이용한 녹음 방식에 대해 피조사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쓰기의 경우 손 글씨 쓰기의 번거로움 및 필체 등의 이유로 거부감이 많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주기 조사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상황의 실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참신하고 타당도 높은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조사하기 위한 도구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CBT 방식의 조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5. 조사 방식의 개선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예산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숙달된 조사원이 표집된 가구를 방문하여 1:1로 조사를 진행하는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아무리 동일한 교육을 시행한다 해도 조사원 사이의 동질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사에 응하는 피조사자의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주기 조사에서는 이러한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가장 합당한 방식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표집된 조사 대상들을 특정한 장소로 방문하게 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일 때에는 CBT 방식의 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발적 의지가 없는 피조사자가 평가형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보상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조사에서는 피조사자 1인당 5만 원~7만 원의 사례비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집된 피조사자가 조사 장소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실제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표집을 1.5배 정도 시행하는 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동환 외(2008), 국어능력 검정 모의 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김문오 외(2005),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김성훈·반재천(2009), 검사 동등화를 이용한 앵고프 방법과 북마크 방법의 비교, 교육평가연구 제22권 4집,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성규 외(2006), 국어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왕규 외(2001), 한국어능력 시험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남민우·남가영(2011), 국가 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행 체제 개선 방안, 국어교육 제 134집, 한국어교육학회.
- 노명완(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
- 민현식(2002), 한국인의 국어능력 실태,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박영민(2011),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을 위한 ‘쓰기’ 평가 이론의 정립, 국어교육 제 134집, 한국어교육학회.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박재현(2009), KBS 한국어능력 시험의 문항 특성, 새국어생활 제19권 3호, 국립국어원.
- 성태제(1998), 문항 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윤희원 외(2010),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의 개선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희수 외(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철성(2011),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을 위한 ‘듣기’ 평가 이론의 정립, 국어교육 제 134집, 한국어교육학회.
- 장경희 외(2009), 국어능력 검정 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홍소영(2011),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준설정을 위한 Angoff와 Bookmark 방법의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1권 4집,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Baker, F. B.(1985), *The Basic of Item Response Theory*, Portsmouth NH: Heinemann
- Cangelosi, J. S.(1990), *Designing tests for evaluating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don.
- Ebel, R. L.(1965), *Measuring Educationa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eida, W.(2011), *Understanding Adult Functional Literacy: connecting Text Features, Task, Demands, and Respondent Skills*, Routledge.

## <Abstract>

### 2013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the General Public

The present study has conducted to evaluat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the general public on five section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grammar, and to construct the system of regularizing this kind of quinquennial survey.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and concrete data from the result of this survey, we expect to plan the relevant Korean language policy and to set up a fram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For this, we need to develop a valid and reliable evaluation tool. The present study develops an evaluation tool based on the basic research of Sowon Jang et al. (2012), and distinguish the evaluation tool as ‘가’ type and ‘나’ type,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executing evaluation. Also, it modifies level of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by the result of preliminary research.

In addition, to have representativeness for evaluation subject on population, we sampled evaluation subject, combining the way of 2 level stratified sampling and cluster sampling. We have sampled evaluation subject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actual population distribution by controlling 5 factors; sex, age, scale of the area, education background, occupational cluster.

Furthermore, in order to appropriately compare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with the result of the next study, we provide three ways of measurement. First of all, we computed the score based on scale score, not raw score. It was calculated by applying Item Response Theory. Secondly, we worked out cut score to grad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the general public as excellent, normal, basic and below basic, and to divide the grade in each section respectively. It was computed in the method of Angoff through the conference of 24 experts. In the last, we chose anchor item more than 20% in each section on the basis of the present study to enable the comparison between this research and the next term research by test equating.

The preliminary evaluation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about 3 weeks (6.24.13~7.16.13), targeting 400 adult males and females in the age of 20~59 who live in metropolitan area. We select the subject through stratified sampling according to scale of the area and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background. Based on the result of preliminary evaluation, we analyzed the level of difficulty and validity of each question and revised investigation tool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analysis on preliminary evaluation, we examined the way of sampling, evaluation and the scoring process of essay questions.

The main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about 10 weeks (9.1.13~11.15.13) for 3000 adult males and females. We made use of modified questions after preliminary evaluation, and evaluat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the general public with two types of ‘가’ and ‘나’ on five section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We analyzed 1416 data of ‘가’ type and 1500 data of ‘나’ type except 84 data

which have missing data in speaking section. 1416 data in listening and speaking sections, 1500 data in writing section, and 2916 data in reading and grammar sections became the subject of analy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average score is 579.62/1000 f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there are 347 people(11.9%) of excellent level, 975 people(33.4%) of normal level, 1338 people (45.9%) of basic level, 256 people (8.8%) of below basic level.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average score for each section; 69.79/150 in speaking, 122.07/250 in writing, 108.88/150 in listening, 190.66/300 in reading, 88.14/150 in grammar.

And the results were : In speaking section, there are 40 people(2.8%) of excellent level, 470 people(33.2%) of normal level, 702 people (49.5%) of basic level, 205 people (14.5%) of below basic level. We analyzed that speaking skill for the general public is much lower than the skills for other sections.

In writing section, there are 55 people(3.6%) of excellent level, 341 people(22.7%) of normal level, 829 people(55.3%) of basic level, and 275 people(18.4%) of below basic level. We analyzed that writing skill for the generic public is much lower than the skills for other sections.

In listening section, there are 478 people(33.7%) of excellent level, 514 people(36.3%) of normal level, 288 people (20.35%) of basic level, 137 people (9.7%) of below basic level. The most general public have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listening.

In reading section, there are 622 people(22.7%) of excellent level, 1110 people(38.1%) of normal level, 882 people (30.2%) of basic level, 262 people (9%) of below basic level. We analyzed that reading skill for the general public is generally good.

In grammar section, there are 522 people(17.9%) of excellent level, 1095 people(37.5%) of normal level, 949 people (32.5%) of basic level, 350 people (12%) of below basic level. We analyzed that grammar skill for the general public is better than the skills for other section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general public have a low level in speaking and writing section. In particular, based on the variables, male adults, people who are in forties and fifties in age, who live in small towns, and that are involved in physical labours have a basic and below-basic level. And hence these groups require systematic and educational support.

We make propositions in three sections: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Continuing further studies', 'Continuing the next investiga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the General Public, Listening Proficiency, Speaking Proficiency, Reading Proficiency, Writing Proficiency, Grammar Proficiency, Scale Score, Angoff.

Project Director: Kim Jongcheol(Seoul National University)



### [부록 3: 16개 시도별 분석 결과]

본격적인 분석 대상 변인은 아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 비례 분포를 반영하여 16개 시도별로 표본 대상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시도별 변인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도 분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시도별로 각 영역별 및 전체 국어능력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듣기 영역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문법 영역	총점
서울	평균	113.95	210.25	97.40	71.71	127.80	640.46
	표준편차	28.52	59.93	25.82	21.67	36.30	170.10
	사례수	314	629	629	314	315	629
부산	평균	103.13	176.34	80.15	66.82	115.62	529.14
	표준편차	21.87	57.73	25.87	18.53	28.73	149.18
	사례수	96	201	201	96	105	201
대구	평균	111.01	178.12	86.61	71.62	112.03	549.88
	표준편차	22.63	53.00	25.37	20.95	23.89	123.07
	사례수	68	142	142	68	74	142
인천	평균	102.09	173.28	89.69	77.00	134.70	575.66
	표준편차	30.88	66.99	30.62	16.24	36.52	190.07
	사례수	84	171	171	84	87	171
광주	평균	103.60	160.26	67.91	74.07	118.44	502.56
	표준편차	38.14	62.16	33.19	12.93	29.33	156.68
	사례수	40	83	83	40	43	83
대전	평균	107.51	209.00	94.21	72.11	142.07	643.70
	표준편차	33.26	63.00	23.31	12.70	35.43	161.72
	사례수	45	91	91	45	46	91
울산	평균	108.21	171.14	79.63	54.62	100.32	493.09
	표준편차	22.14	53.63	21.56	19.97	30.28	116.49
	사례수	26	61	61	26	35	61
경기	평균	105.79	189.65	86.49	66.26	118.89	566.34
	표준편차	34.39	61.79	30.52	19.10	39.35	169.97
	사례수	347	711	711	347	364	711
강원	평균	108.32	200.30	98.21	70.33	124.14	584.39
	표준편차	19.87	44.65	23.28	14.48	34.60	105.38
	사례수	43	86	86	43	43	86
충북	평균	123.52	226.43	110.01	78.42	146.70	722.36
	표준편차	21.58	51.30	26.00	18.28	37.71	146.74
	사례수	40	84	84	40	44	84
충남	평균	96.30	176.10	92.29	71.01	152.48	590.63
	표준편차	33.41	83.01	27.86	16.21	31.96	203.85
	사례수	55	114	114	55	59	114
전북	평균	124.88	210.25	71.62	72.92	104.41	580.99
	표준편차	14.37	56.74	27.66	15.13	40.66	128.49

	사례수	43	93	93	43	50	93
전남	평균	113.37	199.95	78.45	74.68	125.12	586.91
	표준편차	25.30	54.03	27.22	14.77	30.29	135.36
	사례수	48	97	97	48	49	97
경북	평균	102.40	172.15	73.77	61.85	103.40	496.96
	표준편차	20.00	52.22	25.71	18.77	38.38	110.12
	사례수	73	148	148	73	75	148
경남	평균	118.03	175.06	89.04	69.95	111.23	540.84
	표준편차	19.33	52.20	26.57	17.67	38.28	121.14
	사례수	80	175	175	80	95	175
제주	평균	88.83	145.44	81.26	74.20	114.31	465.85
	표준편차	16.48	43.90	25.64	10.54	27.65	98.59
	사례수	15	31	31	15	16	31
합계	평균	108.88	190.66	88.14	69.79	122.07	579.62
	표준편차	29.12	61.81	28.87	19.08	37.49	165.38
	사례수	1416	2916	2916	1416	1500	2916

<표 222> 시도별 기술 통계 결과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 영역에서 유의도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닌다.

	F	유의도
듣기 영역	5.350	.000
말하기 영역	15.531	.000
읽기 영역	20.090	.000
쓰기 영역	5.257	.000
문법 영역	11.010	.000
총점(국어능력)	21.061	.000

<표 223>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의 유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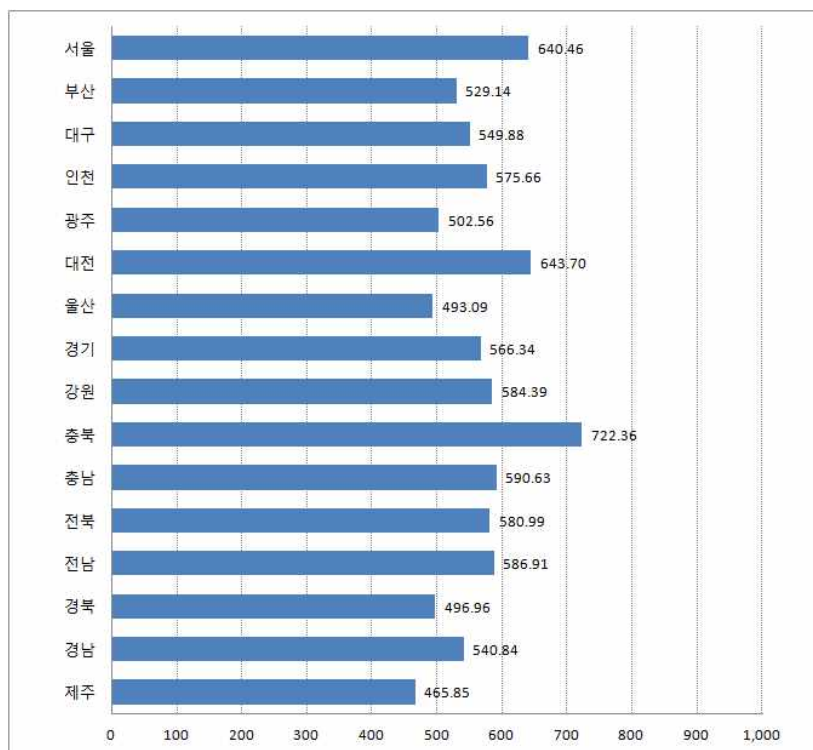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어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결과를 순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점 (국어능력)	순위	듣기 영역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문법 영역
충북	722.36	1	123.52	226.43	110.01	78.42	146.70
대전	643.70	2	107.51	209.00	94.21	72.11	142.07
서울	640.46	3	113.95	210.25	97.40	71.71	127.80
충남	590.63	4	96.30	176.10	92.29	71.01	152.48

전남	586.91	5	113.37	199.95	78.45	74.68	125.12
강원	584.39	6	108.32	200.30	98.21	70.33	124.14
전북	580.99	7	124.88	210.25	71.62	72.92	104.41
인천	575.66	8	102.09	173.28	89.69	77.00	134.70
경기	566.34	9	105.79	189.65	86.49	66.26	118.89
대구	549.88	10	111.01	178.12	86.61	71.62	112.03
경남	540.84	11	118.03	175.06	89.04	69.95	111.23
부산	529.14	12	103.13	176.34	80.15	66.82	115.62
광주	502.56	13	103.60	160.26	67.91	74.07	118.44
경북	496.96	14	102.40	172.15	73.77	61.85	103.40
울산	493.09	15	108.21	171.14	79.63	54.62	100.32
제주	465.85	16	88.83	145.44	81.26	74.20	11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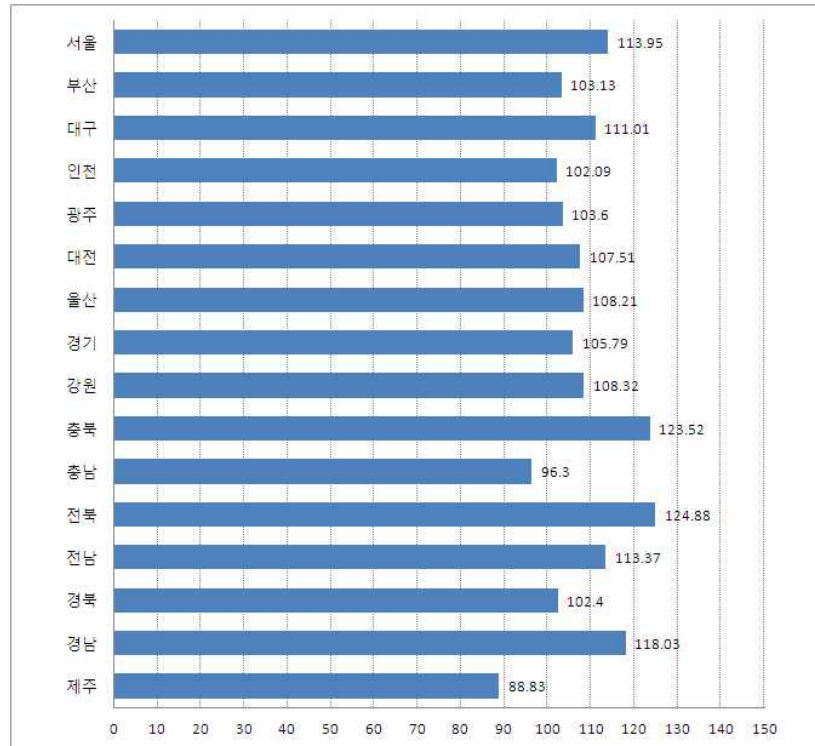
<표 224> 16개 시도의 국어능력 순위

이러한 결과를 전체 국어능력 점수 및 각 영역별로 그래프를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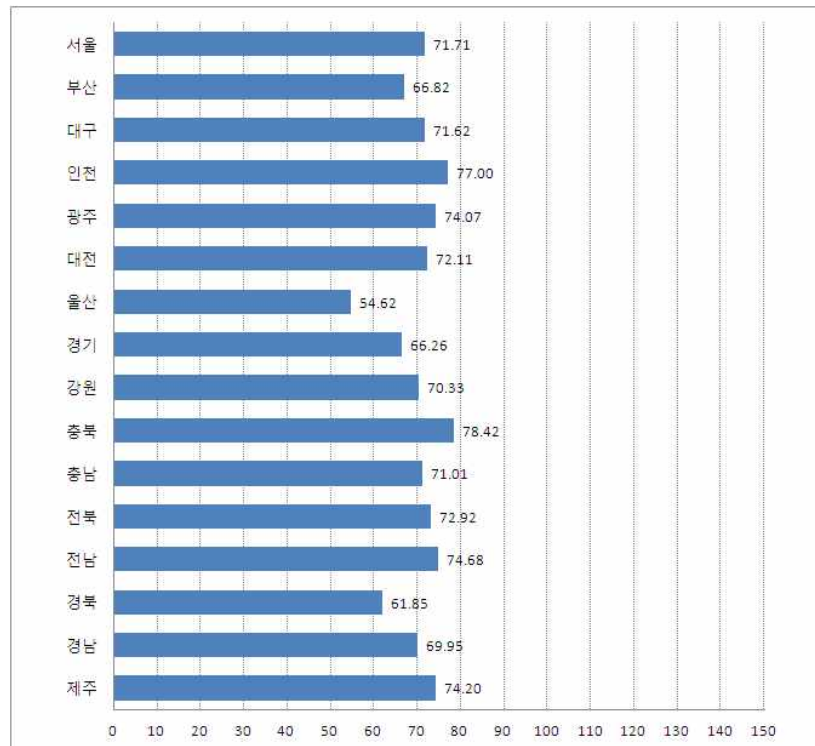


<그림 73> 전체 국어능력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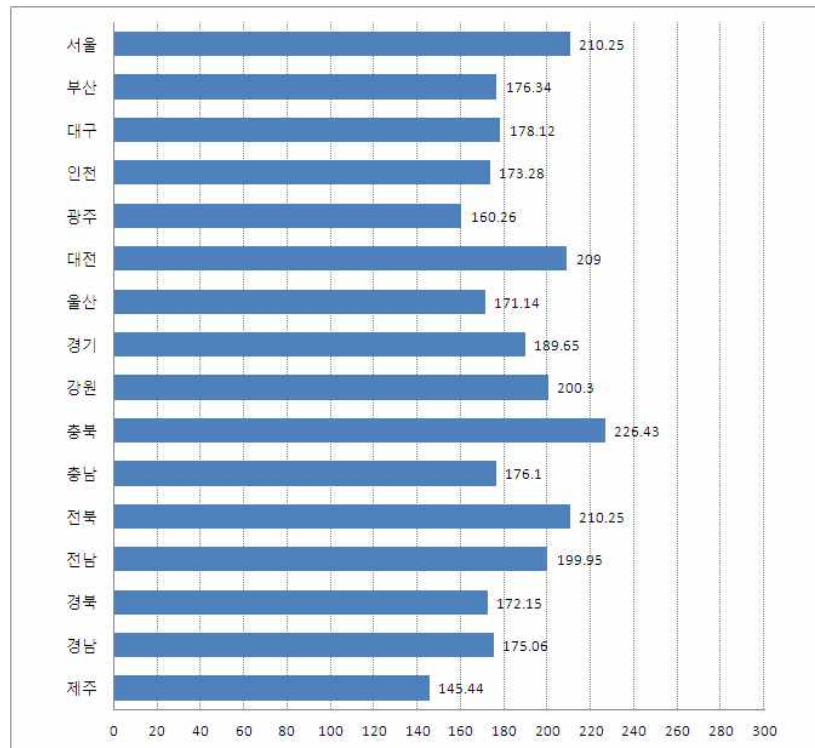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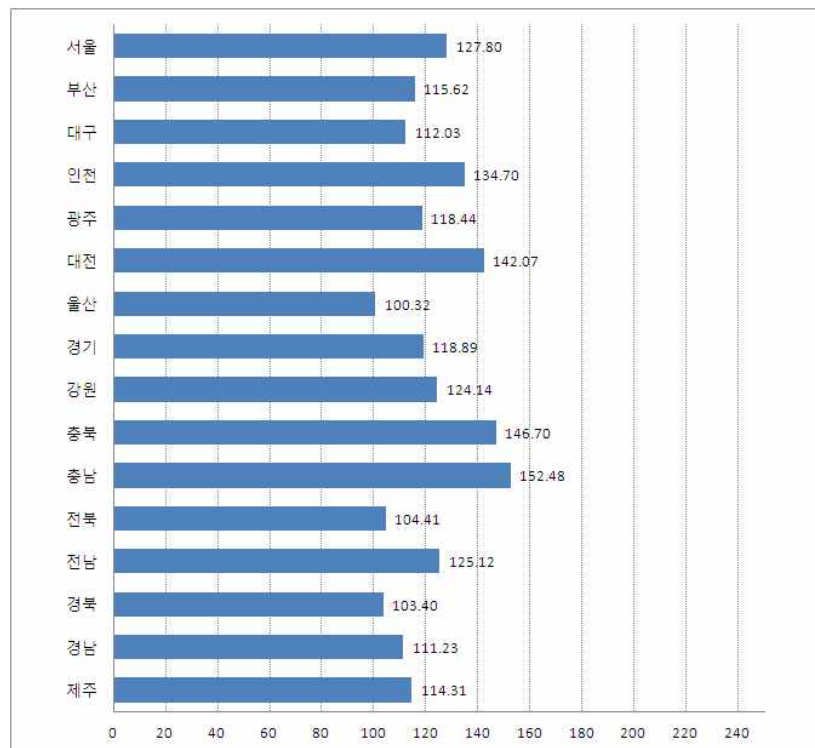
<그림 74> 듣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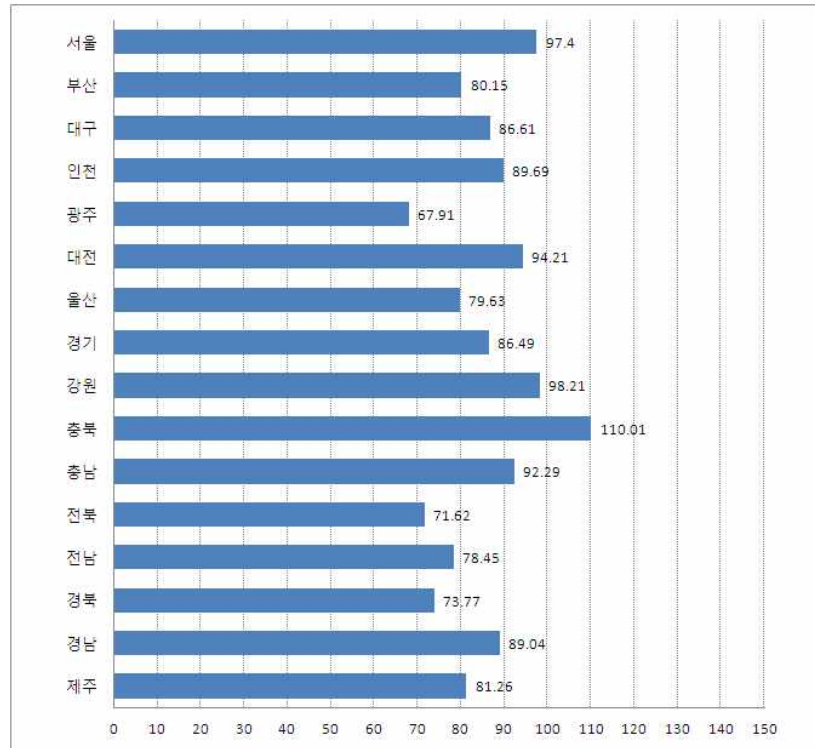
<그림 75> 말하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그림 76> 읽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그림 77> 쓰기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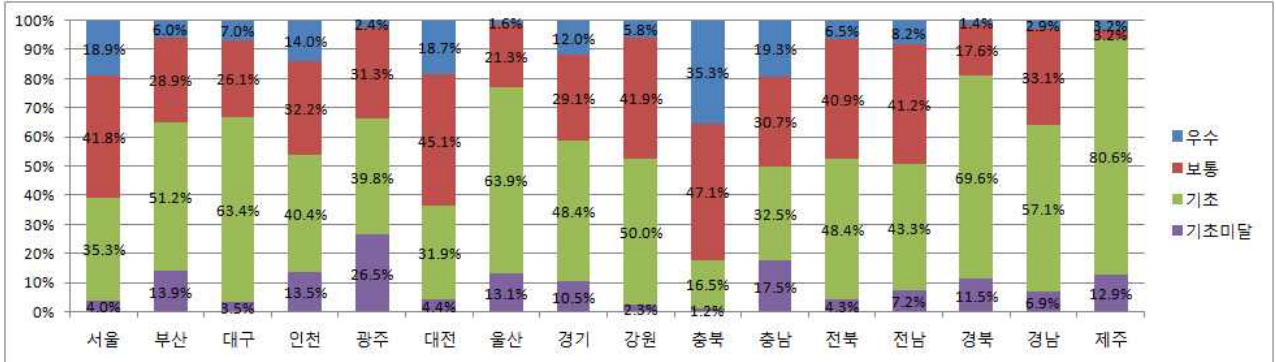
<그림 78> 문법 영역의 시도별 평균 점수 차이

또한,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을 전체 국어능력 및 각 영역별로 16개 시도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국어능력 기준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119	18.9%	263	41.8%	222	35.3%	25	4.0%	629	100.0%
부산	12	6.0%	58	28.9%	103	51.2%	28	13.9%	201	100.0%
대구	10	7.0%	37	26.1%	90	63.4%	5	3.5%	142	100.0%
인천	24	14.0%	55	32.2%	69	40.4%	23	13.5%	171	100.0%
광주	2	2.4%	26	31.3%	33	39.8%	22	26.5%	83	100.0%
대전	17	18.7%	41	45.1%	29	31.9%	4	4.4%	91	100.0%
울산	1	1.6%	13	21.3%	39	63.9%	8	13.1%	61	100.0%
경기	85	12.0%	207	29.1%	344	48.4%	75	10.5%	711	100.0%
강원	5	5.8%	36	41.9%	43	50.0%	2	2.3%	86	100.0%
충북	30	35.3%	40	47.1%	14	16.5%	1	1.2%	85	100.0%
충남	22	19.3%	35	30.7%	37	32.5%	20	17.5%	114	100.0%
전북	6	6.5%	38	40.9%	45	48.4%	4	4.3%	93	100.0%
전남	8	8.2%	40	41.2%	42	43.3%	7	7.2%	97	100.0%
경북	2	1.4%	26	17.6%	103	69.6%	17	11.5%	148	100.0%

경남	5	2.9%	58	33.1%	100	57.1%	12	6.9%	175	100.0%
제주	1	3.2%	1	3.2%	25	80.6%	4	12.9%	31	100.0%
합계	349	12.0%	974	33.4%	1,338	45.9%	257	8.8%	2,918	100.0%

<표 225> 16개 시도의 전체 국어능력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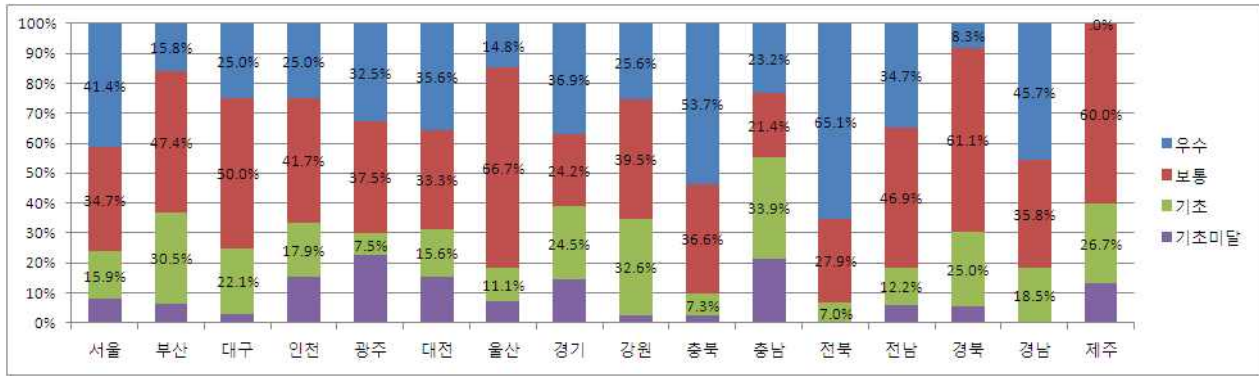


<그림 79> 국어능력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다음으로 듣기 영역의 시도별 수준 등급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130	41.4%	109	34.7%	50	15.9%	25	8.0%	314	100.0%
부산	15	15.8%	45	47.4%	29	30.5%	6	6.3%	95	100.0%
대구	17	25.0%	34	50.0%	15	22.1%	2	2.9%	68	100.0%
인천	21	25.0%	35	41.7%	15	17.9%	13	15.5%	84	100.0%
광주	13	32.5%	15	37.5%	3	7.5%	9	22.5%	40	100.0%
대전	16	35.6%	15	33.3%	7	15.6%	7	15.6%	45	100.0%
울산	4	14.8%	18	66.7%	3	11.1%	2	7.4%	27	100.0%
경기	128	36.9%	84	24.2%	85	24.5%	50	14.4%	347	100.0%
강원	11	25.6%	17	39.5%	14	32.6%	1	2.3%	43	100.0%
충북	22	53.7%	15	36.6%	3	7.3%	1	2.4%	41	100.0%
충남	13	23.2%	12	21.4%	19	33.9%	12	21.4%	56	100.0%
전북	28	65.1%	12	27.9%	3	7.0%	0	.0%	43	100.0%
전남	17	34.7%	23	46.9%	6	12.2%	3	6.1%	49	100.0%
경북	6	8.3%	44	61.1%	18	25.0%	4	5.6%	72	100.0%
경남	37	45.7%	29	35.8%	15	18.5%	0	.0%	81	100.0%
제주	0	.0%	9	60.0%	4	26.7%	2	13.3%	15	100.0%
합계	478	33.7%	516	36.3%	289	20.4%	137	9.6%	1420	100.0%

<표 226> 16개 시도의 듣기 영역 등급 분포



<그림 80> 듣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다음으로, 말하기 영역의 16개 시도별 등급 분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19	6.1%	108	34.4%	145	46.2%	42	13.4%	314	100.0%
부산	2	2.1%	25	26.0%	53	55.2%	16	16.7%	96	100.0%
대구	0	0.0%	34	50.0%	24	35.3%	10	14.7%	68	100.0%
인천	2	2.4%	48	57.1%	25	29.8%	9	10.7%	84	100.0%
광주	1	2.5%	14	35.0%	25	62.5%	0	0.0%	40	100.0%
대전	0	0.0%	16	34.8%	28	60.9%	2	4.3%	46	100.0%
울산	0	0.0%	4	14.8%	13	48.1%	10	37.0%	27	100.0%
경기	10	2.9%	93	26.8%	177	51.0%	67	19.3%	347	100.0%
강원	0	0.0%	9	20.9%	30	69.8%	4	9.3%	43	100.0%
충북	2	4.9%	20	48.8%	16	39.0%	3	7.3%	41	100.0%
충남	1	1.8%	18	32.1%	30	53.6%	7	12.5%	56	100.0%
전북	1	2.3%	13	30.2%	26	60.5%	3	7.0%	43	100.0%
전남	0	0.0%	24	49.0%	20	40.8%	5	10.2%	49	100.0%
경북	1	1.4%	9	12.3%	44	60.3%	19	26.0%	73	100.0%
경남	0	0.0%	34	42.0%	37	45.7%	10	12.3%	81	100.0%
제주	0	0.0%	4	26.7%	10	66.7%	1	6.7%	15	100.0%
합계	39	2.7%	473	33.2%	703	49.4%	208	14.6%	1423	100.0%

<표 227> 16개 시도의 말하기 영역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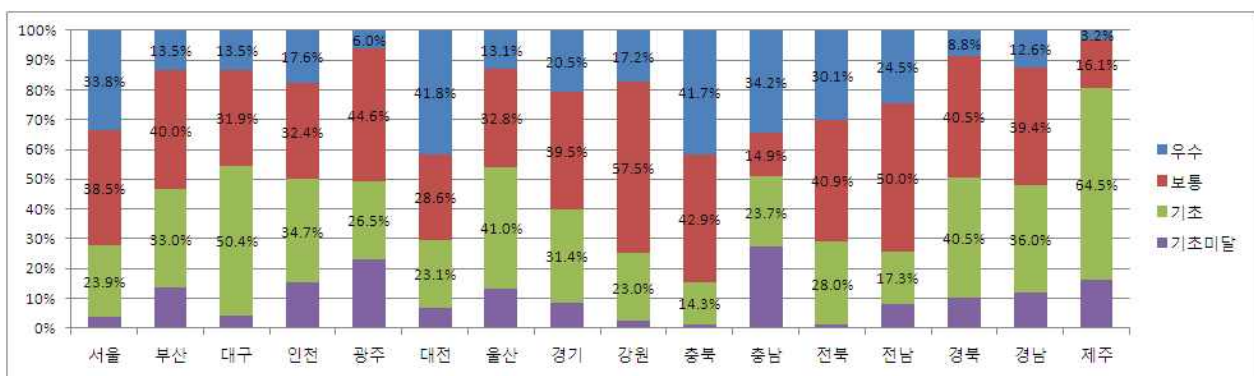
<그림 81> 말하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다음으로, 읽기 영역의 16개 시도별 등급 분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212	33.8%	242	38.5%	150	23.9%	24	3.8%	628	100.0%
부산	27	13.5%	80	40.0%	66	33.0%	27	13.5%	200	100.0%
대구	19	13.5%	45	31.9%	71	50.4%	6	4.3%	141	100.0%
인천	30	17.6%	55	32.4%	59	34.7%	26	15.3%	170	100.0%
광주	5	6.0%	37	44.6%	22	26.5%	19	22.9%	83	100.0%
대전	38	41.8%	26	28.6%	21	23.1%	6	6.6%	91	100.0%
울산	8	13.1%	20	32.8%	25	41.0%	8	13.1%	61	100.0%
경기	146	20.5%	281	39.5%	223	31.4%	61	8.6%	711	100.0%
강원	15	17.2%	50	57.5%	20	23.0%	2	2.3%	87	100.0%
충북	35	41.7%	36	42.9%	12	14.3%	1	1.2%	84	100.0%
충남	39	34.2%	17	14.9%	27	23.7%	31	27.2%	114	100.0%
전북	28	30.1%	38	40.9%	26	28.0%	1	1.1%	93	100.0%
전남	24	24.5%	49	50.0%	17	17.3%	8	8.2%	98	100.0%
경북	13	8.8%	60	40.5%	60	40.5%	15	10.1%	148	100.0%
경남	22	12.6%	69	39.4%	63	36.0%	21	12.0%	175	100.0%
제주	1	3.2%	5	16.1%	20	64.5%	5	16.1%	31	100.0%
합계	662	22.7%	1110	38.1%	882	30.3%	261	9.0%	2915	100.0%

<표 228> 16개 시도의 읽기 영역 등급 분포



<그림 82> 읽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다음으로, 쓰기 영역의 16개 시도별 등급 분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22	7.0%	77	24.4%	168	53.3%	48	15.2%	315	100.0%
부산	0	0.0%	18	17.0%	74	69.8%	14	13.2%	106	100.0%
대구	0	0.0%	6	8.1%	56	75.7%	12	16.2%	74	100.0%
인천	5	5.7%	27	31.0%	45	51.7%	10	11.5%	87	100.0%
광주	0	0.0%	9	20.5%	23	52.3%	12	27.3%	44	100.0%
대전	3	6.5%	18	39.1%	23	50.0%	2	4.3%	46	100.0%
울산	0	0.0%	4	11.4%	18	51.4%	13	37.1%	35	100.0%
경기	10	2.7%	81	22.3%	185	50.8%	88	24.2%	364	100.0%
강원	0	0.0%	13	30.2%	23	53.5%	7	16.3%	43	100.0%
충북	5	11.4%	17	38.6%	20	45.5%	2	4.5%	44	100.0%
충남	4	6.8%	32	54.2%	22	37.3%	1	1.7%	59	100.0%
전북	1	2.0%	4	8.0%	31	62.0%	14	28.0%	50	100.0%
전남	1	2.0%	11	22.4%	31	63.3%	6	12.2%	49	100.0%
경북	0	0.0%	9	11.8%	43	56.6%	24	31.6%	76	100.0%
경남	2	2.1%	15	15.8%	56	58.9%	22	23.2%	95	100.0%
제주	1	5.9%	1	5.9%	12	70.6%	3	17.6%	17	100.0%
합계	54	3.6%	342	22.7%	830	55.2%	278	18.5%	1504	100.0%

<표 229> 16개 시도의 쓰기 영역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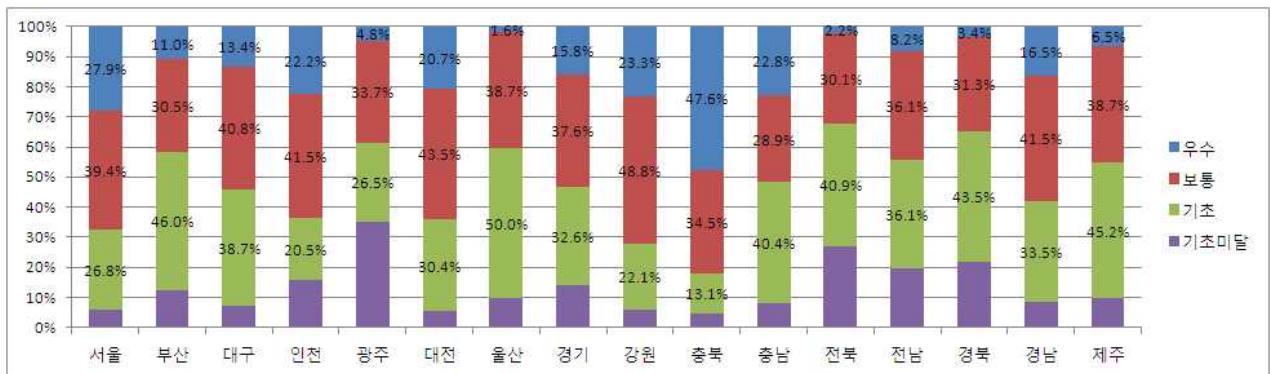


<그림 83> 쓰기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끝으로, 문법 영역의 16개 시도별 등급 분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합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176	27.9%	248	39.4%	169	26.8%	37	5.9%	630	100.0%
부산	22	11.0%	61	30.5%	92	46.0%	25	12.5%	200	100.0%
대구	19	13.4%	58	40.8%	55	38.7%	10	7.0%	142	100.0%
인천	38	22.2%	71	41.5%	35	20.5%	27	15.8%	171	100.0%
광주	4	4.8%	28	33.7%	22	26.5%	29	34.9%	83	100.0%
대전	19	20.7%	40	43.5%	28	30.4%	5	5.4%	92	100.0%
울산	1	1.6%	24	38.7%	31	50.0%	6	9.7%	62	100.0%
경기	112	15.8%	267	37.6%	232	32.6%	100	14.1%	711	100.0%
강원	20	23.3%	42	48.8%	19	22.1%	5	5.8%	86	100.0%
충북	40	47.6%	29	34.5%	11	13.1%	4	4.8%	84	100.0%
충남	26	22.8%	33	28.9%	46	40.4%	9	7.9%	114	100.0%
전북	2	2.2%	28	30.1%	38	40.9%	25	26.9%	93	100.0%
전남	8	8.2%	35	36.1%	35	36.1%	19	19.6%	97	100.0%
경북	5	3.4%	46	31.3%	64	43.5%	32	21.8%	147	100.0%
경남	29	16.5%	73	41.5%	59	33.5%	15	8.5%	176	100.0%
제주	2	6.5%	12	38.7%	14	45.2%	3	9.7%	31	100.0%
합계	523	17.9%	1095	37.5%	950	32.5%	351	12.0%	2919	100.0%

<표 230> 16개 시도의 문법 영역 등급 분포



<그림 84> 문법 영역의 시도별 성취 수준 비율



연구 책임자 : 김종철(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현정(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희창(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봉순(공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재현(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재우(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선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 이관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지수(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은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정재미(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사 과정)  
 조사 수행 : TNS Korea  
 담당 연구원 :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 연구관)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3년 12월 20일
발행일	2013년 12월 20일
인쇄	가람 문화사